2014년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융·복합 시대의 패션

등 록 09:30~10:00

개회 및 정기총회 10:00~10:30

사회 : 신상무 숭실대학교 교수

주제강연 I 10:30~11:30

■ 패션비즈니스 융합의 시작 – Footwear

발표자 : 전진홍 'JEIOS' 대표

포스터 학술발표 11:30-12:00

진행 : 김지영 충북대학교 교수

중 식 12:00-13:00

주제강연 II 13:00~14:00

사회 : 차수정 우송대학교 교수

■ Fashionoid: New Fashioning Technology in ICT Age
패셔노이드 : 정보통신 시대의 새로운 패션 테크놀러지

발표자 : 김주용 숭실대학교 교수

휴 식 14:00~14:30

구두 학술발표 **14:30-15:30**

Session 1 (한마음홀) 좌장 : 이승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고려시대 채색법과 색의 상징을 통한 미용법 연구
-하연부인상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방기정 대전대학교
토론자 : 이귀영 신안산대학교

◇ 네오프렌(Neoprene)소재로 구성된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Flex sensor및 아두이노를 장착한 보조밴드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이은아* · 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토론자 : 차수정 우송대학교

◇ 인터랙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빛의 의미와 효과연구
- 패션에서 변화하는 빛이 갖는 상징성 -

발표자 : 권은경 계원예술대학교
토론자 : 김성희 우석대학교

Session 2 (지혜실) 좌장 : 신세영 서경대학교 교수

◇ 한국과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복 컬러 비교분석
- 2013-14 F/W 서울과 다롄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정지원* · 백정현 · 위안씬이 · 배수정 전남대학교
토론자 : 안현경 동남보건대대학교

◇ 중국 귀주성 뢰산현 짧은치마 묘족과 긴치마 묘족의 복식연구

발표자 : 김미선* · 손희순 숙명여자대학교 장순애 동화대학교
토론자 : 박유신 서일대학교

◇ 양가적(Ambivalent) 요소들의 결합을 통한 패션 디자인 연구
-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계급과 부르주아주(bourgeois) 계급의 대비를 시작으로-

발표자 : 차하나* · 간호섭 홍익대학교
토론자 : 김혜정 한경대학교

학술발표우수상 시상 및 폐회 **15:30 -16:00**

진행 : 장은영 동서울대학교 교수

목　　차

포스터 학술발표

- 복식사 · 복식미학

- 패션마케팅 · 의상사회심리

- 패션디자인

- 의복구성

- 의류소재

- 뷰티(헤어 · 메이크업 · 기타)

회장인사

배 수 정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교수

회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한 4월 26일 토요일에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션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학문 및 산업 전반에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번 춘계학술대회는 융·복합 시대의 패션비즈니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제를 '융·복합 시대의 패션' 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제에 맞게 기능성 신발 브랜드의 대표이신 JEIOS의 전진홍 대표님의 '패션비즈니스 융합의 시작-Footwear'에 대한 주제 강연과 더불어 숭실대학교 김주용 교수님의 '패셔노이드: 정보통신 시대의 새로운 패션 테크놀러지'라는 강연이 각각 있을 예정이어서 회원 여러분의 융·복합 시대의 패션비즈니스 및 교육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60 여 편의 연구논문이 포스터 및 구두로 발표되어 산업과 학술의 융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난 2013년 추계학술대회에 이어서 산업과 학문과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회장님의 배려로 형지어패럴 본사 사옥에서 개최됩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 춘계학술대회에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주제강연 Ⅰ

패션비즈니스 융합의 시작
Footwear

4월 2014년

전진홍
JEIOS Korea (JWellness)

내 용

1.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2.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3. 웨어러블 이슈와 제조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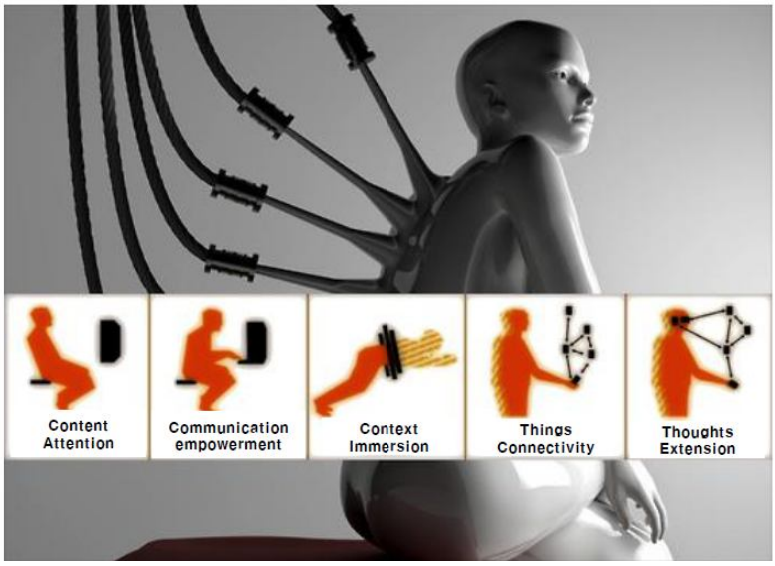
4. Footwear,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1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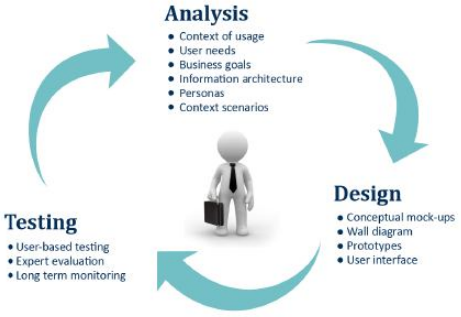
사물인터넷, 사물지능통신
Internet of Things (IoT)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무엇이 융합의 중점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사용자 / 고객 :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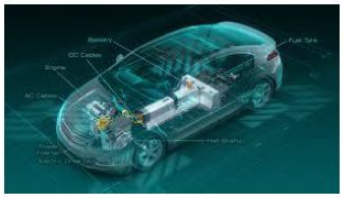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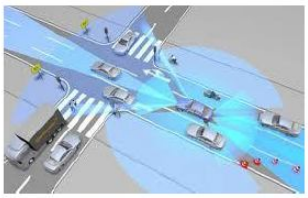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미래 사회?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미래 자동차?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스마트 옷?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인텔리전트 슈즈?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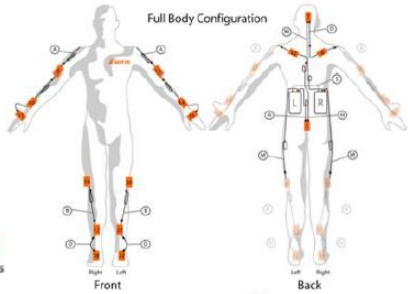
구현 기술??


Using an Arduino microcontroller, designer Blake Bevin has already created a prototype version of a self-lying shoe, pictured. When a person steps into the shoe, a force sensor reads the pressure of their foot and activates two servo motors, which apply tension to the laces, tightening the laces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구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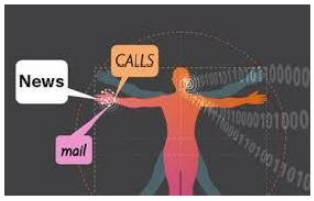
(a)



(b)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기술과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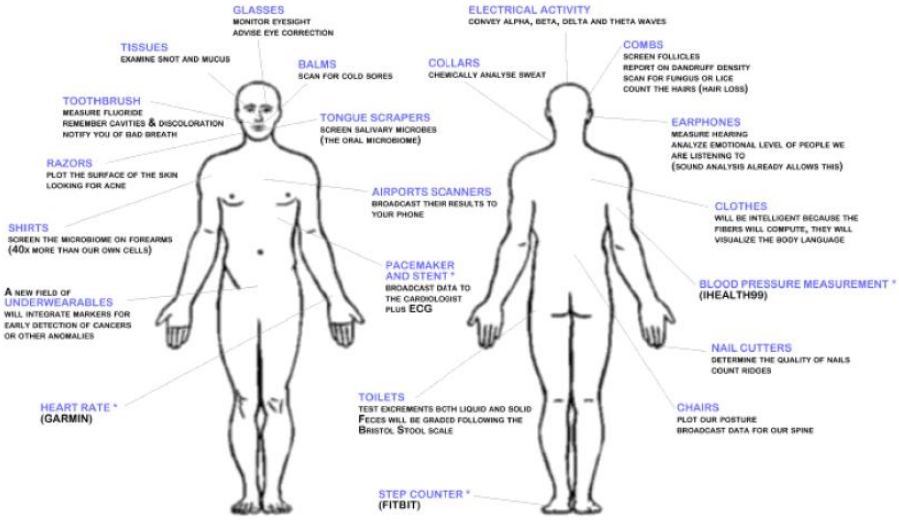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국방영역

인간, 융합의 중점 대상

헬스케어 영역

HIT – HEALTH INTERNET OF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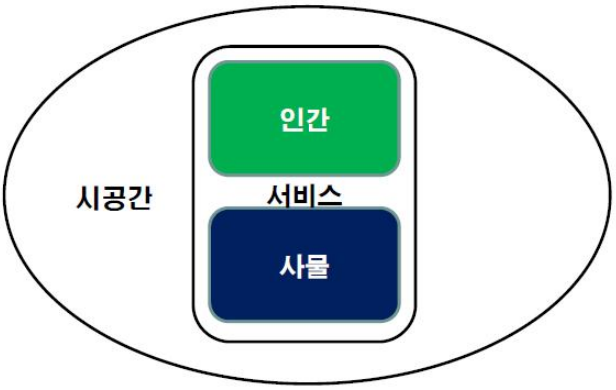
2

인간, 사물 인터넷 시대의 중심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의 개념

- 인간과 사물 사이에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과 사물 그리고 서비스간 데이터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연결망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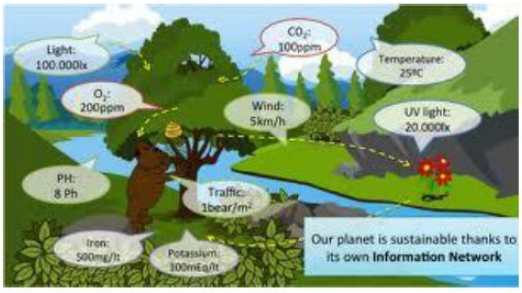
- IoT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물은 유무선 네트워크에서의 end-device 뿐만 아니라,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등이 포함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 IoT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물은 유무선 네트워크에서의 end-device 뿐만 아니라,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등이 포함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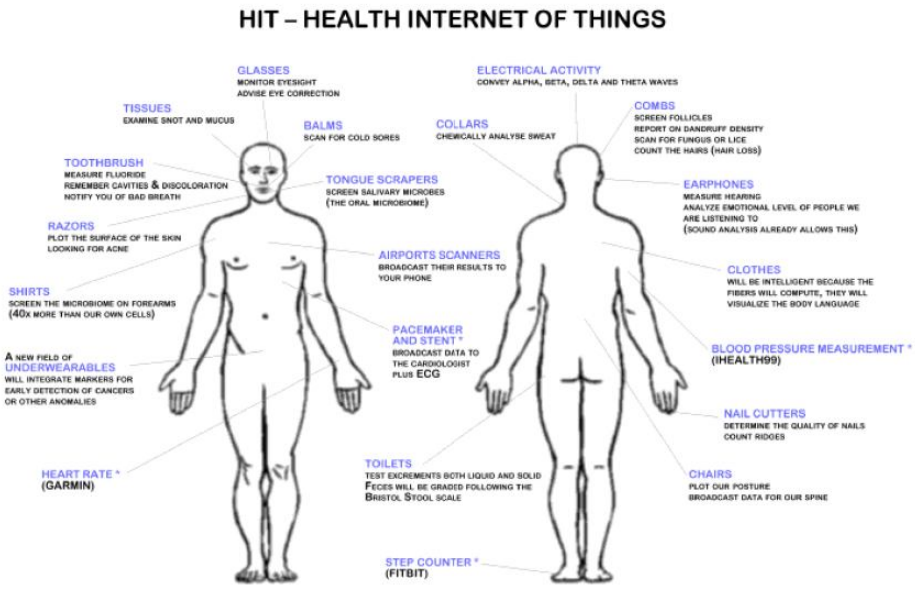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Google Glass

fitbit

Samsung Bracelet (S-band next version)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인간,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

인텔리전트 신발과
뇌졸중 환자

'Intelligent' shoe helps stroke sufferers get back on feet

AN 'INTELLIGENT' shoe could help improve a stroke survivor's walking, aiding independence and preventing the likelihood of falls, according to research.

The SMART 2 Personalised Self-Management Rehabilitation System uses a set of sensors to capture motion while stroke survivors practise vital rehabilitation exercises – instantly relaying feedback on how fast they are walking, distance travelled, steps taken and whether there is equal weight distribution in their step and balance.

Researcher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s Collaboration for Leadership in Applied Health Research and Care (NIHR CLAHRC) for South Yorkshire, hosted by Sheffield Teaching NHS Foundation Trust, have incorporated a hi-tech set of WalkitNSense insoles developed by local Sheffield company Tomorrow Options into a computer-based personalised self-management rehabilitation system.

The system could transform stroke recovery by enabling patients to self-manage their ongoing rehabilitation in the comfort of their homes.
Studies highlight that fall rates can be as high as 50% in stroke survivors, with between 14 and 39% of sufferers experiencing one or more falls during their hospital stay. Approximately three-quarters of these will fall in the six months following hospital discharge.

The pioneering research is being led by Professor Sue Mawson, Professor of Health Service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It is to be tested with patients at home and in a rehabilitation setting, thank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IHR CLAHRC Yorkshire and Humber, a new £10 million government-funded initiative aimed at tackling some of the region's most pressing health problems in the region.

Dr Jack Parker, a research physiotherapist working on the SMART 2 project, said: "Stroke recovery through rehabilitation is really critical as the damage caused to the brain through strokes can have a massive impact on so many aspects of a patient's life and well-being.

"This new device could represent a massive advancement in stroke recovery care as it makes it much easier for patients to continue with all-important rehabilitation exercises and for physiotherapists to track a patient's progress, preventing falls and motivating patients to regain independence. The feedback generated from the computer-based technology is much more sophisticated, too, and provides more accurate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where weakness in balance and step lie. This can only be a good thing for the patient.

"Another advantage is stroke survivors are often less confident to carry on with their rehab at home and current paper-based exercises easily get misplaid, damaged or forgotten about so really hopeful that this easy-to-use system, with clear goals and objectives tailored to patients' needs, should inspire them back on their feet."

The computer-based technology detects the two most common physical

3

웨어러블 이슈와 제조4.0

웨어러블 이슈와 제조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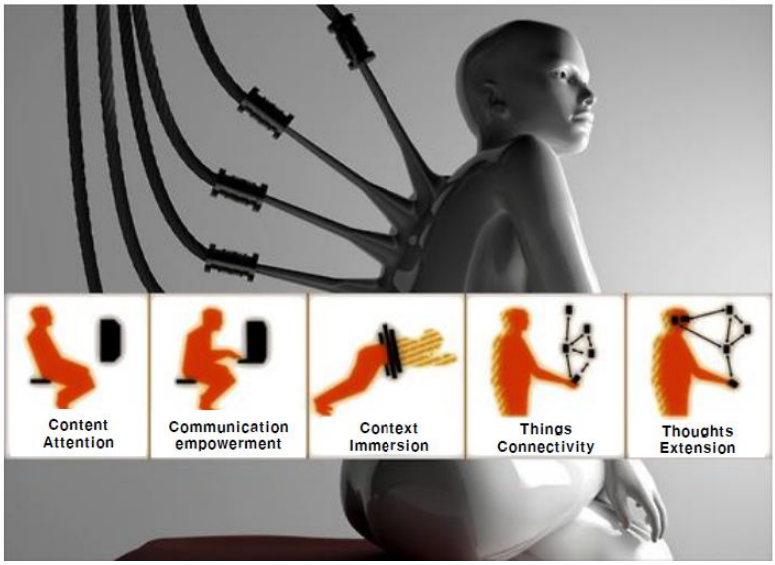
웨어러블 이슈와 제조4.0

Solution Provider	기존 제조업 성장전략	제조 4.0
이종 산업간 수평적 협업	수직 계열화를 통한 팽창	동종/이종 산업간 협업

4

Footwear,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Footwear,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Footwear,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데이터에서 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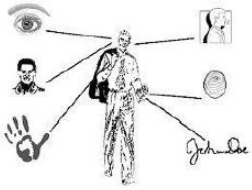
- 생체정보 취득
- 생체정보 해석
- 생체정보 비교
- 생체정보 예측

개인 데이터

그룹 데이터
Gender, Ethnic, Age,
Normal & Abnormal

출처) 중앙일보 2010.05.18

Footwear,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생체정보의 이해



생체인식 (보안)
물리적 생체 정보

건강관리
생리화학적 정보

Footwear,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기존 물리적 생체정보

- Joint Kinematics : 몸, 팔다리 움직임 측정
- Joint Kinetics : 근력 측정
- Pressure Profile : 체압 분포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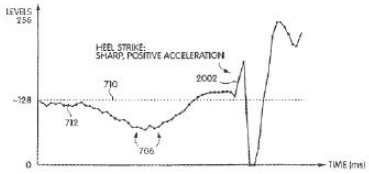
목적 : 일회성, 연구용
공급가 : 1억4천~10억원

Footwear,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기존 Smart Footwear

LBS : Location Based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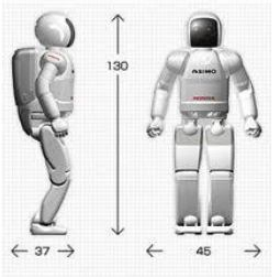
Footwear속에 내장된 GPS 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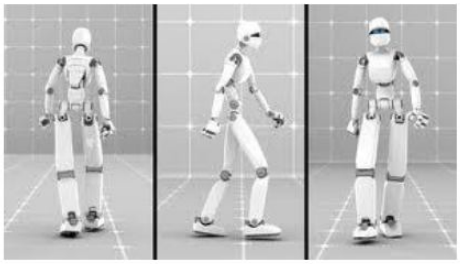
Wearable Sensing Platforms : 의복과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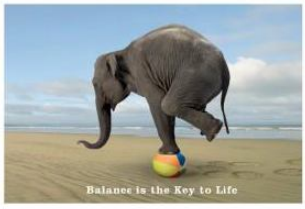
NIKE사의 보행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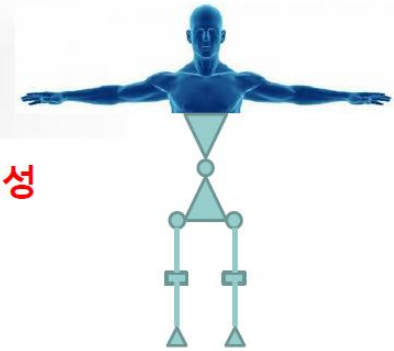
Gait, Walking Pattern





균형 (Balance),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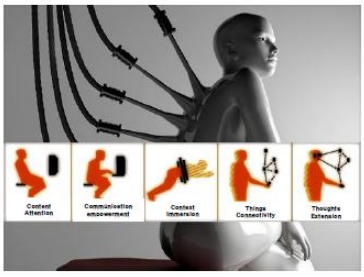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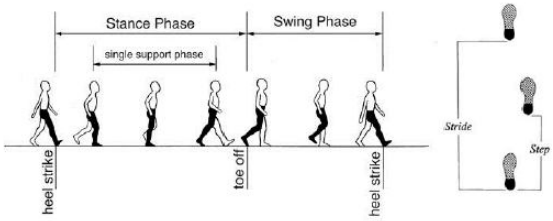
인간의 고유 특성

직립 보행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Footwear



보행패턴 정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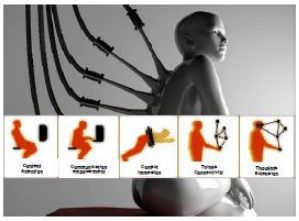
- 체간(몸통)과 골반 그리고 양 다리 간 조화된 동작이 최소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신체의 무게중심을 완만하게 이동시키는 행위
- 양 하지 각각의 입각기(발이 땅에 닿아있는 시기)와 유각기(발이 땅에서 떠있는 시기)를 서로 교차시켜서 신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행위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Footwear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패턴들

동적
(Dynamic)
데이터

걷기



정적
(Static)
데이터

정적
(Static)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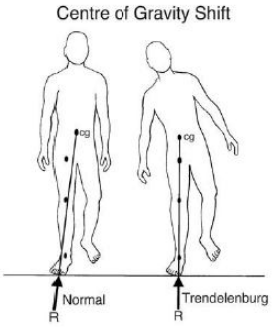
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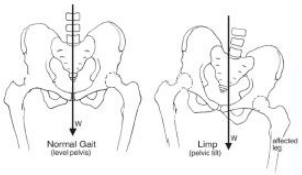
앉기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Footwear

정상 보행은 효과적 하중 배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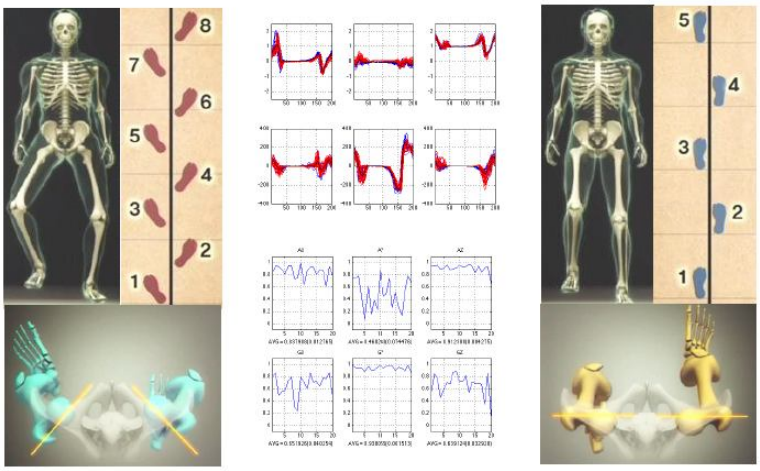
Symmetrical Weight Distribution





인간과 사물 융합의 시작 : Footwear

올바른 보행 패턴
力學的 사슬: **척추**-골반-무릎-발-**척추**



응용 : 3차원 보행검사기

기존 3차원 보행검사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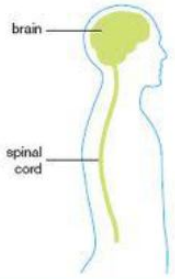
기존 검사와 Smart Balance™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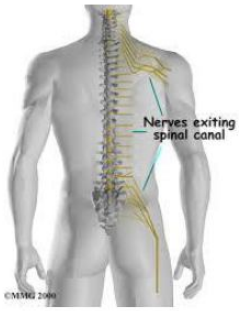
기존 3차원 보행 검사 (소수의 전문병원/대학병원)	VS	SMARTBALANCE
적외선 카메라 방식 (Iindirectly Calculated)	**측정방법**	3차원 관성센서 방식 (Directly Measured)
15평 이상	**설치공간**	1평 미만
수 시간	**측정시간**	수 분
수 시간 – 수 일	**후처리 시간**	필요없음
2명 이상 전문요원 필요	**전문 운영요원**	필요없음
고난도의 해석기법 필요	**분석**	쉽고 직관적
거의 불가능	**상담의 질**	빠른 피드백
카메라 및 하드웨어 기반	**중점기술**	소프트웨어 기반
$ 400,000 ~ 1,000,000	**도입비용**	기존 공급가의 1/10 미만

인간 움직임의 중추

신경계

근골격계





The weight of brain at 6 - 12 years
→ 90 - 95% of Adult

I. 중추신경계(CNS): 뇌 & 척수

II. 말초신경계(P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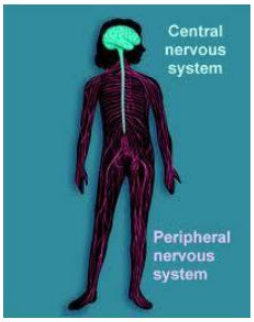
1) 체성신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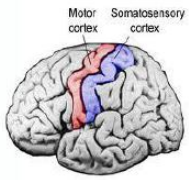
-뇌 : 12쌍 (오감과 안면근육, 혀근육)

-척수: 좌우 31쌍 (수의적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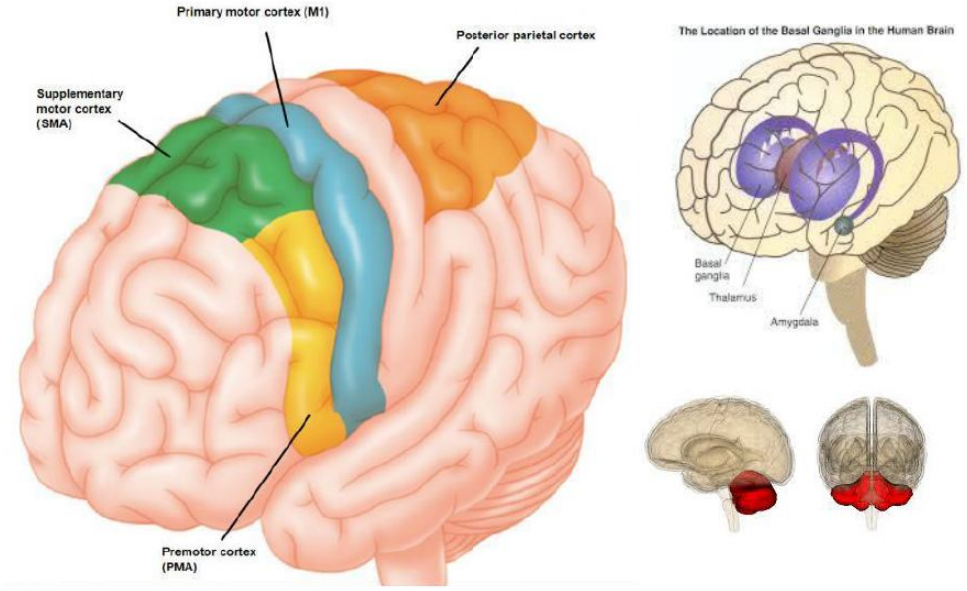
2) 자율신경계 (의식과 관계없음)

-교감 & 부교감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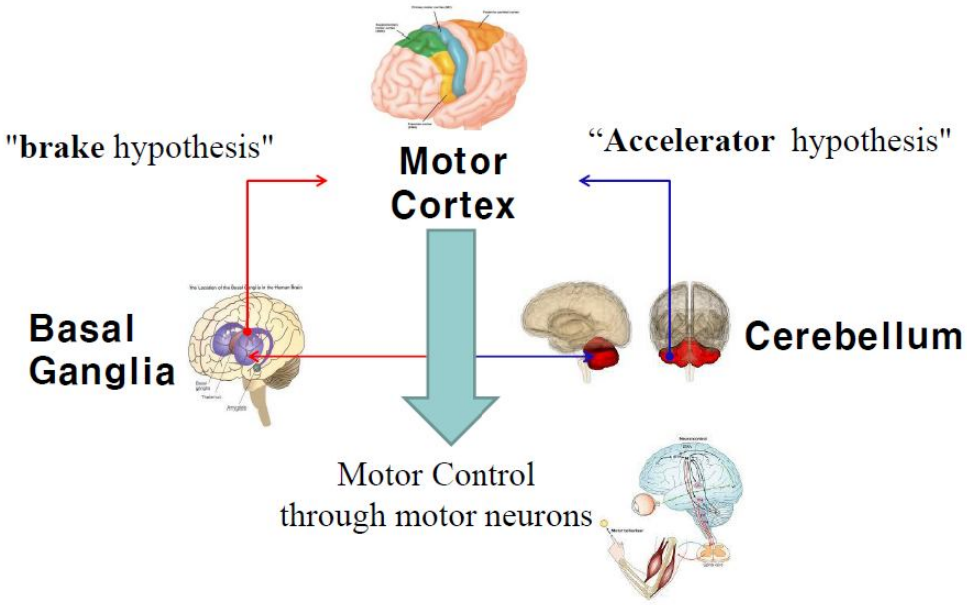




인간움직임의 사령부 : Motor Cortex, Basal Ganglia, Cerebell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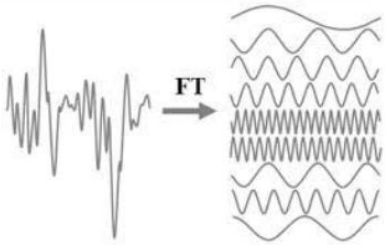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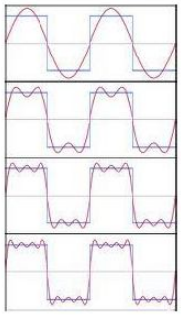
인간 움직임의 제어



물리적 생체정보의 해석

Neuroscience Approach





$$\int_{-L}^{L} \sin\frac{n\pi x}{L}\,dx = \frac{L}{n\pi}\left[-\cos\frac{n\pi x}{L}\right]_{-L}^{L} = \frac{L}{n\pi}[(-\cos n\pi)-[-\cos(-n\pi)]]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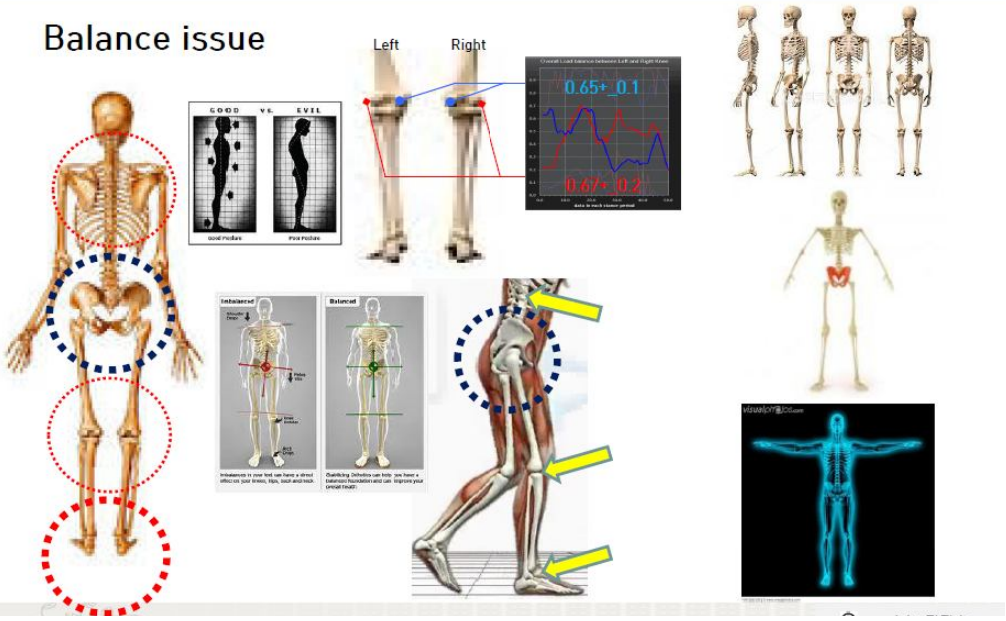
$$\int_{-L}^{L} \cos\frac{n\pi x}{L}\,dx = \frac{L}{n\pi}\left[\sin\frac{n\pi x}{L}\right]_{-L}^{L} = \frac{L}{n\pi}[(\sin n\pi)-[\sin(-n\pi)]] = 0$$

아무리 복잡한 신호처럼 보이더라도 가장 단순한 신호간의 결합으로 묘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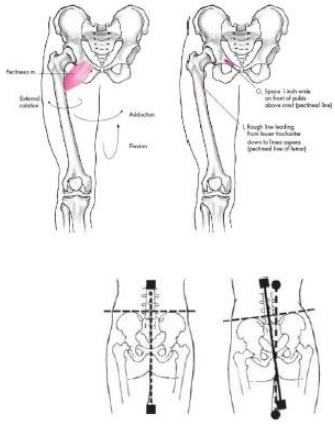
Similarity to human motor learning an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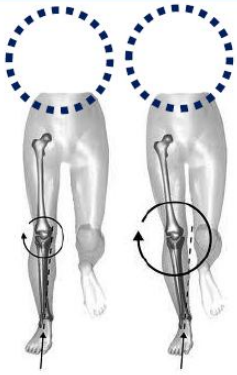
물리적 생체정보의 적용
Fall Prevention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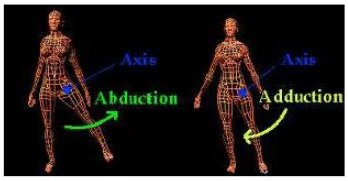
Balance issue



물리적 생체정보의 적용
Fall Prevention Approach







물리적 생체정보의 취득
Wearable Sensor Platforms (의복 타입)

Onsite Monitoring Technology

Warning for harmful condition of movements

Evaluation for Dynamic Body Balance

Electronic poomsae evaluation : secondary support tool for the examiners

약 력

전 진 홍

◦ 제이어스 한국지사, 제이웰니스 대표
◦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겸임교수
(2014년 2학기부터)
◦ 중소기업청 의료바이오 / 복지 / 재활 과제 심사위원
◦ 前 우리들병원그룹 웰니스사업부 이사
◦ 前 우리들병원 생체역학 연구리더
◦ 前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원
◦ 前 대우자동차 연구원
◦ 박사: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전공분야
- 생체역학 시스템의 신경제어 - 행동발달 / 학습제어
◦ 석사/학사: 한국항공대학교 전공분야 - 항공기 자동제어

주제강연 II

Fashionoid:

Fashioning Technology in ICT Age

Jooyong Kim, Ph. D.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irector, Fashionoid Research Center
www.fashionoid.or.kr
jykim@ssu.ac.kr

FASHIONOID
Fashion + Human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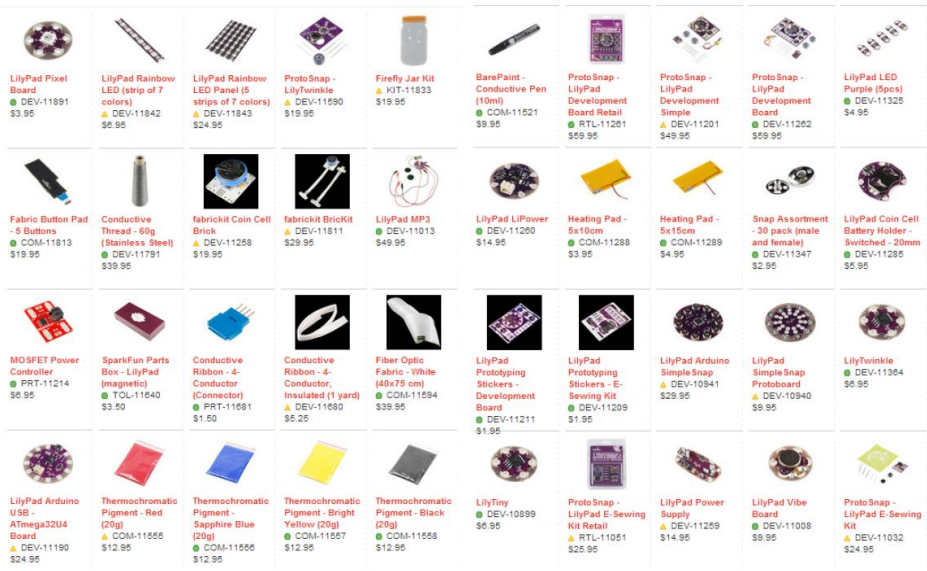
KEY WORDS

Textile Electronics Wearable Technology
Creative Convergence Collaboration
Open Source Public Lab Warm Tech
Craft Easy Funny Just Do It Crossover
Product Design Art & Design Popular
Specialist & Generalist Framewo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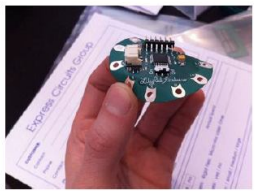
INSPI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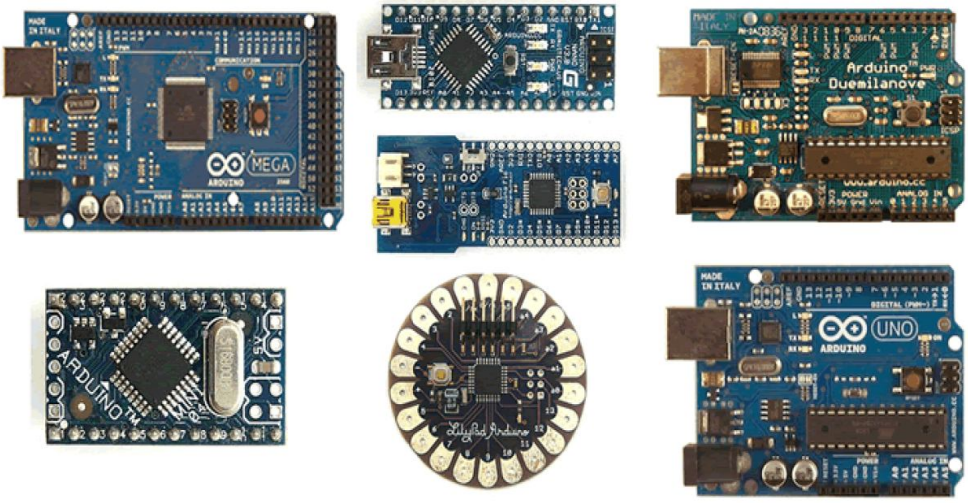

MIT MEDIA LAB
CityFarm
SCALABLE AGRICULTURE FOR URBAN AREAS
inFORM
INTERACTING WITH A DYNAMIC SHAPE DISPLAY
CONGRATULATIONS
2014 TED FELLOW
PHD STUDENT DAVID SENGEH
Media Arts & Sciences

SPARKFUN


LilyPad Pixel Board DEV-11891 $3.95
LilyPad Rainbow LED (strip of 7 colors) DEV-11842 $6.95
LilyPad Rainbow LED Panel (5 strips of 7 colors) DEV-11843 $24.95
ProtoSnap - LilyTwinkle DEV-11590 $19.95
Firefly Jar Kit KIT-11833 $19.95
BarePaint - Conductive Pen (10ml) COM-11521 $9.95
ProtoSnap - LilyPad Development Board Retail RTL-11261 $59.95
ProtoSnap - LilyPad Development Simple DEV-11201 $49.95
ProtoSnap - LilyPad Development Board DEV-11262 $59.95
LilyPad LED Purple (5pcs) DEV-11325 $4.95
Fabric Button Pad - 5 Buttons COM-11813 $19.95
Conductive Thread - 60g (Stainless Steel) DEV-11791 $39.95
fabrickit Coin Cell Brick DEV-11258 $19.95
fabrickit BricKit DEV-11811 $29.95
LilyPad MP3 DEV-11013 $49.95
LilyPad LiPower DEV-11260 $14.95
Heating Pad - 5x10cm COM-11288 $3.95
Heating Pad - 5x15cm COM-11289 $4.95
Snap Assortment - 30 pack (male and female) DEV-11347 $2.95
LilyPad Coin Cell Battery Holder - Switched - 20mm DEV-11285 $5.95
MOSFET Power Controller PRT-11214 $6.95
SparkFun Parts Box - LilyPad (magnetic) TOL-11640 $3.50
Conductive Ribbon - 4-Conductor (Connector) PRT-11681 $1.50
Conductive Ribbon - 4-Conductor, Insulated (1 yard) DEV-11680 $5.25
Fiber Optic Fabric - White (40x75 cm) COM-11594 $39.95
LilyPad Prototyping Stickers - Development Board DEV-11211 $1.95
LilyPad Prototyping Stickers - E-Sewing Kit DEV-11209 $1.95
LilyPad Arduino SimpleSnap DEV-10941 $29.95
LilyPad SimpleSnap Protoboard DEV-10940 $9.95
LilyTwinkle DEV-11364 $6.95
LilyPad Arduino USB - ATmega32U4 Board DEV-11190 $24.95
Thermochromatic Pigment - Red (20g) COM-11555 $12.95
Thermochromatic Pigment - Sapphire Blue (20g) COM-11556 $12.95
Thermochromatic Pigment - Bright Yellow (20g) COM-11557 $12.95
Thermochromatic Pigment - Black (20g) COM-11558 $12.95
LilyTiny DEV-10899 $6.95
ProtoSnap - LilyPad E-Sewing Kit Retail RTL-11051 $25.95
LilyPad Power Supply DEV-11259 $14.95
LilyPad Vibe Board DEV-11008 $9.95
ProtoSnap - LilyPad E-Sewing Kit DEV-11032 $24.95

MICROCONTROLLER





The Things That a Microprocessor Can Do

KOBAK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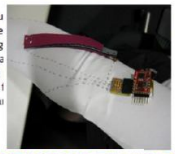
AMPLIFIED PILLOW SPEAKER

An embroidered fabric spe
pillow. Inside the pillow ar
hacked from a commercial
connect your mp3 player t
favorite music. While the
as loud as commercial spe
comfortably lay your head

FABRIC JOYPAD

This joypad is made u
pressure sensors. The
the directions (up, rig
from the buffering ma
thick squishy packing
spreads the pressure t
creating a gradual tra

SENSOR SLEEVE



Using the Sparkfun uLog module to log three channels of data and then read it out and graph it in Processing.

TILT SENSING BRACELET

Combining beads and ol
with textiles to create t
bracelet decorated with
petals and a row of bea
the end, makes for a sli
detection. It is also des
bead will make contact

TOUCH SENSITIVE GLOVE

When conductive
knit/crochet pie
sensitive. This c
sensor or bend s

DRESSCODE EXAMPLES

A series of lasercut felt designs that can host customized version of DressCode motion or sound circuits. DressCode circuits come in two variants: (1) A simple motion version that uses beaded tilt sensor to trigger LED lights to turn on and off with movement of a metal bead over patches embroidered with conductive thread. (2) [...]

DIY ARDUINO DATA GLOVES

Sew your own pair of Dat
bend sensors for finger g
recognition, an ArduMi
orientation and accelera
visual feedback, and a v
feedback. You'll find the
materials&parts lists an
making a pair of DIY Dat

TRAFOPOP LED JACKET

This jacket wa
Your Own LED
Germany. Tha
Hintz for a w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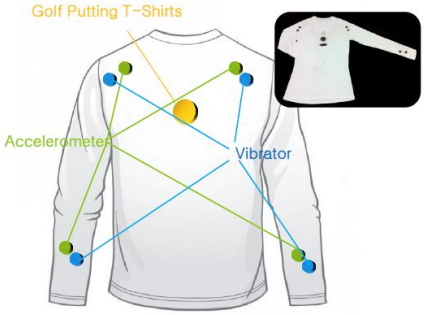
SOLAR T-SHIRT II

Here is the second version of Solar T-Shirt with components directly sewn on with conductive thread. It is also using slightly different circuit than the other solar t-shirt. The new schematic is the following. Please not that it is using FLED (Blinking LED) instead of diode on other one. In this example I used 2N3906 [...]

Golf Putting T-Shirts

Putting Teacher

PUTTING SHIRT



Accelerometer

: Sensors that you can get motion information by using the principle such as inertia, gyro and geomagnetic

ADXL3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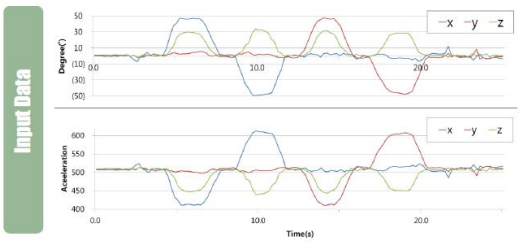
: Providing a acceleration measuring system through monolithic IC c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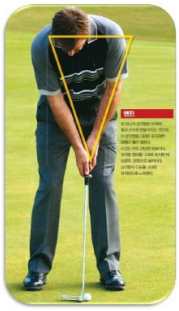
Putting mechanism in a go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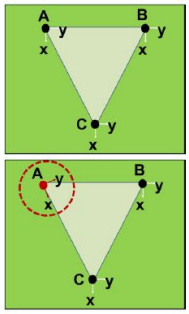
: Keeping triangle formed by the wrist and both shoulders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a putting motion. By keeping this triangle, we ware trying to make a system that can be leaned putting motions.

Detecting a incorrect motion principle

: If one of three angles away from the original, we can know by comparing the data obtained from each sen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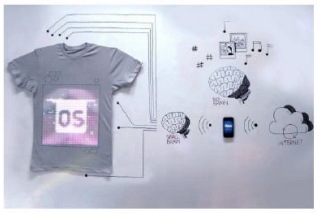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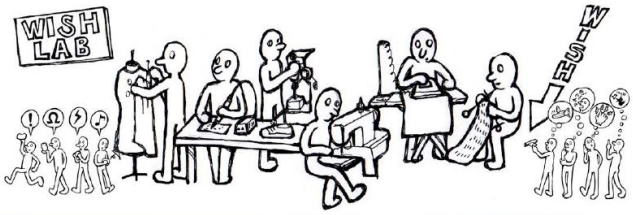
LORM GLOVE

HAIR BAND for SONG WRTITING

SOFT ELECTRONICS PROTOTY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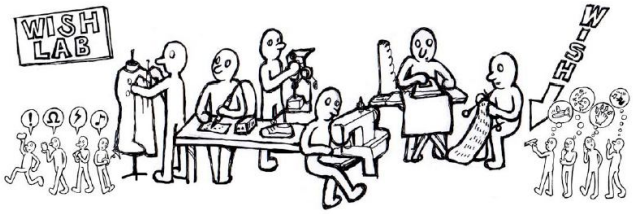
WISH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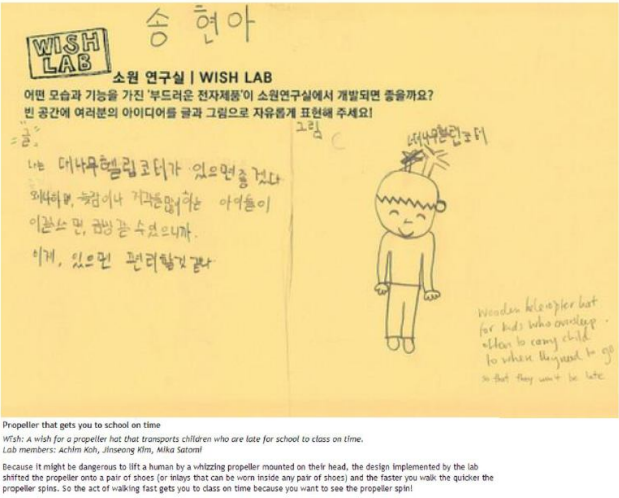


Wish: An umbrella that makes sound when it rains.
Lab members: Unice Lee, Hannah Perner-Wi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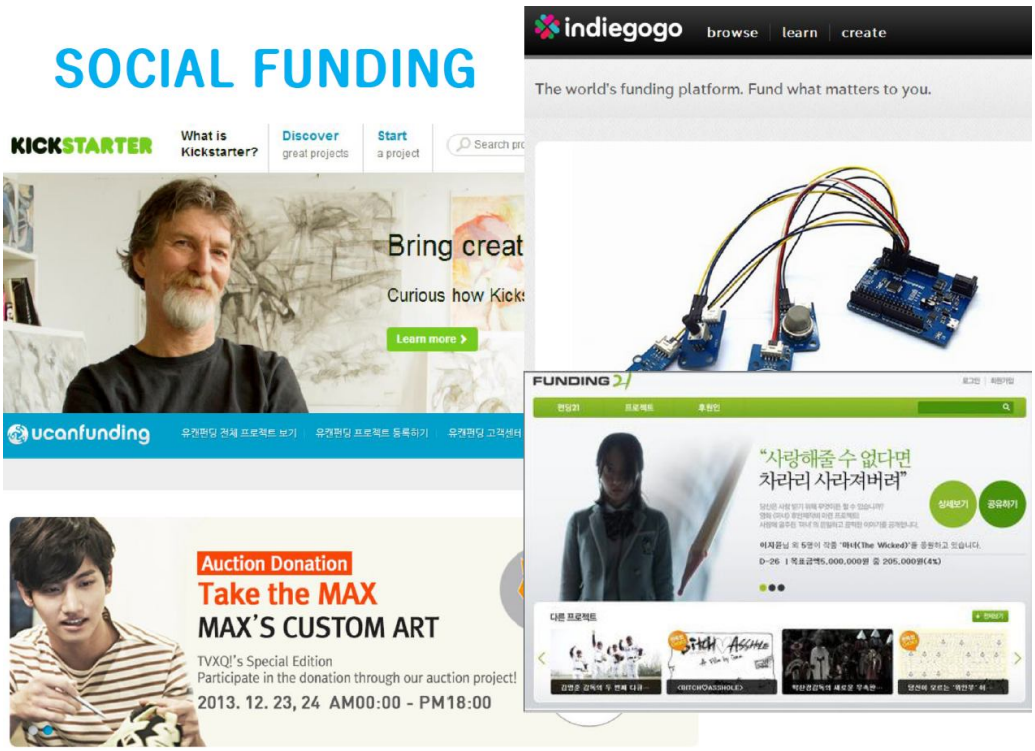
When it rains the embroidered circuitry on the umbrella detects the moisture and plays notes from speakers mounted on the umbrella's surface. Colorful lights on the edge of the umbrella light up in tune with the notes to add a visual experience. With this umbrella even the most rainy days can be enjoyable.

WISH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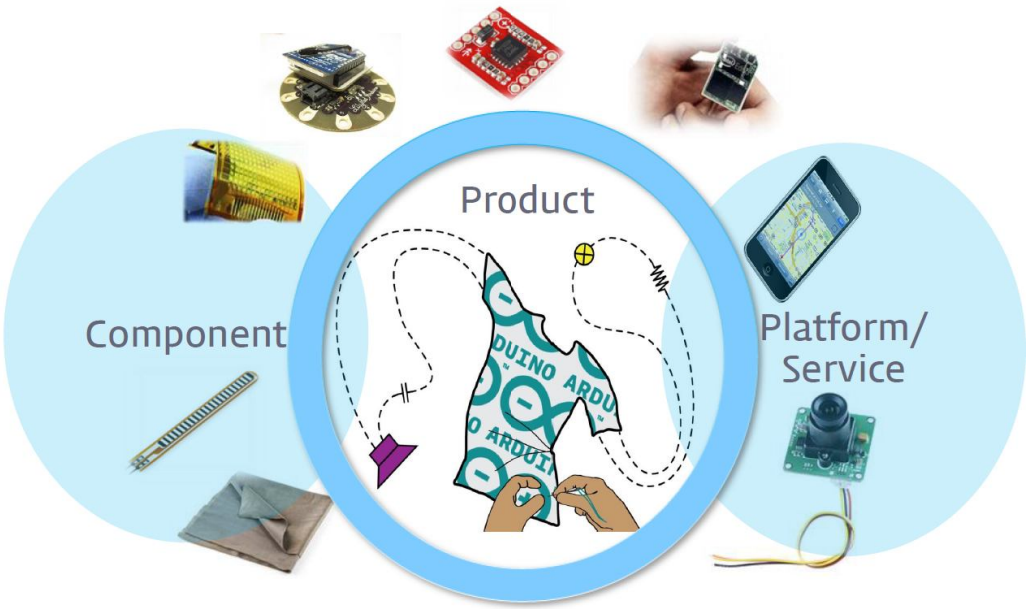


SOCIAL FUNDING



Wearable Device & e-Textiles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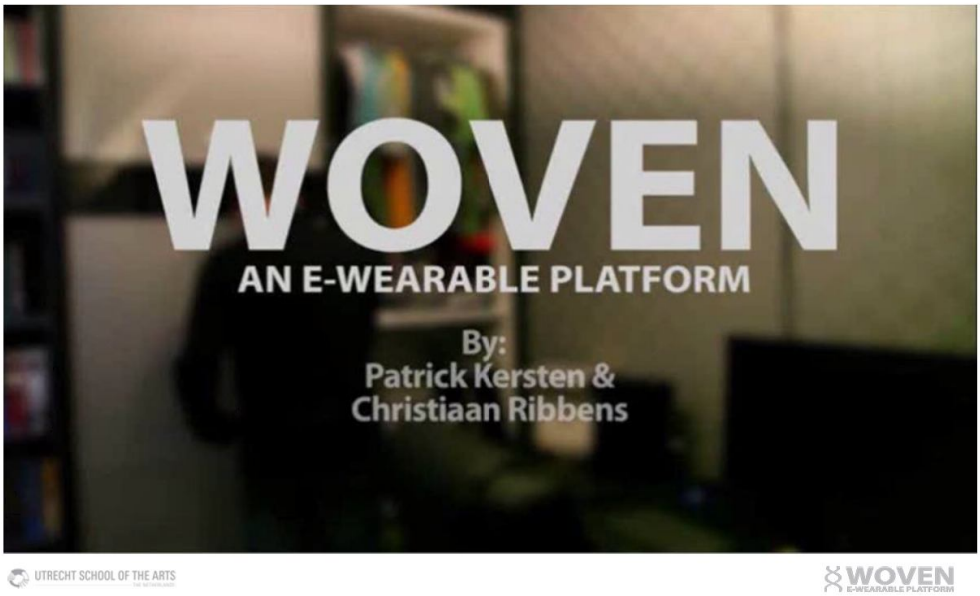
ICT Electronic Product >> Wearable Fashion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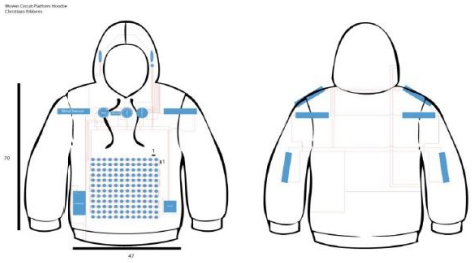
Technological components

CAS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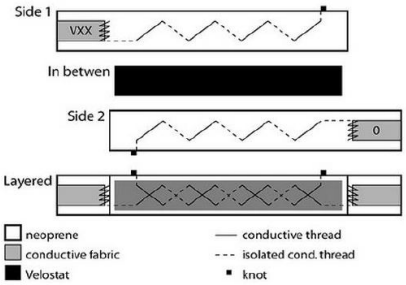
Example 1 – Woven (e–wearable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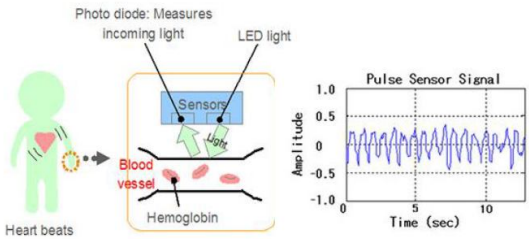
Example 1 – Woven (e–wearable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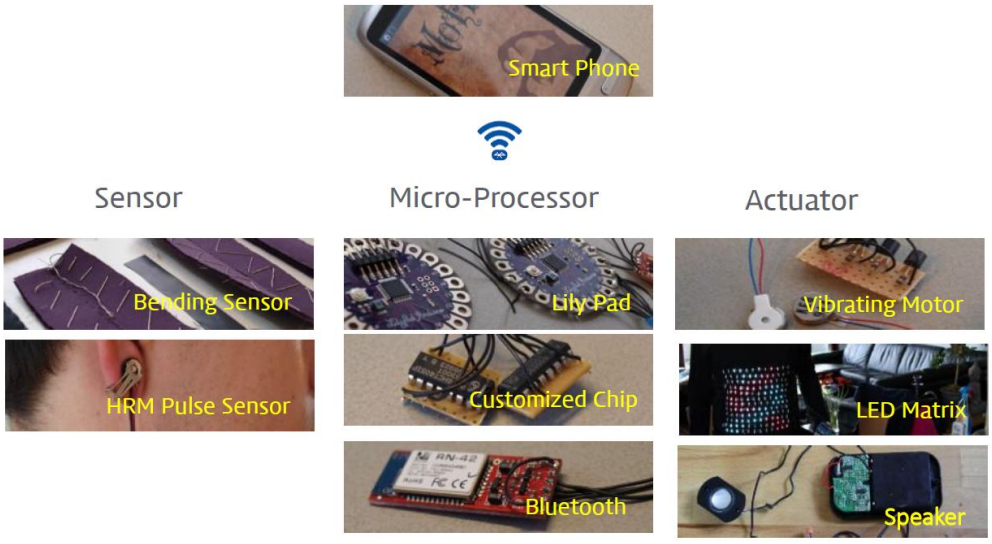
Fabric Bending Sen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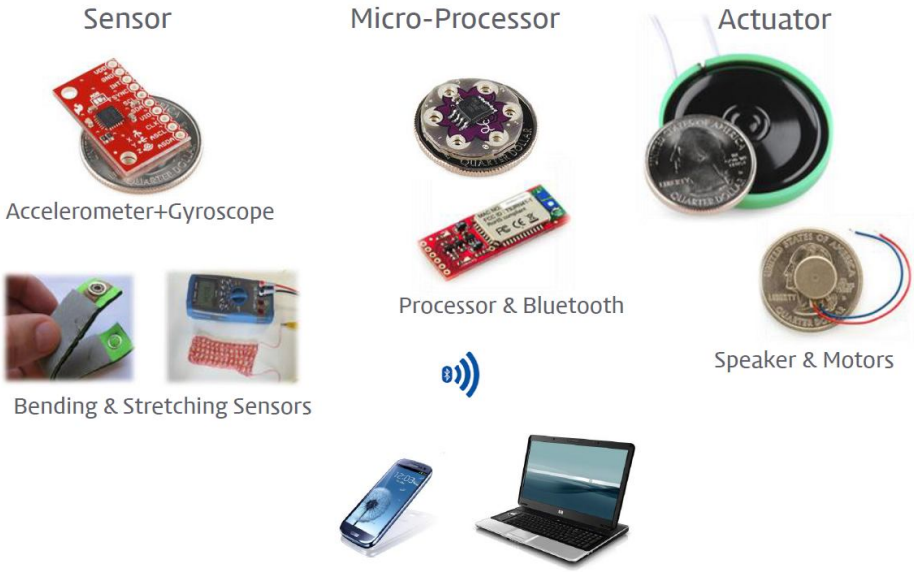
Pulse Sensor



Example 1 - Woven (e-wearable platform)



Example 1 – Motion Sensing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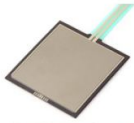
Example 2 – Drum Pants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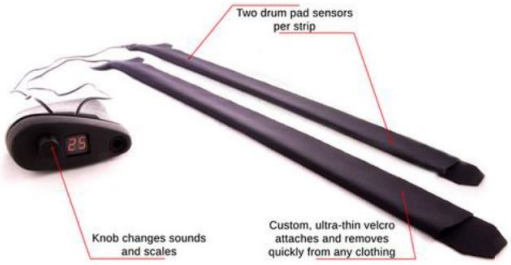
*www.drumpan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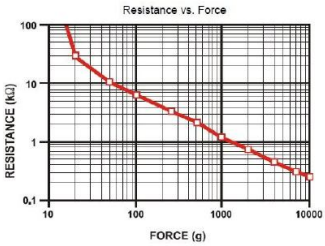
DRUMPANTS

Example 2 – Drum Pants (Entertainment)

FSR(Forse Senstive Resistor) Sen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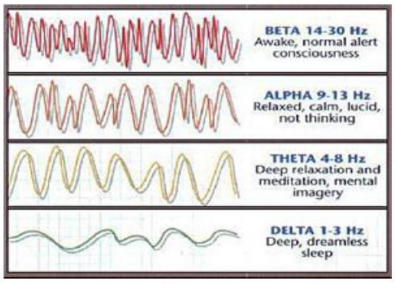
Example 2 – Drum Pants (Entertaninment)

Example 3– Mercedes Pilot Suit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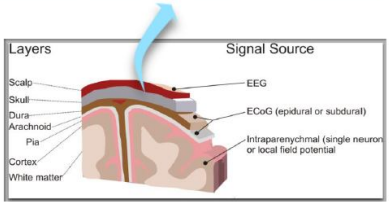
CUTECIRCUIT

*www.cutecircui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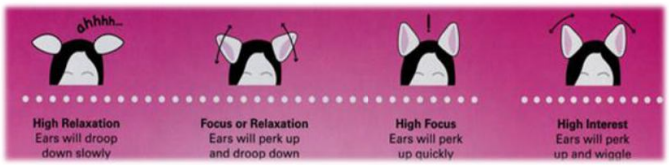
Example 3 – Mercedes Pilot Suit (Ad)



EEG(Electroencephalogram, 뇌전도)
Brainwave Sen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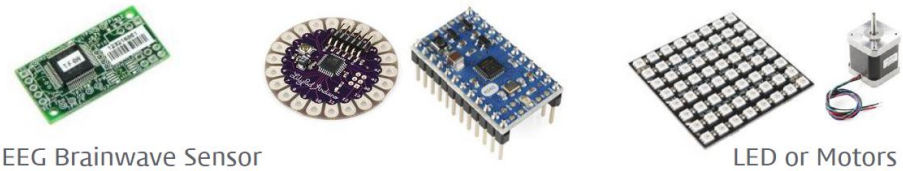
Example 3-1 – Brainwave Cat Ears (Toy)



*www.necomim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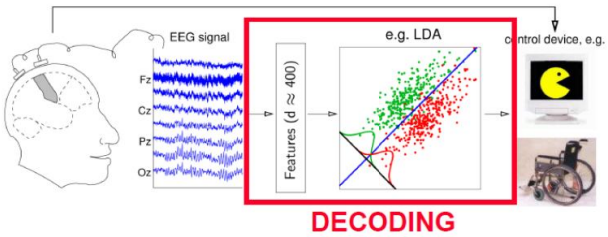
Example 3 – Brainwave Applications

Sensor | Micro-Processor | Actuator



EEG Brainwave Sensor | LED or Motors

cf. Brain Computer Interfacing
Brain Wave Decoding -> Transmission of Control Signal



Example 4 – MYO (Gesture Control)

University of Waterl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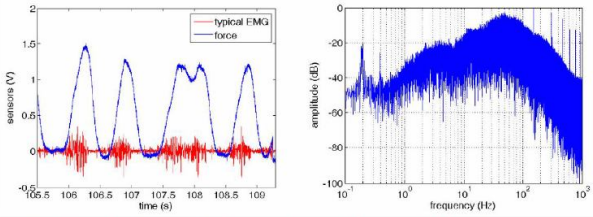
THALMICLABS™

*www.thalmic.com

Example 4 – MYO (Gesture Control)

9-axis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Sensor
(accelerometer+gyroscope+magnetometer)

EMG(electromyography) Muscle Sensor (근전도 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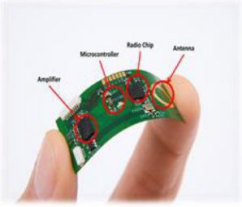
(left) Typical raw EMG (red) and force (blue) signals, as read from the electrodes and force sensor; (right) frequency diagram of the EMG signal.

3-D Printed Prototype

Commercial Sample

Example 4 – MYO (Gesture Control)

Sensor



IMU Sensor

EMG Sensor

Micro-Processor

Bluetooth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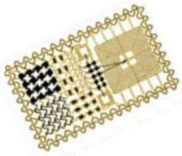
Actu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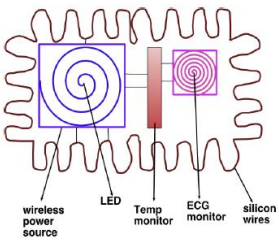
Platform, Servic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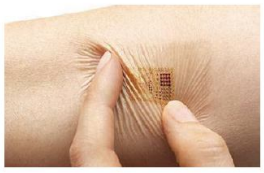
Example 5 – Flexible Electronic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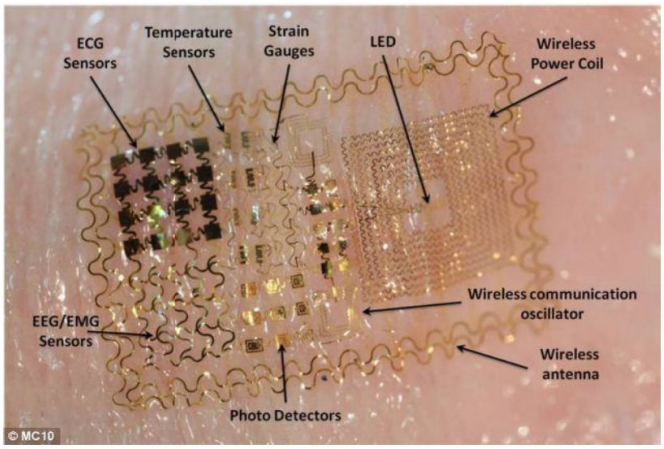
Example 5 – Flexible Electronic Skin

University of Illinois / MC10 Inc :
Silicon wafer based micro-circuit board
(50nm gold layers, 320nm silicon membra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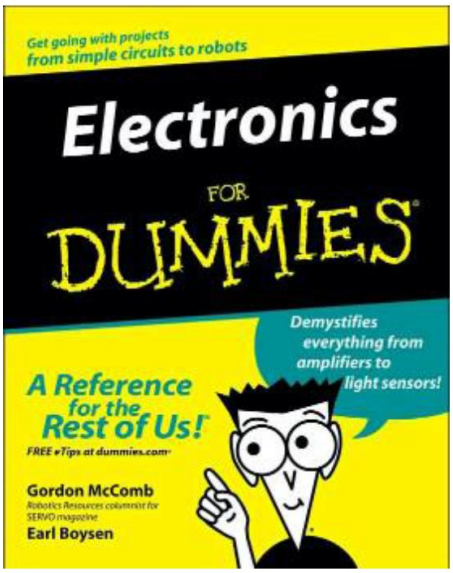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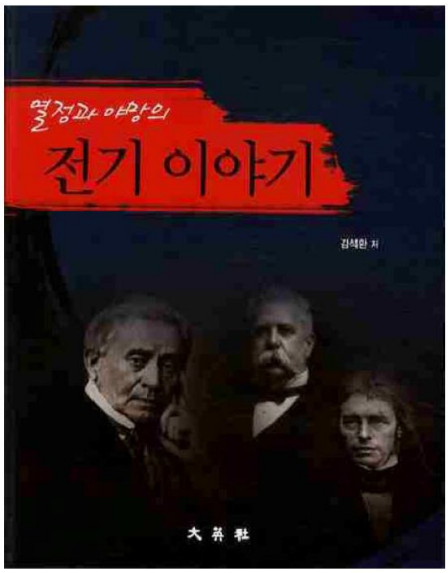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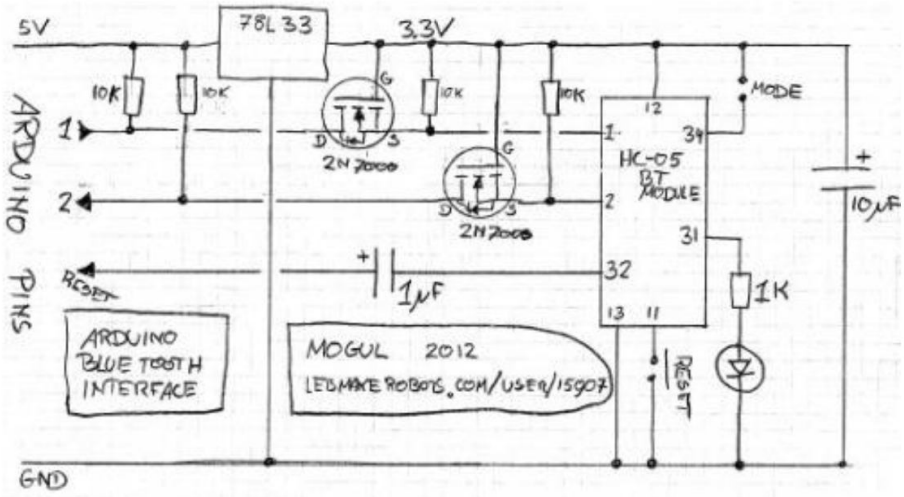
STUDY

ELECTRO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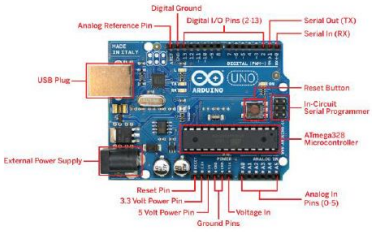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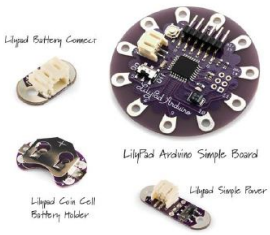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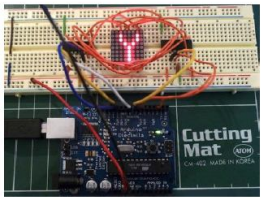
SKET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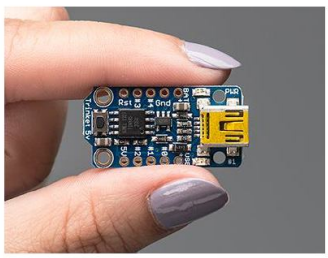


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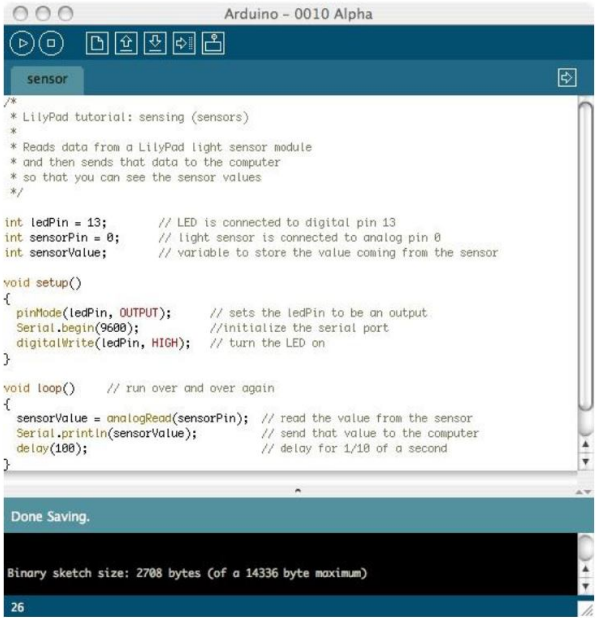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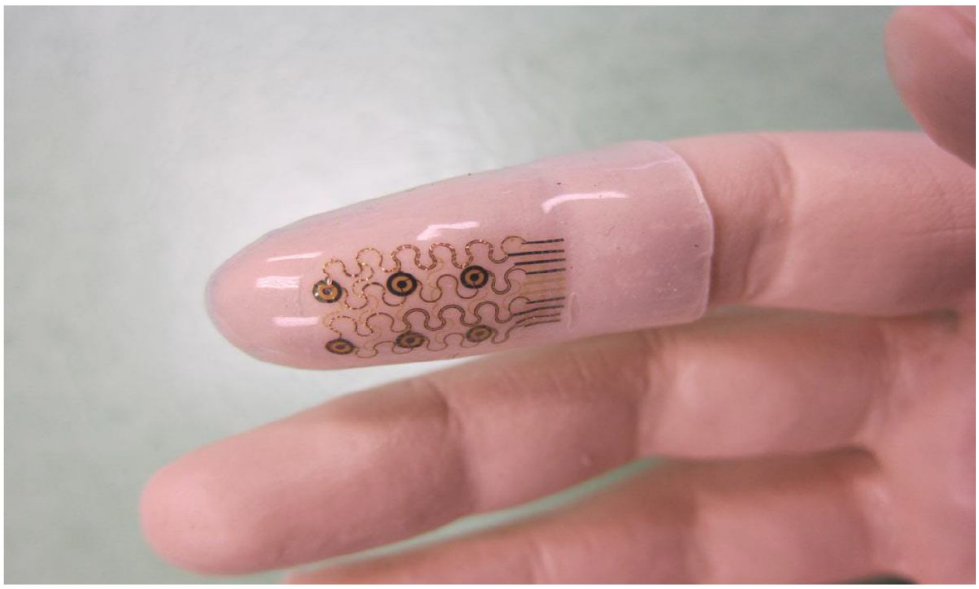


PROGRAMMING



CRAFTING

MATERIAL RESEARCH



DESIGN

ONGOING PROJECT

NFC VELCRO LABLE

Challenges

- ✓Current Problems
- ✓ Fidelity of Measured Signals
- ✓ Simplicity of Design
- ✓ Usability
- ✓ Durability &d Washability
- ✓ Fashion + Electronics + Design Re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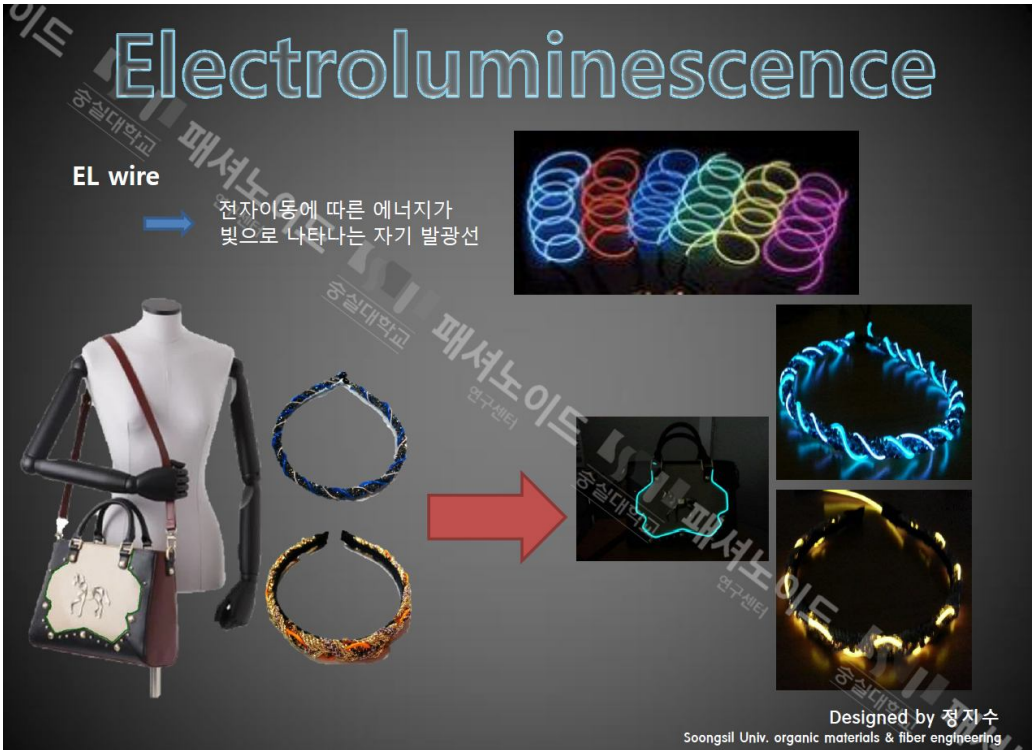
Adipower Hot Pants

HRM Performance Bra


Light the Skiing of the Night
All You Need…
A Nice and Warm White color Ski Gloves
Flora Wearable Computing Board
3.7V Lithium Polymer Battery
40 RGB LED Pixel Matrix
Show your friends that
YOU ARE HERE
with glowing gloves!
1
2
3
4
5
Awesome Rainbow
Color Changing
R
G
B
Extremely VIVID
RGB Color
Designed by Crystal Han


Sound T-shirt
You Can Play the color!
*Designed by Dayoung

TOUCH ME T-SHIRT


Electroluminescence
EL wire
전자이동에 따른 에너지가
빛으로 나타나는 자기 발광선
Designed by 정지수
Soongsil Univ. organic materials & fiber engineering


HEATING BALACLAVA
-HEAT & THEMAL MANAGEMENT-
추위를 느낄 때, Levator Scapulae
(견갑거근)이 긴장되어 통증을 유발한다. 이때,
목 부위의 온도를 높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
을 이완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
Designed by Jiyeon Lee


Heating Insole
Padding boots
The effect of waterproof
and protection against cold
Thermo-graphic camera
Observation of color difference
depending on temperature


Lighting Bag
아주 어두울 때 (가방 닫힘)
아주 밝을 때
LED 꺼짐
그 외의 상황
LED 켜짐
어두운 곳에서도 가방 안의 소지품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물건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단축
Designed by 정지수
Soongsil Univ. organic materials & fiber engineering


Designed by. Leah Son
보라 : 감수성 향상 / 노화방지 색
파랑 : 평온,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 효과 / 긴장 및 불안감 감소
하늘 : 에너지 정체 / 집중력향상, 숙면과 발육에 효과적
초록 : 생명력 / 눈을 보호, 신진대사 활발
노랑 : 자유와 발랄 / 자신감, 낙천적, 창의적 태도
주황 : 즐거움 / 식욕을 돋구고 소화기능 활성화
빨강 : 사랑과 감사 / 지친 마음의 활성화
디자인에 色을 입히다


OPTICAL FIBER
Have a nice dinner
With a twinkle table cloth
The magic of color changing will shine your Romantic dinner time amazingly.
RGB COLOR
VARIETY OF USES
<CLOTHES> <UMBRELLA> <WEDDING DRESS> <CURTAIN> <CHAIR>
Http://cafe.naver.com/luminex
본 사진은 Luminex사 소유이며 Luminex사로부터 허용되었음
Designed by Crystal 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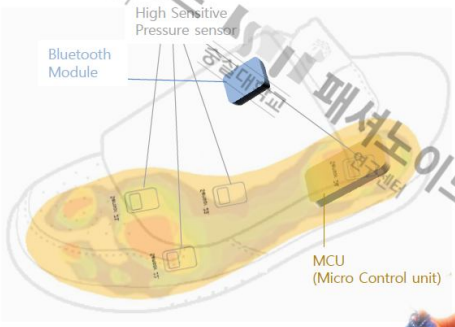
MAGIC MIRROR

이 프로토타입은 Fraunhofer의 Virtual Mirror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어 원리를 구현하였습니다.

HEAD TRACKING

Pressure sensing Shoes

HYW-4P(Bluetooth)



Medical Montoring

Talking Shoes

Wireless

Record pressure data in real-time with Bluetooth

Datalogger

Recorded data is stored by datalogger for upload to the computer

HOW is YOUR WO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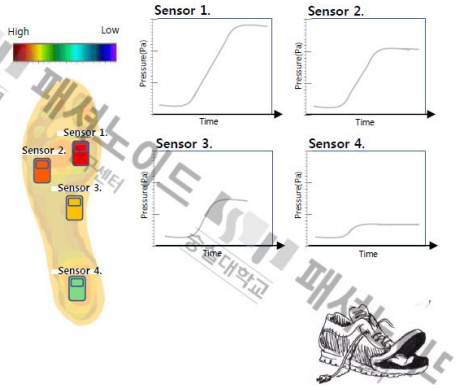
How do you work today?

여러분의 일상 속 걸음은 어떠하십니까? HYW-4P는 각각 4 개의 압력 센서가 압력의 크기와 압축 횟수를 측정하여 하루 운동량과 발 피로도, 걸음 습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걸음을 책임집니다.

FUN? PUN?

Ale you funny Every working time?

HYW-4P는 Bluetooth 칩이 내장되어 있어, 나의 걸음 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또는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그림과 그래프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하루 종일 재미있고 행복해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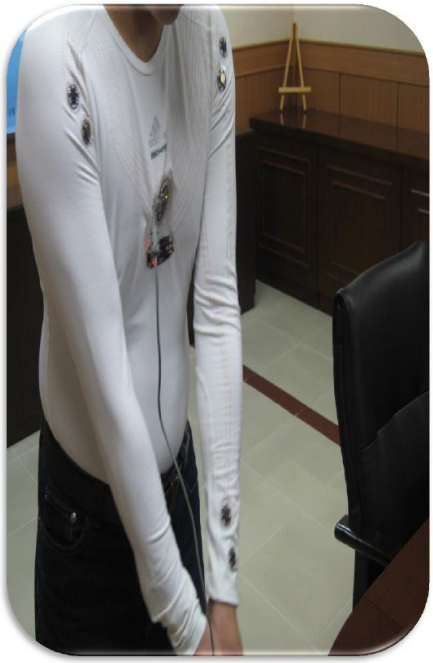
Color Synthesizer

설명

- 감지하는 색상의 RGB값에 따라 각각 다른 주파수의 음계출력
-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음
- 각 음계에 지정된 RGB값과 같은 RGB값을 가지는 어떤 물체라도 키보드 가능
- 색상이 다양한 옷,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등
- 미리 악기를 지정해주면 여러가지 악기 소리를 낼 수 있음
- violin, Ocarina, Cello, Harmonica, Charanga 등

Designed by Seonmi (선미)

Golf Putting Shi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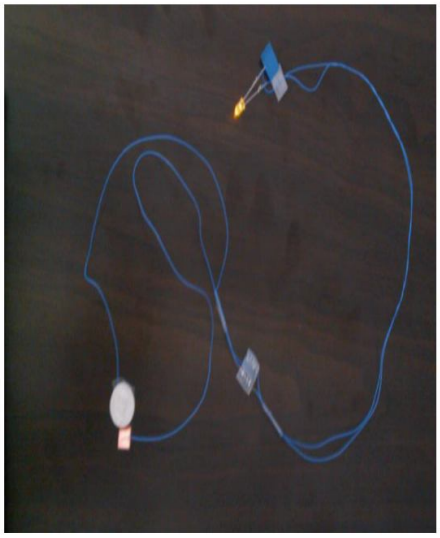


왕자 Vs. 공주 Interactive Toy

RFID Reader

RFID Capsule

Shy Doll Interactive Toy



약 력

김 주 용

- 1986~1992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 (공학사/공학석사)
- 1992~1994 육군 제56사단 경비대
- 1994~1998 미국 NCSU 섬유고분자과학 (공학박사)
- 1998~1999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Post-doc)
- 1999~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교수
- 2014~ 패셔노이드 연구센터장

고려시대 채색법과 색의 상징을 통한 미용법 연구: 하연부인상을 중심으로

방 기 정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조교수

Ⅰ. Introduction

최근 전통양식의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례는 전통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만남이다. 자국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통예술과 전통본연의 미적 가치와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적 가치는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융합이 문화발전의 중요한 원리로 인지되면서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현대적 가치의 발견에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었다(Lee, D. Y., 2010).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회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미디어는 인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술적 발달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김진곤, 2012).

한류와 아이돌 가수의 K-Pop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한국전통의 미용법과 화장법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K-Beauty를 통한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활용이 되어 지고 있다. 최근 전통양식의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다양한 전통예술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만남으로 융합이 문화발전의 중요한 원리로 인지되면서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현대적 가치의 발견에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었다(방기정, 2013).

한국은 전통미용법에 대한 유산이 많으나, 제작법과 미용방법에 대한 심도 깊고 자세한 분석 연구가 없어서 전통미용 문화유산에 실질적 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에 가까운 기법을 찾아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미용문화의 새로운 규명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계인에게 'Korean Beauty'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는 돋보기이면서 기준이 되었으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한꺼번에 다채롭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다. 한국여성들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화장문화사와 한국전통 향장품 기술의 우수함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고려시대 화장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표현요소로 고려시대 채색법과 색의 상징의 활용방안으로 하연부인상 재해석을 통한 미용법의 적용과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Research Methods

본 연구는 고려시대 채색법 및 색의 상징적 특성을 통한 화장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영상매체의 활용방안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작에 참여하여, 2014 오송역 K-Beauty관 갤러리, '의례용 응장 화장법' 촬영 실행 계획을 통한 적용과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연구, 인터넷 탐색,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의례용 응장 화장법은 시대, 인물, 방법에 대한 문헌고증을 통한 재현의 방법과 내용을 구성 하였다. 첫째, 고려시대 화장법의 재현은 문헌고증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고려시대 채색법과 색의 상징적 특성 적용을 위한 인물은 고려시대 하연부인상을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가장 화려하고 독특한 화장법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시대 말기의 귀족계층의 신분과 의례 화장을 보여주는 부분과 고려시대 말기와 조선시대 초기의 특징이 모두 보여 지며, 전통 미의식 부분이 가장 잘 보여 지는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설정하였다. 또한 여인의 초상회화가 많지 않은 가운데 부부의 초상은 조반부인, 박연부부상, 하연부인상 이렇게 몇 안되는 희소가치가 있으며, 하연부인상은 현존하는 종류가 매우 다양한 화장법이 고루 보여지고 있다. 둘째, 고려시대의 이론적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피면서 실제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채색법과 색의 상징은 하연부인상에서 가장 잘 보여 지는 색상과 선과 형태를 고려하여 의상, 장신구, 수발형태 등을 선정하였다. 고려시대 채색법 및 색의 상징적 특성과 개념들 그리고 한국전통 화장법 적용을 통한 관련된 분석과정의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Ⅲ. Result and discussion

고려시대 채색법과 색의 상징적 특성을 통한 화장법의 적용과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고려시대 화장법은 시대, 인물, 방법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한 작가중심 창조적인 해석의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오송역 K-Beauty관 갤러리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국제박람회 주제전시를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K-Beauty관 갤러리를 구성하고자 만들어졌다.

본 연구의 적용은 한국의 농담에 따른 단계별 화장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방기정, 2013) 조선시대의 농담(濃淡)에 따른 화장법과 현대적 활용 연구를 중심으로 의례용 화장법인 '응장'으로 구성 되었으며, 박물관 전시용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자는 고려시대 하연부인상을 대표성으로 하여 고려시대 채색법과 색의 상징을 통한 미용법을 재현하였다. 하연부인상은 여인의 초상화가 매우 적은 가운데 의미와 의의가 있는 회회이다. 경남 합천에 소재한 하연부인상은 의례용 화장법인 응장을 하고 있으며, 무주소재의 하연부인상은 복숭아색의 농장의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 청원군 타진당에 있는 하연부인상은 염장을 하고 있다. 한명의 인물에게 다양한 화장법의 형태가 보여 지므로 비교분석을 하기위한 매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

었다. 박물관 전시영상에 표현된 고려시대 의례 시 했던 응장 미용법 특성을 한국적 미학사상과 색의 상징 및 채색법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연지 및 곤지 화장은 한국적 미학사상인 하늘, 사람, 땅을 통한 천지일 합일사상이 완벽한 이상형인 삼각형 형태와 고려시대 회화의 특징인 구도법이 잘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연지의 동그란 원모양을 통해 한국적 바시미 미학사상이 보여지고 있다.

둘째, 고려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하얀색 피부표현과 그 위에 덧칠해진 연지 및 곤지 화장은 원색을 사용하고, 고려시대 채색법인 배채법의 활용과 바림법을 통해 보여 졌다.

셋째, 고려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빨강색의 연지 및 곤지의 의례용 응장 화장법은 한국적 미학사상 중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연지화장의 특성에서 축원성과 표시성을 통해 보여졌다.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

고려시대의 회화 및 건축물의 채색법과 색의 상징적 특성을 이용한 미디어 영상 매체 활용을 통한 고려시대 화장법을 재해석은 새로움을 보여주기에 주목률과 매체에 대한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매체로서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적인 화장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시대 및 고려시대의 화장법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의 활용을 통해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기초 연구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화장법은 사례가 많지 않고 주로 문헌고찰을 통한 국내 연구실정에서 본 연구가 제한적이나마 채색법과 색의 상징 및 한국적 미학사상의 특성적용과 미디어 영상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를 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본 연구가 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연구는 오송 K-Beauty관 박물관 영상 프로그램에 사용될 제작과정을 통해 향후 고려시대 미용법과 디지털 컨텐츠 구성의 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보탬이 되고자 행하여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김진곤.(2012). 미디어 환경에서 투명성의 비매개에 결부된 주체의식과 자기반영성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39, pp.207-218.

남성우(2005), TV다큐멘터리-그 논의를 위한 사적 고찰(1), 방송시대, 1992년 가을호, pp.356-357.

박신민(2008), 재매개 관점에서 본 무대 공간에서의 미디어 퍼포먼스 특성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8(2), pp.45-54.
조용재(2011), 재매개 이론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콜라주,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1(1), pp. 153-162.
방기정(2012), 동양의 연지화장에 관한 연구(제1보): 한, 중, 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8(4), pp.777-789.
방기정(2013), 조선시대의 농담(濃淡)에 따른 화장법과 현대적 활용 연구 , 한국미용학회, 춘계국제학회 프로시딩

네오프렌(Neoprene)소재로 구성된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Flex sensor및 아두이노를 장착한 보조밴드를 중심으로-

이은아 · 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지난 2000년대 이후 e-textile의 학술 및 산업 연구는 극적인 성장을 했으며, 스포츠 동작 교육, 재활 치료 분야 등에서 동작 분석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인체의 동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관절 각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1].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항상 소비자의 신체부위에 접지하여 지속적인 센싱이 가능하고 수시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부상 예방 및 성능 향상에 신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공 할 수 있다[2)3)]. 그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굽힘 센서, 관성 센서 등은 신축성 의류의 경우 충분한 힘의 안정화를 제공 할 수 없으며[4)], 이러한 경우에 추가되는 접착제 또는 스트랩과 같은 부속물은 착용감을 저하시킨다[5)].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로 기판 및 구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의류에 부착된 포켓 및 전선 커넥터 또는 지퍼를 통하거나, 불투과성 밀봉 공정을 통해서 섬유의 표면에 부착된다. 이 때 사용되는 납땜은 벌키(bulky)하거나 신축성 있는 섬유의 경우에는 내구성이 약하다[6)].

본 연구는 골프운동에서 세부적인 인체 관절 동작 모니터링이 가능한 e-textile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용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굽힘 센서의 부착이 어려운 신축성 네오프렌 재질의 겉감에 전도성 원사인 도전사로 봉제하고, 굽힘 센서가 방출하는 저항값을 아두이노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배치된 부저(buzzer)로 청각화 시키는 제품의 실용성을 제안하는 데에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동작 센서 부착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의 노력으로, 굽힘 센서 기반의 팔꿈치 밴드를 고안하고, 이를 통하여 골프자세를 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골프밴드는 유틸리티, 컴퓨팅 장치의 가능성을 확장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jun
Tel.*82-2-3277-3102 Fax. .*82-2-821-9000
E-mail : jjkim@ewha.ac.kr

을 위한 플랫폼 외에도 인체의 특성에 적합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착용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초 연구의 수립은 학제 간 협력 또는 전문 분야 교육에서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기술을 제공하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신축성 섬유에 도전사를 사용하여 굽힘센서의 가능성여부와 인체의 근육과 동작을 고려하여 실용 가능한 자세교정용 골프밴드의 주요 요건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골프용 소재의 기능적 특성이나 봉제 방식의 특성, 착용자의 체형 특성 등이 미치는 영향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성 기반 굽힘 센서를 골프밴드에 탑재하기에 앞서 이 센서의 성능 타당성을 평가하고 측정 가능한 동작 각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3 가지의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시료인 네오프렌(neoprene)접합포는 스포츠 용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서 안과 겉의 양면에는 신축성이 있는 메리야스 조직의 면(cotton)소재가 접합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도전사(conductive yarn)는 나일론 섬유의 표면에 은도금(silver plating)처리를 한 방적사를 사용하였다.

2.1 네오프렌과 도전사로 봉제된 시료의 신장특성 측정

본 연구를 위한 시료의 크기는 8.5*15cm으로 시료1은 네오프렌의 표면에 접지된 메리야스 조직의 웨일 방향으로, 시료2는 코스의 방향으로 신장성을 측정하였다. 시료3은 웨일 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전도성 원사를 10cm길이로 지그재그 스티치(zigzag stitch)로 봉제하였고, 시료4는 코스 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스티치하여 신장성을 측정하였다.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최대 15%까지 신장변형을 시키고 신장변형에 따른 응력을 분석하였다.

2.2 신장성 테스트 후 저항값 재측정

도전사의 지그재그 스티치로 봉재한 네오프렌 원단의 신장특성을 체크하기 전에 각각의 방향에 따라 저항값을 측정하고, 신장변형을 완료한 후 저항값을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2.3 굽힘센서의 저항측정

굽힘센서(flex sensor)는 구부러지는 정도가 커지면 저항이 커진다. 동작 각도의 측정 실험에서는 평면상에 각도계를 놓고, 그 위에 굽힘 센서를 올려놓은 후, 10도 간격으로 저항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네오프렌과 도전사로 봉제된 시료의 신장특성 측정 결과

<표 1> 네오프렌과 도전사로 봉제된 시료의 신장특성 측정 결과

	2mm kgf	4mm kgf	8mm kgf	10mm kgf	12mm kgf	Peak Kgf.m	Peak mm
시료1	0.1350	0.2621	0.5737	0.7800	1.0845	0.0094	14.960
시료2	0.0935	0.1567	0.3108	0.3756	0.4663	0.0044	14.890
시료3	0.1356	0.2640	0.6308	0.8734	1.2100	0.0101	14.840
시료4	0.0768	0.1700	0.3415	0.4500	0.5602	0.0045	14.300

위의 결과로 웨일, 코스방향 모두15%의 신장에서 도전사의 봉제에 의해 약간의 구속이 인지되지만 네오프렌 원단의 움직임을 심각히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신장성 테스트 후 저항값 재측정 결과

신장성 테스트 하기 전 지그재그 봉재를 한 도전사는 17Ω의 저항값을 가졌으며, 1번 테스트 후 웨일방향에 수직인 도전사는 18.5Ω의 값을, 코스방향에 수직인 도전사는 13.6Ω의 저항값이 측정되었다. 신장성을 2번 테스트한 결과도 이와 같았다. 따라서 네오프렌 원단이 여러 번 늘어났다가 회복되어도 도전사의 피막이 파괴되거나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굽힘센서의 저항값 측정결과

<표 2> 굽힘센서의 저항값 측정결과

각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k	11.47	11.98	12.43	13.11	13.83	14.75	15.60	16.83	18.10	19.57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10도 간격으로 저항값을 측정한 굽힘 센서의 저항값은 각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인체의 팔꿈치의 움직이는 각도에도 반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골프자세 훈련 시 동작 모니터링을 위한 굽힘 동작센서를 탑재한 팔꿈치 밴드의 실용성을 탐색한 결과, 신축성이 있는 소재에서도 팔을 90도로 굽혔을 때와 팔을 일직선으로 폈을 때의 동작에 이르기까지 팔 관절 동작 각도의 측정이 가능함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동작을 반복해서 행할 때에도 굽힘밴드나 도전사의 저항값에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제안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네오프렌 소재로 구성된 골프자세 훈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인체의 피부에 밀접하게 부착되어 정확한 동작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동작 센서 플랫폼은 다리운동, 척추 운동의 동작 센싱에 있어서도 유사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착용자의 팔꿈치의 각도는 아두이노를 통해 표시 혹은 기록할 수 있으며, 이 응용프로그램은 더 나아가 인체의 각각의 동작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한 자세를 교정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나, 골프존과 같은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Huang, Ming-Chun; Xu, Wenyao; Su, Yi; Lange, Belinda; Chang, Chien-Yen; Sarrafzadeh, Majid(2012), “Smartglove for upper extremities rehabilitative gaming assessment”, *in Proc. of the ACM International Conference(5th),* Article No. 20, pp. 2001-2004.

2) Gioberto,Guido (2013), “Measuring Joint Movement Through Garment-integrated Wearable Sensing”, *in Proc. of the ACM International Conference(13th), in Switzerland,* pp. 331-336.

3) Patrick Thibodeau(2014. 01. 27), “스포츠와 센서가 만났다” 대규모 사물 인터넷 시장 형성 기대, from http://www.itworld.co.kr/news/85761.

4) L. E. Dunne(2010), “Optical Bend Sensing for Wearable Goniometry: Exploring the Comfort/Accuracy Tradeoff,” *Research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vol. 14, no. 4,* pp. 73-80.

5) McCann, Jane; Hurford, Richard; Martin, Adam(2005), “A design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smart clothing that addresses end-user needs from technical, functional, aesthetic and cultural view points”, in *Proc. of the 9th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earableComputers* , pp.70-77.

6) C. Mattmann, O. Amft, H. Harms, G. Troster, and F. Clemens(2007), “Recognizing Upper Body Postures using Textile Strain Sensors,” in *Proc. of the 11th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earableComputers*, pp. 29-36.

인터랙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빛의 의미와 효과연구
- 패션에서 변화하는 빛이 갖는 상징성 -

권 은 경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 연구목적

디지털 혁명의 핵심인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 즉 상호작용성이 패션과 만나고 있다. 착용한자, 함께 착용한자, 혹은 보는 자의 참여에 의해 동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시대에 내가 입은 의상은 신체를 보호하고 자신을 표현해주는 기능을 넘어서 주변과 대화하고 표현을 제어하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통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욕망 추구는 패션을 자신의 분신으로 차용하기에 적절하다. 일차적으로 패션에 변화하는 빛이 포함되었을 때, 그 의미와 효과를 연구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인터랙티브‘ 의 정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의 용어는 ‘inter + active'의 합성어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inter'와 행동, 행위를 나타내는 ‘active'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인간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의 관계에 대해 것이다.

기존에 관객 또는 수용자가 수동적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인터랙터’로의 개념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능동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는 인터랙티브는 관객 또는 수용자가 완전히 몰입하여 체험할 수 있는 장치를 창조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센서로만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진정한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디자이너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사용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탐색해 가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인터랙티브 디자인이 이루어진다[1].

인터랙티브 디자이너는 경험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인터랙티브 디자이너는 어떤 제품 주변의 완정한 경험을 디자인하면서 광범위한 사용맥락(실제적인 제품사용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요인은 상황적, 문화적, 생리적, 감정적, 인지적일 수 있다. 색다른 경험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있

다는 뜻이고, 인터랙티브한 요소 하나 하나는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인터랙티브 디자인은 '전달해야할 메시지를 오브제 혹은 오브제를 표현하려는 대응물(substitute/quasi-object)의 움직임, 음향,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등의 기본요소(basic element)를 통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창조하는 매개물(vechicle)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2].

보르소크와 히킨보탐은 인터랙션의 구성요소를 언급하였는데,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면 바로 반응(immediacy of response), 비순차적(non-sequencial), 비선형적(non-linear), 다른 사용자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융통성(adaptability)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3].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작가와 관객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아트워크가 활발히 보여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핵심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용어이며, 상호작용적 예술은 시간성, 공간성, 유희성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접목시키는 예술이다[4].

2.2 인터랙티브 패션 아트 사례

인스톨레이션은 적극적인 관계성의 고려이다. 디지털 인스톨레이션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정보를 가상과 실제 시공간이 공존하고 확장되는 늘려진 공간에서 운동성을 가지는 작품으로 적극적인 관객참여가 유도된다. 여기에 패션 인스톨레이션으로서 미술작품에 직접 의상을 차용해 오거나 다른 오브제를 사용하여 의상의 형태를 만들기도 하며 의상디자이너들과 공동으로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5].

<그림 1> Potential Beauty by Jane Harris in 2002-2003

제인헤리스는 2002-2003년에 Potential beauty에서 의상을 주제로 3D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하여 마치 의상이 움직이는 듯한 포즈를 주면서 소재의 색상이 변화하는 효과를 주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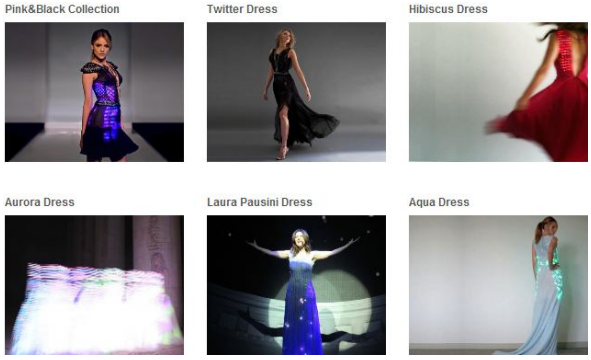
<그림 2> 우는 드레스, The Crying Dress by 한나 페너-윌슨과 미카 사토미 in 2012

<우는 드레스>는 가상의 근 미래를 위한 고급 수공예 상복으로, 미망인을 대신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착용자와 함께 고인을 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비엔나에서 열린 Technosensual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 달간의 레지던시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이 두 작가는 직물공예와 전자기술을 연결하는 미디어아트 작업을 주로 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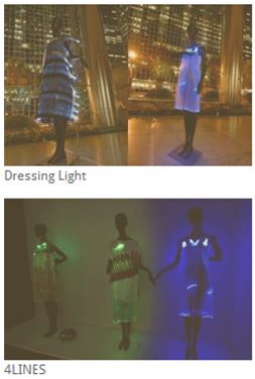
2.3 인터랙티브 패션 디자인 사례

패션에 있어서 상호작용 현상은 확실한 미적 가치의 부재, 주류를 인정하지 않고 뚜렷한 분류 특성을 찾아낼 수 없는 불확정적이고 혼란스러운 패션, 다양한 문화와 디자인 요소를 포괄하는 절충적이고 다원적인 특성, 이질적인 요소와 기능의 결합을 통한 다기능성과 다목적성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패션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복식이 갖고 있던 내부의 체계와 질서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의 이질적인 가치를 수용함으로서 표현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8].

인터랙티브 패션 디자인 전문 회사나 개성있고 진보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의 인터랙티브 패션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로 시각적으로 동적인 패턴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터랙티브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 측면에서 그 초기 단계로 보여진다. 아래 <그림 3>과 <그림 4>에서 두 가지 작품 사례가 보인다.



<그림 3> http://cutecircuit.com/ interactive fashion design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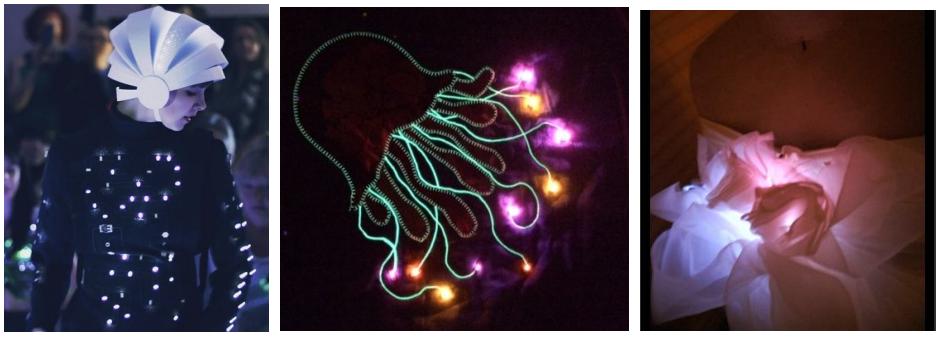


<그림 4> http://ankeloh.net/ Anke Loh artist

3. 결과 및 고찰

“미래의 옷은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을 해본다. 기술적 변화 예측에 맞추어 볼 때 첫째 색상이 바뀐다. 이는 전체 색, 부분 색, 포인트 색일 수 있다, 둘째 패턴이 바뀐다. 이는 레이아웃, 일러스트레이션, 기하학 무늬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소리가 나거나 (효과음, 뮤직, 악기소리, 자신의 목소리 등) 모양이 바뀌는 (길이, 품, 목선라인, 주름효과, 입체무늬 등) 것도 가능하다. 왜 동적인 변화를 갖고자 하는 것일까? 이는 우선 기능적 요인을 찾기 쉽다. 그러나 심미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심미적 요인이 패션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언제 변화를 주는 트리거가 작동할 것인가 ? 이 또한 우리들의 상상력의 범주 안에 존재한다. 배경에 따라 (푸른 자연 속에 원색 칼라의 골프 옷, 비오는 날 모노톤의 레인코트), 타자에 따라 (동질감을 나타내는 룩, 신뢰감을 주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룩), 상황에 따라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은 파티, 시선을 끌고 싶은 모임) 각기 다를 것이다. 조작은 터치에 의해, 센싱에 의해, 움직임에 의해, 먼 미래는 뇌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유에 전자재료를 접목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과 전자섬유 회로설계 기술, 전자섬유와 IT기기간의 연결하는 접합/패키징 기술 등이 필요하다. 초기의 전자섬유는 대부분 부피가 크고 각종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섬유의 유연함과 편안함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최근 섬유와 IT기술 간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실 형태의 우수한 전도성 섬유가 개발되고 있고, 섬유 트랜지스터, 압전·온도 센서, 섬유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전자섬유가 각종 전자 기기를 대체하거나 IT기기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당장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만으로 고려하고 구현이 용이한 ‘LED 빛 실험’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5>는 의상과 액세서리에 빛이 우아하게 포함된 해외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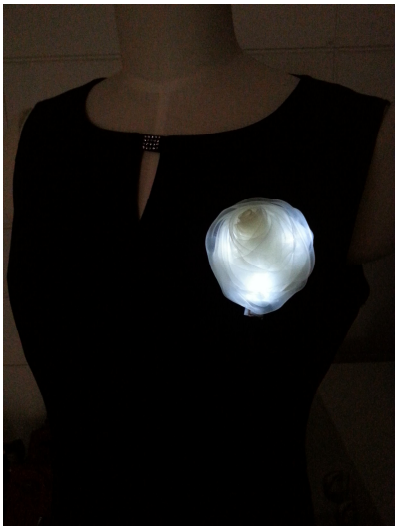


<그림 5> http://www.aniomagic.com/

실제로 악세서리 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 다음 <그림 6>과 같이 천을 이용한 악세

서리로서 코사지가 적절한 실험 대상이 된다. 빛과 어울림이 있는 꽃 모양의 코사지와 패턴이 있어서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넣기 좋은 코사지를 선택하였다. 뜨게실로 만든 팔찌는 LED를 부착할 자연스러운 동근구멍을 있어서 선택하였다. [그림7]과 같이 반투명의 슈폰천을 이용한 코사지에는 LED를 4개 바닥에 부착하고 뒷면에 보드를 붙였다. 4개의 LED가 동적으로 서서히 켜지고 꺼지는 효과를 주기위해서 제어보드가 필요하다. (전문용으로 보드를 생산한다면 손톱크기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6> 액세서리에 빛을 정적으로 넣은 작업



<그림 7> 액세서리에 빛을 동적으로 넣은 작업

다음의 <그림 8>과 같이 의상에 LED를 넣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색상구별이 강한 패턴을 가진 기존 의상을 선택하고 색상을 강조하기 위한 유형으로서 해당 색상과 유사계열의 LED를 같은 위치에 부착하였다. 이는 우아함의 효과보다는 직접적인 강조에 지나지 않아 심미성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단 제작과정에서 CAD도안이 사전에 필요하고, 시침질로 사전 테스트가 필요하며, 전선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계층의 덧대는 천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전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림 8> 인터랙티브 패션 작업

4. 결론

앞서 제시한 악세서리부터 의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단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적절한 섬유와 결합 매치하여 다양한 관점의 심미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형태의 어울림만 고려한 선택이었으나 직물의 전문적인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상에 자연스럽게 탈부착 가능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체성을 갖기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하여야 한다. 의상에 직접적으로 LED를 부착하기에는 많은 수작업과 노력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강한 결합이 요구되는 협업은 실용적이기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탈부착 아이디어와 그것의 기술적 구현이 현실화된다면 패션과 기술 분야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협업모형이 탄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의 확대가 용이해 질것이다. 셋째 이러한 빛의 포함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한지에 대한 기능적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과로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오존층 파괴와 강한 자외선 때문에 햇빛을 피하는 현대인들의 건강요법으로 접착식 칼라 라이트 테라피 도구가 출시된바 있고 색상을 통한 치료가 연구 중이다. 칼라테라피가 의상에 적용되면서 동적인 변화까지 수반된다면 패션테라피로 확장하거나 또 다른 명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보다 앞서 패션에 빛이 포함되어서 발생 가능한 상황시나리오와 심미적 효과의 다양한 관점을 폭넓게 연구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패션디자인과 인문학, 그리고 기술적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융합주제이지만, 특히 패션디자인 분야의 관심있고 적극적인 주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신보슬(2000), “인터랙티브아트:디지털공간에서 예술과 예술이 아닌것을 골라내고

싶다면?". 구운몽 no1, 안그라픽스. pp199-200
2) 최창덕(2001),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정민웅", 디자인정글
3) Borsok,TK&Higginbotham, N(1991), "interactivity what is it and what can it do for computer-based instruction?", Educational Technology, pp.11-17.
4) 강혜원(2011), "상호작용성에 의한 디지털패션 인스톨레이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김미경(1999), "의상을 이용한 20세기 설치미술에 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집 vol5, no2,p40
6) http://www.janeharris.org/page14/page14.htm
7) http://www.kobakant.at/
8) 이윤경(2010), "인터랙티브 패션디자인의 상용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한국과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복 컬러 비교분석
- 2013-14 F/W 서울과 다롄을 중심으로 -

백정현* · 정지원** · 위안씬이**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중국 다롄(Dalian, 大連)은 2003년 말부터 진행된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계획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환발해경제권(環渤海經濟圈)을 구성하는 주요 도시이다. 또한 중국의 동북지역 중 우리나라와 규모 및 기후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시 선호되는 도시이며, 의류산업이 시의 중점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국 동북지역 최대의 패션 중심지이자 소비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패션을 주도하는 20~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 패션 브랜드들이 중국 공략의 테스트 마켓(test market)으로 가장 먼저 진출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20~3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 파악에 대한 연구는 한국 패션 브랜드의 중국 진출 시 세분화된 지역별 패션 특성과 이에 따른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전략 설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중국 내 다른 패션 중심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국의 여성 소비자들은 패션제품 소비에 있어 조형적 특징 중 컬러를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갑, 2010), 따라서 중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컬러에 대한 분석은 중국 내수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여성복의 컬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지 패션의 직접조사를 통한 중국 여성 패션의 컬러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시장에 진출 계획이 있거나 진출 중인 한국 패션 브랜드의 어려움인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다롄의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 우위를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재원으로 BK21(S13HR15D0801)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Bae, Soo-Jeong Tel. +82-2-530-1344 Fax. +82-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점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션 소비에 있어 가장 구매력이 높은 20~30대 여성의 패션 컬러 선호도를 현지 스트리트 패션 촬영을 통해 직접 수집·분석하여 한국의 대표 도시인 서울의 패션 경향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중국 패션 시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축적하여 한국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는 학술지와 학위논문 등의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경제연구소나 패션연구소의 보고서와 관련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로는 서울과 다롄의 20~30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의 컬러를 스트리트 패션을 촬영한 사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의 사진 촬영은 서울은 2013년 12월 19일~21일에 신사동과 강남역 부근을 중심으로, 다롄은 2013년 12월 27일~29일까지 시의 중심인 다롄역 앞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의 대표적 쇼핑가인 승리광장(胜利广场) 일대, 태평양(太平洋) 백화점과 마이칼(mykal) 백화점 부근에서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촬영 시간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9시~1시, 오후 4시~6시까지로 매일 2회씩 본 연구자를 포함한 패션디자인 전공자 4명이 디지털 카메라(Minolta CM-503i, 삼성 NX2000)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의 추출은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최대한 동일한 시간대, 장소, 날씨(흐리거나 비오는 경우 제외)에서 촬영한 것만을 선정하였으며, 2차에 걸친 표본 분류 후 색상과 디테일이 선명한 전신사진을 중심으로 도시별로 300점씩 총 600점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컬러 분석은 상의, 하의, 가방, 신발의 4가지 패션 아이템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먼셀색채계의 유채색 기본 10가지 색상(R, YR, Y, GY, G, BG, B, PB, P, RP)과 색상별 11가지의 톤(V, S, B, P, VP, Lgr, L, Gr, Dl, Dp, Dk)으로 분류하고, 무채색은 톤의 분류 없이 흰색(Wt), 회색(Gry), 검은색(Blk)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아이템에 패턴(pattern)이 있으며 그 패턴이 의복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멀티(Mlt) 계열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컬러 분석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한 패션디자인 전공자 5명이 참여하여 Macbeth Color Eye 7000을 통해 표준광 C와 표준판측자 2도 시야에서의 측색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상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복 중 상의의 컬러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무채색 계열(62%)의 빈도가 유채색 계열(38%)보다 훨씬 높았으며, 컬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도 Blk(46%)> GY(10.7%)> Gry(10%)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 F/W 시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의 아이템인 코트나 재킷, 패딩 등 주로 외투류에 대해 Blk과 Gry 같은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Blk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GY의 경우 Dl톤인 khaki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유채색 톤의 경우도 Dl> Gr>V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 어둡고 진하거나 Gry가 섞인 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유채색(40%) 보다 무채색(60%)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컬러 전체 빈도에서는 Blk(38.3%)> Wt(14.3%)> Y(10.7) 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에 비해 밝은 색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채색 톤의 경우에도 V> Lgr> S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 서울 보다 명도나 채도가 높은 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하의

서울의 하의에서 나타난 컬러는 무채색(80.3%)의 비율이 유채색(19.7%)의 비율보다 4배 가까이 높았으며, 전체 컬러 빈도에서도 Blk(61.7%)> PB(15.3%)> Gry(12%)의 순으로 나타나 하의에 대한 무채색 선호 경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채색 중에서는 Pb> B> R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톤의 경우에도 Dl, Dp, Dk 계열이 높게 나타나 서울의 20~30대 여성들은 Blk과 함께 어두운 톤의 블루진과 Navy 계열의 팬츠를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롄의 하의 컬러는 무채색(72.7%)이 유채색(27.3%) 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 컬러 빈도에서도 Blk(58.3%)> PB(18.7%)> Gry(9.0%)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는 서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유채색 분포에서는 R, YR, Y 컬러에 대한 빈도(6%)가 서울(1.7%)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난색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가방

가방은 서울의 경우 300명중 171(57%)명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상·하의와 마찬가지로 무채색(60.8%)이 유채색(39.2%)보다 빈도가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Blk(48.5%)> YR(18.1%)> PB(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채색 중에서는 YR> PB> R의 순으로 나타났고 톤에서는 S> V> Dp의 순이었는데, 이는 붉은 빛이나 노란빛을 띄는 Beige나 Brown 계열 가죽 가방의 착용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롄의 경우에는 300명 중 203명(67.7%)이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무채색(61%)이 유채색(3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컬러를

보았을 때에는 Blk(39.9%)> Mlt(15.8)> YR(14.3%)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여 다른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던 Mlt 계열이 선호되고 있는 특이점을 보였고, 톤에 있어서는 B> Dp> Dk Bright 계열의 순으로 나타나 밝은 컬러에 대한 선호가 가방 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신발

서울에서 나타난 신발의 컬러에서는 무채색(84%)의 비율이 유채색(16.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컬러에서도 Blk(64%)> Gry(11.7%)> YR(10.3%)의 순으로 Blk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채색 톤에서도 Dp> Dl> L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여성이 어두운 컬러의 신발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롄의 신발 컬러 역시 무채색(63.7%)이 유채색(36.3%)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컬러는 Blk(48.3%)> YR(13.7%)> Y(12.3%) 순으로 톤은 L> Lgr> Dl 순으로 선호되고 있어 서울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Black, Brown, Beige와 같은 전통적인 가죽 컬러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나 진하고 어두운 톤을 선호하는 서울에 비해 밝은 톤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2013-14 F/W 서울과 다롄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복 컬러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상의의 경우 서울에서는 무채색인 Black과 Gray가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채색에서도 Khaki와 같은 Dl이나 Gry톤이 선호되고 있었다. 다롄 역시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는 높았으나 서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컬러인 Wht와 Y 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과 V, S 계열의 톤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울과는 상반된 유채색 선호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하의의 경우 서울은 무채색의 비율이 80%를 넘어 거의 모든 여성이 Blk이나 Gry 혹은 Dl, Dp, Dk 톤의 B 계열의 하의를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롄도 무채색의 비율이 70%를 넘어 서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R, YR, Y 의 비율이 서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색계열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가방의 경우 Blk가 주를 이루고 Beige 나 Brown이 속하는 YR 계열의 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점은 유사했으나, 다롄에서는 패턴이 들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컬러가 혼합되어 있는 Mlt 계열의 컬러가 Blk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과는 다른 특이점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넷째, 신발의 경우에는 Blk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YR이 뒤를 잇는다는 점은 비슷했으나, 서울은 Dp, Dl 톤이 강세를 보임에 반해 다롄은 L, Lgr 톤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서울에 비해 밝거나 옅은 컬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서울은 네 가지 패션 아이템 모두에서 Blk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유채색 톤에 있어서도 대부분 진하고 어두운 컬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의와 하의를 중심으로 한 컬러 코디네이션에서도 무채색+무채색(49%)>유채색+무채색(36.7)>유채색+유채색(14.3%)의 순으로 나타나 F/W 시즌 컬러로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롄은 유채색+무채색(51%)> 무채색+무채색(34%)> 유채색+유채색(15%)로 나타난 컬러 코디네이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비율에서 무채색이 강세를 보이는 점은 유사하나 서울에 비해 그 비율은 낮은 편이며 유채색의 종류가 더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R, YR, Y 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고 밝고 선명한 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황금색과 유사한 Yellow 계열이나 Red에 대한 민족적 선호도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서울과 다롄의 패션에 대해 S/S 시즌과 F/W 시즌의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중국과 한국의 다른 지역과도 비교 연구함으로써 다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된 의미 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권혜숙(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 특성, *패션비즈니스,* 12(4), pp.73-87.

백정현 · 배수정(2008), 2006-2007 F/W 중국 대련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패션비즈니스학회,* 12(2), pp.59-60.

배수정 · 백정현 · 최윤규 · 유화정(2007), 2007년 여름 중국(中國) 대련(大連)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한국의류학회학회지*, Vol.32 No.11, pp.1692-1703.

조갑 (2010), 한중 소비자의 충동구매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채수명(1996), *마케팅 박사의 마케팅 여행, 서울:한국경제신문사*, p.202.

한국무역협회(2011), Check it~! 2011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Global Business Report11-001*, p.8.

구두 학술발표

중국 귀주성 뢰산현 짧은치마 묘족과 긴치마 묘족의 복식연구

김미선* · 손희순 · 장순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명예교수, 동화대학 패션 및 예술디자인대학 부교수**

1. 서론

중국 귀주성(貴州省) 동남지역에 속하는 검동남(黔東南)지역의 소수민족인 묘족(苗族)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현재에도 묘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귀주성 묘족은 일정 거주 지역에서 자연환경에 절대 순응하며, 민족의 풍속과 관습, 종교와 의례, 지리환경, 기후조건, 민족성, 예술전통 등을 토대로 다양한 지파를 형성하며 각기 독자적인 복식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문화현상은 중국 청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청조시대 묘족의 호칭은 60 여종이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그들 몸차림의 스타일과 색채적 특징에 근거하여 호칭이 정해져 각 묘족 지파의 집단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즉, 홍묘(紅苗), 백묘(百苗), 흑묘(黑苗), 대화묘(大花苗), 청묘(靑苗), 백영묘(白領苗), 자강묘(紫姜苗), 장군묘(長裙苗), 단군묘(短裙苗), 왜소묘(歪梳苗), 아작묘(鴉雀苗) 등 색채나 문양, 의복형태 및 디자인 등에 의해서, 때로는 청강묘(淸江苗), 동묘(東苗), 서묘(西苗) 등과 같이 거주지역에 의해서도 묘족 지파의 집단특성이 드러난다.

묘족들은 오늘날에도 산간 고원이나 벽지의 고립된 지역 안에 거주하며 각기 고유한 민족성과 강력한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해 묘족 자신들만의 독자적 전통문화를 지금까지 수용,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널리 흩어져 여러 지역에 분포함에 따라 묘족 각 지파 집단 간에는 서로 다른 풍속이나 언어, 복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귀주성에 거주하는 묘족들은 같은 종족일지라도 거주 지역과 각 지파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독창적 복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중에는 착용하는 치마길이에 따라 묘족의 지파부족을 구분짓기도 하는데, 지역별로 단군묘(短裙苗) 및 장군묘(長裙苗)라 불리우는 묘족들의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짧은치마 양식 / 긴치마 양식에 따라 묘족의 지파명칭이 명명된 뢰산현(雷山縣) 대당향(大塘鄕) 단군묘채와 서강진 천호묘채(西江千戶苗寨)등 2개 지역의 단군묘족과 장군묘족을 대상으로 2지파 묘족들의 여자복식의 조형성 및 차이와 형성 요인을 고찰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Corresponding author : Zhang Shun'ai Tel. +86-15618980464
E-mail : zhang5@dhu.edu.cn

2. 이론적 배경

1) 중국 귀주성 및 검동남지역의 개관

귀주성(貴州省)은 중국 남서부 운귀고원(雲貴高原)에 있는 성(省)으로 성도는 귀양(貴陽)이다. 북쪽에는 사천성에, 동쪽으로는 호남성, 남으로는 광서장족자치구, 서쪽은 운남성에 접하고 있다. 전국시대에 초(楚)나라의 '검중지지(黔中之地)'라 하던 곳이기 때문에 검성(黔省)이라고도 한다.

귀주성은 온화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동서로 약 571km, 남북으로 약 510km의 총 면적은 약 17,6만km^2로서 운남고원(雲南高原)의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기복이 많은 지형으로,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산지인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져 중국 25개 성시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성내(省內)는 행정구역에 의해 검동남묘족동족자치주(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검남포의족묘족자치주(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검서남포의족묘족자치주(黔西南布依族苗族自治州), 엽절지구(曅節地區), 안순지구(安順地區), 준의지구(遵義地區), 륙반수시(六盤水市), 귀양시(貴陽市)의 8개의 자치주 · 시(自治州 · 市)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귀주성은 운남성, 광서성에 이어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성내 전체 인구 중 18개 소수민족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특히 묘족(苗族)과 동족(侗族)의 50%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다. 이외에도 포의족(布依族), 이족(彝族), 수족(水族), 거라오족(仡佬族) 등 중국 소수민족들이 대거 거주하는 대집거지로서, 현재까지도 각기 독자적인 찬란한 전통문화를 보전 유지하고 있어 세계인류문화유산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2) 중국 묘족의 개관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한족이 91.5%이고 나머지 8.5%가 소수민족의 구성비를 이루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묘족(苗族)은 비교적 인구가 많은 중국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서 역사가 유구하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주로 귀주, 호남(湖南), 운남(雲南), 사천(四川), 광서(廣西), 호북(湖北), 해남성(海南省)등에 분포하여 약 400~500만 명이 있고, 그 중에서도 귀주에 묘족(苗族)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모든 지역에 크고 작은 촌락을 이루며 시(市)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먀오주'라 불리우는 묘족은 약 4000년전 중국 역사이전시대 한족(漢族, 화하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의 중부와 남부에 본래 살고 있었다고 한다. 고대 묘족은 비옥한 장강 중하류 지역과 황하하류 일대에 강대한 부락을 형성하여 구려(九黎)라고 불렀다. 그 후, 강성해진 한족의 핍박과 침탈을 피해 구려의 잔존부락은 장강의 중류로 이주하게 되었고, 수·당(隋·唐) 시대에는 귀주를 중심으로 운남으로 이주하였으며 당나라 때부터 "묘(苗)" 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원·명·청(元·明·淸)의 중국봉건사회 발전의

전성기에 묘족은 정치와 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이주가 빈번해져 호남(湖南), 호북(湖北), 귀주(貴州), 운남(雲南), 광서(廣西), 하북(河北), 섬서성(陝西省) 등에 분포하고,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으로까지 널리 이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천도과정을 거쳐 묘족은 국제적으로 유랑민족으로까지 거듭나게 되었다.

묘족의 가장 오래된 종교신앙은 토템숭배이다. 묘족의 민간신앙을 고찰해 보면 우리는 신앙의 문화적 산물들이 그들의 방직, 염색, 자수 등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묘족들은 험난한 자연환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강력한 민족의식과 응집력으로 단결하여 선조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의 보전 계승에 힘써왔고 , 현재에도 묘족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은 잘 보존되어 있어 상고(上古)시대의 문화예술의 발생 및 형성과정 및 요인을 밝히는데 큰 가치가 있다.

3) 중국 귀주성 뢰산현의 짧은 치마 묘족과 긴치마 묘족의 개관

중국 귀주성 검동남묘족동족자치주(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뢰산현(雷山縣)은 귀주성 개리(凱里)에서 42km 떨어진 산골의 작은 현소재지이다. 1218.5km^2 의 면적을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4개 진(鎭)과 4개 향(鄕), 1개의 수이족 민족향으로 구성되었고, 교통이나 지리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다. 뢰공산(雷公山)으로 둘러싸인 작은 산지로 전체인구의 84%를 묘족이 차지할 정도로 전형적인 묘족집단 거주지이다.

서강천호묘족의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긴치마를 입는 묘족을 장군묘(長裙苗)라고 부르고, 뢰산현 대당향의 짧은 치마를 입는 묘족을 단군묘(短裙苗)라 부른다. 묘족복식문화에서 양정문(2002)은 귀주성 뢰산현 대당향에서 묘족들이 착용하는 치마의 앞부분은 짧고 뒤부분은 긴치마의 형식을 대당식(大塘式)이라 부르고, 뢰산현 서강진 묘족들이 착용하는 띠장식 형태의 앞뒤 모두 긴치마 형식을 서강식(西江式)이라 하였다. 또한 짧은 치마 양식 즉 단군형은 4가지 양식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대당향 단군묘족이 착용하는 짧은치마의 경우 대당향 지역외 뢰산현의 도강(桃江)과 단채현의 배조(排調), 공경(孔慶) 등 향진(鄕鎭)에도 분포되어 있다. 귀주성 뢰산현 서강진의 긴치마를 입는 묘족 여자복식은 주로 뢰산현의 서강(西江), 단강(丹江), 빙락(氷樂), 대당(大塘), 및 개리시(凱里市)의 괘정(挂丁), 태강현(台江縣)의 배양(排羊)등 향(鄕)과 진(鎭)에 분포되어 있다.

단군묘족과 장군묘족은 이밖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는데, 치마의 길이가 짧고 긴 점은 공통이지만, 의복스타일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주로 대당향 단군묘족 여자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짧은 백습군(白褶裙)으로, 긴 것이라고 해도 약 30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이 묘족들을 단군묘(短裙苗) 또는 초단군묘(超短裙苗)라고 부르고 있다.

본 문에서는 중국내 소수민족 중, 귀주성 검동남 자치주에 속하는 뢰산현 지역 안에 거주하며 각기 독특한 복식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대당향(大塘鄕) 단군묘채와 서강진 천호묘채(西江千戶苗寨)등 2개 지역의 단군묘족과 장군묘족을 대상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ⅰ) 뢰산현 대당향 신교촌 단군묘채(雷山縣 大塘鄉 新橋村 短裙苗寨)의 짧은치마 묘족

대당향 단군묘촌은 귀주성 뢰산현에서 13km 떨어진 대당향에 있다. 면적은 141km^{2}이고, 전체 인구는 14.000명으로 묘족이 87.5%를 차지하여 전형적인 묘족집단 거주지이다. 자연자원과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지역특산물로는 죽순이 유명하다. 지형이 복잡하고 자연경치가 수려하다. 산과 강으로 흩어져서 교통시설과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고, 여전히 낙후된 삶을 살고 있다. 척박한 자연환경 하에서 농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단군묘'는 묘족의 한 갈래이다. 이곳 여인들이 입는 전통 복식이 짧은치마이기 때문에 이곳 묘족들을 단군묘(短裙苗)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교촌 큰길가 단군묘 제1촌 안에는 연못 위에 지어 놓은 목조건물의 곡식창고들이 세워져있다. 이 안에는 짧은치마 묘족 고유의 명나라와 청나라 건축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당나라 시대의 의상과 민족춤도 전해지고 있다.

단군묘족의 란로주(攔路酒)의 예(禮)는 란문주(攔門酒)의 예(禮)라고도 부르는데, 손님이 오면 마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다음 술 3잔을 권하여 다 마시면 길을 터주고 마시지 않으면 길을 막는 것을 말한다. 란로주의 예에는 외부의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족춤은 손님을 맞이할 때 입구에서 부녀자들이 축제 때 입는 성장을 하고, 남성들은 루성(대나무로 만든 관악기)의 연주로 광장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같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전통의 예를 중시하고, 삶의 흥을 즐길 줄 아는 문화민족의 면모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ⅱ) 뢰산현 서강진 천호묘채(雷山縣 西江鎭 千戶苗寨)의 긴치마 묘족

서강(西江)은 귀주성의 검동남주(黔東南州)에 위치한 묘족동족자치현으로, 뢰산 북동부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묘족(苗族) 거주촌락이다. 천 가구가 살고 있어 '천호묘채'(千戶苗寨)라 불리우고 있다. 원초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묘족의 누적된 문화를 보유하여 '자연박물관'으로 불리운다. 뢰산현 서강진의 천호묘채는 2006년 서강묘족의 자수, 은공예 및 전통 노래와 전통가옥 등이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세계문화유산 예비선정지로 등재되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지역으로서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습한 아열대 계절풍 기후는 연간 강수량은 1,300 ~ 1,500mm, 연평균 기온은 시원하고 쾌적한 14 ~ 16℃이다.

통계에 의하면, 청나라 成豊年間(1729년)에 인구가 600여호였고, 1964년 인구 조사에서 1,040호, 1990년에1,227호, 1997년에 1,115호였다. 2005년에 총1,288 호이고, 인구는 6,000명, 2012년 인구 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98% 이상이 묘족이다. 서강묘족은 검동남 묘족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현재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묘족의 '서씨족(西氏族)'이다. 서강묘족은 시조인 치우(蚩尤)의 셋째 아들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서강묘족(西江苗族)은 묘족 간에 교류할 때 여전히 자신들의 방언인 묘어를 사용하며, 현재 사용 중인 문자는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언어(漢言語)문자이다. 서강묘족의 기원은 조상인 'Ghet yenx'와 'Ghet mol'가 500여 년 전에 용강현(榕江縣)과 검하현(劍河縣)에서 북을 나눈 후에 먼저 샤오 뢰산에 거주하였으나 지대가 너무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다시 서강(西江)으로 옮겨와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서강묘족은 노래와 춤을 매우 좋아하는 민족으로 매년 생황축제(笙簧祝祭)가 있는데, 민족정신을 융합하고, 단결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여긴다. 음력 6월에 흘신절(吃新節)과 10월에 로생절(蘆笙節), 고장절(鼓藏節)이 있다. 명절이 되면 여성들은 명절옷을 차려입고 관악기인 루성(蘆笙)에 맞추어 춤을 추며 1년 내내 평안하라는 뜻의 200m 길이의 장탁연(長卓宴)에 연회상을 차려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의식을 강화한다. 소싸움은 마을 곳곳에서 벌어지며, 묘족은 손님을 맞이할 때 천 여년 전 당(唐)조 초기에 축조하여 나무로 조립하여 만든 풍우교(風雨橋)에서 잔치를 베푼다.

서강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전체 98% 이상의 농업생산으로서, 그 외에도 은제품의 가공, 자수, 죽기 가공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관광명소로 활성화가 극대화 되고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내용은 중국 소수민족 중 다양한 민족문화를 창출하며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묘족들 중, 복식형식(치마길이의 長短)에 따라 부족의 호칭이 명명된 2개 거주집단의 묘족을 선정하여 그들의 복식착용현황과 그 형성요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검동남 자치주 뢰산현의 대당향 짧은치마를 착용하는 묘족(단군묘라 칭함)과 서강진 긴치마를 착용하는 묘족(장군묘라 칭함)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기 다른 치마형식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 2개 묘족집단의 여자복식의 조형성과 형성과정 및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기간은 2013년 08월 10일~ 08월 13일이었고, 조사지역은 중국 귀주성 뢰산현 내 대당향 단군묘채(大塘鄉 短裙苗寨)와 서강진의 천호묘채(西江鎭 千戶苗寨)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2개 지역의 마을을 현장답사하여 사진촬영, 인터뷰, 복식착용 등을 실시하였고, 그 외 박물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 외 인터넷, 서적, 논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묘족의 복식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여자복식의 양식은 13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중국 귀주성 뢰산현 묘족 여자복식의 특징을 대당향의 짧은치마 양식과 서강진의 긴치마 양식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당현 단군묘 여자복식(짧은치마 양식)

ⅰ) 일상복

대당향 단군묘족의 일상복은 단순한 형태의 상의와 하의로 구성되어 있다. 짧은 길이의 박스형 상의는, 스탠드형의 차이니스 칼라가 달려 있고, 오른쪽 앞여밈은 어깨선에서 오른쪽 허리라인까지 매듭장식으로 고정한다. 상의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색상의 스트라이프 직물을 사용하거나 검정, 핑크, 초록, 파랑 등 무지의 직물이 사용되고 있다. 하의는 발목길이의 단순한 스트레이트형 검정색 바지를 입으며, 그 위에 분리된 두장의 치마를 두르는데, 무릎정도 길이의 한 장으로 된 사각형 앞치마는 검정색 직물을 바탕으로 하고 치마 밑단은 넓은 띠 모양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뒤부분은 앞부분 보다 긴 형태로 종아리 길이의 한 장의 넓은 사각형 치마를 두르는데, 그 위에는 기하학적인 자수장식의 띠나 직사각형의 직조 띠를 가운데에 내려뜨린다. 짧은치마 밑단의 문양은 가로무늬, 능형, 삼각형, 기하학도형을 사용하고, 문양의 색채는 홍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여 바탕색과 문양의 색채대비가 강렬하게 느껴진다. 일상복은 예식복에서 입는 짧은 주름치마를 입지않고, 세미타이트 형태의 바지를 착용한다<그림1, 2>.

ⅱ) 예식복

여성들이 명절에 입는 성장(盛裝, 명절이나 축제 때 입는 전통복장)의 상의는 비단옷으로 만들며 넓은 소매가 달리고 옷의 앞자락까지 넓은 옷섶으로 장식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옷깃을 앞에서 잠근다. 옷깃은 뒤로 제쳐져서 목덜미가 드러난다. 이 양식의 상의 복장은 직금(織錦)의 화려한 직조장식을 하여 정교한 공예의 진수와 장인정신을 보여준다. 상의 전체의 직조 문양은 기하학적인 문양을 홍색, 노랑색, 초록색, 보라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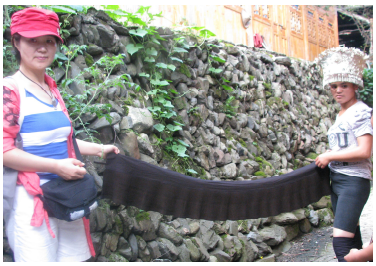
<그림 1> 짧은치마묘족의 일상복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그림 2> 짧은치마묘족의 일상복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그림 3> 짧은치마묘족의 예식복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그림 4> 짧은치마묘족의 예식복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그림 5> 짧은치마묘족의 예식복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그림 6>짧은치마묘족의 주름치마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강한 톤의 색상대비를 이루어 화려하고 섬세하다<그림 3>. 상의 앞가슴의 조각장식에는 둥근 꽃무늬와 사각의 은조각을 달기 때문에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그림 4>. 4,000여 년에 걸친 그들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자주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묘족들이 값어치가 있고, 휴대하기 쉬운 은을 재산으로 여겨 옷에 은을 가득 매달게 되었다고 한다. 부유한 지역의 여성복 재킷은 더욱 많은 장신구로 장식하는 반면에 빈곤 지역은 장신구나 디자인이 적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장복의 경우 일상복의 바지는 착용하지 않고 검정색의 레깅스를 착용한다. 그 위에 한 장의 짧은 주름치마를 전체적으로 두른 후, 그 위에는 기하학문양으로 직금(織錦)한 짧은 앞치마를 두르고 뒤에는 기다란 띠모양의 직물을 늘어뜨린다<그림 5>.

여성용 하의 장식의 주요한 특징은 백습이라 불리우는 약 20cm의 짧은 주름치마를 두르는 것이다. 백습(百褶: 백개의 주름)은 주름이 많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제작방법은 매우 정교하다. 일반적으로 청색의 무명천을 둥근 통위에서 한겹씩 주름을 잡은 후에 주름들을 무명실로 꿰어 고정시켜 만든다<그림 6>.

iii) 장신구

귀주성 뢰산현 대당향의 짧은 치마를 입는 묘족 여자복식의 주요 특징은 머리를 구름 모양으로 쪽쪄 올리는 것이고, 쪽뒤에는 은빗을 꽂는 머리 장식이다.

일상복에서 머리장식은 구름 모양으로 머리를 이마에 고정하여 뒤통수에는 빗을 꽂는다<그림 7>. 대당향의 묘족은 지름이 10cm가 넘는 귀걸이 장식을 하기도 한다.

<그림 7> 짧은치마묘족의 머리장식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그림 8> 짧은치마묘족의 머리장식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그림 9> 짧은치마묘족의 은장식
뢰산현 대당향 단군묘촌
2013.08.11.촬영

예식복의 경우 옷의 앞, 뒤를 은장신구로 가득 채우고, 머리에는 은화관으로 장식한다. 자연의 형상을 묘사한은조각은 부조형으로 표현하여 입체감이 있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묘족 부녀의 주요한 머리 장식은 반원형의 은빗을 머리 뒤에 꽂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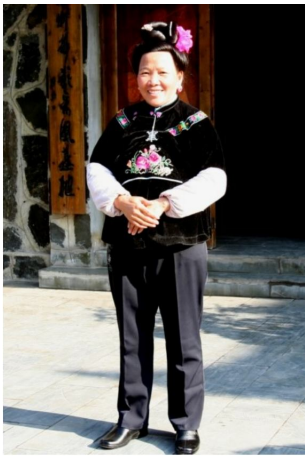
대당식의 은두관은 둥근 관 형태이며, 네층으로 이루어졌다. 맨 아래층은 이마주변에 은추(銀墜)를 달았는데,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두번째 층은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번째 층의 가장자리에는 원형의 조각을 두고, 그 주변은 용을 그리고, 물고기를 그려 모두 부조형(浮雕形)으로 표현하였다. 맨 윗층은 작은 잎 모양의 은화(銀花)를 풍성하게 꽂아서 머리 위에 활짝 핀 은꽃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은장식기법 안에 자연에 대한 찬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2) 서강진 장군묘 여자복식(긴치마 양식)

ⅰ) 일상복

일상복의 상의와 하의는 단순한 기본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짧은 길이의 상의는 차이니스의 라운드 칼라이며, 앞칼라에서 옷깃을 따라 오른쪽으로 여미며 앞가슴에는 화려한 꽃자수 장식을 하였다. 앞가슴장식은 흑색바탕에 자줏빛의 꽃을 대담하게 수놓은 것으로 어두운 색조의 직물에 빨강과 핑크색으로 수를 놓아 대비시켜 생동감이 있다<그림10>. 다른 종류의 상의는 파랑색, 핑크색의 직물에 자줏빛의 꽃으로 수를 놓기도 한다<그림11,12>. 하의는 일자형의 검정색 통바지를 입는다.

이런 단순한 형태의 바지와 오른쪽에 여밈이 있는 상의는 1930년대에 개리와 뢰산현의 일부 묘족여인들에 의해 처음 입기 시작하였는데, 건국의 해인 1949년 이후에는 편리하고 생산적인 노동과 바느질 작업을 위해 더욱 많은 묘족여인들이 거치장스런 전통복장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간편 스타일의 옷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림 10> 긴치마묘족 일상복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ongwa1840&logNo=120165271353&categoryNo=0&isFromSearchAddView=true&pushNavigation=false

<그림 11> 긴치마 묘족 일상복
뢰산현 서강천호묘채
2013. 08. 11. 촬영

<그림 12> 긴치마묘족의 일상복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ongwa1840&logNo=120165271353&categoryNo=0&isFromSearchAddView=true&pushNavigation=false

ii) 예식복

예식복의 상의는 옷섶이 양쪽으로 서로 교차되고, 고대의 깃부분이 넓어 입었을 때 뒤 목둘레 부분이 젖혀지는 형태이다.

예식복 상의의 경우 몸통부분은 파란색 바탕으로서, 소매 부분과 칼라 부분은 빨강색과 초록색의 자수문양으로 장식한 덧천으로 강한 대비를 주었다. 이 덧천 장식은 묘족 특유의 자수기법을 사용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고, 이들의 자수문양은 원시적 자연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예식복 상의에 나타난 자수문양은 머리가 둘 달린 용 혹은 날아오르는 봉황, 나비, 종묘 등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동물의 형상의 중요 부분을 부각시켜 과장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동물문양은 신성화된 자연 형상과 초자연적인 형상을 한 몸체 안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그림 13>.

예식복은 고풍스러운 의상을 차려입고 옷 깃과 어깨, 옷 소매에 은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치마는 긴 검정 치마를 받쳐 입고 발등까지 오는 직사각형의 조각을 3등분하여 자연의 동식물 문양을 빨강색과 파랑색의 대비를 주어 여러 색상의 실로 자수하여 장식한 24갈래의 조각치마를 두른다. 치마에 사용하는 각기 다른 문양의 수를 놓아, 묘족이 즐겨 사용하는 문양으로 표현한다. 한편, 치마조각의 상·하 두 부분은 꽃, 풀, 구름 등 식물문양으로 중간 부분은 용, 봉황, 새, 나비 등 동물문양을 사용하여 도안의 조형성면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동감이 있으며 사실적 접근의 민족적인 특색이 잘 나

<그림 13>
긴치마묘족의 상의
뢰산현 현지인의 집
2013. 08. 11. 촬영

<그림 14> 뢰산현
현지 묘족의 치마
2013. 08. 11. 촬영

<그림 15> 긴치마묘족의
예식복
-http://gomdolph.me/80118647810

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14, 15>.

명절이 되면 묘족여성들은 화려한 성장복(盛裝服, 명절이나 축제 때 입는 전통복장)을 입고, 옷장식으로는 은편, 은전(銀銓)과 은추(銀墜) 등이 있고, 가슴장식에는 압영(壓領)과 은 사슬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그림 16>.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과거의 화려한 장식의 전통적 예식복인 긴치마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일상복에서 사라지고 명절에만 착용하는 예복의 가치로만 남게 되었다.

iii) 장신구

일상복장을 입을 때는 머리를 이마 가까이에서 둥글게 고리를 말아 올려 고정시킨 후, 젊은 여성들은 머리 앞에 비단 꽃장식을 즐겨하고, 머리 뒷부분은 나무빗을 꽂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 17>

예식복에 사용되는 은장신구는 화려하고, 정교한 은장신구의 제작공법은 널리 알려져 있다. 머리 장식에는 은각, 용봉황, 은비녀, 은 귀걸이, 은빗 등이 사용되며 목장식에는 꽈배기모양의 목걸이와 고르고 평평한 목걸이 등이 사용된다.

은 뿔관은 전설에 의하면, 묘족 선조의 두드러진 형상이 담긴 장식이라고 한다. 치우(蚩尤)의 머리의 뿔과 같다고 한다. 전쟁 전에 묘족의 선조는 적을 놀라게 할 머리장식을 구상하여 버팔로 뿔을 디자인했고, 거대한 모양과 강한 형상은 가장 적합하다고 하여 묘족사람들에게 뿔관을 만들어 장식하게 했다. 역사적인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뿔관은 고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묘족의 선조를 가장 초월적인 신으로 신성시하여 묘족의 뿔관은 선조에 대한 의식적인 제사에 대한 물품이었다<그림 18>.

<그림 16> 긴치마묘족 가슴장식
-Miao's attires p.1

<그림 17> 긴치마묘족 머리장식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ongwa1840&logNo=120165271353&categoryNo=0&isFromSearchAddView=true&pushNavigation=false

<그림 18> 긴치마묘족 은장신구
검동남주민족박물관
2013. 08. 14. 촬영

5. 결론

묘족은 지파를 기본 단위로 삼아 단체로 천도하거나 자연과 인위의 재난을 공동으로 이겨내는 전통을 형성하며, 각 지파가 분산되었다. 묘족의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도안이나 장식은 묘족 사이에서 문자나 언어 작용을 대신한 것으로 험난했던 그들의 역사와 조상의 고향, 전쟁, 이동의 기억과 그리움에 대한 정을 생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지파는 한 종류의 스타일과 문양을 차용하여 각기 다른 복장을 만들어 착용하였기 때문에 복식을 보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지금도 묘족들은 복식, 장식품, 머리모양, 옷 색깔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마을에서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며 모여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치마길이의 차이 즉 치마형식에 의해 지파부족명이나 마을명이 명명된 단군묘채와 장군묘채의 복식의 착용 현황을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집단 모두 선조들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복식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점

옽 발견하였다. 특히 일상복보다는 축제용 복식에서 그들은 전통적 격식과 화려함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중국내에서도 고립되고 낙후가 심한 귀주성 뢰산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들만의 전통을 보존 유지하며 공동체적 유대감이나 혈연집단의 결속력 등을 통해 복식을 종족 표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짧은치마 단군묘족들의 일상복은 전통복식 스타일의 짧은치마 형식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장군묘족들은 자수나 은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비실용적 긴치마를 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실용적인 바지로 대체하여 현대화를 꾀하고 있었다. 즉, 서강식의 여자복식은 일상복과 예식복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일상복에서 전통이 사라진 반면, 대당식은 일상복에 여전히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귀주성은 은이 많은 자연조건으로 인해 은장식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묘족 축제복의 은장식은 화려함과 우아함의 극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은장식은 묘족복식에 중요한 요소로서 목걸이, 사슬, 은뿔, 은관 등 독특한 품격을 갖추고 화려하고 정교하며, 재력과 지위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은장식의 정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검동남지역은 묘족 4대 중화민간공예 중 하나인 자수가 성행하는 곳으로고도로 높은 수준의 자수공예기술을 뢰산현 두 개 묘족집단의 복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묘족 고유의 자연 문양이나 색채의 절묘한 조화를 표현하는 독창적이고 탁월한 예술성과 가내수공업의 직조기술은 찬란한 고대문화유산의 면모를 나타내며 복식조형예술의 인류문화적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두 개 조사집단의 묘족들의 빗장식, 은장식, 꽃장식으로 단장된 헤어스타일은 매우 독창적이고 유사하며, 특히 축제용 은장식 관의 세공술은 고도의 조형예술성과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단군묘 및 장군묘 복식은 치마길이의 장단과 형태의 차이를 뛰어넘어 묘족문화의 전통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재고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1) 부애진(1998), 중국(中國) 소수민족(少數民族)인 묘족(苗族)의 민족복식(民族服飾)에 관(關)한 연구(硏究), *패션비즈니스, 2(1)*, pp. 71-75

2) 김영신(2004),“중국 귀주성 마이오족 여성의 백습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6(3),* pp. 307-313.

3) 단군묘족, 자료검색일 2014. 03. 17 검색, 자료출처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aram77&logNo=40105083569

4) 단군묘족, 자료검색일 2014. 03. 17 검색, 자료출처 http://luscinia.egloos.com/m/1131558

5) 大塘, 자료검색일 2014. 03.17 검색, 자료출처 http://baike.baidu.com/

subview/718679/7010884.htm
6) 귀주-레이샨 미니스커트마을, 자료검색일 2014. 03.17 검색, 자료출처 http://blog.daum.net/suprim/12978460
7) 大唐 단군묘 마을, 자료검색일 2014. 03.17 검색, 자료출처 http://luscinia.egloos.com/m/1131558
8) Clothings and ornaments of china`s miao people. The Nationality Press, Beijing China, P. 70-71
9) 양정문(2002), 묘족복식문화, 경인문화사.
10) 西江千户苗寨,자료검색일 2014. 03.17 검색, 자료출처, http://baike.baidu.com/view/496306.htm
11) 김인희, 중국 먀오족의 고사절 축제, 중앙대 민속학과 강사
12) 양양(2012), 현대 과학기술이 묘족 여가 생활방식에 미친 영향: 귀주성 서강지역의 묘족 촌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3) 서강(西江, Xijiang): 춤과 노래의 묘족동네, 자료검색일 2014. 03.17 검색, 자료출처, http://blog.daum.net/gjkyemovie/11323519
14) 양정문(2002), 묘족복식문화, 경인문화사.
15) 중국 최대 묘족 마을, 시장(西江),자료검색일 2014. 03.17 검색, 자료출처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I5WP&articleno=6990878
16) 2013년08월14일 검동남주민족박물관 전시자료
17) 2013년08월18일 귀양시박물관 전시자료
18) 김영신, 홍정민(2002), “중국 귀주성 묘족 여자복식의 수회문양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1)*, pp.21-36
19) 부애진, 홍정민(1998), “중국 서남부의 민족복에 관한 연구-귀주성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과 학연구소,6(2)*, pp.259-272
20) 홍정민, 김영신(2001), “중국 귀주성 묘족의 복식에 관한 연구(2)-台江縣 묘족의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2), pp.115-123
21) 2013년 08월 12일 中國雷山苗族银饰束绣博物馆 전시자료
22) 홍정민, 김영신 (2001), 中國 貴州省 苗族의 복식에 관한 연구, I : 黔東南지역의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1)*, pp.53-60
23)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2008), 묘족의 숨결:서울여자대학교소장 묘족복식특별전,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24) Xianyang Zeng(1999), Guizhou’s hidden civilization, Ren min mei shu chu ban she.
25) Yan Da, Gao Song(2010). Miao's attires, Uizhou Publishing Group.

양가적(Ambivalent) 요소들의 결합을 통한 패션 디자인 연구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계급과 부르주아주(bourgeois) 계급의 대비를 시작으로-

차하나* · 간호섭
홍익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학과

1. 연구목적

계급간의 구분이 명확했던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부르주아주(Bourgeoi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라는 자명하게 대립되는 사회계급구조가 존재하였다. 이는 복식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는데 사회학자 Bourdier에 따르면 상류계층 여성은 '더 날씬하기 원하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며 돈을 지불하는 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접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았고 파리 패션 아틀리에의 주요 고객이 되었으며 옷은 살롱에서 과시할 수 있는 사치스러움과 화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자들은 기본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생활 수단으로서 옷을 입었다. 보통의 노동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은 실용적이고도 오래 입을 수 있는 내구성이 좋으며 세련되지 않은 스타일의 의상을 입었다라고 전해졌다. 필자는 이 시기의 복식을 통한 서열화가 어떤 상징적 기호(icon) 혹은 지표(index)들로 인해 서로의 계층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대립되는 양극의 요소들을 추출하여 의상에 어떠한 과정으로 재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반대되는 것들을 합쳐 하나의 결합체를 완성하는 문화의 통합(Contagion project)라는 가제를 가지고 표현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와 부르주아주(Bourgeois) 계급에서 보이는 극명한 대조적 복식 스타일과 상징적 요소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상반 혹은 대립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점층적으로 진행하여 그 안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미적 디자인적으로 병치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정(正)과 반(反)이 만나 새로운 합(合)을 창출하는 차별화 된 디자인 전개를 보여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모드의 역순환(counterinjection; reverse circulation)

19세기 산업화 시대의 노동 계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와 더불어 위축된 소비 형태로 인해 의식주로서의 기능을 해결하는 일차적 목적에 의해 옷을 입었다.

이로 인해 옷을 자주 구입 할 수 없는 노동계층의 옷은 낡았고 남루하며 더럽혀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에게 넘어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노동계층에서 드러나는 스타일들은 시대를 이끄는 전위적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쳐 하이엔드 패션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콤므데가르송의 레이 가와쿠보는 의도적으로 천을 닳게 하기 위해서 땅에 묻거나 밟는 행위를 통해 천을 해지게 만들고 더럽히는 방식을 디자인으로 택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천을 이용하여 그런지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또한 그녀는 천에 녹이 스는 방법과 부패시키는 기법을 이용해 원단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여 파리 컬렉션에 소개하기도 하였고 이는 화려하고 값 비싼 천으로 만든 의상이 고급 의상이며 디자이너 부티크의 특징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당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위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의미는 누더기에 낡고 남루하게 닳은 스타일이 아름답다고 정의하는 추의 미학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패션의 트렌드를 뒤집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서양에서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e)는 퇴적물을 재분리하고 재커팅하여 패션이 완성되는 방법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은 전통적으로 고급스럽고 잘 만들어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화려하고 값비싼 직물들이 고급의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 값 비싼 하이엔드 패션의 기준들이 더 이상 상류계층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스타일에서 하향전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trickle down process' 와 상반되는 'bubble up process' 라고 정의 되어질 수 있으며 지멜[1)]의 이론을 반박하며 후기구조주의 사회에서의 하류 계층에서부터 상류계층으로 패션의 유행이 상향 전파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는 패션사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현상으로 계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하류계층의 상류계층 모방과 상류계층의 하류계층 스타일의 차용과 함께 그 차이점이 점점 더 모호해지며 심지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Beverley, 2004). 이것이 바로 모드의 역순환(counterinjection; reverse circulation) 이며 필자는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과 부르주아주 계급의 복식 차이를 기반으로 서로 대립되는 상반 요소들을 추출하여 하류계층에서 드러나는 상징적 기호-예를 들면 낡고 헤지며 더럽혀진 앞치마나 활동성을 고려한 점프수트(Jumpsuit)-들을 상류계층의 상징적 기호-실크 소재와 골드 와 같은 금속-와 결합시켜 궁극적으로 하류문화의 영향을 받은 하이엔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2) 디자인 전개 절차

디자인을 전개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필자의 디자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근거가 되는 디자인 방법론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과 부르주아주 계급의 대립적 구조를 발전시켜 이차적으로 상반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가 살펴본

상반개념은 상호보완적이며(Complementariness) 간성적이고(Intersexuality) 양립 가능한(Compatibility) 결합체로서 판단되었고 삼차적으로 양 극에 존재하는 기호와 텍스트들을 모아서 대치시킨 요소 중에 단순성과 (Simplicity) 복합성(Complexity) 개념을 필자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끌어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단순성을 대변하는 상징적 지표로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복합성을 대변하는 상징적 지표로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를 끌어와 극도로 단순화 시킨 실루엣과 해체된 소재 개발을 연구하였다.

① The proletariat and The bourgeois
↓
② Opposites (Complementariness or Intersexuality or Compatibility)
↓
③ Simplicity (Minimalism) and Complexity (Deconstructivism)

①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와 부르주아주(bourgeois)에 대한 연구

a.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Keyword: Workers without high status, especially industrial workers ,Working class ,Social inferior ,Lower class

그들의 스타일은 마치 탐닉스러우면서 천하고 경망스럽다. 여성은 코르셋에서 벗어나 'half-naked(반 이상이 벗겨지고)' 가슴은 제멋대로 풀어헤쳐 있고 소매는 땀에 젖어있으며 머리는 정돈되어 있지 않고 더러운 블라우스와 뜯겨지고 오염되어있는 차마를 우스꽝스러운 모자와 야한 칼라 의상과 함께 입는다. (Barret-Ducrocq, 1992)

b.부르주아주(bourgeois)

Keyword: Middle class, A class of citizens who were wealthier members, White collar workers, Upper class

옷감의 소재, 색상을 법제화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나타내는 의복의 표시-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 짠 비단, 장식 끈, 안감, 모피, 깃털, 레이스, 값비싼 금속 또는 염료-들을 입음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보장 받았다. 한마디로 옷을 통해 권리를 드러냈으며 화려함을 강렬하게 표현했다. (필리프 페로, 2007)

② 상반개념 (Opposites)

Objectives		Subjectives
Noumena		Phenomenal
Perceived		Inferred
Categorical		Hypothetical (Absolute assertion Conjecture)
Free	⇔	Necessary
Moral		Natural
Forming		Deforming
Softness		Roughness
Constructing		Destroying

->T.S. Eliot에 따른 상반 개념

상반되는 것은 정반대되면서도 모순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반대된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점을 통해 서로에게 상관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상반된다는 것은 그것과 관계있는 다른 것을 함축한다. (when one of the opposites is written, it implies the other because it is relative to the other. Not only is nothing real unless there is something unreal, but for anything to be real or unreal is to be so only to a degree. T.S. Eliot)

③ 단순성(Simplicity) 과 복합성(Complexity)

a. 단순성(Simplicity): 미니멀리즘(Minimalism) - 실루엣(silhouette)

단순성과 미니멀리즘을 연결시키어 필자의 의상에 보이는 실루엣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These fields of research about Minimalism have generated the silhouette of my garments which is simple and concise.)

b. 복합성(Complexity):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소재개발(fabrication)

해체를 통해 단순성과 대비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였고 작은 요소들로 분해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소재개발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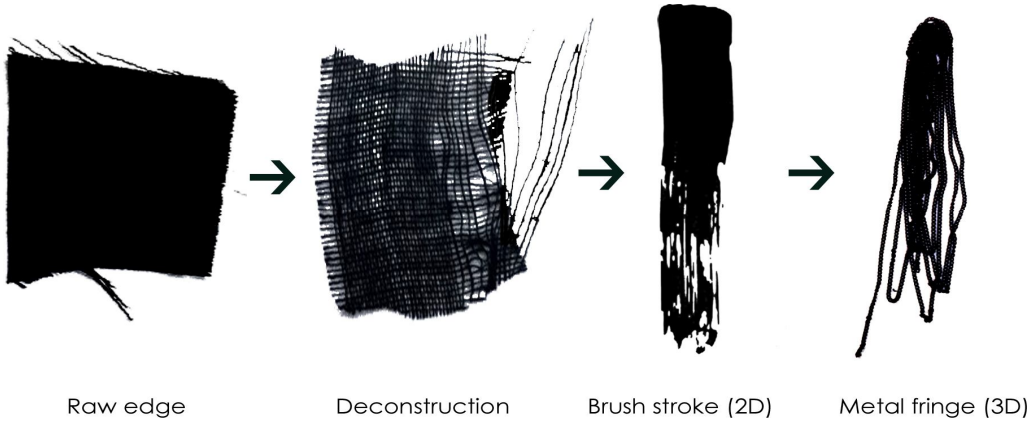
->Ruin action (해체 또는 파괴 시키는 행위)

- Idea of fragmentation
- Interest in manipulating the ideas of a sculpture's surface or skin
- Non-rectilinear shapes which serve to distort and dislocate some of the elements

이러한 해체 조형 원리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식에서 상징적으로 보이는 뜯겨지고 정리되지 않은 남루한 요소와 함께 접목시키어 마감되지 않은 천의 단면을 해체시켜 프린지(Fringe)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필자만의 디자인 방법론(Methodology)을 창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천은 실로 조직이 짜여 있고 이 실로 짜인 조직을 다시 풀어

헤치는 과정(Ruin action)을 통해 해체를 표현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로 짜인 천의 올을 하나하나 뜯는 행위를 통해 실들을 추출하였고 해체되어진 천을 보며 브러쉬 스트로크(Brush stroke:물감이 화면에 닿아 생기는 필적이나 필치와 같은 붓자국의 형태)를 연상하였다. 이는 2D로 설명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으로 필자의 의상에 동양적 붓터치 패턴으로 실크스크린을 이용한 소재개발로 사용되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평면의 브러시 스트로크를 입체로 표현하는 방법론을 창출하여 얇은 체인을 그라데이션 형태로 겹쳐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인 브러시 스트로크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2D와 3D로 표현되는 브러시 스트로크를 통해 모종의 환상(Illusion)을 일으키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끌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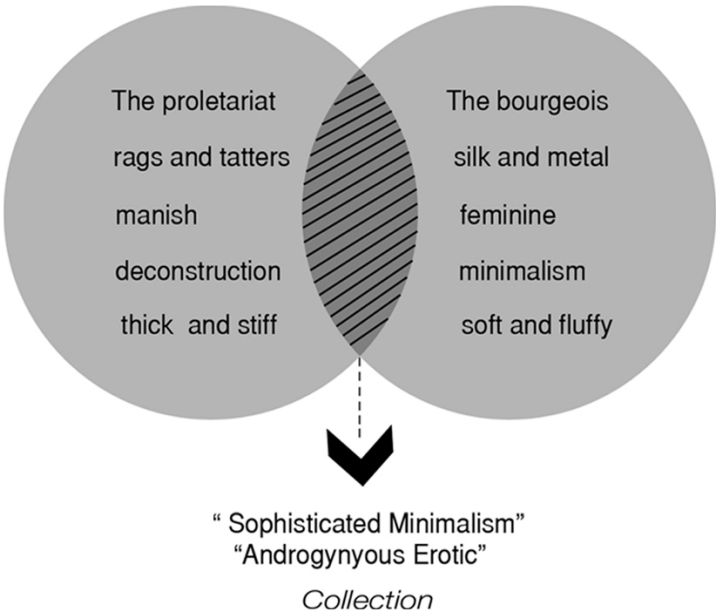
<Raw edge ---> Deconstruction---> Brush stroke (2D) ---> Brush stroke (3D)>



<그림 1>

3. 결과 및 고찰

앞서 연구한 과정들을 거쳐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주 계급의 대립을 시작으로 양가적, 상반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총 두 번의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첫 번째 컬렉션은 석사 졸업 프레스 쇼로 총 12벌로 구성되었다. 이 후에 연장선상으로서 2013년도 London fashion week에서 13S/S collection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주 계급의 상반된 요소-해진 천이나 넝마와 같은 요소와 실크와 골드-의 결합과 그것을 시작으로 추출된 양가적 요소- 남성성과 여성성, 해체주의와 미니멀리즘, 부드럽고 투박한 것-들의 결합에 이은 디자인 방법론을 가지고 컬렉션이 완성되었다. 필자는 이 컬렉션을 “Sophisticated minimalism & Androgynous erotic" 이라고 요약하였다.



4. 결론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세상 밖으로 표출한다. 비록 우리의 추측이 항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옷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 사람의 배경과 그들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지 또한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말하는지와 사회적으로 어느 집단에 소속해 있는지를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언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로서의 복식은 계급간의 서열이 분명했던 과거에 더욱 뚜렷했고 필자의 연구에서는 계급간의 격차가 극명히 그려졌던 19세기의 부르주아주(Bourgeoi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라는 대립하는 두 계층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가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계급구조에서 드러나는 상징적 요소들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서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영향을 주는 디자인 방법의 일환으로서 상류계층의 하류계층 스타일의 차용에 의한 모드의 역순환(counterinjection; reverse circulation)개념을 추출하여 필자의 의상에 접목시켰다. 결과적으로 과거 19세기 계급구조나 자본주의 구조 아래 현대인이나 다른 그룹 스타일의 패치워크를 모아 모방하는 끝없는 쳇바퀴를 도는 것임을 제시하며 양면가치 혹은 상반개념의 결합 혹은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이후에는 과거 전통 계층의 경계는 개인의 외적 모습-입는 옷-에 기초하여 뚜렷이 드러났지만 지금은 그러한 계급과 개인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것이 모호해졌다는 것을 인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문화와

관습, 신선한 생각들을 끌고 들어오는 젊은 이민자들 유입의 증가 등의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Crane 1993).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 발전되는 연구로서 제시를 한다면 20세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 구조 안에서 모호해지는 계급간의 격차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계층화가 의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이는 민주주의시대에서 드러나는 패션의 양이성(Ambivalence to Democracy in Fashion)으로 명명 되어질 수 있다- 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Alison Lurie(1981). Language of clothes . London : Bloomsbury, 1992.

Angela Partington(1992). Popular fashion and working class affluence. p144-161 / In: Chic Thrills.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1981). British worker. photographs of working life, 1839-1939. / London: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Beverley Skeggs(2004). Class, self, culture / London : Routledge

Caroline Evans(2003). Fashion at the edge.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c.

Christopher Wright(1972). Working class. / London: Batsford,

Diana Crane(1933).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2000.

Elizabeth Rouse(1989). Understanding fashion./Oxford: BSP Professional.

Guy Debord(1994). Society of the spectacle / New York : Zone Books,

George Orwell(1949). Nineteen eighty-four. / London: Penguin 1887

Norman Longmate(1975). Milestones in working class history / London :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Jane E. Workman, Beth W. Freeburg(2009). Dress and society, / New York: Fairchild.

Yuniya Kawamura(2005). Fashion-ology / Oxford: Berg.

그린 노마드(green nomad) 복식에 관한 연구

김 혜 정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부교수

1. 서론

산업전반에 걸친 그린 노마드는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감성적 트렌드의 추구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해내고 있으며 실천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주도적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집중되어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의 고갈 및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은 자신을 넘어 인류와 다음 세대에 대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덜 소비하고 덜 버리기 위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디자인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는 등, 문화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집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열성적 집단으로 컬트의 성향을 지니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귀농족(Re-farm tribe)등과 함께 건강여가 족으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집단이 있으며 느리게 사는 삶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다운 시프트(Downshift) 족 등이 있으며 주말 농장에서 농경체험을 한다든지 자연 및 야생체험을 하는 집단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는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 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도심 속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라이프스타일로의 변화는 인테리어, 가구 등 뿐 만이 아니라 어반 캠핑처럼 도심에서 캠핑을 즐기기까지 한다. 이들은 집단을 이루기보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의 자기치유나 힐링과 휴식 등으로 존재한다.

이는 자연으로 회기 하고자 하는 욕구와 도시로부터의 탈출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초적 자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은 친환경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디자인의 친환경성여부가 구매결정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마케팅의 중요성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제도에까지 파급되어 가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목적

이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정신적인 해방감을 누리려는 도

시의 유목민인 그린 노마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그린 노마디즘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노마디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또는 친환경적 요소를 트렌드와 함께 파악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현상을 이해토록 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린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 유형 및 경향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차별화된 마케팅적 측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감성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다양한 상품개발과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로써 생태적, 친환경적 태도와 취향 및 삶의 추구방법을 통해 그린 노마드의 정의와 그들의 의복행동으로서의 디자인 경향에 대한 이미지의 도출과 스타일과 컬러, 패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생태적 친환경적 경향 중 하나로 대두되었던 웰빙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자연 친화의 단계였다면 웰빙족을 넘어 로하스(LOHAS)족은 사회와 환경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개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로하스는 자연으로 찾아나서 자연을 보호, 보존하는 단계로[1] 이후 에코라는 트렌드로 진화되었다.

웰빙은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문화 또는 그러한 양식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슬로푸드(slow food) 운동, 1990년대 초 느리게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슬로비족(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 부르주아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보스(bobos) 등도 웰빙의 한 형태이다.[2]

그에 반해 도심의 생활을 누리며 자연의 환경을 만끽하는 그린 노마드는 도시 유목민으로 자연을 일상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도시 유목민 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정서적 유랑을 꿈꾸는 현대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정신적 안정감과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 주변을 힐링적 요소들을 끌어들이고 적용한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현상의 단면으로써 답습적 삶의 형태에 반기를 들면서 대중의 내면에 숨어있던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더 나아가 공존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 추구를 친환경적으로 끌어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자연을 찾아 떠나는 대신 집안을 자연풍으로 꾸미고 도시 안에서 자연을 담아내거나 주거 공간들을 캠핑장으로 꾸미는 것이 바로 그린 노마드의 전형인 셈이다. 이들을 겨냥한 상품으로는 자갈모양의 쿠션이나 나무모양을 연상케 하는 냉장고 등을 들

수 있다.[3)]

환경지킴이(eco-friendly)로서의 환경, 건강,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은 집과 사무실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꾸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새로운 소비층인 그린 노마드로 존재하며, 일반소비자들도 에너지 절약형 상품이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한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 적극적으로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는 에코 매니악(eco-maniac)과 그린 노마드는 친환경 시장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주거 등에 이르기까지 에코트렌드로 적용되어 기업의 그린마케팅을 촉진시켰으며 사회 전반에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확산시켰다. 또한 식품, 주거가구, 인테리어, 건강 화장품, 의류 잡화 등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 디자인이 적용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진화되었다.[5)]

이는 공존을 위한 긍정적 태도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까운데서 실현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영향력을 넘어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다.

4. 결과 및 고찰

친환경 섬유 소재는 '환경 친화' 또는 '인간 친화' 섬유를 뜻한다. 제조과정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생분해가 가능하고,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개발된 친환경 섬유소재로는 옥수수 섬유, 바나나 섬유, 대나무 섬유, 콩 섬유, 유기농 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나무 섬유는 천연 항균성과 탈취성이 우수하며 생분해성을 지녀 환경을 보호한다. 콩 섬유는 피부노화예방과 항 알레르기 효과로 기능성 속옷, 의료용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유기농 면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며, 염색가공 공정에서도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6)]

디자인에 있어서는 동, 식품으로 부터 얻어진 자연적 영감이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되어 나타난다. 단순한 자연들로 부터의 패턴들은 모래와 자갈 등 광물적 요소들과 나무와 숲과 같은 식물적 세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감성이 표현된다.

스커트, 팬츠, 셔츠, 재킷과 모자, 튜닉 등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친환경소재인 유기농 제품으로 제작된다. 실루엣은 코쿤 스타일의 오버사이즈와 넓지 않은 스커트의 폭과 상의의 재킷은 엉덩이를 가리거나 무릎 위의 길이로 활동성을 강조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심리스(seamless)로 처리하여 형식을 파괴하며 디테일로부터 자유롭게 유연함을 강조한다.

착장은 레이어드된 스타일로 겹침의 효과를 연출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스타일들의 코디네이션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유로운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스카프의 어깨, 목, 허리, 힙 등의 자유로운 매칭은 착장의 규칙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코디네이션의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정신적 해방감을 주고 있다.

텍스추어에 있어서는 헴프와 리넨, 코튼 등의 자연에서 얻어진 유기농 소재와 함께 엠보싱된 가죽, 레이스, 빈티지한 거즈와 슬럽(slub)사와 부클레 얀, 낟알(grain)과 같은 터치된 니팅과 우븐의 절묘한 조화와 자수와 덧붙여진 트리밍 등이 다양한 염색기법과 규칙 없이 조합되어 창조되었다. 거칠게 짜여진 청키함은 소재의 견고성과 함께 순수한 외관을 표현한다.

컬러에 있어서는 다양한 컬러들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로 색이 빠지고 닳아 오랜 된 듯한 컬러들의 조합은 정렬되고 순화된 컬러보다는 거칠고 헤지고 투박한 질감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컬러는 올리브 그린, 하프그린 등으로 밝고 맑은 컬러들의 그린 군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 카키와 러스틱한 브론즈, 엄버(umber), 짙은자주의 클라레 컬러(claret color) 등의 침착하고 수수한 컬러들은 베이지, 연갈색의 시에나(sienna) 등의 뉴트럴 컬러들이 베이직하게 조합되어 부드러움을 강조한다.

패턴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패턴들과 블러드된 패턴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한다. 명확하고 부정확함이 공존하는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 참고문헌

1) 이형섭, 그린 노마드(green nomad), 뉴스에이(2010. 05. 03) 자료검색일 2014. 03. 27, 자료출처 http://www.newsa.co.kr/news/
service/article/

2)웰빙, 두산백과 검색일 자료검색일 2014. 04.02,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

3)그린노마드, 한경닷컴 - 한경 경제용어사전(2007. 02. 07) 자료검색일 2014. 03. 15, 자료출처 http://s.hankyung.com/dic/

4)김선주(2010), 트렌드 코드에서 비즈니스 기회 찾기, 좋은책 만들기, p.33, 자료검색일 2014. 04. 05, 자료출처 http://book.daum.net/detail/

5) 김난도(2009), 트렌드 코리아, 미래의 창, p.61 자료검색일 2014. 03. 29, 자료출처 http://book.daum.net/detail/

6) 조길수, 따뜻하게 감싸는 겨울철 섬유의 세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자료검색일 2014. 04. 02, 자료출처 http://jaga.or.kr/?p=2695

팝의 황제 Michael Jackson의 무대의상에 내재된 상징성+

이주현* · 배수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Michale Jackson, 1958-2009)'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떠났다. 마이클 잭슨은 '노래하는 가수'의 틀에서 벗어나 춤, 패션, 퍼포먼스, 프로듀싱 등 자신의 무대에 완벽성을 추구한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특히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에서 마이클 잭슨을 빛나게 했던 부분은 시대를 주도했던 패션이었고,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도 마이클 잭슨의 스타일이 대중패션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잭슨의 앨범별로 나타난 무대의상의 컨셉과 아이템, 스타일 등의 분석을 통해 그가 의상에 부여한 상징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마이클 잭슨의 앨범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시청자 수, 콘서트 투어의 관객 수는 항상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세계적인 많은 팬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퍼포먼스와 더불어 그의 음악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인 무대의상이었다. 의상부터 세세한 아이템을 만드는 데까지 직접 참여하고 많은 신경을 쏟아 부은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화려한 의상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렇듯 그가 발매한 앨범 중 1979년 싱글 앨범부터 2001년까지의 특히 주목받았던 앨범의 순회공연 중 착용한 무대의상을 연구하여 유행을 주도했던 의상과 스타일에 내재된 상징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먼저 그의 대표적인 앨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9년 <Off the wall>, 1982년 <Thriller>, 1987년 <Bad>, 1991년 <Dangerous>, 1995년 <History>, 2001년 <Invincible> 6개의 앨범 발표 후 순회공연에서 착용한 무대의상을 고찰하여 유행을 주

+ 본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3HR15D0801)

Corresponding author : Bae, Soo-Jeong Tel. +82-62-530-1344 Fax. +82-6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도했던 의상과 스타일에 내재된 상징성을 의복 아이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79년 에픽 레코드에서 낸 첫 번째 잭슨의 솔로 앨범 <Off the wall>은 그 해 베스트셀러 앨범이었다. 이 무대에서 잭슨은 당시 유행했던 디스코 댄스를 보여주었다. 잭슨은 곱슬거리는 파마머리에 나팔바지 스타일, 딱 달라붙는 셔츠를 입음으로써 디스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또한 몸의 라인을 잘 살려주는 딱 붙는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착용하거나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었다.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R&B스타일의 음악을 유행시켰고, 흑인가수로써 최고의 판매기록을 세웠다.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을 훗날 전설적인 뮤지션으로 대중들의 기억에 남게 만드는데 기여한 앨범이었고, 그의 의상은 나팔바지와 반짝이는 스팽글 등으로 대표되었다. 당시 잭슨 파이브 이후 외로웠던 잭슨의 힘든 시기를 털어내는 듯 앨범 그대로의 빠른 템포의 신나는 댄스로 70년대만의 즐거움과 열정을 의상에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1982년 <Thriller>앨범은 그를 슈퍼스타로 격상시킨 앨범이었다. 이 앨범에서 현란한 브레이크 댄스, 문 워크 댄스와 함께 발목길이의 검정바지와 흰 양말, 클래식 페도라 등을 착용한 제복스타일로 전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또한 당시에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박힌 장갑을 착용하여 인기를 끌었고, 금빛 단추가 들어간 군복 스타일을 선보여 근엄하고 딱딱한 느낌의 의상들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사적 이미지는 잭슨의 완벽한 음악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흑인에 대한 편견과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대중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한 것이 의상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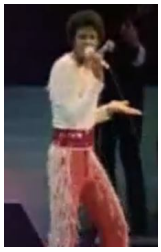
1987년의 히트곡 <Bad>에서도 역시 제복스타일의 연장선이었다.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의 가죽 의상들과 좀 더 드라마틱한 무대의상을 선보였으며 퍼포먼스 또한 화려해졌다. 무대의상에 화려한 은빛, 금빛 컬러를 사용하여 자신의 슈퍼스타적 이미지를 과시하면서도 자신의 또 다른 전사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확고히 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난다.

1991년 <Dangerous>앨범 투어의 무대의상으로는 심플한 화이트셔츠, 블랙팬츠 등으로 자신만의 패션스타일을 이어갔다. 또한 화려한 컬러로 디자인된 펜싱셔츠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영국의 오래된 스포츠 펜싱이 마이클의 열정과 일치한다고 보인다. 그는 무대에서의 화려한 칼 군무와 거대한 스케일의 무대효과로 공연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투어를 통하여 자선기부, 전쟁으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함으로써 잭슨의 음악에 나타난 대중을 위한 전사로서의 메시지를 현실화하기도 하였다.

1995년 <History>앨범은 의미 그대로 그의 패션역사를 모두 보여주듯 화려함이 가장 강했다. 잭슨 파이브 활동 시절 비디오'dancing machine'에서 영감을 받아 투어의상으로 자신을 미래형 로봇 전사로 표현하였다. 화려한 은빛과 금빛이 섞인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든 한 벌의 수트를 착용하고, 그 위에 자신에게 딱 맞게 제작된 갑옷형태의 아

이템을 선보였다. 콘서트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우주선 무대장치를 타고 내려오고 얼굴까지 가리는 헬멧을 착용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미래형 로봇 전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였다. 화려함의 정점을 찍듯 너무나 폭발적인 무대였고, 이 투어 때의 패션은 미래주의적인 패션사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무대의상은 분명 트렌드에 좌우되지 않는 그만의 독립적인 패션의식이 반영되어 있고, 완벽한 퍼포먼스와 음악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2001년 <Invincible>앨범은 마이클 잭슨이 소니와의 계약이 만기되어 갈 즈음 발표한 앨범으로, 마이클의 정규 앨범으로서는 최저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음악이 많이 홍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0만장의 기록을 남긴 무적의 앨범이었다. 이 시기에 잭슨은 소니와 극심한 불화뿐 아니라 이제까지 언론이나 미국사회에서 받았던 탄압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 때문인지 당시 앨범활동의상은 화려하기 보다는 Black&White로 매치하여 다소 깔끔하며 차분한 느낌이 보여 졌다. Thriller 활동 때와 거의 비슷한 무대의상이지만 Invincible활동 때에는 깔끔한 실크소재의 블라우스와 수트를 착용하여 마이클 본연의 스타일인 발목길이의 바지와 흰 양말을 다시 보여주었다. 공식석상 등 평상시에 얼굴을 가려 비닐주의 패션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앨범에서만큼은 잭슨의 총 앨범 활동을 정리하고 회상하는 듯 편안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강조된 곡들이 많이 보여졌다.

Off the wall tour (1979)	Thriller tour(1982)	Bad tour(1987)	Dangerous world tour(1991)	History world tour(1995)	Invincible tour(2001)
					
-나팔바지 스타일 -몸에 맞는 셔츠	-발목 길이의 바지 -흰 양말 -페도라	- 실버 컬러 셔츠 -강렬한 벨트, 견장	-화려한 컬러의 펜싱셔츠 -가죽 팬츠	-스판덱스 소재의 골드&실버컬러 수트 -메탈 갑옷	-깔끔한 실크소재 블라우스&블랙 수트

4. 결론

마이클 잭슨의 앨범은 출시 때마다 역사상 기록을 남기곤 했다. 또한 그는 앨범들을 통하여 최초의 흑인 가수로써 팝의 제왕이라는 명성을 남기고 떠났다. 그 앨범의 판매량에 대응할 정도로 대중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같은 내면적 갈등 상황, 대중들의 외모에 대한 비난 등을 겪으면서도 그는 항상 훌륭한 퍼포먼스와 무대의상을 통

하여 그의 열정을 표현하였고, 훌륭한 전사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남겼다. 잭슨은 남들이 유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유행으로 만들어내었고, 항상 자신의 스타일을 자연스럽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무대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소화해 내어 공연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현재까지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와 춤 그리고 액세서리 등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반짝이로 장식된 제복스타일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써 영원한 '팝의 황제'인 그와 그의 무대를 회상하게 한다.

■ 참고문헌

1) 티메 출판사 편집부 역, 문신원 옮김(2009), *마이클잭슨, 특별한 운명*, 서울: 뮤진트리, pp. 92-93.

2) Michael Jackson, 베스트 트랜스 옮김(2010), *MOON WALK*, 더클래식, p. 173, pp. 224-225.

3) 김주연, 양아랑, 이효진(2009), *"마이클 잭슨(Michael Joseph Jackson) 무대의상 스타일 분석(2009)"*, 한국의상디자인학회 Proceeding, pp. 116-117.

4) 박정자(2009), *박정자의 노마드 강의 마이클 잭슨에서 데리다까지,* 서울: 기파랑, pp. 22-23

5) MICHAEL BUSH(2012), I*NSIGHT EDITIONS, THE KING OF STYLE*, p. 136, p. 145, pp. 148-149.

21세기 트랜스포머블 (transformable) 패션 에 나타난 미적 특성

김주영 · 김영선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인간과 환경 사이의 조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패션은 의복을 통해 인간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왔다. 21세기 디지털 정보사회의 복잡한 도시생활 속 잡 노마드(job nomad)들은 다른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하며, 특히 잠시 머무는 통과의 공간에서의 시간 증가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위한 다기능적, 혁신적인 패션이 요구된다. 트랜스포머블 패션은 도시 유목민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후 변화, 장시간의 이동, 물리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이동적, 기능적, 다변적, 적응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쉽게 소비되고 쉽게 버려짐으로써 낭비를 유발하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지속가능적(sustainable) 패션, eco 패션의 대두는 한 벌로 여러벌의 효과와 다양한 조합, 개성표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트랜스포머블 패션을 촉발시켰으며, 소비자의 항변적 욕구를 충족시켜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용성, 다기능성, 지속가능성, 독창성, 다변성 등으로 이머징 트랜드가 되고 있는 21세기의 트랜스포머블 패션의 다양한 유형을 범주화하고, 그 기반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여 트랜스포머블 패션의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개념은 구성 요소의 상실 없이 재형성, 재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하며(Loschek 2009), 선행 연구에서 다목적, 다변화, 다기능, 가변성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Quinn (2002)은 트랜스포머블 패션의 조형원리로서 해체와 재구성을 들고 있으며, 유연성, 이동성, 적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연구자는 한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로의 전환, 착용자의 조작에 의한 전환, 다기능의 동시적 전환을 포함한 실루엣, 사이즈, 디테일, 볼륨 등과 같은 '형태의 전환'이라는 개념에 의거해 트랜스포머블(transformable) 패션이라 정의한다.

Corresponding author : Yonson Kim Tel. 82-2-2077-7129 Fax. 82-2-2077-7324
E-mail: kiyoso@sm.ac.kr

본 연구는 트랜스포머블 패션에 대한 발생 배경으로서 해체주의, 노마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트랜스포머블 패션이 나타난 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한다. 실증적 자료는 트랜스포머블 패션을 주요 테마로 하는 디자이너와 회사의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패션 전문 서적, 인터넷 사이트, 패션 잡지에서 추출하였다. 연구 시기에 있어 트랜스포머블 패션의 본격적인 출현은 1990년대이지만 2000년대 이후 현대패션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21세기이후로 한정하였으며, 빛, 색, 센서 등의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제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부각된 기능주의, 해체주의, 노마디즘, 지속가능성의 영향으로 발생한 21세기 트랜스포머블 패션의 유형은 모듈러형, 폴딩(folding)/타잉(tying)/리버시블(reversible)/레이어링(layering), 하이테크 형태전환(shape shifting), 웨어러블 오브젝트로 나타났다.

첫째, 모듈러형은 스냅, 단추, 지퍼, 벨크로 등의 패스너를 통해 탈부착 가능한 패턴 모듈형과, 똑같은 조각들의 해체와 조립, 재구성을 통해 무한한 아이템을 창조하는 퍼즐형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로는 Patrick Cox, Ch-armz, Kathleen Dombek Keith, Eunsuk Hur, Galya Rosenfeld 등이 있으며 유연성, 다변성, 맞춤성의 미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폴딩/타잉/리버시블/레이어링은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인도의 사리 같은 민속복에도 전통이 남아있다. Rad Hourani, Jeff Griffin, John Ribbe, Jolier, Wen Guo, Tilman Lauteroach 등은 접기, 묶기, 뒤집기, 레이어링 등의 연출, 스타일링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과 의복 아이템으로 전환을 했으며, 로우테크(low tech)의 미학을 제시하였다.

셋째, 하이테크 형태전환은 물리적 힘 즉 모터, 기계적 컨트롤을 이용한 Hussein Chalayan, Vilkas & Kukkia,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Corpo Novo, 팽창재를 이용한 Diana Eng 등이 있으며 기술성, 혁신성, 일시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웨어러블 오브젝트는 Lucy Orta, CP Company, Jeff Griffin, Hussein Chalayan 등의 작품에 나타나며 피난처, 보호복, 텐트와의 웨어러블 아키텍쳐(wearable architecture), 침대, 의자, 쿠션과 연합한 웨어러블 퍼니쳐(wearable furniture), 가방으로 통합된 웨어러블 백(wearable bag)으로 분류되었으며, 보호성, 이동성, 휴대성을 제시하였다.

4. 결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기능주의, 해체주의, 노마디즘, 지속가능성 등의 영향하에 등장한 트랜스포머블 패션은 가장 단순하며 가장 미니멀한 패션 표현으로서, 디자인이 복잡

해 보이나 그 뒤의 원리는 유용성, 기능성, 착용가능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시 유목민의 T.P.O.에 맞는 착장을 가능케했다. 또한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디자인 확장, 그리고 공간, 구성과의 실험, 의상의 건축화, 용품화, 인테리어화 등은 이머징 트랜드 디자인의 혁신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통적 패션이 가진 정지성의 관념을 초월해 운동성, 다변성, 다기능성의 미래 패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트랜스포머블 패션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기능성, 착용가능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시 유목민의 T.P.O.에 맞는 착장을 가능케하며, 미래 패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London: V & A Publications.

Chalayan, H. & Evans, C. (2005). *Hussein Chalayan.* New York: NAi Publishers ; Groninger Museum.

Quinn, B. (2012). *Fashion futures.* London, UK: Merrell.

Quinn, B. (2002). *Techno fashion.* Oxford ; New York: BERG.

Quinn, B.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Oxford ; New York: BERG.

Koo, H. (2012). *Design Functions in Transformable Garments for Sustainability*. Retrieved November 16, 2012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Retrieved from http://conservancy.umn.edu/bitstream/133808/1/Koo_umn_0130E_12975.pdf

Yeung Yuet Ming, Hazel(2013). *THE STUDY OF SUSTAINABILITY IN TRANSFORMABLE FASHION*, BA,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Retrieved from w

양희영, 양숙희(2006),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건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복식, 56(7)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적 관련성 분석+

-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

김효주*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사회가 발달해 감에 따라 외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외적인 요소들의 종합인 토탈 패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의복을 선택하고 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게 되는데, 이처럼 의복과 헤어스타일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의복의 여러 요소 중에서 헤어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네크라인과 칼라는 헤어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성 있다. 미용분야 전문가인 리차드 코슨(Richard Corson)은 그의 저서"Fashions in hair"에서 역사상 유행에 민감한 패셔니스트들은 의복과 매치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며, 의복과 헤어스타일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헤어스타일은 의복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면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의복에 나타난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화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형태적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패션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의복 요소인 네크라인과 칼라에 조화되는 헤어스타일 연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각 시대별 주류 패션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칼라의 형태적 관련성으로 한정하였다. 시대적 범위 설정의 배경은 칼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16세기 이후부터였고, 또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각

+ 본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3HR15D0801)

Corresponding author : Bae, Soojeong, Tel. +82-62-530-1344 Fax. +82-6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시대 별 주류 패션이 분명하여 특징적인 의복요소 및 헤어스타일을 추출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 · 외 서양복식사 관련 서적과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사진 자료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네크라인 및 칼라와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는 회화나 인물화가 잘 나타난 미술사, 서양복식사 관련 서적 등 2차 자료를 통해 사진을 분석하고자 하며,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류학 전공 석사과정 이상의 5인의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각 시대별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네크라인 및 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적 관련성을 너비와 높이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네크라인 및 칼라와 헤어스타일의 형태적 관련성을 정리하고, 패션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네크라인 및 칼라에 조화되는 헤어스타일 연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3. 세기별 네크라인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 및 관련성

16세기 초기에는 주로 스퀘어 네크라인이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헤어스타일은 주로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이나 업 브레이딩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16세기 중·후반에 러프 칼라가 등장하였고, 전 유럽에서 이 칼라가 유행하였다. 초기에는 작았던 러프 칼라가 점차 커지면서 헤어스타일은 올림머리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그림 1>은 16세기 후반의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로 러프 칼라의 변형인 퀸 엘리자베스 칼라와 올림머리 스타일의 예를 보여준다.

17세기에는 주로 바토 네크라인과 스퀘어 네크라인이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헤어스타일은 쇼트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퐁탕주 헤어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칼라는 17세기 초반에는 러프 칼라가 주를 이루었으나, 17세기 중반부터는 반다이크 칼라가 주로 나타났다. 따라서 러프 칼라가 주를 이룬 17세기 초반에는 올림머리 스타일인 쉬뇽 헤어스타일이 주로 나타났으며,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헐루벌루 헤어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17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복식의 예로 반다이크 칼라와 헐루벌루 헤어스타일의 예를 보여준다.

18세기에는 스퀘어 네크라인이 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헤어스타일은 볼륨감이 큰 뒤바리 헤어스타일, 퐁탕주 헤어스타일, 푸프 헤어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18세기의 대표적인 복식의 예로 스퀘어 네크라인과 퐁파두르 헤어스타일의 예를 보여준다.

19세기에는 주로 스퀘어 네크라인, 오프 숄더 네크라인, 바토 네크라인이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헤어스타일은 주로 쉬뇽 헤어스타일과 쇼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혼합된 혼합형이나 쉬뇽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또한 칼라는 주로 버서 칼라나 스탠드 칼

라가 나타났으며, 버서 칼라에는 네크라인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유사한 쉬뇽 헤어스타일과 쇼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혼합된 혼합형이 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스탠드 칼라에는 17세기의 칼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유사하게, 올림머리 형태인 퐁탕주 헤어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19세기 복식의 대표적인 예로 버서 칼라와 쉬뇽 헤어스타일, 쇼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혼합된 혼합형 헤어스타일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 16세기의 퀸 엘리자베스 칼라와 올림머리스타일, 1599년경
-서양복식사, p.158

<그림 2> 17세기의 반다이크 칼라와 헐루벌루 헤어스타일, 1640년경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p.193

<그림 3> 18세기의 스퀘어 네크라인과 퐁파두르 헤어스타일, 1759년
-A history of the costume in the west, p.297

<그림 4> 19세기의 버서 칼라와 쉬뇽 헤어스타일과 쇼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혼합된 혼합형 헤어스타일, 1846년
-A history of the costume in the west, p.361

4. 결론

본 연구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의복에 나타난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형태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너비에 따른 형태적 관련성에서 볼 때 네크라인의 너비가 넓어질수록 헤어스타일의 너비는 넓어지지 않았지만, 칼라의 너비가 넓어질수록 헤어스타일의 너비가 넓어졌다. 즉, 네크라인 보다 칼라의 너비 변화가 헤어스타일 너비 변화에 더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높이에 따른 형태적 관련성은 네크라인 및 칼라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헤어스타일도 낮아 졌으며, 네크라인 및 칼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헤어스타일도 높아졌다. 높이의 변화는 네크라인과 칼라 모두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복식의 장식요소인 네크라인·칼라와 헤어스타일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 아닌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패션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의복의 네크라인과 칼라에 조화되는 헤어스타일 연출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Richard Corson(2001), *Fashion in hair,* peter o wen, p. 19.
2) 이유나(2007),“18세기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
3) 이효숙(2003),“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
4)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 14.
5) 배수정 외 8인(2008), *현대패션과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수학사, p. 77.
6) 전선정(2002),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p. 80-81.
7) 게르트루트 레네르트 저, 박수진 역(2008), *패션-한눈에 보이는 흥미로운 패션의 역사*, 서울: 예경, p. 52.
8) 정흥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파주: 교문사, pp. 192-193.
9) 고애란(2008),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파주: 교문사, p. 192.

럭셔리 브랜드 유 · 아동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송혜현* · 이승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저 출산 현상과 더불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아동 럭셔리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내 아이 만큼은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고급화, 명품화 선호에 의해서 최근 유·아동복 시장은 고가의 수입 럭셔리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유·아동복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럭셔리(명품) 브랜드 유·아동복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럭셔리 브랜드 유·아동복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럭셔리 브랜드 유·아동복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소비 유형을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 유·아동복 구매수준이 다소 높은 여성 소비자들로 목적표집하여 심층면접법(depth interview)에 의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면접대상자(interviewee)로부터 얻은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분석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럭셔리 브랜드 유·아동복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인구통계적 환경 변화로 나타났다. 맞벌이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 경제력을 갖춘 미혼여성 및 실버세대의 증가와 더불어 각 가구마다 자녀(손주, 조카)수의 감소는 귀한 자녀에 대한 관심과 투자심리가 증대되어 고가의 브랜드제품 선호로 이어졌다. 두 번째 요인은 준거집단 의식으로 나타났다. 문화센터, 유치원, 학부모 모임, 게다가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까지 성격과 규모가 다양한 집단 내에서 소비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뒤쳐지지 않기 위해 자녀를 위해 지명도가 높은 고급 브랜드 제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각종 미디어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육아 블로그 및 까페 그리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서 정보교류는 물론 소통함으로써 타인의 자녀와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아이를 더 과시하고자 하는 경쟁심리가 더해 고가의 수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은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 구매대행 까페, 해외 온라인 사이트 직접구매 등으로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럭셔리 브랜드 유·아동복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구매층

Corresponding author : Hyehyun Song Tel. +82-2-710-9857
E-mail :hhssongz@sookmyung.ac.kr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요인은 럭셔리 브랜드 소비경험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명 브랜드가 익숙하고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자주 접한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들에게도 럭셔리 브랜드 의류를 입히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럭셔리 브랜드 유·아동복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유형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시형 소비,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아동제품을 통해 대리만족 하는 대상행동(대리만족)형 소비, 해외 유명브랜드를 소비해온 습관이 일상이 된 생활형 소비, 유행에 민감하고 동조성이 강한 유행형 소비, 그리고 과시보다는 품질이나 기능, 디자인을 중시하는 효용형 소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럭셔리 브랜드 유·아동복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들은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속성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웨어 체험마케팅과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연구

신상무* · 최미량 · 최재필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1. 연구목적

등산복을 포함한 기능성 아웃도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 연말 한국패션협회는 '아웃도어 시장의 매출폭발'을 패션업계 10대 뉴스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아웃도어 의류가 일상복으로 정착했고, 기능성에 패션이 가미된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남성복 중심의 시장에서 여성, 아동의 영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매년 20~30% 성장을 통해 지난해 3조 원을 넘어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위 규모로 성장했다. 이렇게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업체마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차별화 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적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과 각종 편익만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품의 특징이나 그것이 주는 이익을 소개하는 단순한 홍보보다는 잊지 못할 체험이나 감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체험 마케팅이 점차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웨어 속성과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이 체험마케팅과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사용가능한 295부 설문지를 SPSS 15.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스포츠웨어 속성이 체험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이 체험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스포츠웨어 속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4: 스포츠웨어 속성이 소비자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5: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moo Shin Tel. +82-2-820-0620 Fax. +82-2-817-8346
E-mail : smshin@ssu.ac.kr

연구가설6: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각 요인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면 스포츠웨어 속성은 기능성(Cronbach's 알파: .869), 관리성(Cronbach's α: .829), 차별성(Cronbach's α: .919), 실용성(Cronbach's α: .821), 심미성(Cronbach's α: .688), 그리고 상표(Cronbach's α: .684)로 나타났다. 소비자 지식수준은 주관적 지식(Cronbach's α: .858) 그리고 객관적 지식(Cronbach's α: .707)로 나타났다.

스포츠웨어 속성이 체험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차별성의 경우에 β=.173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지식수준이 체험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관적지식의 경우에 β=.144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객관적지식의 경우에 β=.418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스포츠웨어 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능성의 경우에 β=.108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차별성의 경우에 β=.175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심미성의 경우에 β=.188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스포츠웨어 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능성의 경우에 β=.149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차별성의 경우에 β=.157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지식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관적지식의 경우에 β=.149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객관적지식의 경우에 β=.182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지식수준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관적지식의 경우에 β=.227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객관적지식의 경우에 β=.332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스포츠웨어 속성 중 차별성이 체험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지식수준 즉, 주관적지식과 객관적지식이 체험마케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스포츠웨어 속성 중 기능성과 차별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스포츠웨어 속성 중 기능성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지식수준 즉, 주관적지식과 객관적지식이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지식수준 즉 주관적지식과 객관적지식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웨어 패션업체는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소재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통해

혹은 교육을 통해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포츠웨어로써 기능성과 차별성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는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이지운 (2010). 고기능성 아웃도어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관련태도 연구 - 아웃도어 활동 참여동기와 소비자 지식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주(2010). 패션제품 속성평가에 의한 고객집단별 구매행동차이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유재,라선아(2002),“구매 후 만족도 평가, 기대의 조정, 재구매 의도의 흐름에 관한 연구: 고객충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3).

Hamilton, R. W. and Debora V. T. (2007), “Is there a Substitute for Direct Experience? Comparing Consumers''Preferences After Direct and Indirect Product Experien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12), pp. 546-555.

이미지평가 성격이 의복소비 가치 및 추구감성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윤두아* · 이승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미지평가 성격이 의복소비가치 및 추구감성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의 새로운 연구 단위(Construct)를 도입하여 관련변수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에 근거하여, 확인된 변수를 의류제품에 대한 추구감성이미지에 적용하여 영향력의 변수로 고려해 그 형성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의류제품에 대한 추구감성이미지 형성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패션 마케팅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구매행위에 예측할 수 있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추구감성을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부합되는 감성마케팅을 구축함으로써 실용화를 꾀하고자 한다. 추구감성이미지를 요소화하여 마케팅으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는 마케팅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분야이다. 따라서 의복소비가치와 추구감성이미지의 특성을 규명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측정모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yory factor analysis), 공분산 구조분석을 검정하여 그 유의점과 이미지평가 성격의 차원을 의복소비가치, 추구감성이미지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고, 이미지평가, 의복소비가치, 추구감성이미지의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의복소비가치를 구성하는 변수와 추구감성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구성변수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통제한 상태로 변수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구감성이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져 추구감성이미지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자료수집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여성을 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60대를 각 50명 이상 전체 균등하게 편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의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측정모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yory factor analysis), 공분산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본 연구결과 이미지평가 성격 현실지향적은 표현적 가치와 사회적 의복소비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의복소비가치가지고 있다. 그 결과는 마케팅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마케팅 측면에서 이들의 욕구를 고려한 마케팅 활동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의 지위적인 것을 고려하여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아한 또는 도회적으로서의 의복소비가치에는 우아한은 자아표현적 소비자들의 자부심을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인 표현적가치의 영향력, 즉 표현적 가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회적에는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성이미지가 우아한은 표현적 가치와 도회적은 사회적 가치로 접근하는 전략이 추구하는 감성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인 마케팅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감성이미지의 도회적인 추구감성이미지에는 사회적가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현적가치는($t=-1.61$, $p=0.107$)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능력 있는 가치가 높을수록 도회적의 감성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크며, 의복소비가치에서도 나의 외모와 이미지자 어울리는 표현적가치가 높을수록 도회적 감성이미지는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미지평가 성격으로 추구감성이미지를 설명하고 기업들에게 마케팅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4. 결론

첫째, 의복소비가치의 지각감성이미지 차원의 구성을 위해 요인 분석하여 총 두 가지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은 우아한, 도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는 마케팅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미지평가 성격에 따른 의복소비가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현실지향적은 표현적 가치 요인에 가장 높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가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지향적은 표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의복소비가치의 차원이 우아한 또는 도회적으로서 추구감성이미지에 따른 영향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아한 감성이미지에는 표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요인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회적 감성이미지에는 사회적 가치 요인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마케팅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부조화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 옥 희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1. 연구목적

성격은 일정한 지각 속에 형성되어 있는 행동을 결정하거나 최소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개인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것(Steward, 1996)으로, 사람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결정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련의 특성과 경향성(Hodgetts, 1984)을 가진다. Holland(1985)는 이러한 개인의 성격 특성이 자신이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 직무특성과 개인의 상호적응패턴에 따라 직무수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Barrick & Mount(1993)는 성격과 직무성과변수(조직몰입 등)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상관관계 계수는 높지 않으나 매우 높은 유의수준으로 보이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성격과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실무적 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승현 등(2004)의 연구에서도 개인성격이 직무몰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여, 개인의 성격에 따라 직무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이형주, 2004) 알 수 있다. 특히 패션 브랜드 가두점들이 역신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도시의 지역 상권은 인재난으로 인하여 가두점 판매원 수급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의류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배려한 의류매장의 시설과 적절한 상품구색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적 서비스가 병행되어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이옥희, 2011). 의류매장에 종사하는 판매원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판매원의 성격과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동기 부여와 훌륭한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매장에 종사하는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부조화가 직무태도인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개인

Corresponding author : Lee Okhee Tel.+82-61-750-3684 Fax.+82-61-750-3680
E-mail : loh@sunchon.ac.kr

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부조화를 도출하였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설 1 : 성격이 판매원의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판매원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 직무태도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 직무태도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패션제품매장에 종사하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설문항목들에 대하여 의류학과 대학원생들과 3개 의류매장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항목들에 대한 용어의 적절성과 설문지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설문지를 편의추출방법으로 수집하였다.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82부를 회수하였으며,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6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ackage를 이용한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각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과 요인분석 결과, 성격은 수용성과 외향성, 친화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부조화, 그리고 직무태도인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내용의 문항들은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변수들의 신뢰성 계수는 모두 0.57~0.89로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2)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패션매장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매원의 성격가운데 외향성이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적 성격을 가진 판매원일수록 직무활동으로 인한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39.3%, 22.1%로 나타났다. 즉 패션매장 판매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수록 소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2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직무소진에 대한 성격과 직무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의 영향

	Variables		F	Sig.	β	t	유의수준	R^2
직무 소진	성격	수용성	2.578	.050	-.030	-.330	.742	.048
		외향성			-.211	-2.354	.020	
		친화성			.027	.313	.755	
	직무스트레스		101.467	.000	.627	10.073	.000	.393
	감정적 부조화		44.556	.000	.470	6.675	.000	.221

*p<.05 ***p<.001

3) 직무몰입에 대한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몰입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패션매장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몰입에 대한 설명력은 직무소진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직무스트레스, 성격, 감정적 부조화의 순으로 그 설명력은 각각 18.5%, 17.6%, 4%로 나타났다. 성격 요인 가운데 수용성과 외향성이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이 수용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직무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활동 중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수록 직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직무로 인하여 소진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표 2> 직무몰입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

	Variables		F	Sig.	β	t	유의수준	R^2
직무 몰입	성격	수용성	11.078	.000	.257	3.071	.003	.176
		외향성			.250	3.018	.003	
		친화성			-.038	-.477	.634	
	직무스트레스		35.981	.000	-.431	-5.998	.000	.185
	감정적 부조화		7.575	.007	-.214	-2.752	.007	.046
	직무소진		64.444	.000	-.539	-8.028	.000	.291

**p<.01 ***p<.001

4) 직무만족에 대한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패션매장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직무소진이 19.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직무스트레스, 성격, 감정적 부조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 요인 가운데 외향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판매원일수록 직무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활동 중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수록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직무로 인한 소진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낮으므로 가설4는 채택되었다.

<표 3> 직무만족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

	Variables		F	Sig.	β	t	유의수준	R^2
직무만족	성격	수용성	4.778	.003	.053	.602	.548	.084
		외향성			.271	3.096	.002	
		친화성			-.027	-.329	.742	
	직무스트레스		29.913	.000	-.399	-5.469	.000	.159
	감정적 부조화		5.273	.023	-.180	-2.296	.023	.032
	직무소진		38.460	.000	-.444	-6.202	.000	.197

*p<.05 **p<.01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매장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과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과 요인분석 결과, 성격은 수용성과, 외향성, 친화성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 그리고 직무태도인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내용의 문항들은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변수들의 신뢰성 계수는 0.57~0.89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따른 4개의 가설을 세웠으며 가설검증결과,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적 성격을 가진 판매원일수록 직무활동으로 인한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수록 소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매장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의 성격이 수용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직무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활동 중에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수록, 직무로 인하여 소진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패션매장 판매원의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감정적 부조화, 직무소진이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판매원일수록 직무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활동 중에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수록, 직무로 인하여 소진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Steward, L. (1996), "Reward Structure as a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extraversion and sales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6)*, 617-632.

Hodgetts, M. (1984), "Modern human relations at work", New York: Dryden Press.

Holland(1985)

Barrick, R. & Mount, K. (1993), "Autonomy as a moderator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11-118.

이승현, 김긍건, 최재녕(2004), “조직특성과 개인성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16(4), 735-757.

이옥희(2011), “의류매장 판매원의 직무만족과 직업몰입 및 조직몰입이 매출목표지향에 미치는 영향 - 전라남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 19(4)*, 740-750

이형주(2004), "호텔종업원의 성격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스페인 산티아고 카미노 길에서 생각하는 마케팅
- 스포츠 의류, 스토리, 국가 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승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스페인 카미노 길에서 세계 다양한 도보 여행자들을 통하여 마케팅을 하는 관점(의류 브랜드, 국가 마케팅, 스토리 텔링)에서 이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웃도어 브랜드 전략 및, 경쟁력을 파악하여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략제안과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아웃도어 브랜드 사례연구, 스토리텔링과 문화마케팅, 비쥬얼, 그린마케팅, 국가 마케팅의 사례를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카미노길 위의 아웃도어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고, 브랜드들의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스페인 자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어떻게 스토리를 통하여 세계의 도보 여행자들에게 감성을 통한 체험 마케팅으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스페인 카미노 길은 오랜 동안 많은 도보 여행자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같은 분야의 마케팅인들에게 그 재미난 배려된 컨셉, 여러 재미있는 장치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기법의 마케팅 전략이 탄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논문이다.

4. 결론

카미노 길은 다양한 도보 여행객 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인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더욱 “여유”를 보여 줄 수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더불어 몇 년 후 다시 찾은 카미노 길 위에서는 한국 스포츠 의류브랜드를 많이 입은 동.서양 도보 여행자들을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Lee Tel. +82-2-710-9857
E-mail : leeseu1@sm.ac.kr

중고등학교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 직업체험교육 만족도를 중심으로

안미선* · 정성지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마케팅전공 박사과정*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I. 서론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을 각인시키고자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으며 직업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먼저 직업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은 건전한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특기 적성의 개발로 인해 직업에 대한 성취욕의 향상 및 만족감을 증대시키며,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의 체험여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 직업체험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문헌고찰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와 직업분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확신성 정도를 의미한다(Solber 외, 1995; 임지연, 김정주, 2008).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척도 중에서 남미숙(200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자아 효능감 척도에서 구성요소를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수행 효능감`으로 분류 하였고 박명심, 김성회(2006)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자

기 효능감 척도를 `진로자기 효능감` 과 `진로탐색 효능감`으로 분류하였다.

2.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

진로의식성숙도란 개념은 Super(1955)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직업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어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직업성숙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했다(재인용 이태형, 2008). 또한 진로의식성숙도란 발달적 개념이며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수행 정도에서 차지할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장민석, 1991; 임재연, 2007).

3.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만족도

직업체험교육이란 OECD 국가들에 있어 직업과 교육이 연계를 통한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은 작업 근로자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직업세계와 작업환경에서 작업과제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의도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재인용 박운선, 2012). 또한 한상근(2009)은 기존에 해외에서 직업체험을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직업체험교육을 일반적으로 현장 기반 학습의 작은 의미의 수업으로 정의했으며, 김병숙, 전종남(2004)은 직업체험의 개념을 자기이해를 돕는 단계, 직업세계 이해를 돕는 단계, 미래사회 이해를 돕는 단계, 진로계획 수립지도 단계, 직업 상담의 단계의 총 5개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희수 외(2004)는 직업체험교육의 개념을 진로인식 단계, 진로탐색 단계, 진로계획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직업체험 개념을 자기이해 활동, 진로정보 탐색활동, 진로계획 활동, 진로 체험활동으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패션관련 직업관심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1-1.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1-2.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패션관련 직업관심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패션관련 직업관심도에 따른 직업체험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2-1.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업체험교육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2-2.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패션관련 직업관심도에 따른 직업체험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로 나온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11월 4일에서 11월 30일까지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131부의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김혜영(2011), 김지혜(2013), 이나라(201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에 관한 문항은 최문정(2005), 강찬구(2010)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14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직업체험교육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김병숙(2007), 노만진(200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11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목적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의 체험여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 직업체험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집단과 참여 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이 참여 전 집단 보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의식성숙도의 패션 관련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업 이해에서 참여 전 집단과 참여 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이 참여 전 집단 보다 패션 관련 직업 효능감의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업 이해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 방안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의 수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 수업의 종류는 패션디자이너, 패션광고디렉터, 패션코디네이터 수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패션의 다양한 직종을 직업체험교육으로 발전시켜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수업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수업의 효능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연령층이 대부분 중학생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집중력이 길지 않으므로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발전이 필요하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설문지법으로 이루어져 설문 대상자가 설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설문을 작성하였는가를 통제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의 인지 부분은 면접을 통한 심층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학생들의 특성과 패션관련 교육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연구대상을 서울과 경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체험교육의 현장 학생층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좀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찬구. (2010). *기술,가정 교과의 진로교육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연, 유형근, 조용선. (2012).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기술,과정교과 연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교육학회, 31*(2), 167-192.

김사라형선.(2013).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아동학회, 34*(5), 43-59.

김소영, 유형근, 조용선. (201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다중지능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진로교육학회, 26*(2), 43-66.

김병숙, 전종남(2004).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유형 및 직업정보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진로교육학회, 17*(1), 20-38.

김지혜. (2013). *진로집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수, 이영대, 김봉환 (2004). 진로교육의 진로능력 이해 증잔 방안. *한국진로교육학회, 2004*(1), 83-106.

김혜영. (2011). *직업체험활동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미숙. (2004).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교육의 방향; 미래 직업인을 위한 초등진로교육.

한국진로교육학회, 2004(0), 145-157.
남지영, 박혜정.(2012).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으로서 패션교육. *복식문화학회,20*(6), 838-853.
노만진. (2003).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명심, 김성회(2006). 고등학생용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담학회, 7(2), 385-397.
박운선. (2012). *직업체험활동의 효과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내 특정고교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진호. (2011). *국내 패션머천다이저의 직무분석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영란. (2011).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활용한 고교생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연구
안희정. (2011).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전문계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완용(2012)의 진로지도를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이색 직업 체험, 바리스타세상에 관한 연구
오승석. (2008).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발견 향상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지선. (2005). 전문대 비서과 재학새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한국비서학회, 14(1), 193-217.
이나라. (2013). *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2010).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1), 1870-1879.
이숙영. (2007).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희.(2013). *청소년 진로, 직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 이혜성(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4(1), 109-120.
이종찬.(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태형. (2008). *태권도 선수들의 수업참여태도와 진로의식 관계.*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두순. (1992). 중학교 진로 교육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2(0), 1-241.

임재연. (2007). 여*중생의 진로의식과 직업관에 대한 실태조사: 여중생의 진로의식과 직업관에 대학 실태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주영, 윤경자.(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8*(3), 113-130.
임지연, 김정주. (2008).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15(1), 143-170.
정철영, 김봉환, 송병국, 최동선, 이종범, 김은석, 주홍석, 김보경. (2012). 직업체험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학습동기, 창의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25*(3), 1-17.
차선미. (2005). *대학생의 직장체험 여부와 만족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과 진로탐색 능력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문정. (2005).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자아개념 형성가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보영.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외적 직업가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1*(1), 1-18.
한상근. (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22*(4), 19-38.
황기호. (2009). *중학생의 직업 체험 학습 참여가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현선. (2010).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PA 브랜드의 콜레보레이션(collaboration)에 대한 연구

이지현* · 이승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SPA 브랜드의 콜레보레이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각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SPA 브랜드 콜레보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소비자 태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기업 또는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매출증대와 더불어 국내 SPA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제품 생산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SPA 브랜드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법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국외SPA 브랜드인 ZARA, UNIQLO, H&M, GAP과 국내 SPA 브랜드인 SPAO, MIXXO, 8SECONDS, TOP TEN의 브랜드로 연구대상물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는 최종 2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외 SPA 브랜드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 소비자의 쇼핑성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간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SPA 브랜드 콜레보레이션에 대한 제품 태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SPA 브랜드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4. 콜레보레이션 선호 유형별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3. 결과 및 고찰

SPA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개성 및 유행추구’, ‘유명 상표 지향’, ‘쾌락추구’, ‘경제성 추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Lee Tel. +82-2-710-9857 Fax. +82-2-2077-7324
E-mail : leeseul1@sookmyung.ac.kr

구', '상표 충성적', '과시적 성향'의 총 6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국외, 국내 SPA 브랜드 콜레보레이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있어서는 '유명 상표 지향' 요인이 높을수록 구매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외 SPA 브랜드 콜레보레이션 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유명 상표 지향' 요인이, 국내 SPA 브랜드 콜레보레이션 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과시적 성향' 요인이 구매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콜레보레이션을 진행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명성을 함께 얻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내 SPA 브랜드 인지도 및 콜레보레이션의 사례 인식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콜레보레이션을 통한 확장된 영역으로의 활동을 통해 국내 SPA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불어 홍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폭이 다양하지 못하며, 편의 추출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 참고문헌

최선경(2010), "개념일관성과 보완성이 콜레보레이션의 적합성과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업계를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아(2002), "SPA 캐쥬얼 브랜드 이용 소비자의 의복쇼핑성향과 의복만족도-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인화(2012), "SPA 패션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콜레보레이션 사례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Fast Fashion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연구

신상무* · 전은지 · 안소영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학과

1. 연구목적

최근 의복구매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감성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의 상품 구매를 추구하는 동시에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는 머천다이징 방식을 도입하여 의복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신상품을 저가로 빠르게 공급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개념을 창출하였다. 유럽에서 시작된 패스트 패션은 미국, 아시아까지 확대되었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패션마켓으로 급부상 하면서 유수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속속 국내 패션시장에 진출하였다. 패스트 패션의 상승세에 힘입어 앞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전향할 전망이며 해외의 유명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진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환경이 달라져 소비자의 구매성향이 예전과 달라 패스트 패션의 구매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패스트 패션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과정에서의 자원낭비, 쓰레기 문제 등과 폐기된 의복의 소각 처리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현대 의복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과 기업들의 마케팅 슬로건,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는 재활용 및 절약,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소비, 사회 마케팅, 공익 마케팅, 미래 경제발전의 모습인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미래 경영 모델인 지속가능 경영 등 이타심에 의거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스트 패션의 특성과 환경의식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사용가능한 229부 설문지를 SPSS 21.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moo Shin Tel. +82-2-820-0620 Fax. +82-2-817-8346
E-mail : smshin@ssu.ac.kr

가설1: 패스트 패션의 특성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Fast fashion 특성 하위변인이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행성이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계수값 .278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Fast fashion의 특성 하위변인이 유행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윤리성이 유행지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계수값 .161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st fashion 특성 하위변인이 선호 의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행성과 환경성이 선호 의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계수값 .126, -.152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p<.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성이 선호 의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계수값 .217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ast fashion 특성 하위변인이 의복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성이 의복흥미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계수값 -.177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 인식 하위요인이 의복구매 시 유행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관심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가 .130로 나타나 유의수준 p<.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 인식 하위요인이 의복구매 시 선호 의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관심의 경우 표준화계수가 .164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4. 결론

Fast fashion의 특성 중 유행성이 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st fashion 특성 중 윤리성이 유행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성과 환경성과 윤리성이 선호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윤리성, 환경성, 유행성 순으로 선호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성이 의복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의식 중 환경적 관심이 의복구매 시 유행지향과 선호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스트 패션 특성 중 환경성이 의복구매 시 선호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패스트 패션에 대해 지속성과 환경 지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환경적 요소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박상아 (2013). 환경의식과 사회 책임적 의류소비 태도가 패스트패션에 대한 결과지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윤수인 (2013). 지속가능한 패션의 산업현황과 소비자의 소비행태 연구: 재사용과 재활용 패션산업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지민 (2013). SPA 브랜드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적합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태임 (2010). 패스트 패션의 특성과 디자인 경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자의식, 화장행동 및 화장품 사용실태

박은희 · 조현주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1. 연구목적

정보통신의 발달로 패션산업은 디자인, 생산,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화와 통합화를 이루어 패션 변화에 가속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소비 패턴도 과거에 비해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패스트패션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패스트 패션은 비교적 간단한 구매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구매되고 단기간에 소비되며 쉽게 폐기 처분될 수 있는 제품으로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즉각 반영한 상품으로 청소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반응과 타인의 평가 반응을 볼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자의식과 패스트패션 태도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화장은 얼굴을 아름답게 하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타인과 상호작용 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상대에 대한 에티켓이나 품위를 지키는 사회적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얼굴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화장을 통하여 자신에게 만족을 얻고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행동과 패스트패션 태도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자의식과 화장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여고생의 화장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2013년 10월 20일~10월 26일에 걸쳐 대구지역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21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195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79부를 자료에 사용하였다. SPSS PC+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군집분석, ANOVA, Duncant test, X^2-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자의식, 화장행동 및 화장품 사용실

Corresponding author : Park Eun Hee Tel.010-9587-3245 Fax.053-950-6219
E-mail : parkh1987@hanmail.net

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1.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 자의식, 화장행동의 요인구조를 파악한다.
2.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자의식과 화장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3.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화장품 사용실태를 파악한다.

3. 결과 및 고찰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편의중시, 유행중시, 디자인중시, 시즌중시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5.35%였다. 패스트패션 태도를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일회성집단(62명), 유행성집단(63명), 유행저관심집단(54명)으로 분류되었다. 자의식은 공적자의식, 대인불안, 사적자의식, 자기불안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58.93%였다. 화장행동은 긍정적효과, 유행리더, 주변의식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5.13%였다.

여고생의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자의식 및 화장행동의 차이에서,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라 자의식 요인 중 공적자의식, 대인불안, 사적자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자의식 중 공적자의식($p<.01$), 대인불안($p<.05$), 사적자의식에서($p<.05$)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의식 요인 중 공적자의식, 대인불안, 사적자의식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유행성집단이 유행저관심집단보다 공적자의식과 사적자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패션 태도 집단에 따라 화장행동 요인 중 긍정적효과, 유행리더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화장행동 중 긍정적효과($p<.01$), 유행리더에서($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화장행동 요인 중 긍정적효과, 유행리더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일회성집단이 유행저관심집단보다 긍정적효과와 유행리더에서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패션 태도 집단에 따른 화장시기와 매장방문 횟수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여고생은 유행성집단과 유행저관심집단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15세 이전에 화장을 시작한 여고생은 일회성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행성집단과 유행저관심집단은 1년에 한 번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는 횟수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반면에 일회성집단은 3개월에 한 번 매장을 방문하는 횟수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4. 결론

여고생을 대상으로 패스트패션 태도에 따른 자의식, 화장행동 및 화장품 사용실태를 알아보았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여고생은 의복의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적이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와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게다가 현재 유행하는 제품에 대해 관심이 높았

다. 또한 화장한 얼굴이 예쁘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다고 여겼으며 이로 인해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므로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다니고 싶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화합과 소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유행성집단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을 엄밀하게 평가하였다. 이들은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고민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현재 트렌드를 알고 감각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여고생은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에게는 엄하게 평가를 하여 유행을 리더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었다. 유행저관심집단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불안해하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기 보다는 두려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고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높았지만 현재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소극적인 패션태도를 보인 여고생은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새로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가 낮아서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회성집단은 화장을 하면 결점을 커버할 수 있으며 최신 유행하는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최신 유행하는 의복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싫증이 났을 때 쉽게 버릴 수 있는 부담없는 가격을 선호하는 여고생은 화장행동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으로 돋보이기를 원하였고 화장한 얼굴이 예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행에 대해 관심이 낮아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낮은 여고생은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낮아서 화장한 얼굴이 예쁘다고 인지하지 않았다.

주변의 친구에 의해서 화장을 시작하였으며 화장한 친구의 얼굴을 보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여고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초화장품은 스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이 크림이었다. 색조화장품에서 여고생 절반 정도가 BB크림을 사용하였으며, 선크림, 립글로스, 아이라이너 순으로 사용하였다. 선호하는 입술색상은 레드계열과 핑크계열이었으며 선호하는 섀도우색상은 브라운 계열이었다. 이처럼 여고생들의 BB크림 사용이 높으므로 이들의 피부와 피부톤을 고려하여 향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 Reference

Lim, S., Choi, J., & Kim M. (2008).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the fashion industry toward fast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ustom Culture, 16(3)*, 432-443.

Lee, H., & H, I. (2010). The use of cosmetics in high school girls divided and

grouped according to interest in make-up an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6(2)*, 495-504.
Park E., Ku Y. (2012). Lifestyle, fast fashion attitude, and cosmetics behavior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pursuit of clothing benefits typolog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1)*, 121-136.
Park, S., Park, K., & Kim, S. (2006), A study on university woman's behavior & consciousness for her make-up: focused on Daejeon·Chunganm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 Beauty, 4(4)*, 87-99.

국내 백화점의 복종별 MD구성의 변화추이 분석

장 은 영
동서울대학교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1. 연구목적

최근 빠른 패션시장의 변화와 소셜 커머스, 병행수입, 해외직구와 같은 유통채널의 다양화에 따라 백화점은 최근 몇 년사이 역신장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화점들은 매출회복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백화점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MD 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은 통상적으로 매년 두번 정기 MD 개편을 하면서 주요 점포에 대한 리뉴얼과 층간이동 및 신설 존 구성에 따른 상품 조닝의 재정비를 하고 있다. 최근 모든 백화점이 매출증진과 차별화를 위해 정기 MD 개편은 물론 수시로 MD 개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백화점의 MD구성은 현 패션시장의 변화와 트랜드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 변화추이를 분석해보는 것은 최근 패션시장의 변화상황과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통업체의 전략적 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유명 백화점의 MD 구성을 복종별, 조닝별로 조사 분석하고 최근 10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봄으로써 최근 패션시장과 패션유통의 변화가 백화점의 MD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전개될 유통업체의 전략적 방향과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화점의 MD구성을 복종별 조닝별로 조사 분석한다.
둘째, 백화점의 복종별 MD구성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셋째, 백화점의 조닝별 MD구성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넷째, 백화점의 MD구성과 패션시장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국내 백화점의 MD 구성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L 백화점 본점의 MD 구성을 최근 10년간의 층별 도면과 입점브랜드를 조사하여 복종별, 조닝별 브랜드 분포상

Corresponding author : Jang, Eun Young Tel. 82-31-720-2181 FAX. 82-31-720-2295
E-mail : eyjang@du.ac.kr

황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2014년 S/S 매장 자료는 백화점 홈페이지의 층별 안내에서 수집하였으며[1] 2005년~2013년 매장 자료는 삼성 패션 연구소에서 조사한 백화점 층별 도면[2]을 참고로 조사하였다. 백화점 중 가장 대표성과 다양한 MD 구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L백화점 본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 시기는 백화점의 대대적인 구조변경과 리모델링이 있었던 2005년을 기점으로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을 조사시기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층별 복종구성과 조닝구성분석을 위해 각 조닝별로 브랜드 매장의 수를 카운트하여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그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백화점의 현 복종별, 조닝별 MD 구성은 명품잡화, 영캐주얼(영캐주얼, 영캐릭터, 신발/화장품, SPA), 여성정장캐주얼(캐릭터, 커리어, 엘레강스스포츠,신발), 수입명품(디자이너/모피/란제리), 남성복(남성정장, 캐릭터, 트랜드캐주얼, 트래디셔널캐주얼, 비즈니스태주얼, 셔츠/넥타이, 가방/구두), 골프 및 아웃도어, 진, 유니섹스 캐주얼과 스포츠, 유아동 의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백화점의 복종별,조닝별 MD 구성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입 명품 잡화 조닝은 2005년 명품관 오픈 이래 주요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는 명품관으로 입점되면서 본점에는 11개의 명품브랜드만이 입점되어 있었다. 이 중 1개 브랜드만이 3년만에 매출 부진으로 퇴출되고 그 외의 브랜드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되었다.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10년에 국내 매스티지 명품브랜드가 처음으로 입점되고 2013년에 명품브랜드의 세컨브랜드와 미국 매스티지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명품브랜드의 대중화가 백화점 MD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여성복은 3개층으로 구성되어 여성캐주얼, 여성정장, 수입 명품 및 부틱으로 층간 복종이 10년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부 조닝만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여성캐주얼의 경우 2005년~2008년까지 커리어, 캐릭터와 영캐주얼, 영캐릭터가 뚜렷한 조닝 구분 없이 혼합되어 있던 것이 2009년부터 고가의 커리어와 캐릭터 조닝이 여성정장으로 층간 이동을 하고 영캐주얼과 영캐릭터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한 속옷과 신발, 화장품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토털패션으로의 MD 개편은 2011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2012년 영캐주얼 조닝의 국내 SPA를 표방하는 트랜디, 영밸류 조닝이 들어오면서 매장이 대형화되고 편집샵이 등장하게 됨으로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MD 구성은 매년 수시개편으로 이어지고 현재는 영 캐릭터 조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 여성정장 역시 여성캐주얼과 같이 커리어와 엘레강스 스포츠, 모피, 제화조닝이 뚜렷한 조닝 구분없이 구성되었던 것이 2006년에 엘레강스 스포츠가 빠지면서 매장의

수는 줄어들고 매장이 다소 대형화되는 변화를 나타냈다. 그리고 조닝간 구분도 보다 명확해지면서 여성 캐릭터와 커리어, 수입브릿지와 트래디셔널 조닝별로 뚜렷한 MD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2008년까지 지속되다가 2009년에 다시 제화를 층간이동을 하면서 수입브릿지를 확대시키고 트래디셔널 조닝을 일부 이동 구성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 역시 2011년까지 약 3년을 유지하고 2012년에 전격적으로 수입브릿지와 편집샵을 확대구성하면서 명품브랜드의 세컨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콜렉션 라인 브랜드를 입점시킴으로써 수입 브릿지 시장을 공략하는 MD 구성을 확고히 하였다.

2-3) 여성 명품과 부틱의 경우는 2005년 어덜트 디자이너 부틱과 엘레강스 스포츠로 구성되었던 것을 2006년 대폭 축소시키면서 모피와 속옷 상품군을 확대시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2008년까지 3년간 지속되고 2009년에 속옷 중 고가 란제리 상품군만을 남기고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컴포트 슈즈와 기성화 상품군으로 대치시키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제화시장의 성장과 컴포트 슈즈의 트랜드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 역시 2011년까지 3년가 유지하다가 2012년에 부틱과 엘레강스 스포츠를 더욱 축소시키고 국내 커리어 브랜드 존과 수입 브릿지 존을 전면 배치시키는 것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에도 지속되면서 F/W에 어덜트하고 노후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보다 영한 컨셉의 커리어브랜드와 수입 편집매장으로 전환시켰다.

(3) 남성복은 2개 층으로 구성되어 1개층은 수입 정장과 국내 고가 정장 존과 캐릭터, 셔츠와 타이, 신발,가방의 5개 조닝으로 구성된 남성복 전용 MD 상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트래디셔널 남성복과 비즈니스 캐주얼 조닝은 다른 층에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큰 변화없이 절반 정도가 정장존으로 구성되고 4개의 조닝이 나머지 반을 차지하고 있다. 약간의 브랜드 교체만 있을 뿐 별 변화없이 유지되오던 정장 위주의 상품구성은 2010년에 수입 브릿지 존과 캐릭터 존이 믹스되면서 젊고 트랜디한 상품군으로 교체되고 정장 상품군은 축소되었다. 그리고 편집샵을 통한 남성 잡화 존의 보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은 2011년까지 지속되고 2013년에 수입브릿지와 캐릭터 존에 트랜디 캐주얼 상품군이 보강되는 것으로 개편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수입 편집샵과 구두 편집샵이 보강되면서 남성복에서도 수시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트래디셔널 브랜드는 약 10여개의 브랜드가 큰 변화 없이 10여년을 같은 층에 구성되어 있다가 2013년 하반기에 약간의 새로운 브랜드들이 입점하였다. 그리고 비즈니스캐주얼의 경우는 2005년~2008년까지는 정통 비즈니스 캐주얼군으로 구성되던 것이 2009년에 수입 브릿지 브랜드 상품군을 좀더 보강하고 언더웨어 상품군도 추가되었다.

(4) 골프웨어와 아웃도어는 골프웨어의 경우 20여개의 브랜드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동안 거의 위치변동이나 브랜드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2년에 아웃도

어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메인위치를 아웃도어에 내주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아웃도어의 경우 2005년 8개 브랜드로 구성되던 것이 2007년에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로 교체되고 2011년에는 13개 브랜드로 확대 구성되면서 2012년에 메인위치로 골프웨어와 자리이동을 하면서 18개 브랜드로 계속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스포츠 의류와 진,유니섹스 캐주얼 조닝은 스포츠 의류의 경우 의류제품군에서는 6개 브랜드 정도만 구성되고 그 외 11개 브랜드가 운동화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2005년에서 2011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운동화가 22개로 2배로 확대되고 스포츠의류군 역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유니섹스 캐주얼은 2005년에 25개의 브랜드로 출발하여 2012년까지 해마다 브랜드의 변동은 다른 복종에 비해 많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스포츠 운동화 조닝의 확대와 진브랜드의 부진으로 진,유니섹스 캐주얼 상품군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변화를 보였다.

(6) 유아동 의류는 베이비라인과 토들러, 키즈라인이 혼합된 31개의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동일한 규모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3년에만 3개 브랜드 정도 약간 축소되었을 뿐 10년동안 모든 복종 중에 가장 개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백화점의 최근 10년간의 복종별, 조닝별 MD 구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복종별 패션시장의 최근 10년간의 변화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는 대부분의 복종들이 복종과 조닝의 경계 범위내에서 정기 개편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2-3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수시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점 차별화를 위한 멀티샵과 편집샵 확대와 수입 브릿지 조닝 확대는 전 복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복의 다양한 조닝 전개와 아웃도어 상품군의 확대가 눈에 띄며 젊은 고객층을 의식한 MD 구성 전략 역시 여성복, 남성복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캐주얼에서는 국내 SPA를 표방하는 트랜디, 영밸류 조닝과 영캐릭터 조닝이 확대되었다. 유아동복은 유아동복 시장이 축소되는 것과는 달리 프리미엄 상품군으로 10년을 지속적으로 매장규모와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잡화 상품군은 각 복종과 조닝별로 컨셉에 맞게 각 층에 분산되어 배치 구성함으로써 토털패션코디를 위한 쇼핑의 편이성을 고려한 상품구성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대표성을 가진 백화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정 백화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백화점간의 비교연구와 지점간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져 좀더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Floor brand stores information, Source, http://store.lotteshopping.com/handler/Main-Start?subBrchCd=001&gubun=1, 2014. 4.1

2) 2005 ~ 2013 S/S Department Store Movement, Source, http://www.samsungdesign.net. 2014. 3.10 http://www.samsungdesign.net/Martet/Retail/Department/content.asp?an=13.

청소년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 은 희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공적 자기의식이라고 하며, 공적 자아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요구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즉, 공적자기의식이 높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 그리고 외모행동 등이 관련된다. 게다가 신체적 외모는 매우 가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평가와도 직결되며,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감소시켜주고 자기만족감을 높여줌으로써 행복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외모를 개선시키기 위해 체중조절, 화장, 피부관리, 건강관리, 옷차림, 헤어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외모관리행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외모는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였을 때 아름다우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하위변인과 자기의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2013년 10월 20일~10월 26일에 걸쳐 대구지역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21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195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79부를 자료에 사용하였다. SPSS PC+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평균,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자아의식, 외모관리행동, 스트레스의 요인구조를 파악한다.

Corresponding author : Park Eun Hee Tel.010-9587-3245 Fax.053-950-6219
E-mail : parkh1987@hanmail.net

2. 청소년의 자아의식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청소년의 자아의식을 요인분석 한 결과 공적자의식, 대인불안, 사적자의식, 자아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자의식의 문항 수는 6개, 대인불안 4개, 사적자의식 3개, 자아인식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0, 요인 2는 .76, 요인 3은 .61, 요인 4는 .51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58.93%였다. 외모관리행동은 미용성형, 맵시, 체중관리, 헤어관리, 피부관리, 건강관리, 식사관리로 나타났으며 미용성형의 문항 수는 4개, 맵시 4개, 체중관리 3개, 헤어관리 3개, 피부관리 4개, 건강관리 3개, 식사관리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8, 요인 2는 .84, 요인 3은 .76, 요인 4는 .77, 요인 5는 .64, 요인 6은 .67, 요인 7은 .64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7.39%였다. 스트레스는 가정경제, 친구관계, 시험, 수업, 신체약점, 가족관계로 나타났으며 가정경제의 문항 수는 3개, 친구관계 6개, 시험 3개, 수업 3개, 신체약점 2개, 가족관계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6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9, 요인 2는 .77, 요인 3은 .76, 요인 4는 .69, 요인 5는 .50, 요인 6은 .62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4.78%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가정경제 스트레스는 자아의식의 대인불안(β=.30, p<.01)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였고,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자아의식의 공적자의식(β=-.51, p<.001)과 대인불안(β=.36, p<.001)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였다. 시험 스트레스는 자아의식의 공적자의식(β=-.19, p<.05)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였고, 수업 스트레스는 공적자의식(β=-.25, p<.05)과 대인불안(β=.24, p<.01)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였다. 신체약점 스트레스는 자아의식의 대인불안(β=.21, p<.05)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로 낮았으며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자아의식의 대인불안(β=.26, p<.01)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였다.

가정경제 스트레스는 외모관리행동의 체중관리(β=.23, p<.05)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였고,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외모관리행동의 체중관리(β=.21, p<.01)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였다. 시험 스트레스는 외모관리행동의 미용성형(β=.13, p<.05)과 헤어관리(β=-.13, p<.05)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였다. 신체약점 스트레스는 외모관리행동의 체중관리(β=.30, p<.001)와 건강관리(β=-.16, p<.05)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였고,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외모관리행동의 체중관리(β=.29, p<.001)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였다.

4. 결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생활공간으로 학교는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적자아의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를 통해 사적자아의식을 높이려고 하였다. 외모관리행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식습관으로 나타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약에 의존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도는 낮았다. 또한 멋진 옷차림이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외모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가족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형제자매의 비교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와 같이 지내므로 원만한 관계의 형성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청소년은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친구의 반응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은 친구의 괴롭힘에 대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아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다. 반면에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높은 청소년은 수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상황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청소년은 부모님의 과잉기대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가끔 다이어트를 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가정 경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에 대한 부담을 가진 청소년은 친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체중보다는 과체중이나 저체중에 대한 부담감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은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가졌다. 또한 머리손질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청소년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중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아프지 않아도 가끔 보약을 먹거나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청소년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놀림을 받아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중관리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

은 부모님의 과잉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Reference

Hong, K. (2010).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ocultural pressure over ideal appearance attitude and body sha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0)*, 1731-1741.

Lee, J., Lee, B., & Oh, Y. (2009). The buffering effects of self-maste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1)*, 75-83.

Lee, S. [Soogyoung], & Koh, A. (2006). A qualitative approach of appearance-enhancement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 59-70.

Lee, S. [Seunghee], & Lee, S. [Siweon]. (2009). Public self-consciousness, body image, & socio-cultural influence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3(5)*, 45-54.

명동 패션상권을 방문하는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
-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

임 성 경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패션상권이면서, 최신·최첨단 유행의 발신지인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명동 패션 상권에 대해 명동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특성과 쇼핑 행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명동 패션 상권의 활성화 및 지속 성장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국제적 쇼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서울시 중구 명동 1가와 2가의 핵심 상권 내 패션업체를 쇼핑목적으로 방문한 1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는 남성 444명, 여성 960명 이었으면, 내국인은 415명, 외국인은 993명으로 일본인 344명, 중화권 310면, 기타 국가 335명이었다. 설문지는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등 4개의 언어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소비자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상권방문 특성, 제품 구매 특성, 선호매장, 구매시 고려요인, 정보 습득 경로등에 관한 문항들로, 내국인 소비자는 15개 대 문항, 외국인 소비자는 14개 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비자 설문지는 한글 뿐 아니라 외국인 소비자를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총 4개 언어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EXCEL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 명동 상권의 주 소비자는 내·외국인 모두 '20~30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경우 '인천·경기지역'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강북지역' '강남지역'

Corresponding author : Im sungkyung Tel. +82-10-2098-2226 Fax. +82-2-403-1357
E-mail : lavenda7006@hanmail.net

순으로 나타났다. 명동상권 방문 횟수는 '1달에 1번'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명동상권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및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뿐 아니라, 강남과 차별화된 매장 컨셉과 가격 존으로 새로운 소비자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 명동 상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일본과 중화권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와는 달리 영어권 소비자의 증가 추세가 보이므로, 이들을 고려한 다양한 사이즈 전개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권의 소비자는 '2회 이상 방문자'가 70%가 넘는 반면, 중화권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낮게(52%)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중화권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 명동관련 정보 수집에 관하여 일본 소비자들은 '과거 방문 경험'이나 '안내책자 또는 잡지'의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 중화권,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소비자들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아시아권 소비자들은 '인터넷 정보'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일본과 중화권 방문객들은 '드라마'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국내·외 소비자의 명동 방문 목적은 '패션 제품'과 '화장품' 쇼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캐주얼'과 '스킨'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명동 방문 국내·외 소비자들의 선호 브랜드 유형에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오세아니아 소비자들은 'SPA 브랜드'를 선호하고, 일본, 중화권 그리고 기타 아시아권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였다.
- 객단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 미주, 유럽, 기타 아시아권 소비자들은 '5~10만원'대의 쇼핑을 즐겼으나, 중국 또는 일본인은 '10~15만원'대의 쇼핑으로 명동 상권 매출에 공헌함을 알 수 있다.
- 소비자와 패션·뷰티 업체 간 매장 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들은 여러 요인 중 '가격' 요인을 가장 중요 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명동 상권의 '제품'이나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친절도'는 낮게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중화권 소비자들은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 비해 명동 상권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재방문 의향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중국의 5억 중산층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당국이나 명동 상권 종사자들은 중국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이벤트 개최 및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며, 외국인 소비자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잠재적 소비자를 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Fashiongio(2010, March, 18). SPA brand & cosmetic stores are strong in Myeongdong commercial. *Fashiongio*. Retrieved October, 1, 2013, from http://www.fashiongio.com.

2) Hwang, W. Y.(2012, August, 22). Myeongdong, select shop vs. SPA. *SportsSeoul*. Retrieved October, 3, 2013, from http://news.sportsseoul.com/

3) Park, D. W.(2012, November, 19). Trending new-station influence area. *Mk*. Retrieved March, 5, 2013, from http://news.mk.co.kr.

4) Lim, Y. S., & Kim, M. S.(2013). The preference factors and usage levels of fashion trade area in Seoul as determined by shopping orientat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1*(2), 167-182.

5) Yu, J. H. & Im, S. K.(2014), "The commercial status of Myeongdong fashion and its development strategy for sustainable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fashion business owne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2(1),* pp. 86-98.

스캠퍼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발상 연구

김민정 · 임지영*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1. 연구목적

다양하고 감각적인 창조성은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중요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요소이며 가장 부가가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인 디자인은 아티스트와 보는 이에게 심리적 감흥을 불러일으켜 기존의 디자인과의 차별화된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특정한 예술의 양식은 모든 예술이나 문화에 보여 지는 문화적 일치성을 공유하며 또한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패션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패션이란 동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어지는 행동양식으로 계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므로,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시대의 흐름의 중심에는 패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방법 중 스캠퍼 기법은 체크리스트 기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비교적 적용이 간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유도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이다.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각 항목별로 특징적인 변수에 대해 검토하는 발상법이므로 디자인 과정에서 스캠퍼 기법을 적용한다면 사고를 확산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패션 디자인 표현을 위해 최적화된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예술적인 표현을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이 도출될 것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개에 체계화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예술적, 미학적 가치를 높이고 디자인의 창작영역의 확대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패션 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스캠퍼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디자인을 비롯한 패션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와 서적, 인터넷

Corresponding author :Lim, Ji Young Tel. +82-55-772-1450 Fax. +82-55-772-1459
E-mail : cloth1012@hanmail.net

자료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 관하여 정리하고 특히 아이디어 발상법 중 패션 디자인의 아이디어 전개에 적합한 스캠퍼 기법에 대해 정리 하였으며 스캠퍼 기법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마다 패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검토사항을 나열하였다. 스캠퍼 유형별 창의적 디자인 사진은 발명품과 장치,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이면서 매일 실시간 자료가 업데이트 되므로 많은 아이디어 제품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사이트인 www.lnewidea.com에서 주로 수집하였다.

실증적 고찰로서는 창의적인 표현의 패션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업로드 된 미국 스타일닷컴(www.style.com)의 오뜨 꾸띄르(Haute Couture) 컬렉션으로 정하였으며, 이 중 디자인에 있어서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이 두드러진 사진 수집을 위해 야수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아트, 키네틱아트의 11가지 현대미술사조가 응용된 패션사진으로 한정하였으며, 총 311장을 추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참고로 각 유형마다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검토사항을 나열한 후 각 사진마다 세부항목에 체크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아 정리하였으며, 특성이 겹치는 경우 중복체크가 가능하게 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스캠퍼(SCAMPER) 유형을 살펴보면 총 7개의 스캠퍼 유형 중 활용도가 낮은 대체(S) 기법을 제외한 결합(C), 적용(A), 변형·확대·축소(M), 용도전환(P),제거(E), 재배열·반대(R)의 6개 스캠퍼 유형이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합(C) 기법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은 아이템과 아이템의 결합이나 한 아이템 내의 구조적인 디테일 간의 결합 또는 아이템과 구조적인 디테일의 결합이 나타났다. 원피스와 코트, 원피스와 모자, 원피스와 스카프, 코트와 스커트, 코트와 모자, 소매와 스커트, 몸판과 소매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적용(A) 기법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은 다른 기능을 빌려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른 이미지를 빌려오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자연이나 사물을 연상 시키는 이미지를 적용하여 의상전체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변형·확대·축소(M) 기법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은 형태의 변형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었다. 주로 변형과 확대를 활용하였으며 축소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구조적 디테일이 기본적인 형태와 다르게 변형된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구조적 디테일을 크게, 길게, 또는 여러 개 추가함으로써 확대되어 나타났다.

용도전환(P) 기법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소재의 활용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의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재료인 철제, 나무, 고무, 플라스틱류 등을 사용하여 재료의 용도전환이 주로 활용되어 나타났으며, 텐트나 야구 글러브 등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의복의 형태로 만든 원래의 목적이나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일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제거(E) 기법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에서는 형태를 제거하거나, 형태의 일부분을 최소한으로 제거시킴으로서 간결함이나 단순함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과감하게 최대한으로 제거시킴으로서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여 새로운 형태를 재창조할 수 있다. 컬렉션에서는 대부분 의복의 구조적인 형태 중 일부분을 제거하여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선으로서 상의나 하의의 일부분이 제거되기도 하고, 가슴이나 상의의 노출과 같은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로 새로운 형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재배열·반대(R) 기법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은 아이템의 위치가 이동되어 재배열되거나 아이템의 위치나 이미지를 반대로 하여 나타났다. 스커트의 허리선이 골반이나 허벅지 또는 무릎위치까지 내려서 입혀지거나 브래지어의 위치를 허리선으로 이동하는 등 아이템의 위치가 이동하여 재배열 된 경우와 아이템의 위·아래, 앞·뒤, 겉·안 또는 남녀의 이미지가 반대로 바뀌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스캠퍼 기법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은 총 7개의 스캠퍼 유형 중 활용도가 낮은 대체(S) 기법을 제외한 결합(C), 적용(A), 변형·확대·축소(M), 용도전환(P), 제거(E), 재배열·반대(R)의 6개 스캠퍼 유형을 분석하였다.

결합(C)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은 아이템과 아이템의 결합이나 한 아이템 내의 구조적인 디테일 간의 결합 또는 아이템과 구조적인 디테일의 결합이 나타났다. 적용(A)이 활용된 의상 디자인은 다른 기능을 빌려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른 이미지를 빌려오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자연이나 사물을 연상 시키는 이미지를 적용하여 의상전체로 표현하였다. 변형·확대·축소(M)가 활용된 형태가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변형과 확대를 활용하였다. 용도전환(P)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소재의 활용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제거(E)는 의복의 구조적인 형태 중 일부분을 제거하여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배열·반대(R)는 아이템의 위치가 이동되어 재배열되거나 아이템의 위치나 이미지를 반대로 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패션 디자인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개에 체계화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패션 디자인의 예술적, 미학적 가치를 높이며, 창조적인 패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민자(1989), 예술로서의 의상 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27(2), p.17.

한성지, 김이영(2007), *의상 디자인*, 교학연구사. p.16

박찬국, 김관배(2003), 시각디자인 과정에서 스캠퍼의 활용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7(1), p.223.

국내 무대의상 연구동향 조사
- 2000년 이후 5대 학술지를 중심으로 -

김현정* · 박혜원
창원대학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창원대학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무대의상 관련 논문 발표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정한 논문의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무대의상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문화가 활발해지면서 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연예술은 시각 예술로서 무대의상은 공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대의상은 무대 위의 배우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관객들이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매체이며 극의 분위기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무대의상의 개념

무대의상이란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꾸미는 극을 그 내용으로 구성하는 무대 예술 즉 연극, 무용(현대무용, 발레), 뮤지컬, 오페라, 음악극, 퍼포먼스 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의상이라고 말하며 무대에서의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성격을 정확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또한 작품의 사상, 내용 등을 의상이라는 시각적 요소로써 극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극의 형태와 정신에 접합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무대의상의 종류

1) 공연의상: 연극,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 등
2) 무용의상: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댄스 등
3) 영상의상 : TV의 방송의상, 영화의상 등
4) 특수공연의상 : 카니발, 캐릭터쇼, 퍼포먼스, 인형극 등
5) 이벤트 의상: 연주회의 드레스, 사회자의 의상, 특수목적의 예복, 나레이터의 유니폼 등

Corresponding author : Park Hyewon Tel. +82-55-213-2724
E-mail : hwpark@chang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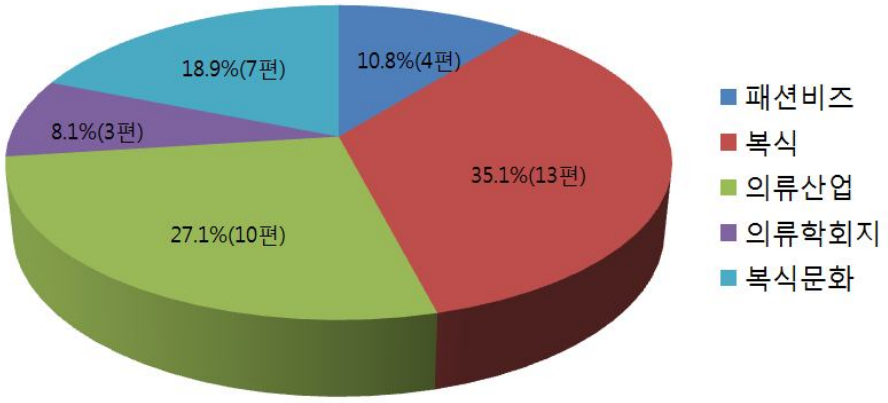
3. 무대의상의 역할

1) 극에 대한 정보 전달
2) 인물창조
3) 극의 주제나 분위기 표현
4) 극의 스타일 창출
5) 미적 감동
6) 기능적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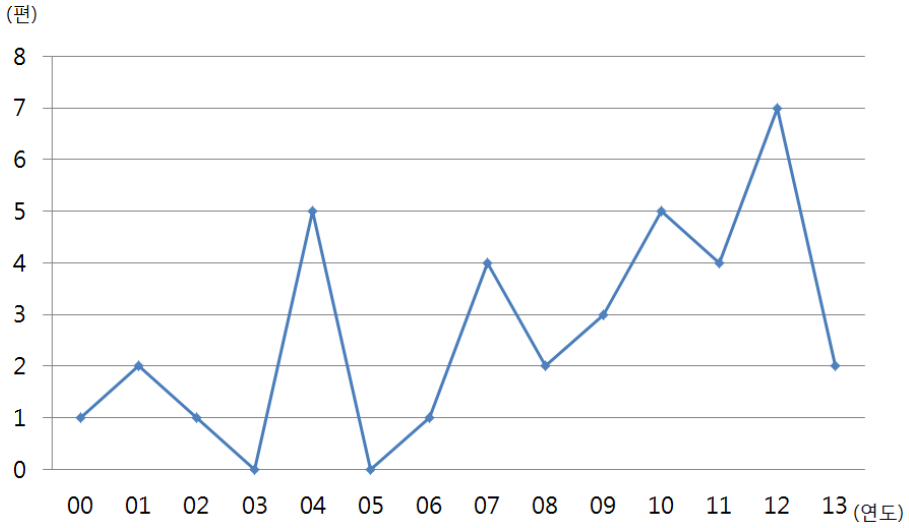
Ⅱ. 국내학술지 연구 논문 분석

분석대상은 2000년 ~ 2013년까지 5대 학회지(패션비지니스,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복식문화연구)에 게재된 무대의상 관련 논문 37편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은 학회지별, 연구대상의 장르, 내용에 따른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내 무대의상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

1. 논문 발표 현황



< 그림 1 > 학회지별 무대의상 관련 논문 발표 현황



< 그림 2 > 연도별 무대의상 관련 논문 발표 현황

2. 장르와 시대·배경에 따른 분류

<표 1> 장르와 시대적 배경에 따른 분류

장르	편(%)	배경			시대		
		동양	서양	동서양 복합	고전	현대	불명확
연극	11편 (29.7%)	3	7	1	5	5	1
오페라	10편 (27%)	2	8		7	2	1
뮤지컬	9편 (24.3%)	5	4		5	3	1
기타	3편 (8.1%)	2	1		1	2	
무용의상	4편 (10.8%)	0	4			4	
합계	37편 (100%)	12 (32.4%)	24 (64.9%)	1 (2.7%)	18 (48.7%)	16 (43.2%)	3 (8.1%)

3. 연구 유형·내용별 분류

<표 2> 연구 유형과 내용별 분류

연구 유형	연구 내용	편	편(%)
이론적 연구	공연 작품의 미적 특성 분석 및 의 의상의 표현적 특성 분석	6	13편 (35%)
	특정 인물의 작품에 관한 의상 디자인 분석	4	
	동일 레파토리의 다른 연출 작품들 간의 비교·분석	3	
실물 연구	이미 공연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의상 디자인 제시	4	24편 (65%)
	공연 작품의 디자인 및 제작과정 제시	20	

Ⅲ. 국내 무대의상 동향 내용 해석

1. 학회지별 발표 현황은 복식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수가 가장 많았고, 의류산업-복식문화-패션비즈-의류학회지 순으로 나타났다.

2.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무대의상에 관한 논문 발표 편수가 점차 증가 추세임을 보여 무대의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3. 장르별로 분류한 결과 연극의상이 전체의 29.7%, 오페라 27%, 뮤지컬24.3% 로 다양한 공연 장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무용의상에 관한 연구는 10.8%의 비율로 나타났다. 공연의 공간적 배경으로는 서양을 배경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대적 배경으로 분류하였을 때는 고전과 현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4. 연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공연 의상 제작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는 미적특성 분석과 복식사적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와 특정 인물의 작품의상에 관한 디자인 분석과 이미 공연된 동일 레퍼토리의 무대의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다.

5. 무대의상과 조명, 분장 등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Ⅴ. 결론

공연예술이 여가 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시기에 맞추어 무대의상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전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무대의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무대의상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

면 한다.

■ **참고문헌**

1) 박선옥(2005), 한국창작춤 무대의상디자인 분석 -무용가 임학선의 '태극구조 기본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pp.8-9
2)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pp. 32-38.

수구(手具)와 주제곡에 따른 손연재 선수의 리듬체조 의상 분석

나현숙*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최근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와 세계대회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상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골프(Golf), 축구, 피겨 스케이팅(Figure Skating), 수영, 체조 등에서 국제 스포츠 스타가 탄생되고, 손연재, 최경주, 김연아, 박태환 등의 스포츠 스타의 국제적인 활약으로 국위선양은 물론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고조된 열기에 급부상한 손연재 선수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리듬체조(Rhythmic Gymnastics)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 의상은 예술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듬체조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경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리듬체조 의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연재 선수의 리듬체조 의상을 수구(手具)와 주제곡 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상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스포츠 관련 의상 디자인의 다양화 및 활성화 모색에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은 손연재 선수의 시니어 경기에 착용한 의상 중 최근 2년 이내의 개인종목으로 출전한 올림픽,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 등에 참가한 의상 8점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리듬체조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논문, 일간지, 인터넷, 각종 국제 선수권대회의 동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Bae, Soojeong, Tel. +82-62-530-1344 Fax. +82-6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3. 결과 및 고찰

2012, 2013년 손연재 선수의 수구는 후프, 볼, 곤봉, 리본으로 본 연구에서는 줄 의상을 제외 하였다.

먼저 후프는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의 특징과 주제곡을 반영하여 고급스럽고 우아함을 강조한 의상을 착용하였다. 2012시즌 의상은 주제곡의 환상적인 분위기에 걸 맞는 바이올렛 컬러에 입체적인 자수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중점으로 디자인되었고, 2013시즌의 의상은 주제곡인 오페라 '투란도트'의 음악에 맞추어 투란도트 공주의 의상을 베르타 칼라로 귀족풍으로 우아하게 표현하였고, 이를 반영한 원형의 후프는 같은 컬러로 통일되어 수구와 의상이 컬러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볼은 몸을 구르는 유연한 동작이 특징인 종목으로, 손연재 선수는 단아함을 강조한 의상을 착용하였다. 2012시즌 의상은 영화 O.S.T의 주제곡에 등장한 발레리나 의상인 '튀튀'를 응용한 그러데이션 의상이었고, 2013시즌의 의상은 플리츠를 활용한 비대칭 의상에 그러데이션 컬러를 사용하여 의상과 함께 연속된 동작의 연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서정적인 선율과 의상의 그러데이션 컬러, 의상과 매치된 볼 컬러는 손연재 선수의 유연한 동작을 더욱 부각시켜서 수구와 조화를 이루는 의상 디자인의 예를 제시하였다.

곤봉은 힘의 강약, 동작의 크기, 빠르기 등의 움직임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어 리드미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종목이다. 2012시즌의 곡선 문양의 의상과, 2013시즌의 프린지 장식의 의상은 빠른 템포의 리드미컬한 주제곡과 같은 컬러의 곤봉과 더불어 리듬감을 높인 완성도 높은 의상으로 분석되었다.

리본은 바닥에 닿지 않게 큰 동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 종목으로, 2012시즌의 의상은 아련하고 잔잔한 선율의 음악에 맞추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우아한 문양의 의상을, 2013시즌의 의상은 웅장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데칼코마니를 응용한 의상으로 같은 컬러의 리본과 더불어 우아한 조화미를 보여주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리듬체조 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연재 선수의 수구와 주제곡에 따른 리듬체조 의상의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구인 후프, 볼, 곤봉, 리본은 각각 동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수구에 맞추어 선정된 주제곡은 테마와 스토리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한 의상은 수구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 및 리듬감을 중점적으로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수구와 주제곡에 따른 의상은 주제곡의 스토리나 장르의 분위기 및 수구 동작의 특징을 반영하여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시각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수구는 의상의 컬러와 일치된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리듬체조 의상에서는 세 가지 요소 즉, 주제곡, 수구(이에 따른 동작), 의상 디자인은 형태 및 컬러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리듬체조 경기의 주제곡 및 수구와 의상의 조화 측면에서 경기용 의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과, 향후 국내 리듬체조 의상의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일조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진성태(2013), *체육학개론*, 서울: 대경북스, p.46.

2) 함승진(2009),“WBC와 김연아 효과에 따른 대학생 스포츠 관심도와 직접 참여 변화 연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3) 최부영(2001), “한국 리듬체조 경기 발달사”,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4) 이덕분 외 3인(1997), *체육철학*, 서울: 태근문화사, p. 27.

5) Beth Landis & Polly Carder(1985), The Eclectic Curriculum in American Music Education, Contribution of Dalcroze, Kodaly and Orff, Washington D.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p. 11.

컬렉션 분석을 통한 디올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변화 추이

서지영 · 임지영*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1. 연구목적

지난 2013년 7월 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Christian Dior의 2013 F/W Haute Couture 컬렉션에 한국 대표로 여배우 전지현이 최초로 초대되면서 대중은 Haute Couture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보이게 되었다. 이는 한국 연예인이 디자이너에 의해 초대되었다는 가십성에서 벗어나 한국의 문화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관심이 전보다 커졌으며,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문화 현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패션업계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시장진입과 현지화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 패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통을 지켜오며 브랜드만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고찰을 통해 국내 브랜드 고유의 독창성과 글로벌 트렌드를 겸비한 디자인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가지고, Haute Couture와 Ready-to-Wear 컬렉션을 꾸준히 이어오며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Christian Dior 컬렉션의 특징과 시대에 따른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Christian Dior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기존의 존 갈리아노가 이끌었던 Christian Dior의 디올 컬렉션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정리를 위한 이론적 고찰과 최근 디자이너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분석하는 실증적 고찰로 이루어졌다.

이론적 고찰의 방법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서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최근 5년 이상 Haute Couture와 Ready-to-Wear 컬렉션을 동시에 진행한 5개의 브랜드 중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중시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Christian Dior을 선택하여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고찰 하였다. 실증적인 고찰을 위하여 디자이너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2011년 S/S시즌부터 2013년 F/W시즌까지 발표되었던 Christian Dior 컬렉션(미국

Corresponding author : Lim, Ji Young Tel. +82-55-772-1450 Fax. +82-55-772-1459
E-mail : cloth1012@hanmail.net

Style.com)을 범위로 정하였으며, Haute Couture 261장, Ready-to-Wear 313장으로 총 574장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진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은 디자인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형태에는 실루엣과 디테일, 색채에는 색상과 톤, 그리고 배색, 소재에는 무늬와 재질감을 포함 시켰으며,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기준을 수정하여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모든 컬렉션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디자이너의 교체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소 과장되고 화려하게 나타나던 형태와 색채는 모던하면서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Haute Couture 컬렉션에서 과장되어 나타났던 유희적인 요소들은 새로운 브래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요소들은 Ready-to-Wear 컬렉션에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색채 또한 화려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던 Haute Couture 컬렉션에 비해 Ready-to-Wear 컬렉션에서는 블랙을 중심으로 세련미가 강조되면서도 편안하고 친숙한 컬러들로 전개되었으며, 톤인톤이나 보색대비의 화려한 배색보다는 톤온톤, 블랙과 선명한 색상의 모던한 이미지의 배색으로 나타났다. 소재 면에서 Haute Couture와 Ready-to-Waer 간의 소재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여성의 인체를 꽃과 같이 아름답다 표현한 Christian Dior의 여성 인체 중심의 의상 표현이 큰 영향을 주었으며, 브랜드의 전통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어나가는 한 요소라 사료된다. Ready-to-Wear 컬렉션에서는 F/W 시즌에는 울과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소프트한 소재의 사용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S/S 시즌에는 얇고 비치는 트랜스페어런트 소재와 실키한 광택이 있는 소재가 많이 나타나 계절의 영향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Christian Dior의 Haute Couture와 Ready-to-Wear 컬렉션에서 모두 Christian Dior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우아한 곡선을 중심으로 최근에 들어 모던하고 심플하게 표현되는 가운데, 무수 Christian Dior이 선보인 Bar Jacket과 같은 아이템을 비롯하여 격자무늬 체크와 하운드투스 무늬를 사용하여 그 디자인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과하게 표현되던 장식적인 디테일을 배제한 현대적인 감성을 머금은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디자이너의 교체와 더불어 젊은 감각과 실용성을 원하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브랜드의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Christian Dior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우아함과 고상함,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보여주던 때와는 다른 미니멀하며 젊고 캐주얼한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Christian Dior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고수해야 할 전통성을 지켜오며 새롭고 신선한 디자이너의 영입으로 현 시대에 맞추어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 고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지니는 동시에 세계로 뻗어져 갈 가능성과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우리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1) http//www.motie.go.kr. (2013.09.27)
2) 이경희 외(2001), "패션디자인 발상", 교문사, pp. 113.
3) 한성지, 김이영(2007), "패션디자인", 서울; 교문사, pp. 42.

작업복 패션(Corporate Fashion)제품 동향 연구
-2013년 독일 뒤셀도르프 산업안전박람회 전시제품을 중심으로-

박혜원** · 장선우* · 양정희* · 신현진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작업장의 작업복 디자인개선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와 동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구에서는 작업복의 용어를 working clothes에서 corporate fashion 이라 바꾸어 명칭하며 이제는 패션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패션에 과학과 기술의 융합이 시도되면서 보다 기능적이고 감각적인 인간중심의 패션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규모로 격년으로 열리는 독일 뒤셀도르프 산업안전박람회(A+A2013)에 출품된 작업복 신제품들을 조사하여 디자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세계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작업복 패션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013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A+A 2013에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전시된 제품들 중 산업안전용 의복제품(모자, 얼굴보호대, 안경, 작업복, 무릎보호대, 신발, 장갑, 마스크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실물과 제품 팜플렛 등 시각자료를 촬영 수집하고, 제품을 생산한 나라와 기업체로 분류한 후 형태, 소재, 색채, 구성, 장식 등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박람회에 참여한 국가 중 작업복관련 제품을 전시한 국가는 총 15개국 이었으며 독일이 24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개 업체로 독일 다음으로 많이 전시한 국가였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각 3개 업체씩 전시 하였고, 미국, 스위스, 일본, 중국, 체코가 각 2개 업체씩,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폴란드가 각 1개 업체씩 참여하여 작업복 관련 제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전체 국가별 작업복 관련 전시를 한 기업체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Tel.+82-55-213-3494 Fax.+82-55-213-2724
E-mail : hwpark@changwon.ac.kr

는 총 58개 업체였으며<표 1>, 품목은 작업복, 작업복 소재, 모자, 신발, 마스크나 장갑 등의 기타 품목으로 구성되며 그 특징은<표 2>와 같다.

<표 1> 독일 뒤셀도르프 산업안전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명, 국가 및 품목 분류

번호	업체명	국가	품목	번호	업체명	국가	품목
1	3M	독일	작업복, 마스크	30	JUNGANG C&S CO.LTD	한국	신발
2	ABEBA	독일	신발	31	KEMPEL	독일	작업복
3	ALWIT	독일	작업복	32	KU˝BLER	독일	작업복
4	AschuA	독일	Visor Carriers(챙 캐리어)	33	KWINTET	독일	작업복
5	bardusch	독일	작업복	34	Lenzing	오스트리아	작업복
6	BP(Bierbaum Proenen)	독일	작업복	35	MAPAPROFESSIONNEL	독일	장갑
7	CHUNWOO GLOBAL CO.	한국	장갑	36	MIDORIANZEN	일본	Toe Cap
8	Condor International Clothing A/S	덴마크	작업복	37	NEWTEX	미국	원단
9	Consultiv	독일	작업복, 장갑, 모자	38	Nierhaus	독일	무릎·팔꿈치보호대
10	COV INTERNATIONAL CO.LTD.	한국	모자, 신발, 벨트	39	ORAFOL	독일	원단(tape)
11	CWS-boco	독일	작업복	40	PLANAM	독일	작업복
12	DEHN	독일	작업복	41	PROCOVES INDUSTRIE	프랑스	장갑
13	DIADORA	이탈리아	신발	42	PROTOS integral	오스트리아	헬멧
14	Dickies	미국	작업복	43	Schoeller Textil AG	스위스	원단
15	DIMEX HOMMAN NIMI	핀란드	작업복	44	Schu˝mer	독일	원단
16	Eagle Technical Products Ltd	영국	작업복	45	SEIZ	독일	장갑
17	FREEBAG	노르웨이	무릎보호 방석	46	SENKO CO.LTD	한국	가스측정기
18	GastonMILLE	프랑스	Toe Cap	47	SILITEX PURIFICATION INC	한국	원단
19	GLOLITE-LUMIAN CO.LTD	한국	부자재	48	SIM LOC	독일	기능속옷
20	GSL CORPORATION	한국	마스크	49	SPUR	체코	부자재
21	HAINSWORTH	영국	원단	50	S-TOP CO.LTD	한국	안전모
22	HAIX	독일	신발	51	TB-Safety	스위스	작업복
23	Hase Safety gloves	독일	장갑	52	TEXPORT	오스트리아	작업복
24	Helmet Integrated Systems Ltd	영국	호흡기 마스크	53	The SSEDA	한국	모자
25	Holik international	체코	장갑, 신발	54	TiGERGRIP	프랑스	덧신(안전신발)
26	HUGOJOSTEN	독일	작업복	55	UEHARA SHOTEN	일본	원단
27	IBENA	독일	원단	56	Weini	중국	마스크
28	INNOPAC KOREA	한국	부자재	57	WOKI	중국	작업복
29	isotemp	독일	작업복, 모자	58	WUS BRZEZINY	폴란드	작업복

<표 2> 독일 뒤셀도르프 산업안전박람회에 전시된 품목별 특징

아이템	특징
작업복	**상의** : 반사 소재의 디자인 활용성 다양화, 낮의 안전을 위한 가시성 높이는 디자인(형광 컬러 사용), 야간의 가시성(발광 스트라이프), 경량이고 유연하여 소방 및 화재 현장을 식별하는 숫자나 문자로 사용/ 다기능 보호복, 스포츠 칼라 형태의 재킷/ turndown collar, 1개의 플랩 가슴 포켓, 플랩이 없는 2개의 사이드 포켓/ 작업의 목적에 따른 상의 길이의 다양화 / BP 재킷, 스탠드 칼라, 지퍼와 스터드 버튼의 이중 잠금, 반사줄무늬를 전면에 수직으로 2개, 소매에 2개, 허리둘레 전체로 두름, 소맷부리 스냅 버튼 잠금, 휴대폰 포켓 내부 포켓 1개, 2개의 사이드 포켓, 압축 내부 퀼트 라이닝 /소방관을 위한 재킷, 목 부분을 완전히 덮는 스탠드 칼라와 완전히 여밀 수 있게 된 잠금장치, 반사 테이프 부착(전면에 수직으로 2개, 허리부분에 2개. 팔부분에 각 2개, 후면부에도 수직으로 2개, 허리부분에 2개, 포켓 2개, 허리부분의 스트링/열 보호복, 스텐드 칼라의 자켓, 지퍼와 금속버튼으로 이중 잠금, 가슴부분에 방염 탈부착 가능한 이음 벨크로, 오른쪽 가슴 부분에 나폴레옹 포켓,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주름, 소매 끝에 슬릿, 반사 테이프(허리부분2개, 팔 양쪽에 각 2개), 바지의 무릎부분에 무릎패딩과 Kevlar를 덧댐, 반사테이프 발목 부분에 2개 / 스탠드 칼라의 자켓 스타일, 목 부분은 완전히 여며질 수 있도록 금속 버튼, 안전을 위한 양 어깨 부분에 반사띠 2개, 소매끝부분 각 2개씩, 허리부분에 가로로 2개, 지퍼와 금속 버튼으로 이중 잠금, 커프스에는 팔목조절 가능한 버튼, 2개의 가슴포켓, 왼쪽 안쪽에 가슴 포켓, 압축 내부 퀼트 라이닝/ 스탠드 칼라의 자켓, 5cm 나비의 가시성 높은 반사띠(팔에 2중, 가슴 전면에 세로로 2줄, 가로로 1줄, 허리부분에 1줄), 지퍼와 금속 버튼으로 2중 잠금/반사띠 팔목에 고무밴딩, 칼라에 라임색 포인트 컬러로 컷팅에 대한 보호 수준을 표시(soft-블루, fit-그린, strong-옐로우, plus-레드, max-블랙) / 기능에 따라 3가지 라인으로 분류, 3라인 모두 몸에 fitting되는 실루엣, 블랙· 그레이·화이트 색상에 라인별 색상으로 포인트, 겨드랑이와 허리 허벅지 등에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증진시킴 / 점프수트 형태, 어깨에 세로, 갈비뼈와 무릎에 가로로 아라미드 반사띠 부착, 가슴 포켓 2개, 아라미드 실로 더블 스티치 / 소방관을 위한 특수 보호 복, 하이넥의 자켓과 바지, 목 부부을 덮는 하이넥에 지퍼와 스냅 버튼으로 이중 잠금, 소매끝부분에 팔목조절 가능한 스냅 버튼, 소매끝부분 각 2개씩, 가슴부분에 가로로 2개, 바지 종아리 부분에 각 2개씩 반사테이프 부착, 소매 커프스 부분에는 벨크로로 소매통 조절 **바지** 특징: 오버롤 형태, 허리부분은 스트레치 소재, 허벅지 부분에 입술 포켓(오른쪽)와 플랩 포켓(왼쪽), 가슴 전면 포켓, 허리에는 5개의 벨트고리, 무릎에 1개, 발복 부분 2개의 반사테이프/ 허리는 고무밴드, Kevlar® 무릎 보호패드 포켓, Cordura® 헤머고리, 이동할 수 있는 권총 휴대 포켓/ 무릎부분, 허리 옆 부분, 어깨와 팔부분에 기능성 스트레치 소재 삽입하여 운동 시 자유로움을 부여하고 착용감을 높인 인체공학적 설계 반사 원단의 가장자리에 2mm 이상의 땀, 바느질 실은 100% 아라미드/목깃의 폭이 길고 넓음. 손목, 허리, 쇄골, 점퍼 밑단(가로 두줄), 등(세로 두줄) 반사테이프 부착, 가슴과 허리 포켓 4개. 편안한 목을 위한 스트레치 소재와 스티치, 어깨, 소매, 팔목, 팔꿈치에 스트레치 소재 채용 / 운동의 용이성을 위해 인체 공학적 스타일링, 2개의 사이드 포켓, 스마트 폰을 위한 플랩 벨크로, 충격에 강한 내열 플라스틱 버클, 무릎부분에 여유분을 줘서 무릎옆선에 주름을 준 봉제, 허리부분의 스트레치 소재 채용/ 발목부분에 반사띠 2개 **색상** 대체로 두 가지 색상으로 배색(주색은 그레이 블루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기능성에 근거한 색상, 부조색이나 강조색은 옐로, 화이트, 오렌지, 반사테입, 형광색, 실버, 옐로우+로얄 블루+실버 반사테이프, 레드+옐로우+실버 반사테이프/옐로우+그레이, 오렌지+그레이, 오렌지+그린/라이트 베이지+ 블랙/오렌지+실버 반사띠/ 블랙+형광 라임색 포인트/오렌지+실버 반사 테이프/형광 라임+네이비+실버 반사띠 / 형광 옐로, 실버, 형광 주황)

<표 2> 계속

아이템	특징
작업복 소재	폴리에스테르 65 % , 면 35 %, UV Protect 80, 통기성, 얼룩 방지를 위한 Duraclean 가공, Oeko-Tex® Standard 100 방수성과 통기성을 갖춘 가시성 높은 신소재, GORE-TEX와 WINDSTOPPER 소재 100 % 폴리 에스테르 300D PU 코팅, 안감 180T 폴리에스테르/방열 보호복, 다양한 열 위험과 화재 상황에서 보호하는 기능성 보호복 / base layer (highly functional, flame-resistant underwear, shirts and polo shirts)+ protective workwear (flame-resistant trousers, jackets and overalls) / 64 %면, 폴리에스테르 35 %, 1 % Carbonfasern(정전기 방지) 2/2 트윌지 정전기 방지, 방연 및 불연소 처리 /polyureane으로 코팅된 polyamid 섬유 60% 폴리에스테르, 40% 테프론 처리된 면/100% proban, 방화 효력이 있는 면/정전기 방지 Pyrovatex 직물, 방수 처리된 면 기능에 따른 ECO-DRY SHIELD, ECO-DRY ACTIVE, ECO-DRY COOL 3종류의 원단 Reflexite ® GP340 내마모성 안전 반사 tape, micro prismatic 구조, 바느질 적용 가능, 야간 시에도 반사 기능에 따라 coldblack, 3XDRY, SOLAR+, nano sphere / coldblack - UV Protector. 자외선 차단지수 30 3XDRY - 빠르게 수분은 내부로 흡수하고 땀은 외부로 발수하여 섬유 온도를 낮춤 SOLAR+ - 효과적인 태양열 흡수로 얇은 직물임에도 보온성 좋음 nano sphere - 섬유표면에 미세한 물결 구조. 먼지와 물의 증발을 빠르게 함 아라미드 57%, 울 21.5%, Lenzing FR 21.5%/ Nomex® double fabric, hydrophilic Nomex® Liner/ PU Resin 30%, Glass beads 30%, Backing fabric 30%, Aluminium layer 3%, Others 7% / Millenia Light™원단(PTFE 3겹의 막으로 구성) 유독성 물질, 강한 열로부터 인체보호, 통기성, 흡습성 좋음./ 5-layer outer shell system［알루미늄필름 + HT(high temperature)필름 + 알루미늄 필름 + thermo-set Bonding + 3D Mock knit Fabric］/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게 설계 가능, 물·기름·화학물질로부터 보호, 연구적인 대전방지 가능,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음, 산업용 세탁 용의 SCHU˝MER SECAN RETROX® / SPURO®Foam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포장 재료로 사용/ 발포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라미네이트, EPE(확장 폴리에틸렌) 필름+HDPE
모자	보호안경 일체형 안전모. 보안면 코팅처리(스크레치 예방)/소재: ABC, 폴리 카보나이트/백색,황색,주황,적색,미색,회색.청색 헬멧(내부의 충격 방지 패드가 충격 흡수, Klima-AIR 기술로 땀 배출용이, 두부의 환기 슬릿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환기) + 특수코팅 와이어로 된 망형태의 얼굴보호 viser(결빙 방지 기능 포함) + 귀마개(귀를 보호) + 턱끈(특수레일을 귀마개에서 턱가드까지 부착) +neck protector(3층 기능성 원단으로 목 보호) / 홈이 거의 없는 둥근형태의 안전모. 머리 위 중앙에 네모난 날. 네모나게 각지고 길이가 짧은 앞 챙 / 홈이 많이 없고 둥근 형태의 안전모, 머리 위 중앙 날, 길이가 긴 앞 챙, 보호안경의 2단 높이 조절이 가능, 내부에 머리쿠편패드 장착 색상: 레드+옐로우, 블루, 라이트 퍼플, 라이트 옐로우, 민트, 화이트, 그린, 블루, 옐로우, 레드, 실버, 골드

<표 2> 계속

아이템	특징
신발	강한 저항에 잘 견딤, 형태유지, 바닥합성섬유 내담판 사용으로 경량화. 안전성 증대. 3M 반사띠 적용. 지퍼를 부착하여 탈착이 쉬움. 은나노 깔창 사용(탈취효과) / 신발 위에 덧신는 형태(감전의 위험 및 분쇄 위험이 있는 산업 현장에서 방문자를 보호, 미끄럼 방지 밑창, 뒤꿈치는 벨크로 스트랩을 채용하여 모든 신발 종류에 사용 가능, 높은 신장력으로 모든 신발 크기 커버 가능), 내마모성 처리, 오일이나 물 등 미끄러운 표면에 안전 / 알루미늄, 티타늄(강철보다 강하지만 가벼움, 초경량)/ 부드러운 착화감, 면소재 신발끈, 신발 뒷축 샌드위치 메쉬의 안감으로 벗겨짐을 방지, 땀에 젖는 것을 방지, 신발바닥 LAST를 사용하여 발볼이 넓어 착용감 향상./ 소재: 엠보가죽, F/G 천연소가죽/ 신발 앞코와 측면 water zone과 가로 flex zone이 있어 방수와 탄력성이 좋음, 미끄럼방지/Net Breathing System 〔carbon 깔창(통풍 및 항균) + K-Sole BREATHBLE (천공 방지) + waterproof membrane(방수막) + synthetic fiber protection net (보호망) + EVA midsole, TPU film + HRO-SRC Outsole〕/Mikrofaser / 49% PPAN, 42%면, 5% praaramid, 3% PA, 1% 정전기 제어 / 갑피(펨에어가죽), 내피(메쉬), 아웃솔(PU+고무)/ 색상: 블랙, 브라운, 다크 브라운, 화이트 / 블루+다크 그레이, 다크 블루+ 미디움 그레이, 다크 그레이+ 미디움 그레이, 블랙, 베이지, 브라운, 다크 브라운, 블랙+레드
기타	산업용 호흡기 마스크 - 모듈 형 설계로 용도에 맞게 구성 가능, 필터(5종류), neckcape(3종류), Faceshield(3 종류), 헬멧(5가지 색상)의 옵션 중에서 선택 가능, 8시간 수명의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전원공급, LED light, 필터교환시기를 알려주는 부저 경고 시스템, 경량의 공기 정화 필터는 호흡기 마스크 자체의 후면에 설치하여 연결 호스가 필요 없음 / 둥근 입체모양이나 물방울 모양, 마스크 안쪽 중앙에 필터, 0.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필터, 피부에 자극 없음. 색상: 화이트+그린+레드+옐로우+블루 소방관을 위한 비상 장갑- 4개의 패브릭 층으로 구성, 열 및 기계적 위험에 높은 저항성

4. 결론

뒤셀도르프 산업안전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의 제품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코퍼레이트 패션은 재킷, 코트, 바지, 오버롤즈 등으로 생산되며 그 세부 특징은 인체공학적 재단법의 활용이 더욱 세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 분할된 패턴 조각과 각 인체의 작업 특징에 따른 적절한 스트레치성, 기능성 소재의 사용으로 보다 편리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의 유행인 아웃도어의 세계적 유행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채의 경우는 보다 선명하고 가시성을 부여한 색상과 반사소재의 사용이 매우 디테일하게 사용하여 차별화 시키는 것을 일 수 있었다.

소재분야가 가장 많은 다양성을 선보였는데 이는 작업장의 성격에 따른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복의 경향이 나타남이라 하겠

다. 각 업체별로 레이어드 된 소재의 활용이나 각종 코팅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내열, 방염, 발수, 흡한, 속건성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신발제품이 많았으며 신발의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디자인의 차별화, 소재의 차별화 뿐아니라 일반 신발에 덧씌우는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코퍼레이트 패션의 동향을 국내 산업 작업복에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기능과 패션성을 보안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성숙, 김희은(2008), “소재 개선에 따른 건설현장 작업복 착의 기능성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0(2), pp.228-235.

박혜원(2010), “통합환경 계획을 위한 작업복과 작업현장의 색채실태 사례연구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3),* pp.540-552.

박혜원, 박진아(2008), “공단 근로자의 작업복 디자인 실태 및 선호도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2)

박혜원, 양정희(2012), “기계 산업분양의 통합환경 조화와 아ㄴ정을 위한 작업복 색채배색 평가”, 패션비즈니스, *16(5)*, pp.207-219.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스포츠 브랜드의 패션상품 사례 연구+

소적천* · 이미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1. 연구목적

문화 소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경험재인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문화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극은 세계문화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경극의 복식요소는 문화상품 뿐만 아니라 패션 컬렉션에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 전문 브랜드에서도 패션문화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스포츠 전문 브랜드의 패션 상품 활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전통 복식문화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패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경극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경극의 복식요소를 고찰한 다음, 실증연구에서는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현대 패션에 대해 살펴보고, 스포츠 브랜드의 경극 복식요소를 활용한 패션상품의 종류와 디자인 모티브, 가격대 등으로 나누어 브랜드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NEW BALANCE, PUMA, NIKE JORDAN, LINING 등 4개의 브랜드로 한정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한 사진자료는 구글, 네이버, 각 브랜드의 웹 사이트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수집하였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3HR15D0801).

Corresponding author : Lee Misuk Tel.+82-62-530-1345 Fax. +82-62-530-1349
E-mail : ms1347@chonnam.ac.kr

3. 결과 및 고찰

1. 경극의 복식요소

경극의 복식은 중국 전통 희곡복장을 기초로 청대에 정형화되었으나, 복식의 형태는 명 복식을 기본으로, 한 · 당 · 송 · 원 · 청 등 역대 복식의 조형적 요소들이 종합되어 만들어졌다. 원색적이고 화려한 경극 복식은 예술화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무대의상으로, 사실성보다는 상징성을 중시하고 극중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성격 등을 표현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경극의 복식은 크게 망(蟒), 피(帔), 고(靠), 습(褶) 등의 네 종류로 나뉜다. 망은 경극에서 제왕, 장군과 재상 등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자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입었던 의복이다. 피는 경극에서 왕후장상, 중간층 관리, 부자 신사 수재(秀才)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비공식 석상에서 착용하던 의복이다. 고는 갑의라고도 하며 경극 중 무장들이 통용하던 군복이다. 습은 경극 무대에서 쓰임새가 가장 많은데, 가장 흔히 보이는 포 종류의 평상복이다. 그리고 정(淨)배역이 하는 검보(臉譜)화장, 이들이 착용하는 고, 또한 고의 어깨에 꽂는 깃발, 굽이 높은 후저화(厚底靴)등에서 거대한 부피감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러한 과장된 형태와 다채로운 색상, 화려한 장식을 다양한 소재와 결합시킨 것은 경극 복식 특징적인 요소이다.

특히 경극 검보는 과장된 선과 다양한 색상으로 배우가 가진 본래의 외모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을 통해 일반인과 다른 성격적 특징을 표현한다. 경극 검보의 컬러는 레드, 퍼플, 블랙, 화이트, 블루, 그린, 골드, 실버 등이 있다. 레드는 인물의 일편단심과 비할 데 없는 용맹함을 상징하고, 퍼플은 인물의 지혜와 용기, 강인함을 상징한다. 블랙은 인물의 강직하고 강렬한 성품을 나타낸다. 화이트는 인물의 간사함과 자부심을 빗대어 보여주는데, 블루와 그린은 일반적으로 다른 색상의 도움을 받아 이용되는데 인물의 용맹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을 표현한다. 골드와 실버는 손오공(孫悟空) 등과 같은 신화 속에 허구적인 인물에 사용한다.

2.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2009-2010 f/w 상하이 패션 컬렉션에서 Alex Zheng은 경극에서 영감을 얻어 '경(京)·새(璽)'를 주제로 작품을 발표했다. 그는 다채로운 컬러의 경극 검보의 형상을 패치워크한 재킷에 경극 화단(花旦)배역의 머리장식을 배치하거나 경극 복식중의 하나인 여기망포의 문양을 활용한 짧은 원피스에 다채로운 컬러의 문양을 프린트하였으며, 과장된 어깨에 경극복식의 술장식을 활용하여 무릎길이의 술을 달았다. 또한, 경극 여자 배역의 얼굴모습이 프린팅된 티셔츠에 용 문양이 프린팅된 블랙 팬츠 슈트를 스타일링하였다. 네덜란드 출신의 Daryl van Wouw 또한 자신의 2009-2010 f/w 컬렉션에서 경극을 모티브로, 화이트컬러에 블랙컬러 경극 검보를 불규칙하게 배열한 원피스, 경극 검보를 모티브로 활용하고 그린과 골드컬러가 배색된 원피스, 레드와 화이트컬러 가 배색

된 원피스를 선보였다. 이 컬렉션에서 사용한 컬러들은 경극인물의 다양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린컬러는 용감하고 솔직한 성격을 나타나고, 골드컬러는 선인이나 귀신과 요괴에 자주 사용하는 컬러지만 가끔 장군들의 매우 용감한 위엄을 표현하는 것이다. 경극에 있어서 레드컬러는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성격을 의미하고, 화이트컬러는 경극에서 원래 악역들이 많이 쓰는 컬러인데 의심이 많고 간사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Vivienne Tam은 2011-2012 f/w 뉴욕 패션 컬렉션에서 중국 전통 희극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들을 선보였는데 경극 복식중의 하나인 망포의 문양과 술장식을 활용한 원피스, 경극 검보의 형상을 패치워크한 원피스 등 이었다.

2013-2014 f/w 상하이 컬렉션에서 上海工程技术大学中法埃菲时装设计学院학생과 新西兰达尼丁市奥塔哥理工学院학생들은 경극에서 영감을 얻어 'DRAMA (戏曲)'를 주제로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블랙 레깅스와 경극 여배역의 분장 이미지를 과장된 양쪽 베트윙(batwing) 소매에 프린트하였으며 독특하고 상징성을 부여한 디자인이다. 셔츠의 컬라와 롱 스커트부분에도 경극 여배역의 분장모습이 프린트되었다. 원피스의 끈으로 되어있는 레드컬러의 동그란이는 경극에서 머리장식으로 사용한 영웅단(英雄胆)이라는 것이고, 가슴앞에 달린 동그란이는 경극에서 花旦배역 장식으로 사용한 수(綉)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3.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스포츠 브랜드의 패션상품

1) NEW BALANCE

NEW BALANCE는 2007년부터 아시아 국가를 위해 매년 이슈가 되는 상품을 아시아 공동 프로젝트로 '뉴발란스 아시아 퍼시픽 프로젝트(ASIA PACIFIC PROJECT·APAC PROJECT)'를 진행하였다. 2007년 574 'Hungry Dragon', 2008년 576 'China Mask', 2009년 999 'Feral Creation', 2010년 M150 'Tri-Color', 2011년 574 'Talk X Live', 2012년 ML574 'Year of the Dragon', 2013년 ML574 'Year of Snake' 등이 진행되었다. 그 중 NEW BALANCE가 20주년을 기념하여 2008년에 발표한 576 'China Mask'는 6월 25일에 중국 상하이의 잇플레이스에서 576 리미티드에디션 China Mask 컬렉션의 런칭을 축하하는 쇼케이스로 개최되었다. 우슈앙(無雙), 정(凈), 모(謀), 축(丑)라는 이름의 네 가지 스페셜 에디션은 그 해 8월 23일부터 발매되었다. 576 차이나마스크 컬렉션은 중국 경극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제품으로, 경극 복식의 다양한 컬러와 형태를 메시와 스웨이드, 천연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강렬한 컬러의 과감한 검보 그래픽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극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경극에서 그린컬러는 용감하고 솔직한 성격, 레드는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성격, 블랙은 원칙을 고수하며 사납고 폭악한 세력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옐로우는 용감하고 냉정하지 못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이 스페셜 에디션은 아시아 지역에서 576족만 한정적으로 판매되었고, 각 신발에 1부터 576의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소장의

가치를 더해주었다고 한다.

2) PUMA

2008년 7월 PUMA가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한 「北京見」 런칭 쇼케이스 행사에서도 경극 검보를 모티브로 하여 변형된 문양이 프린팅된 마스크, 백팩, 티셔츠 등을 선보였는데, PUMA의 「北京見」은 '베이징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홍보수단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자메이카, 스웨던, 모로코를 국가대표 선수인 우사인 볼트(Usain Bolt), 제니 칼루어(Jenny Kallur), 무하마드 무스타위(Mohamed Moustaoui)를 광고모델로 선정하였는데 경극 검보에 PUMA의 로고와 함께 자메이카, 스웨덴, 모로코 각각의 국기 컬러를 활용하여 PUMA 마스크가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PUMA는 이번 「北京見」 프로젝트에서 AdFunture와 손을 잡아 콜라보레이션하여 6.5cm높이의 Yoka곰인형을 디자인하였는데, Yoka의 얼굴에는 경극 검보에 자메이카, 스웨던, 모로코, 중국, 영국의 국기 컬러를 활용한 마스크를 프린트하였다. Yoka의 뒷면에는 다섯 나라의 국기를 디자인하였고 Yoka의 앞면에는 '北京見'이라는 글자가 적어져 있다. 그리고 모로코의 국기 컬러를 활용한 PUMA 마스크와 동일한 프린팅의 백팩을 4가지 컬러로 제시하였다. 동전지갑의 기능이 있는 팔찌와 반팔티셔츠에도 다섯 나라의 국기 컬러를 활용한 PUMA 마스크 패턴을 적용하였다.

3) NIKE JORDAN

2011년에 NIKE JORDAN가 주최한 「Jordan Team Flight Tour China 2011」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NBA 농구스타인 드웨인 웨이드(Dwyane Tyrone Wade), 크리스 폴(Chris Paul), 카멜로 앤서니(Carmelo Anthony)와 함께 홍콩(HONGKONG), 청두(CHENGDU), 항저우(HANGZHOU), 베이징(BEIJING) 4개 도시를 투어하였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극의 검보에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폴, 카멜로 앤서니 각각 얼굴,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마스크를 디자인하였다. 드웨인 웨이드는 '상무현(翔無限)' 마스크로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 빠른 스피드와 돌파를 뜻한다. '상무현' 마스크에 레드, 퍼플, 옐로우 컬러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는 의리가 있고 지혜와 용기, 강인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크리스 폴은 안정적인 핸들링, 돌파, 빠른 스피드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쾌무영(快無影)' 마스크로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 블루, 옐로우 컬러를 많이 활용하여 용맹하고 부지런한 성격, 또한 나타냈다. 카멜로 앤서니는 '돌무적(突無敵)' 마스크로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 돌파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돌무적' 마스크에 그린, 화이트 컬러를 많이 활용하여 용감하고 자부심이 강한 성격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마스크를 반팔티셔츠와 백팩에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4) LINING

LINING은 중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전문 브랜드로, 2008년도 「LINING001-I am in Beijing」 컬렉션에서 다양한 모티프 활용을 보여 주었다. 가장 눈에 뛰는 것은 경극

의 인물을 캐릭터화시켜 운동화 양쪽 사이드 부분과 후드 티에 골드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인데 운동화 바닥, 운동화 깔창, 반팔 티에는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 등의 다섯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경극 복식 요소 외에 운동화 케이스나 신발끈에 'I am in Beijing', '我在北京', 'Everybody in Beijing' 등 다양한 글자를 활용하였고, 운동화 가장자리에는 피라미드, 오페라 하우스, 자유의 여신상, 타지마할, 천안문, 붉은 광장, 에펠 탑,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패션 컬렉션에서는 경극의 요소 중에서 검보를 모티브로 활용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경극복식의 다채로운 컬러, 문양, 장식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스포츠 브랜드의 패션제품 또한 경극의 검보를 모티브로 활용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운동선수들을 모델로 선정하여 경극 검보에 모델의 얼굴과 특징을 결합시켜 새로운 마스크를 디자인하여 이를 패션제품에 적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에서 검보를 모티프로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함으로써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경극의 복식요소를 활용한 패션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이미숙, 사진강, 정경희(2011), "한·중·일 전통극 관련 문화상품 현황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 pp.424-439.
2) 양유미, 이미숙(2010), "경극 복식의 미적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1),* pp.200-211.
3) 신경섭(2010), "중국 경극복식 연구", 복식, *60(8),* pp.132-150.
4) 谭元杰(2008), *中國京劇服裝圖譜*, 工藝美術出版社.
5) 고신(2008), *경극의 이해*, 서울: 박이정

현대 패션에 표현된 프린지(fringe)의 조형 특성 연구

권 정 숙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1. 연구목적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의해, 패션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디테일은 자유로운 표현기법과 재료로 다양한 조형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패션을 구성하는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 가운데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는 슬리브, 칼라 등의 구성 디테일과 조형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표현기법인 장식 디테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 고정적인 디자인 개념을 벗어나 차별화된 미적 가치의 요구는 다양한 장식 디테일의 새로운 시도와 표현 영역의 다양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장식디테일은 기능성과 장식성을 중요시하는 패션의 역사속에서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자수, 플리츠, 개더, 술 장식 등 각종 장식기법들은 디자인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조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술 장식은 오랜 역사 속에서 기능성을 강조한 역할에서부터 조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디자인 표현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술 장식은 의복의 가장자리를 마감하는 장식효과와 더불어 의복의 다양한 구성디테일(소매, 칼라 등)과 공간을 구성하는 면에 적용되어 패션에 미적가치를 부여하고 리듬감과 새로운 조형미를 형성하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다. 술 장식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천의 올을 뽑아 몇 올씩 묶어준 것, 또는 가죽에 가위집을 넣어 만든 것을 의미하는 영어의 프린지(Fringe)(김창준,1995)를 중심으로 술 장식을 뭉쳐서 만든 개념인 태슬(Tassel), 방울모양 실 장식을 의미하는 터프트(Tuft)(심선영, 2007; 김선영, 2011)의 표현 기법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표현 유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직조하지 않은 실 자체 혹은 천의 올을 풀어서 표현한 올 풀기(Fraying)를 중심으로 수공예적 기법 특성과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윤수현, 2009; 정영희, 2001)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수공예 기법 중심의 작품제작 연구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형과 표현 특성 관련한 단편적인 연구로 한정되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조형 특성과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술 장식의 표현 방법과 유형을 고찰하고 현대 패션에 표현된 조형 특성과 미적 가치를 분석하여 패션의 독창적인 표현 영역 확장과 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술 장식의 개념과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문헌 연구와 실증 자료를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술 장식의 경향과 조형 특성 및 미적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위해 단행본, 국내외 발표 논문 및 학술연구지와 패션관련 전문서적,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경향 및 조형 특성 분석을 위한 실증적 자료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인 www.style.com와 www.fashionnetkorea.com의 2009-2014년까지의 콜렉션에서 발표된 작품과 패션 잡지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내용은 먼저, 술 장식 개념을 제작 방식과 구성 방법,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다양한 기원과 상징적인 목적과 및 표현 방법으로 변화되어온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술 장식이 표현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표현된 표현 경향과 조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술 장식은 다양한 형태 구성과 기법, 활용 범위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술 장식이 표현된 현대 패션의 실증 자료를 고찰하여 다양한 형태와 독특한 시각적 효과로 나타난 조형 특성과 미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술 장식은 실이나 직물의 올을 풀거나 가죽을 가늘게 절단하여 내려뜨려 만든 장식적 구성 요소로서, 영어에서의 프린지, 태슬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프린지와 태슬은 실질적인 형태와 제작 방법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프린지는 직물의 올을 풀거나 실 자체의 올을 살려 띠 형태로 연결하여 부착한 뒤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표현방법이다. 태슬은 실이나 끈을 매듭형태로 뭉쳐서 장식 다발을 이루는 수공예적인 공정에 의한 것으로 넓은 면에 사용되기 보다는 장식적 용도의 독립된 모티브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술 장식의 형태와 제작 방법의 차이에 따라 프린지와 태슬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적용 위치, 장식 범위, 활용 목적에 따라 표현 경향과 형태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술 장식은 의복의 가장자리 처리로 사용되는 소극적인 형태부터 넓은 면적에 사용되거나 전체 실루엣 형성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되어 독특한 조형미와 시각 효과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술 장식의 조형성은 제작 방법에 따른 올 풀기, 절단, 실 부착, 태슬, 매듭으로 형태 특성을 구분하고 적용 범위와 활용 방법에 따라 표면적 디테일, 구성적 디테일, 장식적 트리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술 장식에 표현된 조형원리는 강조, 반복, 리듬, 변환, 대체 등이며 미적 가치는 인체와 의복의 상호작용, 유기적 변화성, 경계의 연속성으로 분석하였다.

4. 결론

패션에 표현된 술 장식은 단순한 장식적 디테일에서부터 조형적인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술 장식은 장식 욕구의 직접적인 표현과 새로움을 창조하는 미적 표현의 도구이며 예술적 표현이 영감을 제공하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술 장식의 표현 경향과 조형 특성 및 미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술 장식의 사적 고찰과 작품 제작, 표현 경향과 조형 요소적 관점에서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정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조형 특성과 미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술 장식의 조형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 미학에 다양한 영감 요소인 매개체로서의 술 장식의 활용 가능성을 제공하고 조형 특성 분석을 통하여 패션 디자인에서 술 장식의 미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문헌

김선영(2011),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특성, 13(6), pp. 856-865.

김은영(2001), 술 장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준(1995), 복식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심선영(2007),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장식적 표현기법의 경향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수현(2009), 올 풀기에 의한 패브릭 아트의 조형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희(2000), Jean소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www.style.com

www.fashionnetkorea.com

한국 모던 걸의 대표 인물과 패션 연구

양정희* · 박혜원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및 방법

오늘날의 우리가 입고 있는 서구화된 복식은 개화기 시대에 선교사들과 서양의 종교를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전파되었다. 당시 이러한 서양복식을 유행시킨 집단은 현대여성의 시초로 볼 수 있는 모던 걸이라 하겠다.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복식의 유행 선도자인 모던 걸들은 한국 근대 패션의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근대 패션의 유행 선도자인 모던 걸의 개념, 시대적 배경, 당시대의 국내 패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 모던 걸의 대표 인물과 그들의 패션을 통해 모던 걸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현대 여성의 시초인 모던 걸이라는 집단이 발생하여 활동한 1920~1930년대로 하였고, 연구방법은 모던 걸 패션과 관련된 전문서적, 선행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모던 걸의 대표인물을 선정하고 그들의 패션과 스타일에 대해 정리하였다.

2. 모던 걸의 개념 및 시대적 배경

1) 모던 걸의 개념

모던 걸(Modern Girl)은 1920년대에 확산된 새로운 여성 아이콘으로 신여성(New Women)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또한 모던풍의 첨단에 놓인 존재들로 당시에는 모든 유행에 '모던'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경향이 있었고, 모던 걸은 근대적 패션인의 집단, 하이칼라의 집단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였다.

모던 걸은 1920-30년대 패션 아이콘으로 도시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경성에 주로 단발과 양장을 한 채 거리를 활보한 신식여성들이다. 이들은 신식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진 여성들로 전통복식에서 현대복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에 서양 복식을 착용하고 유행시킨 여성들이다. 그들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지향, 성의 개방, 사치와 허영을 조장한다는 이미지로 당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국 근대 패션의 유행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Yang Tel.+82-55-213-2724 Fax.+82-55-213-2724
E-mail : yangssi408@naver.com

선도자로서 한 시대의 패션 아이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1920~1930년대 시대적 배경

한국 사회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강압적인 문화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수용된 서양의 외국문화는 신문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민족 주체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교육만이 어려운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졌고, 정규 교육 기관 이외에도 야학, 교회 등 사설 기관이 의식교육과 계몽 운동에 동참하며 수많은 강습회가 생겨났다.

또한 당시의 직업여성은 자질 향상, 지위 향상,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함으로써 여권 신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식민지 조선에서는 경제적 주체로서 자각한 근대적 '직업부인'의 계보가 형성되는데, 대체로 교사, 의사, 기자, 간호부, 방송국 아나운서, 은행원, 유치원보모, 산파 등의 전문기술직과 신종 직업 여성들인 헬로 걸(전화교환수), 데파트걸(여점원), 버스 걸, 개솔린 걸, 엘리베이터 걸, 타이피스트, 서점직원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사·연초 공장 직공까지 아울렀다.

1920년대 '신여성'이라는 하나의 여성지식인 계층이 시회에 등장하면서, 여성들은 자유연애와 결혼, 그리고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상으로 삼게 되었고, 개화기 이후 결혼의식의 형태 또한 신식 결혼이 기독교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3. 1920~1930년대 국내 패션 특성

1) 국내 패션

1920-30년대 한국 여성 패션은 유교적인 전통 수호 세력과 서구적인 개혁파 세력 사이에서 우리 옷과 양복이 혼용되는 이중구조 양상을 보였으며 우리옷의 개량화와 여성복의 서양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단발과 퍼머넌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 한복 개량

장옷의 폐지, 지나치게 짧은 저고리 길이 개선, 활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치마길이 줄이기의 우리 옷의 개량은 대부분은 실용성, 활동성, 경제성, 위생적인 면, 미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복 개량은 외래 선교사나 신종교인, 신식학교를 중심으로 어깨끈이나 조끼허리가 보급되고, 단추달기, 대님폐지, 풀 먹이기 폐지가 이뤄지고, 속옷의 간소화로 사루마다와 통치마가 개발되었다.

통치마는 치마의 트인 곳을 막아 통으로 하고 길이를 짧게 한 것으로 치맛단까지 곧은 주름을 잡았는데, 주름의 나비는 점차 넓어졌다. 길이는 무릎 정도로 짧아졌으며, 여

기에 짧은 화장의 허리까지 오는 긴 저고리 차림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짧은 치마의 유행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서구의 보이시 스타일의 영향으로 보이며, 양장의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게 된 것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주목 된다. 통치마의 색상은 검정색이 유행하여 특히 검정치마에 흰색저고리는 여학생이나 신식여성이 많이 입었으므로 이들을 상징하는 새로운 표상이 되었다. 이에 맞춰 버선과 양말이 혼용되는데, 버선 길이는 치마가 짧아짐과 동시에 종아리를 가릴 만큼 길어졌다. 신은 고무신과 양화(洋靴)가 병행되었다.

(2) 서양복

양장과 양복으로 대별되는 서양복은 1920년대가 되면 우리의 의생활 문화 속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여학생이나 사무원, 여교사 등 평범한 일반 대중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여학생들의 교복과 직장 여성 사이에 광범위하게 수용된 양장은 일반인들의 양장 착용을 촉진 하였다. 특히 1928년 버스 여차장의 양장 유니폼의 착용은 양장의 일상화를 의미하며, 양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당시 여성들이 애용한 양장은 직선적인 실루엣의 원피스와 투피스, 단순한 유행의 코트, 망토, 케이프 등이며, 주로 스커트와 스웨터, 스카프, 클로슈 모자 등을 즐겨 착용하였다. 여성 양장은 초기에는 약간의 장식이 가미된 스타일을 보이다가, 중반기 이후부터는 직선적인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3) 단발과 퍼머넌트

1920-30년대 헤어스타일 중 가장 획기적인 스타일은 단발이다. 신여성을 지칭한 '모단 걸'은 언제부터인지 '모단'을 한자로 '毛斷'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모단걸과 단발미인이 그 시대에는 상호 동의어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발은 자신을 근대를 살아가는 자각한 여성으로 드러내는 징표였고 신여성을 자칭하는 여성들은 지금까지의 예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긴 머리를 과감히 자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먼저 요구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20년대에 이어 단발이 계속되었으나, 점차 퍼머넌트 머리로 유행이 바뀌어갔다. 이화여전에서 최초로 퍼머를 한 사람은 1920년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음악선생 정애식(김앨리스, 대학과 1회)이었고, 1923년 졸업생인 문마리아, 윤성덕, 서은숙 선생이 퍼머를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1937년 문과학생 최예순을 시초로 퍼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4) 액세서리

1920년대 초에는 단발에 어울리는 클로슈 모자가 유행하여 1930년대 초까지 많이 착용하다 점차 챙이 넓은 카플린(capeline) 스타일로 바뀌어 갔다. 양장과 함께 목도리 또는 숄이 등장 하였다. 또한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숄은 온몸에 두르는 것이 크게 유행하여, 숄은 여학생들의 방한용으로 또는 장식용으로 애용되었다. 구두는 1920년대 후반에 유행되었는데, 옥스퍼드 슈즈(oxford shoes), 끈으로 매는 장화와 단화, 콤비(combination shoes), 고무신, 운동화 등이 등장 하였다. 이 당시 구두는 신여성들에게

필수적인 패션 품목이었으며 여성들의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여 안경이나 핸드백, 손목시계 등도 애용되었다.

4. 한국 모던 걸 대표 인물 패션

1920-30년대 모던 걸로 잘 알려진 대표 인물 5인을 선정하여 각 인물들의 1920-30년대 사진을 수집하였다. 인물선정은 선행연구나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고, 대중에게 알려지고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분야별 여성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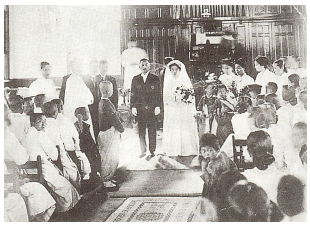
사진 수집은 전문 서적, 인터넷 사이트, 신문기사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사진 속 각 인물들의 패션을 내용 분석하였다. 선정된 1920-30년대 대표 모던 걸은 무용가 최승희, 화가 나혜석, 성악가 윤심덕, 여성교육자 김활란, 비행사 박경원이다.

대표 모던 걸 5인의 패션 분석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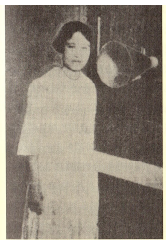
<표 1> 1920-30년대 대표 모던 걸 5인의 패션 특성

모던걸	패션 특성	대표 사진
무용가 최승희	- 스트라이프 무늬의 민소매의상과,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챙이 큰 카플린을 착용<그림 1>. - 양장 원피스 위에 모피 코트를 입고 카플린을 쓰고 핸드백을 들고 구드를 신음<그림2>. - 가슴부위와 소매 부위에 장식이 된 양장 원피스를 착용하였으며, 샌들을 신음<그림3> ·최승희의 패션은 주로 양장을 하고 있으며 모자를 즐겨 착용하고 단발 헤어스타일을 고수함.	 <그림 1> 1935년 최승희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http://news.naver.com  <그림 2>1930년대 중반 최승희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  <그림 3>1939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사진출처: 정병호(2004), 춤추는 최승희, p. 175.

<표 1> 계속

모던걸	패션 특성	대표 사진
화가 나혜석	- 신식 결혼식의 모습으로 흰색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고 베일을 썼음<그림 4>. - 한복 위에 양장 코트를 착용한 모습으로 쪽머리를 하고 있음<그림 5> - 양장 코트를 입고 여우 목도리를 두른 모습. 클로슈를 쓰고 장갑을 끼고 양말에 구두를 신음<그림 6>. - 양장 블라우스에 넥타이를 매고 양장 스커트를 착용. 양말과 구두 착용 <그림7> ·나혜석의 패션은 한복과 양장 착용의 이중 구조를 보이다 점차 양장 착용이 주를 이룸. 헤어스타일은 처음에는 쪽머리를 하다 점차 짧은 단발 헤어스타일을 함.	 **<그림 4>1920년 결혼 사진** -사진출처: 이철((2008),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p. 100.  **<그림 5> 1920년대 만주 안동현에서** -사진출처: 한상남(2008), 저것이 무엇인고 그림이 된 예술가 나혜석 이야기, p. 112.  **<그림 6>1927년 세계 일주 떠나기 전 나혜석 부부** -사진출처: 한상남(2008), 저것이 무엇인고 그림이 된 예술가 나혜석 이야기, p. 119.  **<그림 7> 1928년 파리에서 나혜석** -사진출처: 한상남(2008), 저것이 무엇인고 그림이 된 예술가 나혜석 이야기, p. 119.

<표 1> 계속

모던걸	패션 특성	대표 사진
성악가 윤심덕	- 양장 원피스를 착용하고 단발 헤어스타일을 함<그림 8>. - 양장 숄 칼라 코트를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음 <그린 9>. - 서큘러 캡(circular cap) 소매의 양장 원피를 입고 구두를 착용함<그림 10> ·윤심덕의 패션은 주로 양장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은 단발과 앞머리가 있는 쪽머리 스타일을 하여 액세서리로 장식을 함.	 <그림 8> 1926년 8월 윤심덕 -사진출처: 김수정(2005), 한국 미용 100년, p. 93.  <그림 9>윤심덕 -사진출처: 이배용 외(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p. 239.  <그림 10>윤심덕 -사진출처: 이배용 외(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p. 239.
여성교육자 김활란	- 길이기 긴 저고리와 통치마의 전형적인 1920-30년대 개량 한복을 착용함 <그림 11>. - 셋 인(set in) 소매의 셔츠를 착용함<그림 12>. - 개량 한복 저고리와 통치마를 착용. 상하의 동색으로 착용하였으며 구두를 착용<그림 13>. ·김활란의 패션은 개량 한복을 주로 입고 짧은 단발 헤어스타일을 함.	 <그림 11>1920년대 김활란 -사진 출처: 김경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p. 190.  <그림 12> 1922년 김활란 -사진 출처: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 p. 46.  <그림 13> 1927년 농촌 계몽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김활란 -사진출처: 이배용 외(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p. 239.

<표 1> 계속

모던걸	패션 특성	대표 사진
비행사 박경원	- 버튼 장식이 길게 이어진 원피스를 입고 재킷을 착용하였으며 클로슈를 씀<그림 14>. - 코트를 입고 클로슈를 썼으며 구두를 착용<그림 15>. - 양장 코트를 입고 귀를 덮는 고글이 달린 비행사 모자를 착용<그림 16>. ·박경원의 패션은 주로 양장과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단발 헤어스타일을 함.	 <그림 14> 박경원 -사진 출처: kocca 문화 컨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 www.culturecontent.com  <그림 15>1972년 코트를 입은 박경원 -사진 출처 :현대 패션 110년 편찬 위원회(2012), 현대 패션 110년, p. 120.  <그림 16>1930년 박경원 -사진 출처: kocca 문화 컨텐츠 닷컴(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 www.culturecontent.com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근대 패션의 유행 선도자인 모던 걸의 개념, 시대적 배경, 모던 걸 발생 시대의 국내 패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 모던 걸의 대표 인물 패션을 통해 모던 걸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20-30년대 한국 모던 걸 패션은 개량 한복, 서양복, 단발 헤어스타일, 구두, 핸드백 등 서구화된 액세서리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20-30년대 대표 모던 걸 5인의 패션은 1920-30년대 한국 모던 걸 패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긴 저고리와 통치마의 개량 한복과 원피스, 블라우스, 재킷, 코트 등의 다양한 서양복을 착용 했으며, 구두, 핸드백, 클로슈 등을 어울리게 착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표 모던 걸 5인 모두 모던 걸의 대표 상징인 단발 헤어스타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1920-30년대 모던 걸은 우리나라 근대 패션의 아이콘으로 모던 걸의 패션은 우리나라 근대 패션의 역사상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모던 걸을 다루고 있는 영

상문화의 패션 분석을 통해 모던 걸 패션의 재현과 현대적 재해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1920-30년대 대표 모던 걸 5인의 의상을 실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진 자료를 통해 분석한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1) 고부자(2001), “우리생활 100년, 옷”, 서울: 현암사, pp.140-177.
2) 김수정(2005), “한국미용 100년”, 서울: 동서교류, p.72.
3) 김주리(2005), “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파주: 살림, p.32.
4) 서지영(2013), “경성의 모던 걸, 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서울: 여이연, pp.172-173.
5) 신여성 스타일 키워드, kocca 문화 컨텐츠 닷컴(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 자료 출처: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3&cp_code=cp0423&index_id=cp04230110&content_id=cp042301100001&search_left_menu=3, 자료 검색일: 2014.01.08
6) 이배용 외 13인(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파주: 청년사, p.84.
7) 한국 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p.609.
8) 현대패션 110년 편찬위원회(2012), “현대패션 110년”, 파주: 교문사, pp.103-165.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의상 디자인 및 메이크업 비교 · 분석+

유화정*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한국은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가면서 여가생활에 스포츠와 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겨울 스포츠 중에서 피겨 스케이팅은 생활체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김연아 선수의 활동과 함께 그 열기가 점차 높아져 왔다. 2014년 2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온 국민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피겨 스케이팅은 예술적 특성을 지닌 특수한 스포츠로써 그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의상이다. 피겨 스케이팅 의상 디자이너인 김윤관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의상을 20벌 이상 디자인하였는데, 그는 “피겨에서 음악과 의상은 연기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날개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의상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피겨 스케이팅 의상은 선수의 동작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의 예술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각 대회마다 역대 최고의 신기록을 수립하며 최고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와 함께 전 세계 언론들은 나이도 같고 실력도 뛰어나며 같은 아시아인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는 각 대회별 실력이 서로 비교되어 언론을 장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 · 일 양국 피겨스포츠계의 대표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동시에 참가했던 경기를 중심으로, 피겨 스케이팅 의상과 메이크업을 시즌별로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3HR15D0801)

Corresponding author : Soo-Jeong Bae Tel. +82-62-530-1344 Fax.+82-4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동시에 시니어 경기를 출전했던 경기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여자 싱글부분 국제대회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연구 자료는 이와 관련된 국내 · 외 문헌과 피겨스케이팅 관련 홈페이지, 각종 선수권 대회의 사진, 동영상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 경기 의상의 색상과 디자인, 소재, 장식, 노출정도와 메이크업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3.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의 의상 디자인 및 메이크업 비교 ·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즌별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공동으로 출전한 경기 중에서 정규 경기인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의 의상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의상을 분석하였다.

2010년~2011년 시즌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공동으로 출전한 경기는 2011년 4월 세계 선수권 대회였다. 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의 주제곡은 아돌프 아당(Adolphe Adam)의 '지젤(Giselle)'로, 블랙의 원 숄더에 플레어스커트 원피스로 화려하게 블루 크리스털 비즈장식이 된 쉬폰 의상을 착용하였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주제곡은 아라비안나이트를 주재로 한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ii-Korsakov)가 작곡한 '세헤라자데(Scheherazade)'인데, 아사다 마오 선수는 이 음악에 맞춰 롱 슬리브, 라운드 네크라인, 플레어스커트로 구성된 시스루 소재의 레드와 블랙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김연아 선수는 블루 크리스털과 블랙 비즈로 장식된 의상은 블랙 시스루 소재로 어깨와 등,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이 슬릿으로 노출된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그러나 블랙과 레드의 강렬한 색 조화와 엉덩이 부분의 레드 꽃 장식, 등부분에 블랙의 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사다 마오 선수의 의상은 대담한 노출로 강렬하고 섹시함을 표현하였다.

메이크업에서 김연아 선수는 눈매를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그 외에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였고, 아사다 마오 선수는 펄 감이 있는 아이쉐도우와 레드 립 컬러, 핑크 블러셔로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강렬하고 섹시한 의상에 조화를 이루었다.

프리 스케이팅에서 아리랑을 중심으로 5가지 전통 음악을 편곡한 '오마주 투 코리아(Homage to Korea)'라는 곡으로 안무를 한 김연아 선수는 쉬폰의 블랙과 화이트 그라데이션 의상을 착용하였으며, 아사다 마오 선수는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사랑의 꿈(Libestraum)'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연한 바이올렛 컬러의 스판덱스와 스커트 부분이 쉬폰으로 구성된 의상을 착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김연아 선수의 블랙의 라운드 네크라인, 롱 슬리브, 여러 겹의 하늘거리는 그라데이션 스커트로 구성된 이 의상은 스위트 하트 네크라인에 화려한 크리스털 비즈 장식이 플레어스커트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등 부분도 비즈로 장식되어 있으며, 신축

성이 있는 쉬폰으로 된 롱 슬리브에 등 부분은 세로로 노출하였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의상은 연한 바이올렛의 하이 네크라인에 롱 슬리브, 플레어스커트로 이루어진 원피스로 몸판 전체와 넥, 슬리브에 큰 보석과 크리스털 비즈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등 부분이 둥글게 파여 있다.

메이크업에서 김연아 선수는 눈매를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섹시함을 나타내었으나, 아사다 마오 선수는 의상과 같은 계열의 아이쉐도우와 부드러운 연 핑크계열의 립 컬러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2012년~2013년 시즌에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공동으로 출전한 경기는 2013년 세계 선수권 대회로, 김연아 선수는 '뱀파이어의 키스(The Kiss of the Vampire)'의 O.S.T 주제곡에 맞춰 스카이 블루에서 화이트로 연하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쉬폰 소재 의상을 착용하였다. 아사다 마오 선수는 2006~2007년 시즌 쇼트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의 '녹턴 (Nocturne No.2 Op.9-2)'에 맞추어 샐몬 핑크와 블랙이 살짝 비치는 쉬폰 소재 의상을 착용하였다.

김연아 선수의 의상은 스탠드 형 네크라인과 가슴 앞부분, V자형으로 깊게 파인 등 라인을 따라 바이올렛과 블루, 실버의 크리스털 비즈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스탠드 형 칼라의 롱 슬리브 원피스이지만 시스루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베어드 탑 원피스에 목걸이를 한 듯한 착시효과를 주며, 스커트는 블루에서 화이트로 연하게 그라데이션 된 플레어로 구성되었다. 아사다 마오 선수는 등판이 허리까지 깊게 파여 있고, 양 옆 라인의 노출이 되어 있으며 V자형 네크라인에 플레어스커트로 구성된 의상을 착용하였다. 이 의상은 앞 슴 부분에 크리스털 비즈와 스팽글로 장식되어 있고, 시스루 스커트의 은은한 노출로 섹시함을 강조하였다.

메이크업에서 김연아 선수는 눈매를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화려한 의상에 포커스를 맞춘 반면, 아사다 마오 선수는 실버 펄 아이쉐도우와 연 핑크 립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였다.

한편, 프리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는 클로드 미셸 센베르그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 음악에 맞추어 그레이, 블랙 그라데이션된 쉬폰 의상을 착용하였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Piano Concertos No.2 C minor)'에 맞추어 아사다 마오 선수는 주로 화이트 컬러에 스커트 밑단이 그레이 그라데이션으로 장식된 의상을 착용하고 안무를 선보였다.

김연아 선수의 의상은 다이아몬드 네크라인과 18세기 풍의 앙가장 슬리브, 플레어스커트 형태로 다이아몬드 네크라인과 파인 등 부분의 라인을 따라 화려한 크리스털 비즈와 보석이 장식되어 있으며, 앙가장 슬리브 중간의 X형으로 비즈 끈 장식이 되어 있고, 등 부분이 둥글고 넓게 파여 있어 18세기 복고풍을 표현하였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의상은 V자형 네크라인에 등 부분도 V자형으로 깊게 파여 있어 순백의 깨끗함과 함께 섹시함을 나타내었으며 앞가슴과 스커트, 등 라인에 깃털이 장식된 행커치프 햄 라인의

의상이다. 시스루 롱 슬리브에 전체적인 크리스털 비즈 장식이 되어 있으며, 손목에는 깃털이 장식이 되어 한 마리의 백조를 연상시키는 의상이었다.

김연아 선수는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강조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아사다 마오 선수는 실버 그라데이션된 아이쉐도우에 연한 핑크 립 컬러 메이크업으로 의상과 조화를 이루었다.

2013년~2014년 시즌에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공동으로 출전한 경기는 2014년 동계 올림픽 경기인 소치 올림픽으로 김연아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Send in the clowns(어릿광대를 보내주오)'라는 주제곡에 맞춰 올리브 그린 컬러의 롱 슬리브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아사다 마오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즌에 이어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의 '녹턴 (Nocturne No.2 Op.9-2)'에 맞춰 연한 바이올렛 컬러의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쉬폰 소재의 올리브 그린 컬러 의상은 벨슬리브에 등이 깊게 파인 의상으로 몸판은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이 되어 있고, 몸판과 소매에 크리스털 비즈와 스팽글로 장식을 더했으며 플레어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의상은 쉬폰의 연한 바이올렛의 슬리브리스 원피스로 여러 겹의 플레어스커트가 그라데이션 되어 있으며 스위트 하트 네크라인으로 가슴 윗부분의 크리스털 비즈 장식과 여러 겹의 쉬폰을 주름잡아 가슴부분을 강조하면서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등 부분은 등허리 밑까지 깊게 파였으나 뒷목에서 부터 길게 뻗어져 내려오는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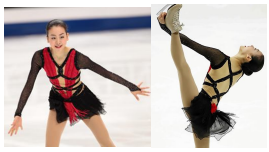
김연아 선수는 눈매를 강조하는 스모키 메이크업과 레드 립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아사다 마오 선수는 의상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연한 바이올렛의 아이쉐도우와 그에 맞는 은은한 립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였다.

김연아 선수의 프리 스케이팅 주제곡은 아르헨티나 탱고인 'Addios nonino'이다. 김연아 선수는 이 곡에 맞춰 블랙과 퍼플 색상의 롱 슬리브에 슬릿이 들어간 플레어스커트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프리 스케이팅 주제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Piano Concertos No.2 C minor)'으로 블루와 블랙, 포인트가 된 레드의 강렬한 조화가 되어 있는 의상을 착용하였다.

김연아 선수의 의상은 하이 네크라인으로 앞부분의 블랙과 퍼플의 벨벳 소재의 경계선에 화려한 크리스털 비즈가 장식되어 있고 약간의 슬릿이 들어가 있으며 등 부분은 둥글고 넓게 파여 있고,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 주변에도 크리스털 비즈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의상은 앞부분에는 새틴 소재의 블루, 블랙, 레드의 강렬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장식에 크리스털 비즈로 화려함과 강렬함을 더했고, 스커트는 블랙의 쉬폰 소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양쪽의 소매 끝 부분에도 의상과 마찬가지로 블루, 블랙, 레드 컬러로 강렬한 장식이 되어 있다. 등 부분은 앞부분의 화려한 장식이 뒤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다.

김연아 선수는 자연스러운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또렷하게 하고 레드 립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아사다 마오 선수는 화려한 의상의 컬러와 같은 계열의 블루 아이쉐도우와 레드 립으로 메이크업을 하였다.

<표 1>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의 시즌별 경기의상

		2010-2011	2012-2013	2013-2014
김연아	쇼트 pro.			
	프리 pro.			
아사다 마오	쇼트 pro.			
	프리 pro.			

4. 결론

본 연구는 한 · 일 양국 피겨 스포츠계의 대표적 스타인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동시에 참가했던 국제 대회를 중심으로, 피겨스케이팅 의상과 메이크업을 시즌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던 2010~2011년 시즌부터 2013~2014년 시즌까지의 동시 출전한 경기는 총 3경기로,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에서 총 6벌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는 동시에 출전한 경기에서 착용한 의상은 모두 원피

스 형태였는데, 김연아 선수는 모두 플레어스커트의 원피스를 착용하였고, 아사다 마오 선수 또한 깃털이 장식된 행커치프 햄 라인의 원피스를 제외한 나머지 의상에서 모두 플레어스커트의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원피스는 원 숄더와 롱 슬리브, 벨 슬리브, 앙가장 슬리브와 다이아몬드,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다양한 디자인인 반면, 아사다 마오 선수의 원피스는 롱 슬리브와 V자형 네크라인, 스위트 하트 네크라인이 주로 나타났다.

두 선수의 의상의 색채를 비교한 결과, 김연아 선수의 의상에는 블랙 컬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밖에도 퍼플, 올리브 그린, 스카이블루, 그레이 컬러가 사용되었으며, 아사다 마오 선수는 블랙과 레드, 블루의 강렬한 컬러나 연한 바이올렛, 샐몬 핑크, 화이트와 그레이 그라데이션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선수가 착용한 의상의 소재를 비교해 본 결과, 김연아 선수는 벨벳과 쉬폰, 레이스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장식 기법은 모든 의상이 크리스털 비즈 장식이 주를 이루며 그 밖에 보석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하였으나, 아사다 마오 선수는 대부분 쉬폰 소재의 의상에 크리스탈 비즈 장식, 스팽글과 주름 장식, 깃털 장식 등 김연아 선수 보다 더 다양한 장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두 선수 의상의 노출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연아 선수의 의상은 주로 롱 슬리브에 등 부분의 노출과 혹은 약간의 어깨 노출이 있었고, 아사다 마오 선수의 의상에서는 롱 슬리브의 의상을 착용할 경우 등의 노출이 있었고 과감하게 끈으로 되어 있는 의상의 경우는 슬릿으로 앞부분과 등의 과감한 노출이 나타났다.

두 선수의 메이크업을 비교해 본 결과, 김연아 선수는 눈매를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자연스러운 립 컬러를 선택하거나 레드 립 컬러도 사용하였고, 아사다 마오 선수는 의상 색과의 조화를 이룬 같은 컬러의 아이쉐도우와 연 핑크 립 컬러를 매치하거나 짙은 색상의 의상에는 진한 레드 립 컬러로 포인트를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메이크업은 주로 의상 및 음악의 분위기와 매치될 수 있도록 고려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경기 의상을 통해 의상의 형태, 색채, 소재, 장식 기법, 노출 정도와 메이크업을 정성적으로 비교·분석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피겨 스케이팅 의상 디자인의 발전을 모색하고 피겨 스케이팅 뿐만 아니라 그 외 스포츠 의상 디자인 개발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1) 장아름(2011),“피겨스케이팅 의상디자인의 내용분석연구”, *한국의류학회, 35(2)*, p.146.

2) 박은영(2009), “피겨스케이트공연의 마케팅믹스와 관람 만족 및 추천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8*, p.223.

3) 나현숙(2013), “주제곡에 따른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의상 디자인 분석”, *한*

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p.189.
4) 김지선(2008), “경기용 피겨 스케이팅 의상의 디자인 특성”, *복식, 58(10)*, p.22.

패션업계에서의 세컨드브랜드의 영향력 연구
- 해외브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은영* · 간호섭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석사*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1. 연구목적

21세기 패션업계의 국제화와 융·복합 시대로 인해 소비자들은 빠른 정보 습득과 공유가 가능해졌다.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급속도로 변하는 트렌드로 인해 제품 수명주기는 단축되어 패션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하이퀄리티의 디자인 개발능력과 생산능력을 가져 경쟁에서 우위를 가진다 생각하기 쉽지만 소수의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거나 높은 가격대와 유통망의 부족 등으로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엔드브랜드에서는 본래의 타겟층 외의 새로운 시장공략으로 디자이너 고유의 고감도 개발능력과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세컨드 브랜드가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세컨드 브랜드가 생겨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첫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둘째, 젊은 소비자층의 소비패턴이 가치 소비 위주로 바뀜으로 소수의 고객층만이 이용했던 고가 브랜드를 젊은 소비자층에도 어필하기 위해서 이며 셋째, 신규 브랜드 런칭에 비해 투자위험이 적고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기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컨드 브랜드의 성공 사례연구와 장점만 부각되어 간과되고 있는 실패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의 세컨드 브랜드들이 지양해야할 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세컨드 브랜드의 이론적 배경인 정의와 발생배경을 설명하고 세컨드 브랜드의 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세컨드 브랜드의 장, 단점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컨드브랜드가 패션업계의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 앞으로 세컨드 브랜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Lee Eun-Young Tel. +82-10-5513-6989
E-mail : 2736465664@naver.com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해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에는 선행연구가 진행된 논문과 신문 자료, 사전, 단행본, 패션 전문 정보 사이트, 각종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컨드 브랜드를 정의하자면 인지도를 갖춘 모(母)브랜드인 하이엔드브랜드에서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개발 능력은 유지하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타겟 층을 변경하여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를 말한다.

세컨드 브랜드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1,2차 세계대전 이전의 패션 산업은 소수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오뜨꾸튀르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1,2차 세계 대전 후 경제적 성공을 거둔 신 상류층을 포섭하기 위해 프레타포르테가 등장하고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기성복 형태가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신 상류층은 저렴하고 퀄리티가 낮은 기성복이 아닌 오트꾸튀르 수준의 기성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맞춰 디자이너들이 기성복 라인에 눈을 돌리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패션업계의 수익감소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통해 판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고가의 브랜드에서는 새로운 타겟층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반하는 세컨드 브랜드를 마케팅 전략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최근 소비계층이 경제력이 있는 40대 이상 소비자에서 20~30대로 변화함에 따라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 브랜드 네임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세컨드 브랜드의 성장세와 함께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세컨드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면 프라다의 미우미우,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아르마니 엠포리오, 마크 제이콥스의 마크바이 마크 제이콥스, 돌체앤가바나의 디앤지 등이 있고 대표적인 실패사례로는 구찌의 세컨드 라인 파올로 구찌를 런칭하여 명성을 깎아내린 사례와 리바이스 리바이 테일러드 클래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하이엔드브랜드에겐 신규매출로 경제적 성취를 주고 소비자들에겐 선택의 폭을 넓혀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통로이지만 구찌와 리바이스처럼 실패한 사례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획득하게 하지만 수익성 측면으로 볼 땐 도리어 악화되어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모(母)브랜드의 소비자층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3. 결과 및 고찰

세컨드 브랜드의 사례 분석으로 알아본 기업 입장에서의 이점은 첫째, 기존의 브랜드명으로 소비자들에게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하여 품질에 대한 믿음을 주며 둘째, 유통경로와 마케팅비용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여 진행하는 것에 비해 상당 부분 절감이 된다. 셋째,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넷째, 세컨드 라인의 성공으로 기존의 모(母)브랜드의 판매 또한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점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컨드 브랜드의 실패는 모(母)브랜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둘째, 세컨드라인의 브랜드 명과 모(母)브랜드명이 너무 비슷하게 사용될 경우 세컨드라인과 모(母)브랜드의 혼동되어 세컨드 라인의 실패시 모(母)브랜드까지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컨드 브랜드의 영향력을 파악을 위해 분석을 해보니 세컨드브랜드의 입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母)브랜드의 네임 밸류를 바탕으로 하여 트렌디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와 소통함으로 모(母)브랜드의 매출을 능가하는 세컨드 브랜드의 성장이 나타났다. 켈빈 클라인의 세컨드 브랜드인 ck의 경우 국내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2009.03 기준)의 매출액이 캘빈 클라인보다 27% 높았고 마이클 코어스의 세컨드 브랜드인 마이클 마이클코어스도 (2009년 기준) 57.8%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하여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일모직이 판매하는 플리츠플리즈의 경우 판매수량이 모(母)브랜드의 이세이미야케의 3배에 달한다. 이처럼 모(母)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구축함에 따라 현재 전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패션업계는 세컨드브랜드로 인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되었다.

4. 결론

최근 세컨드 브랜드의 호황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세컨드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오뜨꾸띄르 레벨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세컨드라인 런칭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명성과 럭셔리이미지 손상을 대비함으로 세컨드 브랜드를 독립적인 브랜드로 칭하여 별개의 라인으로 분류하고 상업성이 부족한 럭셔리 브랜드의 상업성을 갖는 동시에 모(母)브랜드의 이미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모(母)브랜드에게 지각된 위험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분별한 세컨드 브랜드의 런칭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진행된 세컨드 브랜드는 모(母)브랜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주력을 다하며 상업적인 통로로만 사용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해외 브랜드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하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션업계이기에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세컨드 브랜드를 패션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업계에서도 미치는 영향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곽지혜 (2011), “패션브랜드 확장 시 지배적 브랜드, 브랜드 간 품질차이 그리고 소비자 자기관이 확장제품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김남규 (2010), “모 브랜드의 특성이 브랜드 확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김보경 (2009), “패션 브랜드이미지와 자기이미지의 일치성이 확장 브랜드의 태도에 미

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배정빈 (2010),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컨드 브랜드 런칭을 위한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임성경, 유지헌 (2010), "국내 전개 패션 상품의 브랜드 확장에 관한 연구- 메인 브랜드가 세컨드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전혜정 (2007), "현대패션&디자이너,(서울: 신정,2007)", pp.243~24
조은성 (2003), "의류제품의 브랜드확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패션 인사이트 (2012.3.12), "럭셔리 업계 '세컨드 라인이 효자'"
한국 경제, (2009.04.08.), "'도나카란'대신 `DKNY'가 뜨는 까닭은…"
한경닷컴, (2010.12.06.), "패션업계 '세컨드 브랜드'열풍,"
헤럴드 경제, (2010.03.29.), "'미우미우'입고 '프라다'를 소비하다"
David A. Aaker and Kevin Lane Keller, "Consumer Evaluations of Brand Extensions," *Journal of Marketing,* Vol. 54 January (1991), pp. 27-41.

중화권 영화제 레드 카펫의 패션 이미지 분석+

왕령* · 이미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1. 연구목적

영화의 꽃으로 불리는 여배우들은 패션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패션 아이콘으로 영화제 시상식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TV,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대중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스타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레드 카펫 패션은 대중들의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인 스타일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레드 카펫의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패션을 창출하기 위해 중화권의 대표적인 영화제인 중국 금계백화상(金雞百花獎, the Golden Rooster and Hundred Flowers Award), 대만 금마상(台灣金馬獎, Golden Horse Awards), 홍콩 금상장(香港金像獎, Hong Kong Film Awards)의 레드 카펫 의상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중화권 영화제의 레드 카펫 의상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정하였고, 각 영화제의 공식 홈페이지, 각종 매체의 기사, 인터넷 검색 사이트(www.google.com, www.hao123.com)와 패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 사진자료 중에서 615개의 사진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패션관련 문헌의 패션 이미지 분류를 참고로 클래식, 엘레강스, 페미닌, 에스닉, 아방가르드, 스포티브, 매니시, 모던, 로맨틱 이미지와 기타로 분류해서 연구자와 패션디자인 전공 전문가 5인에 의하여 각 사진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중화권 영화제의 레드 카펫 의상의 패션 이미지 특성을 살펴본 다음, 연대별 추이와 영화제별로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중화권 레드 카펫 의상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엘레강스(34.8%)가 가장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3HR15D0801).

Corresponding author : Lee Misuk Tel.+82-62-530-1345 Fax.+82-62-530-1349
E-mail :ms1347@chonnam.ac.kr

많았고, 그 다음은 페미닌(23.4%)과 로맨틱(13.2%)이 차지했으며, 에스닉(8.9%), 모던(7.6%),클래식(4.6%), 아방가르드(3.7%), 기타(2.6%), 매니시(1.0%), 스포티브(0.2%)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 카펫 의상으로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았던 것처럼, 중화권 영화제 의상에서도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상한, 우아한, 기품 있는, 격조 높은, 멋진' 의미를 지닌 엘레강스 이미지가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는 레드 카펫 의상의 패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으로 레드 카펫에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패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도별로 레드 카펫 의상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도에는 페미닌 이미지가 가장 많았지만, 2007년과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32.9%, 38.0%, 42.5%, 48.6%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에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Fluid Elegance와 Gothic Elegance라는 2010 S/S, F/W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Fluid Elegance는 유동적인 실루엣을 통해 우아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Gothic Elegance는 Fluid Elegance에 비해 한층 더 성숙하고 우아한 절제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컨셉이다. 그러나 2011 S/S 컬렉션에서는 로맨틱 룩, 2011 F/W 컬렉션에서는 40년대 스타일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레이디 라이크 클래식 룩, 그리고 2012년 S/S 컬렉션에서는 다크 로맨틱 룩, 2012 F/W 컬렉션에서는 부르주아 클래식과 로맨티시즘이 믹스된 룩, 2013년 S/S 컬렉션에서는 현대적이고 모던한 룩, 2013 F/W 컬렉션에서는 아방가르드 룩이 대표적인 트렌드였지만, 중화권 여배우들의 레드 카펫 의상은 점점 여성의 엘레강스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강조한 여신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화권 영화제 별로 레드 카펫 의상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세 영화제 모두에서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페미닌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가 차지하였다. 즉, 중화권 영화제의 레드 카펫 의상은 영화제 별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제의 레드 카펫 의상에서도 엘레강스 스타일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4. 결론

이미지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표현하는 단서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성공여부나 일의 성패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영화제의 레드 카펫 패션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배우들의 패션 이미지 또한 그들의 패션 감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중화권 스타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레드 카펫 패션 디자인 개발은 향후 중국 패션의 명품 이미지 구축과 고부가가치화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중화

권 레드 카펫의 의상 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통문양을 활용해서 고감성의 모던한 레드 카펫 드레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민율미(2013), “여성정치인의 패션 이미지가 정치적 능력이미지와 유권자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심도, 연령,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1.
2) 박민아(2011), “레드 카펫 패션 스타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3) 윤진아(2008), “국내 스타 이미지가 스타 패션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쇼핑몰 중심으로-”, *패션과 니트, 6(2),* p.34.
4) 변미연, 이인성(2008), “청룡영화제에 나타난 여배우들의 패션 룩에 관한 패러다임”,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14(4),* p.227.
5) 삼성디자인넷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4. 3. 8, www.samsungdesign.net.

웨딩드레스의 이미지별 디자인 특징과 사례연구

이서윤 · 김지영*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강사 ·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부교수*

Ⅰ. 연구목적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에 입는 의상으로 혼인서약을 통해 부부가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으며,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이며 법률적으로도 제한을 받는 예식을 위한 의상이다. 웨딩드레스에는 이처럼 결혼 예복으로서의 엄숙함·신성함·경건함·숭고함·품위·특별함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순결함과 여성미를 강조하거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웨딩드레스는 결혼예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보편적인 몇 가지 이미지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웨딩드레스에도 시대별 흐름에 따라 유행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웨딩드레스라는 복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반복되는 주요 이미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웨딩드레스에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를 선정하고 각 웨딩드레스의 이미지가 20세기 디자인과 2000년대 이후 최근 디자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웨딩드레스 이미지별 형태 · 장식디테일 · 소재 · 색채 · 액세서리의 디자인 특징과 그 사례를 연구하여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문헌고찰은 웨딩드레스 관련된 거의 모든 단행본 및 선행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먼저 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보편성을 띄며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에 디자인 사례분석은 각 이미지별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징과 디자인 트렌드 등을 분석하기 위해 20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웨딩드레스 관련 문헌자료,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웨딩 컬렉션지 및 웨딩전문잡지의 사진자료 그리고 인터넷 자료인 「Sposabella」·「Bookmodasposa」·「Wedding 21」·「Sotteroandmidgley」·「Pronovias」등을

Corresponding author : Kim Jiyoung, Tel. +82-43-261-2783, Fax. +82-43-274-2792
Email: coco7@cbnu.ac.kr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분류기준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웨딩드레스 이미지의 분류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Catherine Woram, 윤혜숙, 오선숙 외 3인 등의 관련 단행본 서적과 오재희, 오지혜, 전원희, 이성수 외 2인, 신은정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각 연구자가 웨딩드레스 이미지의 분류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웨딩드레스 이미지의 분류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에서 4회 이상 중복해서 나타나는 웨딩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아방가르드 이미지(Avantgarde Image)와 섹시 이미지(Sexy Image)는 중복해서 나타났으나 일부 패션 화보에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사용될 뿐 대중적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제외되고, 그 결과 도출된 이미지는 클래식 이미지(Classic Image) · 로맨틱 이미지(Romantic Image) · 엘레강스 이미지(Elegance Image) · 모던 이미지(Modern Image)로 나타났다.

2. 웨딩드레스 주요 이미지별 디자인 특징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웨딩드레스의 주요 이미지를 클래식 · 로맨틱 · 엘레강스 · 모던로 분류하였고 각 이미지별로 형태 · 장식디테일 · 소재 및 색채 · 액세서리 기법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클래식 이미지(Classic Image)

로 웨이스트 라인의 1920년대 스타일 · 에드워디안 스타일 · 프린세스 라인 · 엠파이어 스타일 · A-라인 등에 하이 네크라인과 롱 슬리브, 스리쿼터 슬리브를 사용하여 보수적이고 포멀한 디자인 경향을 보였으나 현대에 들어 세련되게 재해석된 경우도 많았다. 소재는 주로 레이스 · 미카도 실크 · 태프터 등이 많이 애용되었고, 장식디테일 기법으로는 비즈 · 버튼장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았고, 색채는 흰색 계열의 색채가 많이 쓰였다.

20세기에서 현재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된 클래식 이미지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20세기에는 전형적인 클래식 이미지의 스타일이 주류를 이룬 반면, 2000년대 들어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의해 클래식 스타일이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재해석 되어 재해석되어 전통미와 현대미가 결합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2) 로맨틱 이미지(Romantic Image)

주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스타일로 표현되어 볼륨감을 준 디자인이 많으므로 타이트한 바디스에 크리놀린, 버슬 등과 같은 풍성한 스커트 또는 오버스커트의 형태가 많았으며, 티어드와 벨형과 같이 볼륨감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소재는 실크 · 브로케이드 · 튤 등이 많이 쓰였고, 장식디테일 기법에는 프릴 · 러플 · 리본 · 자수 · 꽃 · 아플리케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색채는 흰색 외에 크림색 · 아이보리색 · 부드러운 핑크 또는 담황색 등 엷은 파스텔 계열의 색채가 많이 나타났다.

20세기의 로맨틱 이미지는 소녀적 감성이나 여성스러움이 강조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며, 과장되게 부풀린 소매와 스커트, 독특하고 커다란 헤어드레스(hairdress) 그리고 장식디테일 기법으로 리본 · 프릴 · 러플 · 셔링 · 루시 · 코사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의 로맨틱 스타일은 절제되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웨딩드레스 특성상 보수적인 관념 속에 대체로 퓨전 스타일이 유행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3) 엘레강스 이미지(Elegance Image)

보통 자연스러운 머메이드 라인 · 시스 실루엣 · 피트 & 플레어 · 바디스 또는 스커트 어느 한쪽을 부풀리거나 강조한 실루엣으로 보트 네크라인 · 오프 숄더 네크라인 등이 애용되었다. 소재는 벨벳 · 새틴 · 태프터 · 실크 · 라메 · 브로케이드 등의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되었고, 장식디테일 기법은 작은 코사지 · 퍼 · 숄 · 화려한 액세서리 장식 등을 사용하였다. 색채는 화려하면서도 호화롭게 표현되었고, 흰색 외에 은색 · 금색 · 하늘색 · 바이올렛 등 다양한 색채가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20세기의 엘레강스 이미지의 웨딩드레스는 우아하고 품위가 있으며 고급스런 감각 또는 상류계급의 성인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숙하고 세련된 감각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로 엘레강스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의 엘레강스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화려하고 고급스런 감각의 디자인과 동시에 현대적 감성에 맞게 심플하지만 우아한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난다. 2010년을 전후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와 2011년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의 웨딩드레스 영향으로 심플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소재감, 우아한 실루엣을 강조한 스타일 또는 별다른 장식 없이 한 두 군데 장식디테일에 포인트를 주어 은은하거나 온화한 감성의 엘레강스한 디자인이 유행하는 경향이다.

4) 모던 이미지(Modern Image)

심플한 실루엣에 장식을 배제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살린 디자인이나 도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 라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실루엣이나 원 숄더 실루엣 등이 사용되었고, 소재는 무늬가 없는 단색의 소재나 드레이퍼리 소재, 독특한 주름 가공이나 표면질감이 표현되었고, 장식기법은 절개 · 비즈 · 턱 · 플리츠 장식 등 한 가지 장식기법만을 사용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색채는 주로 흰색 외에 은색 · 금색 등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컬러풀한 색상이 포인트로 일부분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20세기의 모던 이미지는 단순하고 심플한 실루엣 또는 기능성을 고려하여 트레인을 탈부착하거나 수트 차림으로 하여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다른 용도로 입을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의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모던 스타일은 다른 장식은

배제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만을 사용하여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간결한 탑 바디스 스타일에 H-라인으로 심플하게 떨어지는 스커트라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Ⅳ. 결론

20세기에서 현재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 각 웨딩드레스의 이미지별 디자인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의 디자인 경향은 모던시대와 물질적 가치,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시대로서, 예복의 기능을 담은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웨딩드레스는 각 고유의 이미지별 뚜렷한 개성이 두드러지는 경향과 또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과장되게 화려함과 극대화된 스타일로 표현된 경향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에 21세기에 들어 고도의 문명사회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감성과 취향이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각 이미지별 디자인의 경향은 그 어느 시기보다 다양한 스타일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전시기보다는 심플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변화 또한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스타일로 전통미와 현대미가 혼합된 퓨전스타일로 변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Catherine Woram(1993), Wedding Dress Style, London: A Quintet Book.
· 윤혜숙(2002), Wedding Dress & Deco, 서울: 삶과 문화.
· 오선숙 외 3인(2009), 웨딩드레스 실무, 서울: 블루피쉬.
· 오재희(2001),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혜(2011),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 및 버추얼 피팅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활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원희(2010), 2000년대 웨딩드레스 스타일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표현특성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수 외 2인(1999), 웨딩드레스 선정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의류학회 23(4).
· My Wedding, 2006-2013, 서울: 디자인하우스
· Wedding 21, 2006-2013, 서울: 뉴스 & 매거진 온포스.
· Sposa Book Moda, 2003-2012, Italy: Publication Ediziono.
· Sposa Bella, 2005-2012, Italy: Publication Ediziono.
· Vogue Sposa, 2009. 09. N.110, Italy: Publication Ediziono
· http://www.sotteroandmidgley.com.
· http://www.pronovias.com
· http://www.mywedding.design.co.kr.
· http://www.wedding21.wef.co.kr.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彭麗媛)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

장문* · 이미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1. 연구 목적

여성 정치인들이나 퍼스트레이디들 같은 여성 리더들에게 패션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즉 그들의 패션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메시지나 상징을 전달하는가 하면, 때로는 리더십 발휘나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때로는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패션 저널리스트 로빈 기번(Robin Givhan)이 "여성 정치인이 입은 옷은 정치적 성명 발표와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패션의 정치적 함의나 기능을 가리키는 '패션정치'(Fashion Politics)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퍼스트레이디는 미셸 오바마 (Michelle Obama)와 함께 펑리위안(彭麗媛)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정치 전통과 역사상 이유로 퍼스트레이디 역할이 그다지 중시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인들도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때문인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의 부인인 펑리위안은 해외 순방 내내 TPO에 맞는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여 중국이 촌스럽고 낙후된 나라라는 편견을 없애는데 일조한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의 전통적인 퍼스트레이디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의 패션 스타일링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여성 정치인 패션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펑리위안의 패션 스타일링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4월2일까지 착용한 의상으로 한정하였고, 연구방법은 인터넷사이트(www.baidu.com, www.gov.cn, www.google.com, news.xinhuanet.com, www.sina.com)에서 수집한 161장의 사진 중에서 동일한 의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패션 분석이 불가능한 사진을 제외한, 총 83장(국내 15장, 국외 68장)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아이템, 색채, 문양, 액세서리 등 중심으

Corresponding author : Lee Misuk Tel.+82-62-530-1345 Fax.+82-62-530-1349
E-mail :ms1347@chonnam.ac.kr

로 스타일링을 분석하였다. 아이템 분석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로 분류하였고, 색채분석은 컬러의 비율에 따라 메인 컬러, 서브 컬러, 액센트 컬러로 나누어 색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이를 디지털 이미지에서 Adobe photoshop을 이용하여 컬러 칩과 RGB값을 추출하고, 각 컬러 칩의 RGB값은 Munsell Conversion으로 HV/C 값으로 변환하여 멘셀 표색계의 10색상(R, YR, Y, GY, G, BG, B, PB, P, RP)과 무채색(W, Gy, Bk)를 분석하였다. 문양 분석은 문양의 유무에 따라 무문과 유문, 유문은 단문과 복합문으로 분류한 다음, 단문은 자연문, 기하학문, 추상문, 전통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는 귀걸이, 핸드백, 브로치, 스카프, 코사지, 장갑, 벨트, 숄, 목도리, 반지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3HR15D0801).

3. 결과 및 고찰

1) 아이템

펑리위안 패션의 아이템 구성은 투피스(69.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쓰리피스(21.7%), 원피스(8.4%) 순이었다. 투피스의 구성은 원피스+코트(40.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원피스+재킷(24.1%), 재킷+스커트(10.3%)/블라우스+스커트(10.3%)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나머지는 원피스에 블라우스(3.4%), 카디건(5.2%), 팬츠(3.4%)를, 블라우스+팬츠(1.7%), 코트+팬츠(1.7%)로 구성되었다. 쓰리피스는 주로 재킷+블라우스+스커트(38.9%), 재킷+탑+스커트(27.8%)의 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는 재킷+블라우스+팬츠(11.1%)/ 코트+블라우스+팬츠(11.1%), 코트+블라우스+스커트(5.5%)/셔츠+탑+팬츠(5.5%)로 구성되었다. 펑리위안이 착용한 총 83벌 중에서 중국풍 의상은 37.3%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 54.8%가 치파오 형태의 원피스였다. 해외순방 중에 착용한 68벌 중에 치파오를 비롯한 중국풍 의상은 38.2%, 방문국의 민족복은 5.9%를 착용하였다. 이와 같이 펑리위안은 퍼스트레이디로서 중국의 전통복식을 활용한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중국 민족의 고유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전통복식을 착용하는 패션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

2) 색채

83벌의 의상에서 추출한 205개의 색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53.2%)이 무채색(46.8%)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유채색에서는 PB계열(15.6%)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YR계열(8.3%), R계열(6.3%) 순이었다. 무채색에서는 W(55.0%), Bk(14.6%), Gy(9.6%)순으로 나타났다. 메인 컬러에서는 Bk(20.5%)와 W(18.1%), 서브 컬러에서는 W(26.5%)와 PB계열 (20.5%), 액센트 컬러에서는 W(23.1%)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장소에 따른 색채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무채색(55.0%)이 유채색(45.0%)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무채색에서는 W(22.5%), 유채색에서는 YR계열(12.5%)과 RP계열(12.5%)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메인 컬러로는 Gy(20.0%)/Bk(20.0%)/YR계열(20.0%), 서브 컬러에서는 W(35.3%), 액센트 컬러에서는 RP계열(50.0%) 많이 활용되었다. 국외의 경우에는 유채색이 55.2%, 무채색이 44.8%로 나타났다. 유채색에서는 PB계열(18.8%), 무채색에서는 W(22.4%)가 가장 많았다. 메인 컬러는 Bk(20.6%), W(19.1%), PB계열 (16.2%)이 많았으며, 서브컬러는 PB계열(25.8%), 액센트 컬러는 W(25.8%)가 많이 활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펑리위안 의상에 활용된 메인 컬러는 국내에서는 Gy, Bk, YR계열의 의상을 동일하게 많이 착용하였지만, 국외에서는 Bk, W, PB 계열을 많이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국내에서는 Gy, Bk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색이라고 할 수 있는 YR계열을 많이 착용했지만, 국외에서는 R, YR, Y와 같은 중국의 전통색보다는 세련된 이미지의 Bk와 더불어 순수한 이미지의 W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PB계열의 의상을 더 많이 착용한 것은 시진핑의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정치적 이념과 주장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문양

83벌의 의상에서 나타난 177개 문양을 분석한 결과, 문양은 무문(74.0%)이 유문(26.0%)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유문에서는 자연문(11.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통문(7.0%), 복합문(4.0%), 기하문(3.4%)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문은 주로 꽃문양(10.2%)이 대부분이었고, 복합문은 기하+자연(2.8%)과 자연+전통(1.4%)의 구성이 주를 이루었다.

장소에 따른 문양을 살펴본 결과, 국내와 국외의 문양 특성이 대부분 비슷했지만, 전통문(7.0%)의 경우, 국외에서 착용한 의상에는 활용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액세서리와 패션소품

펑리위안이 스타일링한 액세서리와 패션소품을 분석한 결과, 귀걸이(94.0%), 핸드백(71.1%), 브로치(27.7%), 스카프(22.9%), 코사지(9.6%), 장갑(7.2%), 벨트(4.8%), 숄(4.8%), 목도리(2.4%), 반지(2.4%)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귀걸이를 100% 착용했고, 그 다음은 핸드백(80.0%), 브로치(46.6%), 코사지(13.3%), 스카프(6.7%), 벨트(6.7%), 숄(6.7%) 순이었다. 국외에서는 귀걸이(92.6%), 핸드백(69.1%), 스카프(26.5%), 브로치(23.5%), 코사지(8.8%), 장갑(8.8%), 벨트(4.4%), 숄(4.4%), 목도리(2.9%), 반지(2.9%)의 순으로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평리위안의 패션 스타일링을 분석한 결과, 펑리위안은 중국을 대표하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중국풍 패션뿐만 아니라 방문국의 전통복식을 착용함으로써 TOP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이념과 비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의상들을 통해 패션을 하나의 외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해서 미국 퍼스트레이디 오바마 미셸의 패션 스타일링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이미숙, 강유희(2014), “마가렛 대처의 파워 드레싱 연구: 패션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패션 비즈니스,18(1)*, pp132-148.

2) “여성 리더들이 입은 옷은 정치적 성명 발표와 같다”(2013. 4. 27),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14. 4. 4 자료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62140175&code=910100

3) 박일근(2013), “중국 시진핑 시대의 펑리위안 띄우기”, *관훈저널*, p.3

4) “习近平主席在博鳌亚洲论坛2013年年会上的主旨演讲”(2013. 4. 07), *新华新闻* , 자료검색일 2014. 4. 4 자료출처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4/07/c_115296408.htm

2000년 이후 펑크 스타일의 변화와 미적 특성

정경희*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패션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예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새도운 시도와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왔으며, 1960년대 히피(Hippie), 1970년대 펑크(Punk), 1980년대의 힙합(Hip hop)에서 1990년대의 그런지(Grunge)까지 하위문화에서 발생된 트렌드는 주류문화에 반향을 일으키며, 패션계에 신선함을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하위문화들은 21세기 들어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영향을 받으며, 주류문화 못지않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중 펑크에 영감을 받은 다양한 전시들이 2013년부터 줄을 잇고 있는데, Metropolitan Museum은 펑크 패션이 하이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Punk: Chaos to Couture'라는 전시를, Victoria & Albert Museum은 1970년대 영국에서 주목받던 글램록의 록커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에 관한 전시와 이를 발전시킨 1980년대 클럽문화를 소개하고 패션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Club to Catwalk: London Fashion in the 1980s' 전시를 개최하여 펑크 패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와 맞물려 과거 소수의 개성 강한 매니아층에서 애용되었던 펑크 패션은 최근 해외 컬렉션의 주요 시즌 트렌드를 형성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펑크 패션 아이템들이 아이돌 스타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트렌디하면서 대중적인 코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트렌드와 맞물려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펑크 패션의 발생 배경과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펑크 스타일의 변화와 미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펑크 패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창의적인 패션 디자인 발상의 모색과 트렌드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펑크의 개념과 펑크 발생의 사회·문화

Corresponding author : Bae, Soo-Jeong Tel. +82-62-530-1344 Fax. +82-6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다음 펑크 패션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차적으로 펑크 스타일의 변화와 미적 특성의 사례연구를 위해 2000 S/S부터 2014 S/S 컬렉션 사진 자료를 대상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펑크 스타일의 변화를 파악하고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는 서적, 선행연구, 패션 신문 및 잡지의 기사, www.samsungdesign.net, www.style.com 등의 패션정보제공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펑크란 '가치 없거나 하급의 것, 젊은 악한, 젊은 방랑자,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등을 뜻하며,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나친 메이크업, 의상, 머리염색 그리고 태도를 말하고 있다. 제임스 레이버(James Laver)는 "펑크 패션은 마조히스틱(masochistic)한 이면을 지니면서 문화· 예술을 파괴하는 폭주족들의 오토바이 복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짓가랑이는 사슬로 연결하고 안전핀을 귀와 심지어는 코에까지 꿰었다."라고 펑크 패션을 묘사하고 있다. 1970년대의 펑크 패션은 반항적이고 파괴적이며 불쾌감을 자극할 정도의 공격적인 패션이자 반체제 패션의 상징으로, 검정색의 가죽 재킷, 급진적인 문구, 공격적인 금속 징, 체인, 안전핀 등의 장식, 닥터 마틴과 같은 전투용 부츠 등으로 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패션을 선보였으며, 저항성, 퇴폐성, 혐오성, 유희성, 해체성, 모호성, 장식성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펑크라는 이름은 펑크 록 음악(punk rock music)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음악과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변화하여 왔으며 본격적인 펑크 문화는 1976년 영국의 록 밴드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에 의해서 등장하였고, 섹스 피스톨즈의 팬 시드 비셔스(Sid Vicious)가 가세하면서 펑크 록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처럼 음악에서 시작된 펑크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였다. 1970년대 당시 영국의 실업률 증가로 노동 계층의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면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저항, 분노와 좌절감을 폭력이 아닌 패션으로 표현하며 빠르게 유행하였다. 당시 매우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패션으로 빠르게 정착된 펑크 패션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 등의 디자이너의 영감이 되었으며,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복고풍, 이국풍 등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혼합되어 나타남에 따라 펑크 패션도 점차 저항적인 의미가 사라지며 펑크 이미지만 차용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컴퓨터 문화발달로 인터넷과 미디어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펑크 패션은 트렌드의 주요 인스퍼레이션(inspiration)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하이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펑크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응용됨에 따라 저항 패션을 표출하는 하위문화에서 벗어나 좀 더 고급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펑크 패션이 패션의 개성추구 아이템이자 패션 리더들의 펑크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더욱 대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2000년 이후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펑크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주

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발렌시아가(Balenciaga), 발망(Balmain),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이브 생 로랑(Yve Saint-Laurent), 베르사체(Versace) 등의 컬렉션에서 펑크적 요소가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었으며, 크게 고스 펑크(Goth Punk), 스트리트 펑크(Street Punk), 로맨틱 펑크(Romantic Punk), 쿠튀르 펑크(Coture Punk)로 스타일을 분류할 수 있었다.

고스 펑크 스타일은 펑크적 요소에 중세유럽의 귀족풍의 패션, 창백한 얼굴, 검은 머리, 블랙 의상의 어두운 면의 고스룩이 더해진 스타일로, 기존의 혐오스럽고 공격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시크하면서 중성적이면서 섹시한 느낌이 강조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블랙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죽 재킷의 펑크적 장식, 피트된 미니 드레스, 창백한 메이크업과 모히칸 헤어스타일, 레이스 업된 부츠, 십자가 목걸이, 망사 스타킹 등으로 스타일링 되면서 중성적이지만 좀 더 페미닌한 느낌이 가미되었다.

스트리트 펑크 스타일은 기존 펑크 스타일에 젊음을 상징하는 스트리트 패션과 만나 가볍고 경쾌해진 웨어러블한 스타일이다. 타탄체크를 비롯한 다양한 체크 패턴, 스터드와 옷핀이 장식된 라이더 재킷과 베스트, 하렘팬츠, 와펜 장식의 데님 팬츠, 미니 캐주얼 드레스, 밝은 색상의 그래피티 티셔츠 등이 믹스 & 매치되어 캐주얼한 펑크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로맨틱 펑크 스타일은 프릴, 셔링 등의 여성스러운 요소가 더해진 로맨틱한 분위기의 펑크 스타일로, 주로 플레어 스커트에 스터드 장식이 된 가죽 재킷이나 프릴이 달린 귀여운 미니 드레스에 스터드 장식이 된 목걸이 디테일, 핑크 색상의 그래피티 웨어, 미니 드레스에 지퍼 장식 등 색상과 디자인에 있어 좀 더 다양해지고 펑크적 요소가 디테일로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쿠튀르 펑크 스타일은 펑크와 오트 쿠튀르, 즉 펑크 패션에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가미된 스타일로 거칠고 해진 모습에서 벗어나 최고급 소재와 패턴, 디자인에 펑크적 모티브가 더해져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이예트(paillette), 면도날, 스터드, 체인 등의 펑크의 공격적 측면이 부드럽게 표현되어 재미있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터드 장식의 가죽 재킷과 쉬폰 소재 스커트의 매치, 펑크 헤어스타일에 시스루 드레스나 여성스러운 수공예적 요소의 믹스 & 매치, 섬세한 장식의 부츠와 스타킹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펑크 스타일의 특징을 1970년대 펑크 패션의 특징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절충적 저항성, 혼성적 관능성, 감성적 장식성, 창조적 해체성의 미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절충적 저항성은 과거 펑크 패션에 비해 혐오적인 성향 및 반사회적 성향의 상징성이 감소된 것을 의미하며, 2000년 이후 나타난 펑크 스타일은 하위문화로써 펑크가 가졌던 저항 정신을 강조하기보다 그래피티, 스터드, 옷핀 등의 아이템을 장식적인 디테일로서 사용함으로써 펑크 패션의 외형적인 스타일을 모방·재해석하여 선보이고 있었다. 둘째, 혼성적 관능성은 젠더가 혼재된

형태의 섹시미가 강조된 것으로, 과거 펑크 패션이 지나친 메이크업과 노출이 심한 괴상한 의상, 독특한 머리염색과 스타일 등을 통해 거칠고 퇴폐적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현대 패션에서의 펑크 스타일은 시크한 분위기의 피트된 블랙 가죽 재킷, 망사 스타킹, 세련된 스모키 메이크업 등을 통해 중성적이면서 관능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감성적 장식성은 어두움과 혐오, 공포의 일색이었던 펑크 이미지와는 상반된 이미지로 펑크 아이템이 다양한 밝은 색상,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가미된 드레스, 스터드와 비즈가 혼합된 디테일, 저항정신이 사라진 그래피티 룩 등으로 표현되어 로맨틱한 분위기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해체성은 상위계층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낸 찢어진 팬츠, 셔츠와는 다르게 상위계층의 스타일을 새롭게 조합하거나 절충한 스타일로, 펑크적 요소에 고급스러운 실크, 쉬폰, 새틴, 레이스 등의 소재를 믹스 & 매치 하거나 수공예적인 디테일이 가미되어 기존의 낡고 빈곤의 이미지에서 하이패션의 장식적인 요소로 펑크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었다.

4. 결론

펑크 패션은 1970년대 발생된 저속하고 반항적인 이미지에서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하위문화와 하이패션 사이의 스타일의 경계가 희미해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따라 펑크 아이템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패션 디자이너들과 스타들에 의해 펑크가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개성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중들에게도 흥미 있는 패션 트렌드로 펑크가 부각되면서 컨템포러리 룩으로 인식되며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서 활용되고 있는 펑크 패션의 특징을 분석하여 펑크 스타일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섹시하면서도 시크한 고스 펑크, 캐주얼한 감성의 스트리트 펑크,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로맨틱 펑크, 고급스러우면서 섬세한 쿠튀르 펑크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펑크 스타일의 미적 특성은 절충적 저항성, 혼성적 관능성, 감성적 장식성, 창조적 해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컬렉션에 나타나고 있는 4가지 펑크 스타일 모두 오리지널 펑크라고 하기에는 저항적 의식의 상징적인 부분이 아닌 외형적인 스타일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완화된 펑크 스타일, 색상, 소재, 디테일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의 펑크적 요소가 함께 응용되어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 웨어러블한 하이패션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펑크 패션의 아이템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트렌드를 이끌 잠재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 Prestel, pp. 118-121.
김순자(2002), “펑크 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6), pp.

139-164.
손향미· 박길순(2005), “현대 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1), pp. 1444-1453.
안현주(2009), “국내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특성”, 복식문화연구, 17(4), pp.626-639.
양윤선· 진연니· 노윤선(2009), “펑크 패션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1), pp. 19-30.
이수현(2013),“펑크 이미지의 표현기법을 응용한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은혁(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복식, 53(2), pp. 71-85.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뉴 실버세대를 위한 핫피스 장식 디자인 연구

이인숙* · 김지영
숭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부교수

1. 연구목적

패션 디자인에 있어 정교한 장식 기법은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며 시선을 끄는 포인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반짝이는 표면감을 연출하는 핫피스는 화려한 소재감을 선호하는 뉴 실버세대가 선호하는 장식 디자인으로 다양한 아이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뉴 실버세대를 위한 패션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뉴 실버세대를 위한 패션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핫피스 장식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뉴 실버세대의 패션에 적용할 수 있는 핫피스 디자인 샘플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패션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뉴 실버 세대를 정의하고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뉴 실버 세대의 패션의식과 감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핫피스의 종류와 형태, 색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백화점 유통망을 가지고 시판중인 여성 실버브랜드 중 핫피스의 활용이 많은 3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F/W-2014년 S/S 제품을 아이템별로 고찰하였다. 셋째, 핫피스의 디자인 요소를 살려 핫피스 디자인 장식 4점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단계부터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과정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포함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였고, 수입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업체와 도매시장 등 핫피스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관찰과 인터뷰, 사진촬영 등 실증적인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 도안을 제작한 후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내 시판중인 실버 브랜드의 핫피스 장식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

Corresponding author : Kim, Ji-Young Tel. +82-43-261-2783 Fax. +82-43-274-2792
E-mail : coco7@cbnu.ac.kr

다.

첫째, 핫피스 모티브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하학적인 모티브나 추상적 모티브 등은 원단의 표면에 따라서 앞판이나 칼라, 밑단 등 자유롭게 활용되었고 단순한 형태가 많았다. 사실적 패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플라워 모티브로 다른 모티브와 함께 화려하게 사용되거나 칼라나 포켓 등에 작은 사이즈로 연출되기도 하였다. 자사의 로고를 활용하여 니트 셔츠나 티셔츠 등의 가슴이나 밑단, 소매단, 포켓 등에 부착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핫피스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흩뿌려 장식된 경우는 부착면과 유사한 색상과 톤이 사용되어 표면을 장식한 경우가 많았고, 특정 모티브가 있는 경우는 부착면과 유사한 색상으로 은은하게 표현하거나 모티브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대조적인 색상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깊이 있는 색상 표현을 위해 옅은 색에서 짙은 색까지 3~5개의 톤 차이가 나는 핫피스를 함께 활용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셋째, 핫피스 장식의 부착위치를 살펴보면 핫피스의 광택으로 얼굴빛을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칼라에 부착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네크라인, 앞단은 신장이 커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서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네크라인의 핫피스는 다양한 색상과 비즈나 스톤 등의 부가적인 장식 트리밍과 함께 화려한 문양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켓에도 부분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칼라의 핫피스 장식과 연계되어 디자인의 통일성을 주면서 화려한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핫피스 장식은 상의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스커트는 프린트 문양과 함께 표면을 장식하는 효과로 흩뿌려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팬츠는 힙 부분이나 옆선, 밑단 부분에 곡선적인 라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시판 중인 실버 브랜드의 핫피스 장식은 화려한 색감과 표현이 특징적이며 사실적인 모티브 장식의 비중이 높았다. 모티브의 도안이 브랜드별 차이가 없이 비슷하였고 다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 실버 세대를 위하여 좀 더 세련되고 젊은 감각의 핫피스 장식을 개발하고자 추상과 기하학 모티브, 추상과 구상 모티브를 혼합하여 컨셉은 현대적 감성을 겸비한 여성스러움에 중점을 두고 핫피스의 모티브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블랙 컬러를 베이스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칼라와 포켓용 1점, 네크라인용 2점, 전체용 1점으로 총 4점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칼라와 포켓용은 세트로 구성하여 기하학과 추상 모티브를 사용하여 세련되고 절제된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네크라인용은 추상과 구상 모티브를 혼합하여 좀 더 과감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용은 추상과 구상 모티브를 혼합하고 컬러감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회화적인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4. 결론

뉴 실버세대를 위한 핫피스 장식연구를 통해 젊고 세련된 감각을 추구하는 이들의 패

션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샘플을 개발하였다. 향후 젊은 감각을 추구하는 실버 계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미적 감각을 만족시키며 패션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장식기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정인희 (2012), 패션장식, 서울: 교문사(주), pp.198-205.
2) 류정은, 최경희 (2010), “핫피스 기법을 이용한 여성 니트디자인 연구”, 한국니트디자인학회지, 추계학술대회, pp.43-44.
3) 정지연 (2010), “비즈공예기법을 이용한 패션 장식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25.
4) 이경옥 (2009), “부착장식 기법에 의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5.
5) 이슬아 (2004), “패션에 나타난 비즈장식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29.
6) 김지영, 조규화 (2005), “패션디자인의 입체적 표면효과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9(1), pp.1-20.
7) http://www. swarovski-elements.com/home/index.en.html(2013.07.12. 자료검색)

한국 한방화장품 유니폼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 이미지 분석

정경희* · 이미숙 · 홍형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브랜드가 표상하는 이념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지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이하 B.I)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B.I 디자인 요소 중 유니폼은 단순이 실용성과 통일성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인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이미지나 소비자의 개성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 제품을 선호하는 감성적 구매성향이 매우 강한 제품이고 소비층이 감성적인 여성이라는 것에 주목한다면 B.I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원은 고객과의 대면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써 매장 인테리어와 함께 화장품 B.I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서 화장품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기업과 정부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에 대한 연구가 전략적인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B.I 전략을 모색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한방화장품의 B.I와 판매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 디자인 현황 조사를 통해 화장품 B.I가 유니폼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한·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브랜드 유니폼의 감성 이미지를 조사를 실시하여 B.I와 유니폼 이미지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한방화장품은 국내화장품 상위 20개 품목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2013년 정부가 화장품 산업에서 한방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바 있어, 한방화장품이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내포한 한국의 문화적 브랜드로서의 성장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방화장품 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Corresponding author : Lee Misuk, Tel. +82-62-530-1345 Fax. +82-62-530-1349
E-mail : ms1347@chonnam.ac.kr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은 먼저, 국내 한방화장품 브랜드 중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설화수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를 대상으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B.I 키워드와 디자인 요소(컨셉, 로고, 컬러, 문양, 패키지)를 추출하고 2013년 10월에 브랜드의 매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통해 유니폼 사진을 수집하여 B.I 디자인과 유니폼 디자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유니폼에 대한 감성 이미지 평가는 선행연구과 예비조사를 토대로 설문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노출빈도가 높은 스커트 슈트 유니폼을 자극물로 제작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방화장품 구매행동, 한국 한방화장품 판매원의 유니폼 이미지, 인구통계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방화장품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 척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한방화장품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브랜드 이미지 또는 제품 이미지를 표현하는 총 121개 감성어휘들을 수집한 다음, 패션 전공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판매원 유니폼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언어연상기법을 사용하여 총 99개의 형용사 어휘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감성어휘 중 빈도수가 높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범주화하고 선행연구와 국어사전을 참고로 반의어를 추출하여 최종 35개의 형용사 쌍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5점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중국은 베이징(北京)과 허난성(河南省), 장시성(江西省), 한국은 서울과 광주에서 실시하였으며, 총 2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52부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24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설화수 브랜드의 컨셉은 자연의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자연과 사람의 상생, 내면을 다스려 피부를 이롭게 하는 몸과 마음의 상생, 오랜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난 전통과 과학의 상생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화장 문화를 계승하여 한국적인 미의식 세계를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설화수의 B.I 디자인 요소 중 로고는 '雪花秀'라는 한자가 동양적인 경서-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며, 단아한 느낌의 雪花에 서예가 해정 송경식의 힘 있는 필체로 표기된 秀는 한문이 지닌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방'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 낙관 모양의 모티브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품질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 B.I 컬러는 음양과 상생을 나타내는 오방색을 기조로 하여 각각의 컬러가 설화수의 각 제품 라인을 상징한다. 설화수의 문양은 매화 문양으로, 무한한 유려함을 보여주고 육각형의 형태는 거북의 등을 닮아 무병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꽃잎을 간결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아름답고 이상적인 우주를 표상하고 있다. 설화수 화장품의 패키지는 한복의 치마 선과 연꽃의 선을 조화시켜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절제된 라인을 통해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황실 문화와 동양의학을 현대적으로 접근하여 피부를 위한 궁중비방을 담은

명품 화장품이라는 컨셉을 추구한다. 브랜드 로고의 '후'는 임금 '后'자로, 왕후인 왕비를 의미하고 전통 악기인 해금에서 모티브를 얻어 생명감 있는 붓 터치로 한국적인 미를 강조하였다. B.I 컬러는 궁중의 화려함과 보호의 마력을 지닌다는 호박 보석을 상징하는 옐로우를 메인 컬러로, 서브 컬러로는 궁중의 화려함을 담은 레드와 청동 빛의 블루 컬러를 활용하고 있다. 문양은 왕후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곡선의 연꽃 문양과 봉황 문양으로 한국적이면서 기품 있는 궁중화장품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화장품 패키지는 호리병과 동양 황실 도자기의 곡선을 활용하여 여성스러움과 궁중화장품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둘째, 유니폼 디자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화수의 유니폼은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춘추복을 기본으로 여름에는 동일한 하의에 여름용 블라우스, 겨울에는 춘추복에 니트 상의 또는 코트를 착용하였다. 설화수 유니폼은 블라우스와 스커트/팬츠, 재킷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매원 1인당 각각 2벌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1벌의 팬츠와 재킷, 코트를 지급받아 착용하였다. 블라우스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왼쪽 어깨선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비대칭 라인의 여밈이 특징적이고 하의로는 주로 H 라인 스커트를 착용하지만 때에 따라서 테일러드 팬츠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재킷은 더블 브레스트 재킷을 착용하였는데, 블라우스와 동일한 컬러가 배색된 턴 업 커프스가 달린 엉덩이 길이의 칼라가 없는 라펠 재킷이다. 유니폼의 컬러로는 라이트그레이쉬 톤의 옐로우레드 컬러가 메인 컬러로 그레이쉬 톤의 옐로우레드 컬러가 서브컬러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설화수 로고 및 매장 인테리어에서 사용된 컬러가 유니폼 디자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은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춘추복을 기본 유니폼으로, 여름에는 동일한 하의에 여름용 블라우스, 겨울에는 춘추복에 니트 상의 또는 코트를 착용하였다. 유니폼은 블라우스와 스커트/팬츠, 재킷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매원 1인당 각각 2벌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1벌의 팬츠와 재킷, 코트를 지급받아 착용하였다. 목 부분에 개더가 잡혀있는 라운드 네크라인 블라우스에 H 라인 스커트 또는 테일러드 팬츠, 싱글 브레스트 재킷을 착용하고 있는데,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준 라펠이 달린 엉덩이 길이의 재킷이다. 유니폼의 컬러로는 딥톤의 퍼플블루 컬러가 메인 컬러로, 블랙과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포인트 컬러로 활용된 액센트 배색이 활용되었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의 디자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B.I 디자인 요소 가 유니폼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 한방화장품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 유무에서 한국인 소비자들은 92.5%가, 중국인 소비자들은 전체의 77.5%가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정보경로를 측정한 결과, 한국인 소비자의 경우 TV가 3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인 29.7%, 신문, 잡지 22.5%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중국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지인이 5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TV가 20.4%, 인터넷이 16.1%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한국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사용경험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소비자의 경우 전체의 57.5%, 중국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14.2%가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화장품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한국인 소비자의 경우 품질을 90.8%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58.3%, 가격 50.8%, 제품의 이미지 47.5%, 브랜드 인지도 28.3%, 판매원의 이미지 12.5%, 생산지 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인 소비자의 경우에도 품질을 77.5%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이 각각 54.2%, 브랜드 이미지 48.3%, 제품의 이미지 27.5%, 생산지 20.8%, 판매원의 이미지 15.0%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설화수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5점 의미미분척도로 분석한 결과, 먼저 한국인이 느끼는 설화수의 유니폼은 지적인, 여성적인, 엘레강스한, 우아한, 단아한, 단정한, 부드러운, 진부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비활동적인, 보수적인 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에서는 지적인, 단아한, 단정한, 유행에 맞지 않는 진부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어두운, 비활동적인, 불편한 등의 이미지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경우, 설화수 유니폼에서 매력적인, 기품 있는, 세련된, 참신한, 지적인, 여성적인, 엘레강스한, 우아한, 단아한, 단정한, 자연스러운, 현대적인, 국제적인 등의 이미지를 느끼고 있는 반면,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유니폼에서는 지적인, 흔한, 친근하지 않은, 딱딱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어두운, 부자연스러운, 심플한, 비활동적인, 한국적이지 않은 등의 이미지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한방화장품 B.I 키워드와 유니폼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설화수 브랜드가 추구하는 B.I 키워드는 고급스러운, 귀한, 기품 있는, 참신한, 아름다운, 단아한, 부드러운, 화사한, 밝은, 자연스러운, 한국적인, 현대적인, 국제적인 등이었으나 한국인이 느낀 설화수의 유니폼의 이미지는 단아한, 부드러운 이미지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진부한, 우중충한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 B.I와 상반된 이미지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설화수의 유니폼에서 기품 있는, 참신한, 단아한, 자연스러운, 현대적인, 국제적인 등의 이미지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설화수의 B.I와 거의 일치하였다. 그리고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경우, 브랜드가 추구하는 B.I 키워드는 매력적인, 고급스러운, 귀한, 기품 있는, 우아한, 아름다운, 부드러운, 화려한, 화사한, 자연스러운, 전통적인, 현대적인 등 이었으나 한국인이 느낀 유니폼의 이미지는 지적인, 단아한, 단정한 이미지를 제외하고 유행에 맞지 않는, 진부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우중충한, 평범한, 어두운, 비활동적인, 불편한 등의 상반된 이미지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인 또한 유니폼에의 이미지를 지적인 이미지를 제외하고 흔한, 딱딱한, 소박한, 우중충한, 부자연스러운 등 B.I가 추구하는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 설화수의 경우, 유니폼에서 느껴지는 진부하고 소박한, 평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이미지 모티프에 패션 트렌드를 가미하는 등 유니폼의 디테일에 변화를 줌으로써 고급스럽고 단아하면서 현대적인 이미지가 가미된 유니폼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히스토리 오브 후의 유니폼 디자인은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 모두 브랜드 B.I와 일치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반된 이미지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B.I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왕후의 은유적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를 유니폼의 형태, 색채, 소재, 액세서리 등에 세련된 감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급스러우면서 매력적인 이미지의 유니폼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화장품 브랜드의 B.I 확립 및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유니폼 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세계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 및 정부의 화장품 산업 지원 정책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유정(2007). *감성에 근거한 브랜드의 웹 사이트 컬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자, 박주희(2002). “한국적 이미지의 축구유니폼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2*(4), pp. 125-139.

김장미, 박혜원(2006). "기업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F 유통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복식, 56*(5), pp. 75-88.

윤회선(2008). *화장품 브랜드 샵의 VMD 전략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2006). "전통음식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한정식 전문 음식점 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2), pp. 107-123.

이신영(2002).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진, 김윤경, 이경희(2005).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9), pp. 1265-1273. .

정경희, 이미숙(2009). 화장품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유니폼 이미지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1), pp. 309-323.

표유경, 이명희(2000).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 50*(8), pp. 43-55.

홍자경(2008). *감성 브랜딩 전략으로서 화장품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평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캄보디아 역사분석을 통한 전통의상연구

윤지영* · 간호섭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1. 연구목적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타이와 국경이 접해 있으며 면적은 18만 1,035㎢로 남한의 약 1.8배, 한반도 전체의 80%이다. 1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오랜 역사와 문물이 존재하는 캄보디아는 나라가 아닌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오래된 역사와 발전된 문물들이 있었던 나라였다. 언어가 시작되었던 기점에 있던 나라기 때문에 문화적 발달은 어떤 나라 보다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을 기준으로 캄보디아 인구는 약 1470만 1717명인데 한국의 1.8배에 해당하는 크기에 비해 우리나라의1/4 정도 밖에 인구수가 되지 않는다. 1967년에 결성된 크메르루즈(붉은크메르)의 4년간 집권으로 인해 150만명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모두 학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장해 가던 캄보디아는 돛을 잃어버린 배처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4년이란 단기간의 잘못된 정치는 캄보디아의 발전을 막았을 뿐 아니라 수교하고 있던 나라들과의 관계도 헐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과도 1962년에 영사관계를 수립하였으나 크메르루즈사건으로 인해 공관은 철수되었고 양국의 교역 활동도 중단되었다. 22년 후 1997년에 와서 한국과 재 수교를 이뤄낸다.

현재 한국은 유,무상 원조개발, 수출,수입 등으로 캄보디아와 친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연간 28만 명으로, 캄보디아의 전체 관광객 중 2위로서 한국이 캄보디아 내 관광시장의 발전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직접적인 투자, 관광, IT, 직업훈련, 문화교류, 금융, 건설, 항공 8개 분야 내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캄보디아 산업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구증가에 따른 내수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지리적, 위치적 특성으로 볼 때 서남아시아로 나가는 교역로로 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친선관계를 토대로 서남아시

Corresponding author : Yoonjiyoung Tel. +82-10-2477-8095
E-mail : dbsekdns22@hanmail.net

아로의 진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기회의 땅인 캄보디아를 우리는 좀 더 이해하고, 연구하고, 자료로 남겨 계속적인 관계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역사분석을 통한 전통의상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캄보디아인들의 감춰졌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대처 해야 할 자세부터 마음가짐까지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현재에 캄보디아 역사, 문화 및 의상에 대한 국내외 논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이나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생, 한국 내 다문화여성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캄보디아의 문화와 역사분석을 통해 캄보디아 개국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전통의상의 특징을 연구한다. 먼저는 캄보디아의 역사분석을 통해 어떤 전통적 뿌리를 통해 전통의복까지 발전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시대가 흐름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또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각 시대의 전통의복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캄보디아 건국이전부터 가장 화려했던 Ankor 시대를 지나 Charktomok 시대까지 시대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Funan (68 AD - 550 AD)

부남은 동남아시아의 초기 국가로써 기원후 3세기 초쯤 동쪽으로 현 베트남 남부의 거의 모든 지역, 서쪽으로 현재의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 반도, 미얀마까지 이른다.

부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 메콩 연안으로서 현 프놈펜보다 조금 아래쪽 위치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부남이란 이름이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의 '프놈(Phnom)'과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라는 사실과 함께 캄보디아의 건국 시초를 보여준다.

사료들이 전하는 부남의 전설에 따르면, 부남은 원래 나가(naga) 신의 딸인 소마(Soma)라는 여왕이 지배하던 국가였다고 한다. 여기서 나가란 뱀을 가리킨다. 뱀의 딸 소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땅에 캄보디아 첫 번째 국왕인 카운딘야(Kaundinya)라고 하는 한 브라만이 서쪽(인도 또는 말레이 반도)으로부터 왔다고 한다. 카운딘야는 꿈속에서 만난 한 신인의 계시로 신궁(神弓)을 얻은 후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항해해서 소마의 땅에 이르렀다. 소마의 군대와 카운딘야 무리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카운딘야가 소마의 배를 신궁으로 쏘아 맞추자 놀란 소마는 항복했다고 한다. 카운딘야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캄보디아의 토대가 되는 후난의 신화는 동남아시아의 토착 세력과 인도로부터 온 세력의 결합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사회에 미친 인도의 영향력을 알려 준다.

2. Chenla (550 AD - 802 AD)

진랍은 처음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지방에서 건국되어 부남에 복속되어 있었으나 부남이 6세기 이후 왕권을 둘러싼 내분을 겪다가 점차 쇠퇴하여 7세기에 진랍(Chenla) 왕국에 병합되었다. 크메르인 최초의 단일국가로 성장하는 듯 보였으나 자이야와르만 1세가 죽은 후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수(水)진랍과 육(陸) 진랍으로 분리되었을때 샤일렌드라 왕조가 수진랍의 왕을 죽이고 종주권을 행사하였다.

3. Angkor (802AD - 1437AD)

자야바르만 2세(JAYAVARMAN II) 부터 시작된 Ankor시대에 제 18대 왕 수리야바르만 2세 (SURYAVARRMAN II)는 앙코르 유적 중 가장 유명한 앙코르왓(Ankor wat)을 축조하였다.

그는 열렬한 힌두교 신자로서 앙코르왓을 세웠고 자신을 힌두교의 보호, 유지의 신인 비슈누(VISHNU)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자야바르만 7세 때에 바이욘 사원이 있는 앙코르 톰의 주위에 '타 프롬', '프레아 칸' 등 불교사원을 건립하고 대승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종교의 변화로 국력이 상실될 수도 있었지만, 힌두교를 아예 배척하며 불교를 강압적으로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훌륭한 정치만으로 베트남의 해안에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와 멀리 미얀마까지 최대의 영토를 구축하여 앙코르 왕조 최후의 번성기를 누렸다.

4. Charktomok (1437 AD - 1525 AD)

찬란했던 앙코르(Ankor) 시대가 14세기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 각종 종교적 건축물 건설은 과도한 재정 지출과 인력의 한계를 몰고 왔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에 있을 때 처음에 영토확장을 목적으로 시작된 태국과의 전쟁에서 버거운 싸움이 되었고 조공을 받았던 태국과 라오스 모두 통합된 나라를 세워 지리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놓여졌다. 개인적 수양에 중점을 두는 불교의 국교책정은 국민들의 결집력을 떨어트렸고 결국 과도한 재정지출과 외세의 공격과 불교의 확산 때문에 1430년 태국 아유타야의 침입으로 결국 무너졌다. 결국, 아유타야왕에게 쫓겨 수도를 프놈펜으로 천도할 수 밖에 없었던 캄보디아는 건국신화를 불교 쪽으로 다시 세워 보지만, 불교가 찬란했던 시기로 돌아갈 연결고리로 작용해 주지 않았다. 또한 내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외교를 통한 발전도 어려웠고 시엠립처럼 비옥한 토지로의 변환도 어려웠기 때문에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5. 천도 이후 시대(1525 AD-)

태국과 베트남의 정치적 개입과 캄보디아의 의존적 정치로 인해 크메르왕국 때 얻었던 땅을 모두 내주었다. 수세기 동안 겪은 어려움과 의존적 성향은 프랑스에게 직접 보

호국 요청을 함으로써 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가 일단락되었고 다시 한번 일본의 도움을 요청해 독립을 얻어냈다.

3. 결과 및 고찰

1.1) Funan시대의 전통의복(68 AD - 550 AD)

부남 시대 때는 크메르 사람들은 브라만인이 개국을 했다는 신화에서 전해지듯이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인도의 계급사회이다. 그러나, 부남이란 나라 자체가 계속된 전쟁에서도 모든 생활을 책임졌던 여성들의 힘이 인정이 되는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의복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도의 남성 전통의복인 dhoti (*dhoti: 봉제되어있지 않은 천으로 허리와 다리를 감싼 긴치마)가 다양한 이카트무늬를 가진 직물들과 함께 들어와서 Sampot chang kben (*Sampot chang kben: 긴 천을 허리 중심에서 수직방향으로 꼬아 다리사이에 넣고, 벨트로 고정시키는 하의)이라는 하의로 개발하여 남성 여성 모두 입었다는 것이 보여진다. 그러나 왕실의 남성들은 dhoti 형식 그대로 착용함으로써 본인들이 왕실 사람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반 평민들은 간단한 줄무늬로 된 천을 사용하거나, 면,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해 왕실 사람들과 비슷하게 입었다.

2.2 Chenla시대의 전통의복(68 AD - 550 AD)

진랍이 처음에 부남에 복속되어 있었으나, 자야바르만 1세때 부남을 병합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간에 의류 스타일은 부남의 의류 트렌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진랍 시대에 부남의 Sampot(*Sampot: dhoti에서 유래됨)은 계속 착용되지만 그 종류와 형태는 부남 시대 보다 더 다양하게 변화됐다. 여성 또한 하의로는 Sampot 뿐 아니라 꽃 문양, Pidan(*pidan:나가,압사라,사원 등 종교적인 문양을 새겨 넣은 직물) Sarong을 입었다. Sarong(Sarong)은 도티(dhoti)와 다르게 한쪽을 봉제해서 통형으로 입어 남은 천은 허리에 끼워넣거나 끈으로 매는 형식으로 부남 시대에 있던 도티가 들어왔듯이 진랍 시대에도 여성의 의복인 Sarong이 pidan직물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Sampot이나 Sarong을 입을 때 상의에 목 아래에 V자로 된 장신구인 Sarong kor를 입었는데 가슴이나, 배는 전혀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들을 보좌했던 시녀들의 옷에서는 Sabai라는 인도의 sari(*sari: 한쪽 어깨에 두르는 천)가 변형되어 왼쪽 어깨에 착용되었으며 이 위에 장식된 끈을 x자 형태로 한번 더 입었음을 볼 수 있다.

Sabai에 대해서는 2가지 전승이 기록되어있는데, 하나는 건국 신화 속 카운딘야가 소마의 옷자락을 즉, 뱀의 꼬리를 붙잡고 나가의 나라로 갔다는 대목에서 소마의 옷자락이 곧 신의 꼬리이며 이 것을 형상화 해서 만들어 졌다. 즉, '힌두교에서 전승된 옷이다'라는 주장과 시녀들의 옷에서만 들어난 것처럼 '인도의 불교가 들어와 스님처럼 본

인의 몸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어떤 것이 바른 전승의 모습인 줄 알 수 없으나, 인도의 다양한 종교가 캄보디아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3.2 Angkor 시대의 전통의복 (8th century to 14th century)

남성은 강성해진 Ankor 시대에도 여전히 상의는 입지 않았고, Sampot만 입었다. 왕실의 남성들은 화려한 무늬의 직물에 금 벨트로 마무리 한 반면, 평민들은 kroma(*kroma:캄보디아 스카프)나 여성들이 입는 Sarong을 입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여성들 또한 남성보다 조금 더 긴 Sampot과 Sarong을 차용하였으며 매듭을 묶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성한 나라로 유희를 즐길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사라라는 무희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보통 Sampot보다 장식적인 것이 더 강하며, 왼쪽 매듭으로 좀더 fashionable하게 보이도록 했다. 또한 Chenla시대 시녀들이 착용하였던 Sabai를 제외하고 장식적 요소로 어깨에 x자 모양으로 늘어뜨리는 띠도 착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지어진 사원에서 부조로 된 압사라를 찾아 볼 수 있듯이 앙코르 시대에 압사라라는 무희는 중요한 미적 요소였다. 압사라는 힌두교 신화와 불교 신화에 나오는 구름과 물의 여자 요정이다. 시엠립으로 수도를 옮겨 오면서 메콩강, 톤레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앙코르 시대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자연스레 압사라라는 힌두, 불교신화의 요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4.2 Charktomok 시대의 전통의복(1437 AD - 1525 AD)

태국과의 전쟁에서 진 캄보디아는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과 교역활동을 늘리며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확립된 불교가 더욱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이 때문에 지난 3시대 동안 유행했던 힌두교 스타일의 옷이 금지되었고 불교적 성향을 띈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유한 남성들도 자신에게 맞는 셔츠를 찾아 입기 시작했고 젊은 아가씨들은 그들의 몸을 감쌀 수 있는 2미터정도의 넓은 직물을 사서 배 부분만 살짝 보이도록 휘감았다. 휘감고 남은 천은 가슴을 한번 더 가리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입는 것이 바로 Sampot samloy이다. 넓은 직물로 몸을 감싸다 보니 단단하게 몸을 감게 되었고 이는 의복이 tight해지는 결과가 되었으며 흘러 내리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욱 단단히 맬 수 있는 얇은 옷감이 유행하였다. 매듭은 중앙에 위치시키고 걷기 편하도록 무릎 정도 내려오는 짧은 단을 특징으로 한다. 캄보디아가 크메르 왕국으로서의 위치를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직물의 발달이 어려웠다. 이런 시기에 몸을 가리는 옷, 흘러내리지 않는 옷들을 입어야 했던 캄보디아인에게 이 시기는 가히 패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귀족들보다 평민들에게 나타났는데 아무 무늬도

없는 천이나, 검정색 천, 혹은 전통 스카프인 kroma를 착용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 결론

캄보디아의 개국신화에 따르면 인도의 브라만인이 힌두의 Naga라는 여신과 결혼함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보면 인도의 다양한 문화가 캄보디아로 넘어왔음을 추축해볼 수 있다. 인도의 도티(dhoti)가 Sampot이라는 캄보디아 말로 변화되며 치마형태의 의복이 바지로 혹은 치마 그대로 입혀졌다. 이런 Sampot style은 진랍시대에도 계속되는데 진랍이 부남을 통합함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힌두교가 기반이었던 부남시대애 반해 인도의 불교도 유입되면서 여성을 가리는데 쓰였던 인도의 sari라는 전통의복이 Sabai로 변형되어 개국공신들, 즉 힌두교파의 귀족들을 제외하고 평민들이나, 궁중에서 일하던 시녀들에게 입혀짐으로써 또 하나의 의복이 생겨났다.
대 제국 시대였던 앙코르시대는 부유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캄보디아였기에 Sampot이나 Sarong의 형태는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장식적인 면들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벨트나, Sampot과 Sarong을 묶는 방법이나, 액세서리들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워낙 안정되었던 나라의 성격상 예술의 발달도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압사라 춤을 추는 무희들이었다. 현재까지 압사라는 캄보디아 전통무형문화재로 그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캄보디아에 없어선 안될 예술 문화이다. 물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압사라는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발탁되었으며 그들의 패션은 귀족, 평민들보다 더욱 장식적인 면이 강했다. 즉, 압사라를 추는 무희들이 그 당시에 패션을 이끌어 가는 선구자인 것이다.
이렇게 강성하기만 했던 나라가 사원, 병원, 호텔 등 건축을 짓는 것에 너무 과도한 재정 및 인력소모를 하게 되어 결국엔 자야바르만 7세 이후로 캄보디아는 무너져 가다 태국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다. 프놈펜으로 천도한 캄보디아는 메콩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에서 살았던 시엠립 생활과 달리, 마른 대륙에서 태국과 베트남의 손을 빌어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패션의 퇴화를 가져왔고 자야바르만의 영향과 태국,라오스 등 북족 지역의 불교적 영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여성의 아름다움을 뽐냈던 시대가 끝나고 어떡해서든 가리는 것이 의복의 목적이 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캄보디아의 역사 분석을 통하여 본 전통의복은 종교적, 지리적, 다양한 시대적 상황 등으로 인해 변화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지역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교역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가졌으나, 인접한 국가들이 많다 보니 영토전쟁이 개국부터 캄보디아가 독립을 이뤄내기까지 계속되어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도 본인들의 특유의 강한 면모를 잃지 않으며 변화하는 문화에 적절한 적응 하여 주변 국가에서 보기에는 박쥐처럼 이리저리

붙으며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주변 나라와 문화적 동맹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많은 기업들이 캄보디아로 진출하고 있는 이 때에 캄보디아의 뛰어난 적응력과 친화력, 변화의 상황가운데서도 본인들의 감성이나 생각을 잃지 않는 뚝심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안다면 캄보디아와 기업 모두에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저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캄보디아와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또한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캄보디아 문화연구 및 전통의복에 대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최병욱(2007.09.12), 동남아시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 WIKIPEDIA, Cambodia clothing
3) 두산백과, 동남아시아
4) 이은임(2001.12), 인도복식의 정신문화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의류학과
5) 류경희(2008), 인도 신화의 특성과 주요 주제들, 외대남아시아연구소,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 색채 연구

임송미* · 이미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 연구목적

오늘날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의 장이 아니라 개최 국가의 문화와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축제이다. 1896년부터 시작된 근대올림픽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올림픽 개최국에서는 기존의 스포츠와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올림픽 로고, 마스코트, 경기장, 유니폼 등을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 유니폼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요소이자 이미지이다. 특히 유니폼에 있어서 색채의 효용은 능률과 향상 등에 중점을 둔 기능배색의 의미에서부터 환경과의 조화, 쾌적성에의 기여,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최국의 상징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다양한 스타일의 유니폼은 국가를 표시하고 구별하는 특징 외에 정체성과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최국의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여건, 지리적 환경 및 자연적 조건이 다른 문화의 색채는 중요한 지역적, 민족적 특성이 되므로 그 나라의 문화와 이미지를 전달하는데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징적 가치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미래정보사회에서 국가와 도시의 문화와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올림픽 유니폼의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어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전부 개최하는 세계에서 6번째 나라로 기록되어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18년 최첨단IT, 친환경 올림픽을 예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IT 코리아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관련 산업과 문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의 유니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올림픽 개최국의 국기가 주는 상징적인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올림픽 마케팅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올림픽에서 다양한 업무

Corresponding author : Mi-Suk Lee Tel. +82-62-530-1345 Fax. +82-62-530-1349
E-mail : ms1345@chonnam.ac.kr

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유니폼을 조사하는데 있어 기간이 오래된 올림픽은 자료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자료수집이 용이한 중국 베이징(2008년), 캐나다 밴쿠버(2010년), 영국 런던(2012년), 러시아 소치(2014년) 올림픽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유니폼중 국내·외적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선수단 유니폼, 경기용 유니폼, 자원봉사자 유니폼, 시상식 도우미 유니폼, 성화 봉송자 남·여 유니폼 등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및 내용은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국기의 상징성과 국가이미지, 국가이미지 상징요소로서의 유니폼에 대해 고찰하였다. 실증 연구에서는 2008년 베이징 이후 올림픽을 중심으로 유니폼을 선수단, 경기용, 자원봉사자, 시상식 도우미, 성화 봉송자 유니폼 등으로 분류하여 색채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의 특성과 배색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유니폼 사진 자료는 각 국가의 올림픽관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이트(www.google.com, www.naver.com) 등에서 수집하였으며, 색상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여러 장을 분석하여 명확성을 높였다. 유니폼별로 상·하의, 소품 등을 포함하여 최대 5색까지 추출하여 46벌(베이징 15벌, 밴쿠버 13벌, 런던 10벌, 소치 8벌)에서 총 158개의 색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디지털 이미지에서 Adobe photoshop CS2의 eyedropper tool을 이용하여 컬러 칩과 RGB 값을 추출하였고, 이를 Munsell Conversion(version 9.1.1)의 HV/C값으로 변환하였다. 색채 분석은 먼셀의 색체계와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색조 분류법에 의거하여 색상과 색조를 분석하였다. 색상 특성은 먼셀 색체계의 10색상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색조 특성은 먼셀의 HV/C값을 토대로 PCCS의 색조 분류표에 의거하여 12색조와 W(white), Gy(gray), Bk(black)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색채 이미지 분석은 유니폼 배색띠를 시게노부 고바야시(Shigenobu Kobyashi)의 배색 이미지 스케일과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을 참조하여 포지셔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유니폼은 올림픽 마케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 개최국의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유니폼을 중심으로 색채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기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라고 부르며, 빨강색 바탕에 있는 큰 노란색 별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중국공산당을 나타내고, 작은 별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 노동자 · 농민 · 지식계급 · 애국적 자본가의 4계급으로 성립된 국민을 나타낸다. 빨강색은 혁명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색이고, 별의 노란색은 황인종을 가리킨다. 캐나다의 국기는 단풍잎 모양 때문에 흔히 메이플 리프 플래그(Maple Leaf Flag)라고 한다. 양쪽의 빨강색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나타

내고, 12개의 각이 있는 빨강색 단풍잎은 캐나다의 상징이다. 빨강색과 흰색은 영국의 유니언 잭의 색에서 따온 것이며, 1921년부터 국가 색으로 사용하였다. 영국의 국기는 공식적으로 유니언 기(Union Flag)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며, 연합왕국을 형성하는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의 3국의 기를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흰색 바탕에 적십자를 그려, 세인트 조지의 십자기라고 한다. 러시아의 국기는 범슬라브 색으로 된 국기의 시초로 위로부터 흰색·파랑색·빨강색의 3색기로서, 흰색은 고귀함과 진실·고상함·솔직·자유·독립을, 파랑색은 정직·헌신·순수·충성을, 빨강색은 용기·사랑·자기희생을 나타낸다.

둘째,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은 W(26.5%)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R(18.4%), PB(14.3%), Y(12.2%), G(10.2), ltgy(8.2%), B(6.1%), YR/Bk(2.0%) 순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올림픽 유니폼 또한 W가 2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Bk/R(18.2%), PB(15.9%), G(9.0%), ltgy(4.5%), YR/dkgy/mgy(2.3%) 순으로 나타났다. 런던 올림픽 유니폼은 RP/W/PB/R가 17.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P/YR/ltgy(7.1%), Y/G(3.6%) 순으로 나타났다. 소치 올림픽 유니폼은 W/PB가 21.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R(18.4%), Y(13.2%), Bk/YG(10.5%), P/G(20.6%)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밴쿠버, 런던, 소치 올림픽 모두 W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W는 색채특성상 특정한 색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색과 무난하게 잘 어울림과 동시에 서로 격렬한 대립을 하는 색들 사이에 배색하면 원래의 색상을 약화시키는 중화제 역할을 하며, 특히 서로 대비되는 색상, 색조 배색이 두드러진 스포츠 유니폼에서는 효과적인 배색으로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에 가장 많이 나타난 빨강색은 예로부터 상서로움과 경사로움의 상징하는 중국의 전통문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강함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스포츠 유니폼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올림픽 유니폼의 색채이미지 분석에는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 14벌, 밴쿠버 올림픽 유니폼 10벌, 런던 올림픽 유니폼은 6벌, 소치 올림픽 유니폼 6벌의 배색띠가 사용되었으며, 남·여 동일한 유니폼의 배색띠는 제외하였다. 고바야시의 배색이미지 스케일상에 포지셔닝한 결과,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은 캐주얼(6벌/42.9%) 이미지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클리어(5벌/35.7%) 이미지, 쿨캐주얼(3벌/21.4%)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밴쿠버 올림픽 유니폼은 다이나믹/모던(4벌/40.0%), 캐주얼/댄디(1벌/16.6%)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런던 올림픽 유니폼은 고저스(3벌/50.0%), 캐주얼/엘레강스/시크는 각각 1벌(16.7%)로 나타났으며, 소치 올림픽 유니폼은 캐주얼(3벌/50.0%) 이미지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다이나믹(2벌/33.3%), 모던(1벌/16.6%)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올림픽별로 국기와 유니폼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베이징과 소치 올림픽의 유니폼은 국기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캐주얼 이미지에 유니폼이 많이 나타난 반면, 런던은 고저스 이미지, 캐나다는 다이나믹과 모던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런던

은 국기색이 아닌 영국 왕실의 상징인 보라색을 로고, 올림픽 관련 종사자 유니폼, 시상식 단상 등에 사용하여 왕실의 위엄과 존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로고에서부터 유니폼까지 국가와 도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는 국기색의 주조색인 레드, 흰색, 블랙을 배색하여 다이나믹하면서 모던하고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상징인 국기색을 활용한 유니폼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알려 국가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국민화합 뿐만 아니라 문화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최근 올림픽이 세계 패션을 움직이는 거대한 마케팅의 장이자 신소재와 신디자인의 박람회장으로 거듭나면서 올림픽 특수를 누리려는 개최국의 유니폼을 활용한 국가이미지 제고 전략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색채가 갖는 중요성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김학성(1995),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조형사, p. 165.

임송미, 이미숙(2013). 한,미,일 프로야구 유니폼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연구: 색채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7(2)*, pp. 117-135.

조은영, 유태순(2012), 민족적 색채기호의 분석을 통한 국가별 색채감성, *복식, 62(6)*, p. 39.

Davis, M. L.(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 144.

Morton Walker(1996), *파워 오브 컬러*, 김은경 역, 서울: 교보문고, p. 68.

Walter Van Beirendonck 패션에 재현된 펀 모티프

이 상 례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1.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펀(Fun)은 재미, 또는 재미를 주는 것, 장난, 즐거운, 즐거움 추구 등으로 이해된다.[1] 생활을 통하여 '펀(Fun)' 즉,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펀 문화'는 최근 사회와 문화에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로 기업경영과 마케팅, 상품 생산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패션의 변화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기에 '펀'이 패션의 중심 주제로 부각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현상은 재미있는 패션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시대에 따라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치의 척도가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펀'이 패션의 중심 주제로 부각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비평적인 연구의 주제로서 패션에 표현된 '펀(Fun)'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월터 반 베이렌동크는 1957년 벨기에에서 태어나 안트워프 예술대학(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in Antwerp)에서 패션을 전공하였다. 1983년부터 컬렉션을 발표하였으며, 1985년 이래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1987년 영국 런던의 디자이너 쇼에서 '안트워프 6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매년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W & L.T.(Wild and Lethal Trash)의 디자이너로도 활동하였다. 주로 남성복 컬렉션을 위주로 여성을 위한 컬렉션과 남. 녀 성의 구분이 모호한 디자인들도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와 유머는 컬렉션의 중요한 중심 주제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매 컬렉션마다 즐겁고 재미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패션을 발표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에 나타난 펀 모티프를 분석하여 본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분석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디자인 발상을 위한 아이디어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 자료와 전시회 자료 등을 통한 실증적 사례분석으로 패션에 재현된 펀

모티프를 유형화 하고 조형적 특징들을 연구하여 디자이너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등을 추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모티프

모티프(motif)는 원래 문학 용어로서 작품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로서의 사건, 공식 등의 한 형태와 유사한 낱말, 문구, 내용을 말하며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형식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테마적인 의미를 함유하는데 한 작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작가 또는 한 시대, 또는 한 장르에서 생길 수도 있다.[2] 패션에서의 모티프는 주로 무늬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의 형태를 일컫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티프의 원래 의미로 확장하여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와 조형적 특징들을 의미한다.

3-2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펀 모티프

영어 펀(Fun)에는 우리말의 재미, 즐거움 추구...등으로 해석하였을 때 보다 더욱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펀은 즐거움, 재미, 우스움, 희롱, 속이다, 골탕 먹이다, 농담하다, 장난을 치다, 재미있는 일을 하다,[3]라는 뜻을 담고 있어 '속임수'나 '짓궂은'의 의미가 포함된다. 인간의 정서를 연구한 캐롤 이자드(Carroll E. Izzard)는 재미의 개념을 즐거움과 구분하여 "재미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존재로 즐겁거나 긍정적이고 보람된 상태가 어떤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처럼 촉각이나 미감과 같은 감각에 기초하여 감각적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정의하였다."[4]

펀과 유사한 개념으로 유머를 들 수 있는데, 유머(humor)는 '복잡한 정신적 자극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이라는 반사 행동을 일으키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며 재미와 즐거움은 이러한 유머를 이해함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이다.[5] 유머는 가끔 '유희'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유희성이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 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으로, 재미(Fun)라는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요소가 유희의 본질을 규정한다."[6]고 하였다.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에도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웃음을 자아내는 이러한 펀과 유머의 본질적 구성요소들이 잘 재현되고 있다.

다음은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을 새롭고 재미있게 만드는 두드러진 펀 모티프들이다.

(1)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

① 실루엣의 과장과 확대

월터 반 베이렌동크는 코믹한 슈퍼 히어로를 연상시키는 (공기주입으로)근육질이 강조된 남성, 다리가 길어진(인공 보철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남성과 여성, 동물이나, 새, 곤충, 로켓(혹은 폭탄)... 등의 형태를 차용하여 머리, 얼굴, 어깨, 등... 등 신체 일부분을 과장하거나 흡사 그것을 타고 있는 것 같이 만들어 과장된 비율과 실루엣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형태와 몸을 보여주는 초현실적인 펀을 만들어 내고 있다.

② 혁신적인 절개와 구성

실루엣의 과장과 확대와는 반대로 지극히 클래식한 일상적인 아이템들의 평범하기까지 한 실루엣의 패션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절개하고 색이나 패턴을 대비시켜 대립적인 충돌을 만들어 내어 전혀 색다른 이미지의 즐거움을 창출하고 있다.

(2) 그래픽 프린트 이미지의 유머, 그리고 외설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을 재미있게 하는 모티프 중의 하나는 위트 있는 그래픽 패턴들이다. 초현실적인 현대회화와 새와 곤충, 동물 등 자연을 단순화한 그래픽, 코믹한 만화 캐릭터와 슈퍼 히어로, 스마일... 등의 그래픽 패턴, 성적인 유머, 에이즈, 소비주의, 친환경 등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담은 슬로건의 프린트 등은 현실을 풍자하며 사이버 펑크적인 색채와 화려한 색채 대비로 강한 시각적 효과의 펀을 만들어 낸다.

(3)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과 변형

① 이국적인 문화로 부터의 영감

부르카, 인디언 헤드 드레스, 푸에블로인디언의 카치나 인형, 마오리 족의 문신, 말리의 보조 인형(Bozo Puppet), 이스터 섬의 거대 석상, 라파누이 부족의 장식적인 드레스 코드, 파푸아 뉴기니 섬의 사람들... 등 이국적 문화의 문화적 아이콘을 차용한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은 일반적인 패션에서 상상치 못했던 시각적 즐거움을 제시한다.

또한 로켓과 우주공간, 꿈과 외계인, 공상과학소설, 가상세계, 미래, 디지털세계... 등과 영화 클락오렌지, 스타 워즈, E.T., 아바타.. 등은 반 베이렌동크가 즐겨 사용하는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들이다. 밝고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조시켜 패션에 변화를 추구하였다.

② 새로운 오브제

1994-95 F/W 컬렉션에서 카툰 캐릭터<Puk Puk>을 선보였다. 미래의 슈퍼히어로 같은 <Puk Puk>은 파푸아 언어로 악어를 뜻하며 멋지면서도 고약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귀여운 거시기(cute dick)까지 달린 반 베이렌동크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컬렉션의 소통을 위해 창조되었으며[7]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푸른 잎사귀로 만든 수염, 잔디로 만든 가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발(레고의 인형 머리를 연상 시킨다), 컴퓨터 기기를 닮은 플라스틱 모자, 미키마우스 머리장식, 맥도널드

의 마스코트 로널드 가면,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카치나 인형을 닮은 모자 혹은 장식, 마스크, 머리와 얼굴에 쓴 슬로건을 담은 풍선,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안경과 구조물들, 빅 사이즈의 헤드폰... 등 현대 사회가 창조해 낸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이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한편 충돌을 일으키며 사고의 확산을 꾀한다.

(4) 모순과 부조화

월터 반 베이렌동크는 전통적인 문화관습에 도전하며 그 이슈들을 패션에 표현해 내고 있다. 남성의 바지위에 입은 스커트, 코르셋과 브라, 레이스와 러플 장식, 하이힐... 등 남성복에 여성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경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문화관습을 파괴하고 이에 따른 미스매치의 파격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새로운 패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질적 결합과 놀라움-미래지향적인 소재의 실험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 소재는 기술과 장인정신의 결합, 디지털 아트와 패션의 조화를 잘 보여준다.

네오프렌, 반사섬유, 야광 직물이나 야광 소재 같은 최첨단의 직물과 최신기술 소재의 실험을 즐겼다. 날염은 향료와 결합되어 딸기 그림은 실제 딸기 향기가 난다. 빛과 소리 효과가 나도록 작업된 그의 의류와 근육질 남성의 동체를 흉내 내어 부풀리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킷들은 기술적 걸작이었다. 대규모의 무스탕 예산과 탁월한 전문가팀 그리고 뛰어난 이탈리아의 생산시설은 반 베이렌동크에게 극도의 실험적이고 고무, 라텍스 그리고 플라스틱을 포함한 소재들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8)]

또한 그의 컬렉션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의 직물들이 환상적 상황과 충돌했다는 것이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설명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것들의 충돌은 보다 개성적이고 극도의 이상적인 것을 창출하였으며[9)] 첨단 직물과 최신소재의 파격적인 결합을 통해 보는 이에게 신선함과 흥미를 제공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직접적인 '펀'의 특징 유형을 제시한다.

4. 결론: 꿈과 현실의 판타지

일상의 평범함을 그대로 유지하면 유머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유형이건 어느 정도의 놀라움(surprise)을 만들어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또 재미에는 어느 정도의 놀라움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으로 평범한 것을 재미있는 것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확산적 사고는 정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즉 놀라움을 생성하기 위해 엉뚱하게 발상하는 것이다.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보거나 정상적인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생각해보는 등의 사고방법으로[10)]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에 두드러지는 주제는 성(특히 남성성, 여성성), 섹슈얼리티, 페티시즘, 성적인 유머, 사랑, 몸, 언어, 이미지, 사회현상, 자연과 삶의 조화, 소비

주의, 인종, 샤머니즘, 부족의 종교의식, 민족, 문화충돌, 초월적인 것, 공상과학소설, 꿈, 외계인, 미래, 동화, 판타지 등 이다. 그는 이러한 주제를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 '외설',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과 변형', '모순, 부조화', '이질적 결합'이라는 펀과 유머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패션에 재현시킴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 재미, 즐거움, 우스움, 희롱, 속임수, 농담, 장난 등을 창조해 내고 있다.

■ 참고문헌

1)네이버 사전, 자료검색일 2014년 1월 24일, www. naver.com

2)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모티프: Motif, Motive.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3)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1989), 2nd ed., vol. VI, Clarendon Press. Oxford, p. 262

4) 박 영원 (2013), *디자인 유머*, 안그라픽스, p.24, (재인용: Izard, Carroll E.(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 NY: Plenum Press)

5) 장 정임 (2013), 현대 남성패션에 표현된 시각적 유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

6) 하 지수(1994),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p.75, p.72 (재인용 Huizenga,J.(1981), 김윤수역, 호모루덴스, 서울:까치 pp.12-16)

7) Exhibition catalogue(2013) : *Walter Van Beirendonck Dream the World Awake*, Belgium: Lannoo, p.54

8) ibid., p.19

9) Tim Blanks (2011, Jan 20), www.style.com,

10) 박 영원 (2013), *디자인 유머*, 안그라픽스, pp.30-31

* www.samsungdesign.net

* www.waltervanbeirendonck.com

* Luc Derycke & Sandra Van De Veire (1999), *Belgian Fshion Design*, Amsterdam: Ludion

친환경 가죽을 이용한 국내 패션잡화의 디자인 경향
- 가방 및 패션소품 중심으로 -

이정숙* · 염혜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 더욱 빨라진 유행에 맞춰 패션제품 또한 빠르게 생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려 하고, 패션 업체들은 시장에 패스트푸드처럼 싼 값에 빨리 생산되는 패스트 패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경향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여, 패션산업에 있어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 속에서 친환경 디자인의 개념은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메가트렌드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산업계 역시 환경오염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양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패션잡화의 경우 가죽이나 합성 소재 등으로 만든 가방은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따라서 패션 소재로서 예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어 온 가죽을 생산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환경에 무해하고 생태계를 보존 가능한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가죽을 소재로 하는 국내 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상향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 가죽을 이용한 패션잡화의 디자인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 잡화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친환경 가죽을 이용한 국내 패션잡화의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런칭된 패션잡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패션잡화 중에서도 가방 및 지갑, 다이어리, 핸드폰 케이스 등과 같은 패션 소품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중 친환경 가죽이라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 sook Tel. +82-010-3939-8944
E-mail : doja4u@naver.com

명시한 상품의 사례를 도출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네이버와 구글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업체들을 검색한 후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현황을 고찰하고자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서적, 논문, 뉴스 및 기사, 인터넷 자료 등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1) 친환경 가죽

2014년 국내 패션산업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1% 성장한 40.2조원으로, 이 중 패션잡화 시장은 9.9조원으로 전년대비 8.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즉 최근 토털 코디네이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패션이 라이프 스타일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패션잡화 시장이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액세서리, 남성가방, 다이어리 등과 같은 가방류와 패션소품 등을 들 수 있다.

21세기는 합리적인 소비와 감성적인 소비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소비 형태를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하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만족시켜주면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의 생활 패턴은 건강을 생각하는 경향이 일상 생활화됨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건강과 기능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성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가죽소재에 있어서도 인체 공학적인 측면에서 '감성피혁'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화 및 고급화되고 있으며, 가죽 패션 제품도 획일화된 제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면 효과를 가지는 예술성이 가미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3]

천연 가죽의 일반적인 성질을 살펴보면, 다른 소재와 비교해 질기고 내구성이 있으며, 부드러운 촉감과 독특한 광택으로 입체적인 질감표현 및 다양한 문양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가죽의 단면은 일반적인 패브릭과는 다르게 올 풀림과 마모가 없으며 엠보싱이나 퀼팅, 프린팅 등 다양한 소재와의 부분적 매치에 의한 상대적인 질감표현을 자유롭게 연출하여 소재를 더욱 부각시켜 미적 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4] 특히 가죽은 기온에 따른 성질변화가 없고 땀이나 물 등 미세한 수분의 흡습성이 뛰어나며 보온성이 우수한 동시에 사람의 피부와 같이 숨구멍이 살아있는 통기성으로 인해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의 가죽인 베지터블 가죽(vegetable leather)은 가공 과정에서 독성 있는 크롬 대신 탄닌이라는 식물성 성분을 이용해 가공한 가죽으로서, 이태리 소가죽에 천염염료를 수작업으로 칠하여 단가가 높고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조 공정도 더디고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명품 가방 업체도 가격부담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 같이 친환경적인 공정과정을 통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만큼 피부에 자극이 덜해 고급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FITI시험연구원은 한국인증기관(KOLAS)에서 지정한 제1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육안으로는 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죽 제품을 사전 검증해 규정하고 가죽제품에 대해 새로운 KC(안전품질표시)가 고시 되어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업들이 친환경 가죽생산의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2) 디자인 경향

다음의 세 가지 경향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로 고급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6년 전통의 '몽삭(monsac)'은 100% 순수 국내 디자인에 이태리산 고급 친환경 가죽을 사용하는 독창적인 국내 브랜드이다. '몽삭'은 '나의 가방'이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사회 초년생부터 40대 후반까지의 폭넓게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디자인과 유러피안 스타일의 편안한 느낌을 메인 컨셉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오래된 가치를 가지면서, 'timeless style'의 지속성을 가지는 디자인과,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을 갖춘 간결하고 단정한 디자인, 수공예적인 감각을 통해 편안한 자연미를 보여주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로 개성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틀파머스(little farmers)'의 경우, 모든 제품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인체에 자극이 적고 환경에도 해가 적도록 하였다. 가죽 샌들의 경우에는 재단 시 버려지는 가죽들을 재활용하여 만들었으며, 아웃솔은 버려진 타이어를 수거하여 여러 차례 분쇄과정을 통해 다시 가공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도 빈티지한 디자인 이미지를 주었다. 주재료인 가죽은 중금속과 독소가 없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순수 식물성 첨가제로 무두질한 것을 사용해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아 피부 자극도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스러워지는 광택의 멋을 지니도록 하였다. 한국의 '프라이탁(FREITAG)'으로 유명한 '리블랭크(REBLANK)'는 옥외 텐트, 테니스 코트 등에 쓰이는 방수천, 타폴린 원단을 활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지갑 등을 선보였다. 그리고 토트백은 버려진 가죽 재킷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제작한 가방으로 숄더백으로도 연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킷의 외부 포켓 주머니를 그대로 활용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유니크한 멋을 주었다. 또한 코오롱 그룹에서 3년 내의 재고 상품들을 소각하는 대신 리디자인하여 브랜드 '래코드(RE;CODE)'를 런칭한 바 있는데, 버려지는 '멀쩡한 옷'들을 분해한 후 독립 신인 디자이너들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경향에서 보면 리사이클 제품은 낡고 오래된 느낌을 갖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절제되고 단정한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와 색감은 가공하지 않는 순수한 감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감각이 오히려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이미지인 것이며, 그 '착한' 디자인을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하는 것이 개성 표현의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다기능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슬로우 바이 쌈지(SLOW by ssamzie)'의 심플하고 도시적인 감성의 심플한 가죽의 백팩은 부드러운 워싱 베지터블 가죽과 어우러져 가벼운 실용적인 사이즈로, 옆면에도 지퍼 포켓과 핸들이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어3 바이 센(GEAR3 BY SAEN)'에서는 마치 자동차 기어를 바꾸듯 노트북 수납공간, 백팩과 더플백으로도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가방을 선보였다. 이는 틀이 있고 다양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내부의 가방을 분리,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외부가방만 있으면 원하는 내부가방들을 따로 구입하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시즌 별로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으로 다양한 내부가방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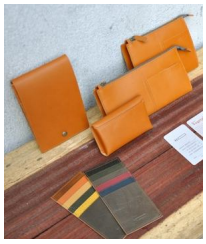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의상과의 코디네이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디자인으로 제품 하나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품 생산과 폐기에 따른 환경파괴를 줄이고자 한 친환경 디자인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21세기는 인간중심, 인간과 자연적 감정, 자연의 본질, 자연의 질서와 조화 등과 같은 자연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각광받는 시대이다.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생태학적 균형이 유지되는 기능성과 실용성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이라는 목표가 디자인의 중요 테마로 대두되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자연 소재인 가죽은 인간에게 신뢰감 있는 친근한 천연소재로 부각되면서 어떤 성격에도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로 많은 패션디자인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친화적인 소재의 가죽(베지터블 가죽)은 가공 과정에서 독성 크롬 대신 탄닌이라는 식물성 성분을 이용해 가공한 가죽으로 친환경적인 공정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덜해 유럽에서는 고급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패션잡화 업계에서도 아직 미비하기는 하지만, 소재부터 개발과정까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 앞장서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증가되리라 생각된다.

친환경 가죽을 이용한 패션잡화 제품의 디자인경향은 고급화 경향, 개성화 경향, 다기능화 경향의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었다. 친환경 가죽을 사용한 제품 디자인의 차별화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환경과 시대를 진지하게 반영한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구분	브렌드	주요 타깃 및 특징	아이템	내용
고급화	몽삭	사회 초년생부터 40대 후반 전문직 종사자와 사회인	친환경 가죽 제품 가방 및 피혁제품	  출처: www.mbag.co.kr
개성화	리틀파머스	20~30대 젊은층	친환경 가죽 제품 및 리사이클 제품 구두, 가방, 패션소품	  출처: www.littlefarmers.co.kr
	리블랭크	20대 초반의 남녀	리사이클 제품 가방, 지갑, 패션소품, 문구류	  출처: www.reblank.com
	래코드	20~30대 남녀 버려지는 '멀쩡한 옷'들을 분해한 후, 독립 디자이너들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	리사이클 제품 구두, 가방, 패션소품, 문구류	  출처: www.byseries.com

구분	브렌드	주요 타깃 및 특징	아이템	내용
다기능	슬로우 바이 쌈지	20~30대 남녀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생산·판매하며 '착한 소비'를 이끄는 사회적 기업	베지터블 가죽 제품 가방, 패션소품, 문구류	 출처: www.slowbyssamzie.com
	기어 3 바이 센	20~40대 남녀 볼트와 너트 사용을 특징으로 한 유니 섹스 디자인	베지터블 가죽 제품 가방	 출처: http://www.gear3bysaen.com

<그림 1>친환경 가죽을 이용한 패션잡화의 디자인 경향

■ **참고문헌**

1) 김별(2012), "친환경디자인을 위한 여성용 패션가방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5) p.3.*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3) 이상철(2013), "천연색소를 이용한 피혁의 친환경 염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

4) 김경(2011), "피혁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폐의류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 연구+

홍형민* · 이미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1. 연구목적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과 산업의 엄청난 발전 속에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위한 물질만능주의와 과도한 소비풍조가 불필요한 대량생산 그리고 대량폐기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인류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대량생산과 대량폐기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윤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짧고 빠른 주기로 많은 이미지를 소모하는 '패스트 패션'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패션계에서도 몇몇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패션 업계에서도 업사이클링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사이클링 패션 상품의 아이템과 소재를 분석한 다음, 폐의류를 활용해서 고감성의 업사이클링 패션 토탈 코디네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도서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실증연구에서는 폐의류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품의 아이템과 소재를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감성의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을 개발한다. 연구대상은 원단 자투리, 가죽 등과 같은 폐의류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8곳(래;코드, 리블랭크, 젠니 클로젯, 세이지 디자인, 정키 스타일링, 리지그드, 에코파티메아리)으로 한정해서 480장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 장의 사진에 두 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480장의 이미지에서 555개의 아이템 수량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접 제작 시 사용할 폐의류의 소재와 아이템을 선정하여, 그 결과로 여성복 원피스 한 벌과 남성복 셔츠, 바지 한 벌, 패션 소품으로 가방 업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3HR15D0801).

Corresponding author : Lee Misuk Tel.+82-62-530-1345 Fax.+82-62-530-1349
E-mail :ms1347@chonnam.ac.kr

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업사이클링은 쓰레기나 산업폐기물들을 단순히 분리수거 한다거나, 다시 쓰는 것(recycling)에 그치지 않고, 그것의 조형성과 새로운 미적가치를 만들어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리사이클링에서 더 향상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아이템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구성에서 여성복은 39.46%, 패션 소품은 32.07%, 남성복은 28.47%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여성복 중에서는 티셔츠가 여성복 비중의 19.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원피스가 16.44%로 나타났다. 패션 소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아이템은 가방으로, 소품의 30.90%를 차지했다. 남성복에서는 바지가 26.58%, 셔츠가 23.42% 순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아이템을 두고 비교했을 때도, 가방이 9.91%, 그 다음으로 여성 티셔츠와 남성 바지가 7.6%로 가장 많이 나타나면서, 실용적이면서도 소비자들의 구매율이 높은 아이템들의 비중이 각 카테고리 별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재의 경우 한 가지 소재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색상의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51.5%를 차지했다. 특히 면적이 작은 소품의 경우 91.6%가 하나의 소재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20여 종류의 다양한 소재가 활용된 가운데, 가죽류의 사용이 29.1%로 소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류의 경우 한 가지 원단의 옷을 그대로 사용하여 디자인한 경우는 여성복 26.9%에서 남성복17.1%, 다른 색의 같은 소재를 각각 가져와서 디자인 한 경우가 여성복 7.8%

figure 1.
Junky Styling,
-whatsnewtrend.tistory.com/4

figure 2.
ReBlank
-www.reblank.com

figure 3.
Re;code
-re-code.co.kr

남성복 25.31%로 나타났다. 소재의 단독사용이 소품전체에서 91.6%를 차지했던 소품류와 달리 의류의 경우는 제작 시 필요로 하는 원단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같은 소재라도, 여러 조각을 매치한 경우가 더 많았고, 특히 그 경향은 여성복 보다 남성복에서 더 두드러졌다. 특히 단독소재의 사용이 남성복 전체의 11.4%를 차지하는 바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원단의 패치워크로 제작 된 옷들이 많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소재와 서로 매치한 디자인의 경우 항목수가 많아서 크게 특징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질적인 소재별로 조합한 경우보다는, 포플린소재와 샴브레이, 데님, 해지 청을 함께 매치하는 식으로, 비슷한 용도의 소재별로 조합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넷째, 위의 연구 결과로 'Mix'라는 키워드를 정하여, 여성복은 아이템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품과 남성복은 소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에 접근해 보았다. 여성복은 분석 시 비중이 가장 컸던 아이템인 티셔츠와 원피스로 디자인을 진행 하였는데, 두 개의 아이템을 'Mix'하여, 매듭 방식에 따라 티셔츠가 되기도 하고, 원피스가 되는 Two-way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소품 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가방은, 가죽소재의 단독사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가죽에 사양한 소재를 믹스매치하고, 수공예 터치를 가미하여 제작하였다. 남성복의 경우 소재를 매치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이 많았는데, 하의와 상의 폐의류를 함께 매치하는 식으로 이질적인 소재를 함께 매치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 'Mix'라는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4. 결론

폐의류를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 아이템과 소재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해 봄으로써 폐의류라도 충분히 고감성의 새로운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이 나타난 아이템을 소재 분석결과에 따라 기존과 다른 소재 매치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업사이클링 할 디자인의 상품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상품의 베리에이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이에 업사이클링 패션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접근 방식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폐의류뿐만 아니라, 범위를 더 확장하여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사례들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Sass Brown(2013), "Refashioned", London : Laurence King Publishing.
2) 권정숙(201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 기초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1).* pp.13-23.
3) 양진숙·박효은(2011),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7(2).* pp.358-369.
4) 김소영·윤숙원(2013), “의복 디테일을 활용한 리디자인 유형 분석과 패션 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1),* pp.191-206.
5) 래코드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4. 4. 3, http://re-code.co.kr
6) 리블랭크, 자료검색일: 2014. 4. 3, http://www.reblank.com
7) 젠니클로젯, 자료검색일: 2014. 4. 3, http://www.zennycloset.com
8) 세이지디자인, 자료검색일: 2014. 4. 3, http://www.sagedesign.co.kr
9) 프롬썸웨어, 자료검색일: 2014. 4. 3, http://fromsomewhere.co.uk/
10) 에코파티메아리, 자료검색일: 2014. 4. 3, http://www.mearry.com/

3D CAD system을 활용한 여성재킷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곽 연 신
배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1. 연구 목적

의류제품의 개발과 생산 단계 중 패턴제도와 그레이딩, 마킹에 주로 사용되던 어패럴 CAD 활용 부분이 3차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3D CAD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비용 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은 완성된 패턴을 이용하여 가상의 의복을 가상의 모델에게 착용시켜봄으로써 샘플제작의 단계를 줄임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D 어패럴 CAD 시스템 중 해외에서 개발된 것으로는 Optitex의 3DRunway(이스라엘), Gerber의 V-Stitcher(미국), Lectra의 3Dfit(프랑스), TECHNOA의 i-Designer(일본) 등의 제품이 있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은 CLO 3D, DC Suite, Narcis 등이 있다. 그러나 시판중인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의 활용 실태는 3D 애니메이션에서 재현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상착의 된 의복의 패턴을 수정하고 그 패턴을 참조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상착의 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실제 제작된 의복과 가상착의 된 의복 형태의 일치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제품 기획 단계에서의 컴퓨터에 의한 가상착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복 재킷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가상착의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내용은 20대 여성의 정장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를 패션의 소비 주체인 20대 여성 집단이 검증함으로써 3D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제 의류제품 개발 업무에 활용 가능케 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3D 가상착의 시스템은 국내에서 개발된 가상착의 시스템 A와 해외에서 개발된 가상착의 시스템 B이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여성 재킷에 대한 외관평가에 있어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 간의 평가 차이가 있는가.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피험자 선정 및 인체계측

20대 초반 여성을 피험자로 선정한 후 국내에서 개발한 가상착의 시스템 A와 해외에서 개발한 가상착의 시스템 B의 아바타 사이징 항목에 맞추어 피험자의 신체 치수를 계측하였다.

2) 실물 의복 제작 및 실제착의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기본 사이즈의 재킷 패턴으로 광목소재의 재킷을 실제 제작하여 피험자에게 착장시켰다. 그 후 전면, 측면, 후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3) 3D 아바타 생성 및 가상착의

가상착의 시스템 A와, 가상착의 시스템 B에서 제공하는 기본 아바타를 불러온 후 인체계측 정보를 입력하여 치수를 수정함으로써 피험자의 가상인체인 3D 아바타를 생성하였다. 2차원 패턴 CAD 시스템에서 제도한 재킷 패턴을 DXF 파일로 변환시킨 후 가상착의 시스템 A와, 가상착의 시스템 B에서 불러들여 가상 봉제하여 각 시스템의 아바타에게 착장시켰다. 그 후 가상착의 상태의 전면, 측면, 후면 형상을 저장하였다. 이 때 소재의 물성은 최대한 실제 물성과 같게 표현하였다.

4) 착의상태 외관 차이 평가

착의상태 외관 일치정도 평가는 2014년 3월 20일에 실행하였다. 20대 여성의 정장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정도를 평가하였고, 또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를 평가하였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이미지를 컴퓨터 모니터로 부분 확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단은 패션을 전공하는 20대 초반 여성 31명으로 20대 정장 재킷의 실제 소비 주체이다. 실제착의와 각 가상착의 간의 외관 일치정도에 대한 평가문항은 소재형태 2문항, 앞면형태 13문항, 옆면형태 9문항, 뒷면형태 7문항으로 총 31문항이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에 차이가 없음을 5점으로 하고 차이가 있음을 1점으로 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5) 자료 분석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 간의 평가 차이가 있는지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t-test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가상착의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자료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여성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에 있어서 보통으로 나타난 항목은 앞진동둘레선과 앞밑단선이었다. 여성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에 있어서 보통으로 나타난 항목은 어깨, 앞진동둘레선, 앞품여분, 앞가슴여분, 앞에서의 소매전체외관, 앞에서의 소매진동군주름, 옆소매앞군주름, 옆소매뒤군주름, 뒷면외관, 뒤어깨놓임, 뒤진동둘레, 뒤품여분, 뒤가슴여분이었다. 나머지 문항에서는 모두 3점 이하로 평가되었다. 여성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일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일치정도 평가 간의 평가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소매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상착의A와 가상착의B 간의 평가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1>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일치정도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일치정도 간의 평가 차이 비교

구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간의 평가차이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간의 평가차이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원단	1	원단의 두께	2.32	.702	2.77	.805	-2.355*	.022
	2	원단 부드러움	2.16	.638	2.52	.926	-1.757	.084
앞면	3	앞면외관	2.32	.909	2.84	1.036	-2.085*	.041
	4	어깨	2.97	.912	3.52	.724	-2.621*	.011
	5	앞진동둘레선	3.23	.884	3.29	.824	-.297	.767
	6	앞밑단선	3.16	.860	2.06	.892	4.928***	.000
	7	앞품여분	2.68	.702	3.00	.816	-1.668	.100
	8	앞가슴여분	2.16	.969	3.32	.871	-4.961***	.000
	9	칼라전체외관	2.35	1.142	2.19	.980	.597	.553
	10	고지라인위치	2.68	.871	2.19	.946	2.095*	.040
	11	칼라라펠크기	2.48	1.029	1.87	.763	2.664*	.010
	12	칼라뉘임	2.06	.772	2.87	.806	-4.024***	.000
	13	칼라라펠꺾임	2.39	.715	2.39	.803	.000	1.000
	14	소매전체외관	2.35	.877	3.06	.998	-2.974**	.004
	15	소매앞진동군주름	2.35	.877	3.42	.886	-4.753***	.000
옆면	16	옆면외관	2.87	.922	2.45	1.028	1.692	.096
	17	옆진동둘레선외관	2.71	.864	2.87	.885	-.726	.471
	18	옆밑단선	2.77	.884	2.90	.870	-.579	.565
	19	앞처짐	2.58	.923	2.81	.910	-.970	.336
	20	옆가슴둘레여분	2.48	.851	2.23	.920	1.146	.256
	21	옆뒤허리선여분	2.90	.944	2.23	.845	2.978**	.004
	22	옆칼라뉘임	2.45	.723	2.71	.938	-1.213	.230
	23	옆소매앞군주름	1.97	.795	3.10	.944	-5.094***	.000
	24	옆소매뒤군주름	1.97	.836	3.13	.957	-5.088***	.000

<표 1> 계속

구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간의 평가차이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간의 평가차이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뒷면	25	뒷면외관	2.10	.944	3.00	.931	-3.794***	.000
	26	뒤어깨놓임	2.39	.803	3.48	.926	-4.981***	.000
	27	뒤진동둘레	2.48	.962	3.58	.848	-4.764***	.000
	28	뒤밑단선	2.61	.919	2.48	.890	.562	.576
	29	뒤품여분	2.23	.956	3.00	.856	-3.358**	.001
	30	뒤가슴여분	2.35	.877	3.61	.715	-6.187***	.000
	31	소매뒤진동군주름	2.13	.846	2.94	1.153	-3.140**	.003

***p<.001, **p<.01, *p<.05

4. 결론

20대 여성 재킷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외관 이미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패션산업에서의 IT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패턴 CAD와 디자인 CAD를 사용하여 의류제품의 기획과 생산 과정의 시간적, 인적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되어 시판중인 3D 가상착의 시스템은 3D 애니메이션 영화나 패션쇼 제작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의류 제품의 기획과 개발 파트 직무에 활용하기에는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의류제품의 실제 구매자인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간극에 대해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된 가상착의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는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가상착의한 후 의복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박유신, 최영로(2013), "CAD System을 활용한 무대의상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7(1)*, pp.145-156.

2) 우세희, 강연경, 고영아, 김안나, 김나은, 고형석(2013), "디지털 패션쇼 사례분석 및 3D 디지털 패션쇼 제작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7(1)*, pp.64-80.

3) 이민정, 손희순(2011), "국내・외 패션교육에 있어서 3D 어패럴 CAD 시스템 활용 사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5(9)*, pp.98-110.

4) 임지영(2010), "3D 가상착의 시스템에 의한 비만 중년여성의 토르소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1)*, pp.86-93.

여성 셔츠칼라 제도법에 따른 칼라 형태 연구

차 수 정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패션전공 교수

Ⅰ. 서론

소비자의 고학력화,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정보의 유입, 패션 수준의 상승, 사회경제 활동의 지적 향상 등 높은 수준의 감성을 갖게 되면서 패션 환경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해 주는 의복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의복은 자신의 개성과 직업, 신분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의 변화된 생활양식,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성역할의 변화로 인하여 셔츠(shirts)는 남성복과 여성복 슈트(suit)안에 착용되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셔츠는 몸판, 소매, 칼라, 포켓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칼라는 인체의 목부위에 해당하는 의복의 일부분인데, 목부위 그 자체를 덮어주는 필요성보다는 디자인으로서의 형을 고려하며, 패션과 기호 등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三吉滿智子, 2002). 또, 칼라는 얼굴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의상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의상의 분위기 및 착용자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칼라의 형태는 대개 착용자의 얼굴형, 목의 길이, 연령, 복장, 유행, 기호 등에 의해 결정되며,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칼라의 형태, 즉 칼라의 넓이, 윤곽선의 형태, 스탠드 분의 높이 등의 조정을 통해 체형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다(文化女子大學校被服構成學硏究室, 1987).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칼라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목과 어깨의 인체부위 체형을 파악하여야 하며, 패턴 제도법에 따른 칼라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셔츠칼라 제도법에 대해 알아보고, 3 D 시뮬레이션을 통해 칼라밴드의 올림치수 변화, 뒷중심 제도공간과 윗칼라 형성각의 변화에 따른 칼라 형태를 분석해봄으로써 다양한 이미지의 셔츠칼라 제도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 Sujoung Cha Tel. +82-42-629-6672
E-mail: carollain@nate.com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칼라밴드와 셔츠칼라가 조합되어 있는 이중구조로 하나의 칼라를 이루는 셔츠칼라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2. 셔츠칼라의 부위별 명칭: 셔츠칼라의 명칭은 칼라밴드와 연결되어 위쪽에 붙여지는 칼라를 윗칼라, 칼라밴드에서 제도 시 앞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려주는 치수를 칼라밴드 올림치수로 정하였다. 또, 칼라제도 시 칼라밴드와 윗칼라 사이의 공간을 칼라제도공간으로, 윗칼라의 바깥선 길이를 칼라외곽선길이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칼라 끝 각도를 칼라외측각도로 칼라밴드와 붙여지는 부분의 각도를 칼라내측각도로 정하였다.

3. 셔츠칼라의 제도법: 실험용 셔츠칼라의 패턴제도를 위해 현재 패턴 메이킹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의복 패턴 교재 중 설계방식이 다른 7종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셔츠칼라 패턴은 기본 제도법에 따라 제도하였다.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칼라의 형태 및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기본 셔츠칼라 패턴으로 선정한 패턴은 목의 밀착정도가 적당하고 윗칼라가 자연스럽게 놓여지는 어미경 패턴을 선정하였다.

4. 실험의 제작

1) 사용프로그램: 본 연구의 실험의를 제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디지털클로딩센터의 3D 프로그램인 DC Suite Version 3.0을 사용하였다.

2) 실험의 패턴제작: 먼저 선정된 패턴의 밴드칼라올림분을 1.3cm로 고정한 상태에서 칼라제도공간을 3.5cm, 4.0cm, 4.5cm, 5.0cm, 5.5cm, 6.0cm, 6.5cm, 7.0cm, 7.5cm, 8.0cm로 0.5cm씩 변화를 주여 패턴을 제작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패턴의 밴드칼라올림분을 1.5cm, 2.0cm, 2.5cm, 3.0cm, 3.5cm, 4.0cm, 4.5cm, 5.0cm, 5.5cm, 6.0cm로 변화를 주면서 칼라제도공간을 4.0cm, 4.5cm, 4.5cm, 5.0cm, 5.5cm, 6.0cm, 6.5cm, 7.0cm, 7.5cm, 8.0cm로 변화시켰을 때의 패턴을 제작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3) 실험의 제작: 3D상에서 패턴을 제작한 후 광목에 해당하는 물성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켜 비교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3 D 시뮬레이션을 통해 칼라밴드의 올림치수 변화, 뒷중심 제도공간과 윗칼라 형성각의 변화에 따른 칼라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칼라밴드의 올림치수를 1.3cm로, 칼라외측각도를 66°로 고정시키고 칼라제도공간에 변화를 주었을 때 칼라제도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칼라밴드의 칼라부착부위 길이는 19.5cm로 고정되어 있으나 윗칼라 칼라부착부위 길이는 점차 길어져 봉제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라제도공간이 8.0cm로 넓어졌을 때 칼라밴드의 칼라부착부위 길이와 윗칼라 칼라부착부위 길이는 1.6cm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칼라제도공간이 0.5cm 넓어짐에 따라 길이 차이는 평균 0.15cm씩 커졌다. 또, 칼라내측각도는 칼라제도공간이 3.5cm일 때 93°를 나타냈으며, 칼라제도공간이 커질수록 칼라내측각도는 작아져 칼라제도공간이 8.0cm일 때 73°로 나타났다. 칼라제도공간이 커짐에 따라 칼라외곽선길이는 점차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라제도공간이 3.5cm일 때 칼라외곽선길이는 21.8cm, 칼라제도공간이 4.0cm일 때 22.3cm, 칼라제도공간이 5.0cm일 때 23.2cm, 칼라제도공간이 7.0cm일 때 23.5cm, 칼라제도공간이 8.0cm일 때 24.1cm로 나타났다. 칼라폭은 칼라외곽선을 칼라중심선에 직각으로 제도하여 칼라폭을 지정하지 않고 칼라외측각도만 66°로 정하였을 때 그 변화를 본 것으로 칼라제도공간이 커짐에 따라 칼라폭은 7.0cm에서 7.5cm, 8.0cm로 증가하여 칼라제도공간이 8.0cm가 되었을 때는 11.9cm로 넓어졌다. 셔츠칼라 패턴의 형태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칼라밴드의 올림치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칼라제도공간의 변화를 줄 경우 윗칼라의 칼라부착부위의 각이 커지면서 곡이 심한 형태를 나타냈다. 따라서 칼라밴드의 곡에 비해 윗칼라의 곡이 심하여 부착 시 칼라의 형태가 안정감이 없어졌다.

칼라밴드의 올림치수와 칼라제도공간을 함께 변화시키면서 칼라외측각도는 66°로 고정시켰을 경우 칼라밴드의 올림치수가 1.5cm이고 칼라제도공간이 4.0cm일 경우 칼라부착부위의 밴드길이와 칼라부착부위의 윗칼라길이는 19.5cm로 같았다. 칼라넓이는 7.3cm였으며, 칼라내측각도는 90°, 칼라외곽선길이는 21.9cm였다. 칼라밴드의 올림치수가 커지고 칼라제도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칼라부착부위의 윗칼라길이는 짧아지고 칼라밴드의 칼라부착부위길이는 조금씩 길어진다. 윗칼라 제도 시 칼라밴드의 중심선에서 0.3cm 들어온 위치에서 칼라를 제도하였는데 칼라밴드의 올림치수가 커지고 칼라제도공간이 넓어질 경우 제도방법에 변화를 주어 칼라밴드의 중심선에서 시작하여 윗칼라를 제도하여도 윗칼라의 칼라부착부위길이가 칼라밴드의 칼라부착부위길이보다 짧아지므로 오히려 중심선보다 바깥쪽으로 나가서 제도를 하여야 봉제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칼라밴드의 올림치수와 칼라제도공간에 따라 윗칼라제도법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칼라폭은 칼라밴드 올림치수와 칼라제도공간이 커질수록 커져서 칼라밴드 올림치수가 5.5cm이고 칼라제도공간이 8.0cm일 경우 칼라폭은 8.0cm로, 칼라밴드 올림치수가 1.5cm이고 칼라제도공간이 4.0cm일 경우 칼라폭 7.3cm보다 0.7cm가 넓어졌다. 칼라외곽선길이는 칼라밴드 올림치수와 칼라제도공간이 커질수록 짧아졌다. 셔츠칼라 패턴의 형태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칼라밴드의 올림치수와 칼라제도공간이 함께 변화함으로써 칼라밴드의 휘어짐 정도와 윗칼라의 휘어짐 정도

가 비슷하게 유지되어 칼라밴드의 올림치수 변화 없이 칼라제도공간만 넓혀줬을 때보다 칼라의 형태가 안정적이었다. 따라서 칼라제도 시 칼라제도공간의 수치를 지정하기 보다는 칼라밴드의 올림치수에 따라 비슷한 휘어짐을 줄 수 있는 올림치수를 주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셔츠칼라 제도법에 대해 알아보고, 3 D 시뮬레이션을 통해 칼라밴드의 올림치수 변화, 뒷중심 제도공간과 윗칼라 형성각의 변화에 따른 칼라 형태를 분석해봄으로써 다양한 이미지의 셔츠칼라 제도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칼라밴드의 올림치수가 커짐에 따라 칼라제도공간도 함께 커져야 칼라밴드의 칼라부착부위치수와 윗칼라의 칼라부착부위치수도 함께 변하여 칼라밴드와 윗칼라 봉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칼라제도 후 칼라밴드의 칼라부착부위치수와 윗칼라의 칼라부착부위치수의 확인 및 수정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칼라 형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칼라밴드 올림치수 1.5cm, 칼라제도공간이 4.0cm일 경우는 윗칼라제도 시 칼라밴드 중심점에서 0.3cm 안으로 들어와 제도를 하여야 칼라밴드와 윗칼라 부착부위길이가 같아지나 올림치수가 증가하고 칼라제도공간이 넓어질 경우 중심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오히려 바깥쪽으로 이동하여야 칼라밴드와 윗칼라 부착부위 치수가 같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칼라밴드 올림치수와 제도공간에 따라 칼라의 제도방법에도 차이를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에 국한되었으므로 실제 칼라제작 시 3D 시뮬레이션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연구해 봄으로써 의복 제작 시 칼라 형태의 안정성을 증명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三吉滿智子·옹혜정譯(2002), 복장조형학, 서울:교학연구사, p.368.

文化女子大學校被服構成學硏究室·박혜숙譯(1987), 피복구성학-이론편, 서울:경춘사, p.228.,

강숙녀(2009), 의복구성, 서울:경춘사, p.86.

김경희·김미영·이현정(2010), “셔츠 칼라 패턴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한복문화 13(3)*, pp.19~34.

김효숙·이소영(2007), 블라우스패턴북, 서울:경춘사, p.127.

나미향·허동진·정복희·이정순·김정숙 공저(2013), 산업패턴설계 여성복 1, 서울:교학연구사, p.117.

박찬미(2010), “칼라밴드가 있는 셔츠칼라 패턴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6)*, pp.1228~1241.

어미경 저(2000), 어패럴메이킹, 서울: 교학연구사, p.116.
이현정(2009), “셔츠 칼라 패턴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영(2011), 기초패턴 설계 및 활용, 서울: 교학연구사, p.243.
오순·이의길(2010), apparel making 자신감을 주는 어패럴메이킹, 서울:경춘사, p.128.
장미해·서미아(2010), “셔츠칼라 패턴 설계법에 따른 칼라 형태 및 이미지 변화”, *한국생활과학연구 30(2)*, pp.3~8.
정화연·정명희 공저(2008), 패션디자인을 위한 여성복 패턴제작, 서울:교학연구사, p.75.

전통문양을 이용한 모피장식 클러치 제작 연구

박진희* · 박상희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의상과

1. 서론

한류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점차 K-pop과 같은 대중문화를 넘어서서 한글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문화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전통 문화의 감성을 자신들의 브랜드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세계는 국제화를 넘어서서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독창적인 전통 문화 요소를 현대적 감성으로 표현한 상품들은 다양성,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패션 아이템의 다양성이 보편화되면서 럭셔리 모피의 패션은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즉, 모피제품이 대중화되면서 아이템에 따라 다양한 모피들이 패치워크나 모피와 가죽, 모피와 니트, 모피와 데님 등 이질적인 소재들과 믹스매치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의류 뿐 아니라 패션 소품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전통문양이나 소품을 모티브로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연구가 많으며 모피의 경우는 머플러와 같은 소품에 한정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류문화를 이끌어갈 상품 개발을 위해 전통문양과 모피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를 가방 디자인에 접목시켜 제작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전통 문양

문양은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점이나 선, 색채를 도형과 같이 형상화한 것이며 개인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창조적 산물이며, 동시에 사용 주체인 민족과 그 민족이 처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로 나타난다. 문양은 소재와 의미에 따라 분류되는데 소재는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문물, 자연산수문, 문자문, 기하문, 복합문으로 크게 분류되고 의미하는 바에 따라 길상, 다산, 수복 장수, 공명 출세, 부귀 등을 상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물문(人物紋)

인물문이란 사람의 얼굴 또는 형태를 나타내거나, 신선·부처·사천왕·도깨비 등을 표현한 무늬

2) 동물문(動物紋)

인간에게 이로움과 두려움의 존재였던 동물이나 상상속의 동물들로 인간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상징성을 갖음

3) 식물문(食物紋)

아름다운 형상으로 인해서 문양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상징성이 없더라도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으로 꽃 문양을 사용

4) 인공물문(人工物紋)

책, 동전, 거울 등 인공물을 도안화하여 문양의 소재로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채택

5) 자연산수문(自然山水紋)

동물이나 식물을 제외한 자연을 소재로 한 무늬로 해나 달, 구름, 별 등이 소재. 이외에도 산수화를 보는 듯한 산수문이나 바위를 그린 괴석문이 포함

6) 문자문(文字紋)

문자문이란 글자를 무늬로 넣어서 특정한 글자를 연속해서 배열한 문양

7) 기하문

가로줄이나 세로줄, 사선 또는 동그라미 등이 나타난 문양으로 선사시대로부터 문양을 표현하기 시작한 인간이 가장 먼저 표현한 것

8) 복합문

앞서 언급된 문양들 중 비슷한 의미를 갖은 문양을 함께 사용한 것(문자와 식물문, 동물과 식물문...)

(2) 모피 패션

모피는 원시시대에 인간이 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위해 수렵한 동물의 털을 입게 되면서 유래한 방한용 피복재료에서 사용되었으며 사회의 발달과 함께 모피는 물리적 인체 보호 차원에서 심리적 보호 차원 수단으로 확대되고 동물의 가죽과 이빨 등은 사냥의 능력과 용맹함을 과시함을 넘어 심리적인 보호차원의 수단으로 변화되어졌다.

모피 소재는 민족의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느낌을 주며 입는 보석이라 불릴 만큼 부의 가치척도와 서열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대에는 점차 생활의류로 변화되어 오면서 고객층이 중년층에서 20~30대의 젊은 소비자층으로 확대되어졌다. 이는 모피패션이 부피가 큰 코트에서 벗어나 머플러 워머 등 가격을 나추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패션 소품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모피들의 패치워크나 모피와 가죽, 모피와 니트, 모피와 데님 등의 이질적인 소재들의 믹스 매치되어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아이템에 나타나고 있다.

(3) 선행 연구

지금까지 전통문양과 관련된 디자인개발은 주로 텍스타일 프린트 범주에 한하여 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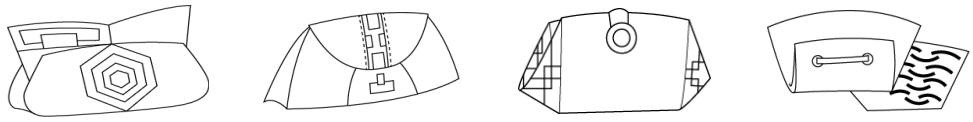
순(2012)은 전통조각보 이미지를 응용한 프린트 문양을 디자인하였고, 예인걸, 김동욱, 정인희(2013)는 전통문양 중 도깨비무늬, 연꽃무늬, 용무늬, 태극무늬를 모티브로 티셔츠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김선영은 전통 부채(2012)와 전통버선(2011)를 모티브로 텍스타일 프린트디자인을 연구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외에 전통적인 아이템을 이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로는 조은미(2013)가 댕기를 이용한 장신구를, 최승연와 3인(2006)은 조각보을 이용한 문화상품을, 그리고 이나영, 김유경(2013)은 전통노리개를 응용한 액세사리 디자인이 있다. 패션 소품으로의 모피의 관련 연구는 이희정, 최현숙(2011)의 자수를 이용한 모피 머플러 디자인이 있으며 모피와 관련된 연구는 의류에 많이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문양을 활용한 클러치 디자인으로 전통 문양을 현대화하고 문양표현에 모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한다.

3. 전통문양을 응용한 모피 클러치 디자인 개발

(1) 원형 문양의 모티프 선정 및 모피 부착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형 모티프 직선으로 연결된 기하문으로 전통 창과 담에 나타난 기하문양을 이용하여 클러치용 가방을 제작하였다. 모피와 가죽 또는 직물을 서로 믹스 매치하여 디자인하였다.

(2) 클러치 디자인



디자인 A　　디자인 B　　디자인 C　　디자인 D

<그림 1> 모피를 이용한 클러치 디자인

(3) 모피 클러치 제작 방법

클러치의 소재는 모직과 가죽을 모피장식과 믹스 매치하여 제작하였으며 클러치 소재와 장식용 모피의 부착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허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질이나 색상이 서로 같거나 다른 2조각 이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이용한 모피 레이스와 모피 제품의 제조방법으로 일반 제품에 모피 레이스(트리밍)를 부착할 때 필요했던 바이어스 테이프 대신 중심모피 양측에 뒤집어서 합봉한 측면모피의 가죽부분을 봉재시접으로 사용하는 특허 기술 방법(등록번호:1005853130000)을 응용하였다. 방향성이 있는 털의 방향성을 바꾸어 다른 쪽의 방향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밀도가

낮아 스킨이 보이는 특정부분의 털 밀도를 높여 모피의 성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의류, 가방 등 제품에 부착할 때 모피의 절단부위와 봉재선이 털에 완전히 덮이거나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문양을 고부가가치 모피를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서 프리미엄급의 클러치를 디자인 제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모피 봉제는 작업이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가의 원재료이다 보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소재이며 무엇보다 털의 방향성 때문에 의류나 악세사리에의 트리밍으로 사용시에 테이핑 처리된 모피만을 파이핑 장식처럼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물과 가죽을 절개하거나 또는 모피를 파이핑 처리않고 그 위에 패치워크하는 방식으로 부착함으로서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외관을 좋게 하였다. 이 제작방식은 다양한 아이템에 접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작고 정교한 디자인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강다혜(2007), 현대 모피패션디자인의 이미지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애(2012), 모피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월순(2012),“한국 전통 조각보 이미지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패션과 니트, 10(3), pp.1-10.

피혁패션(2012), 디자이너들이 봄을 겨냥한 대담한 가공 모피에 흥분되다 25(6), pp.51-52.

연합뉴스(2006), 모피패션의 다양화 (2006.01.03.) 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2014), 중년 전유물 모피 20~30대 패션아이템으로 급부상(2014.01.05.) www.yonhapnews.co.kr

김선영(2011),“전통보선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패션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복식문화연구, 19(6), pp.1334-1346.

김선영(2012),“전통부채의 형태를 응용한 패션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2), pp.173-182

김지영(2010), “모피의류시장의 현황과 추구혜택에 따른 모피의류 소비자의 구매행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2), pp.211-225.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1995

임영철(1996)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예인걸, 김동욱, 정인희(2013), “한국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티셔츠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37(3), pp.270-279.
김전하, 권수애(2008), "컬렉션에 표현된 모피 소재 봉제 기법 분석" 생활과학연구논총,12(2), pp.205-214.
이나영, 김유경(2013),"전통노리개를 응용한 패션액세사리 디자인 개발"한국과학예술포럼, 14, pp.323-331.
조은미(2013), 댕기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승연, 정경희, 이미숙, 신윤숙(2006), "전통조각보를 응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44(10), pp.91-100.

시각적 평가를 위한 페플럼 블라우스의 형태와 구성에 관한 실태조사
-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

홍은희 · 구미란*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1. 연구목적

의복은 인체를 돋보이게 하거나 인체의 형태를 재구성함으로써 미적 관련성을 갖는다. 사람들의 인상형성은 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의복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상징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와 의사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의복에 의한 시각적 이미지 형성은 디자인 요소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복제작에 있어 디자인적 요소 뿐 아니라 구성학적인 측면에서의 패턴디자인에 따른 착용자의 시각적 이미지 효과에 대한 영향 또한 크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페플럼은 재킷, 베스트, 블라우스 등의 허리선 아래로 작은 러플이나 플라운스, 플레어 등을 넣은 것으로 허리를 강조한 디자인에 많이 응용된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천을 몸에 감아서 걸치던 긴 의복을 '페플로스(peplos)'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페플럼은 재킷이나 블라우스에 사용해왔지만 현재에는 트렌치코트나 드레스, 펜슬 스커트, 팬츠, 쇼츠, 벨트로 자유분방하게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1). 소니아 리켈은 페플럼과 벨트를 함께 만들어 디자인 악센트를 주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며 여성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2). 이와 같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레이디라이크 룩의 대표 아이템이며 허리선의 위치, 페플럼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착용자가 추구하는 신체적, 연상적 이미지로의 표현이 용이한 페플럼 블라우스를 연구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또 페플럼 블라우스에서 패턴디자인의 측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NAVER 지식쇼핑에서 검색한 페플럼 블라우스 중

Corresponding author : Koo, Mi-ran. Tel.+82-55-249-2570 Fax. +82-505-986-2183
E-mail : miho749@kyungnam.ac.kr

지식쇼핑 랭킹 순인 정확도지수(카테고리 연관성/가격비교 선호도)와 실적지수(지식쇼핑을 통한 판매실적과 상품클릭수) 등을 점수화하여 정렬한 랭킹 600 중 중복되어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들을 제외한 총 79개의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시판되고 있는 페플럼 블라우스의 상품사이즈인 총길이와 허리절개선의 위치, 페플럼의 디자인형태 등을 분석하였고 페플럼 블라우스의 허리선 위치는 인터넷 상에 제시된 총길이를 통해 허리절개선의 위치를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된 총 79개의 페플럼 블라우스의 상품사이즈를 분석해 본 결과 블라우스의 총길이가 56~58.9cm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29.11%, 59~61.9cm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6.58%, 62~64.9cm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15.19%로 조사되었다. 또 55cm 이하는 11.37%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짧은 길이는 47cm로 조사되었다. 또 총길이가 65cm 이상인 경우는 17.72%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긴 페플럼블라우스의 총길이는 70cm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블라우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56~61.9cm의 블라우스 길이로 전체의 55.69%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5 사이즈 코리아의 20~24세 여성 앞길이에 해당하는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의 평균이 39.64cm이고, 등길이는 38.09cm, 엉덩이길이인 엉덩이옆길이의 평균이 23.02cm라는 것으로 비교해 보면 판매되고 있는 과반수이상의 페플럼 블라우스가 착장 시 엉덩이둘레선을 약간 못 미치거나 엉덩이둘레선 정도의 길이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플럼의 디자인 형태로는 허리에서 절개가 들어가고 페플럼의 형태는 플레어인 디자인이 45.56%, 허리절개선과 턱(tuck) 디자인이 22.78%, 허리에 절개선이 없이 프린세스라인이 들어간 경우가 15.18%, 허리절개선과 개더 디자인이 7.59% 등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페플럼 디자인은 허리선에서 절개가 되어 플레어가 들어가는 전형적인 디자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허리절개선의 위치는 2005년 사이즈코리아의 20~24세 여성의 앞길이에 해당되는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의 평균치가 39.64cm이므로 허리둘레선에서 3~6cm 올라간 형태로 목옆점에서 33~36cm에 허리절개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5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7~40cm인 경우로 제 허리선 가까이에서 절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25.31%, 목옆점에서 29~32cm에 허리절개선이 들어가는 경우로 횡격막 근처인 미드리프웨이스트에 해당되는 형태가 10.12%로 조사되었다. 목옆점에서 허리절개선까지의 길이가 45cm 이상으로 로우 웨이스트는 11.39%로 조사되었다. 즉, 허리절개선은 제 허리선이거나 제 허리선에서 3~6cm 올라가 약간 하이웨이스트(78.4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로우 웨이스트 절개선(11.39%), 미드리프웨이스트 절개선(10.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허리선은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는 것이고 허리선의 높낮이에 따라 의복의 느낌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페플럼 블라우스의 디자인

에 있어 허리선의 위치는 의복이 인체에 피트(fit)되는 정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의복의 실루엣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복에서 확산되고 있는 레이디라이크룩의 대표 아이템인 페플럼블라우스를 패턴디자인의 측면에서의 변인을 탐색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79개의 페플럼블라우스를 조사해 본 결과 페플럼블라우스의 총길이는 20~24세 여성의 엉덩이둘레선을 약간 못 미치거나 엉덩이둘레선 정도의 길이인 56~61cm의 길이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또 페플럼의 디자인 형태로는 허리둘레선에 절개가 들어가고 플레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45.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허리절개선은 제 허리선에서 3~6cm 올라가거나 제 허리선인 경우가 78.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페플럼 블라우스의 시각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는 블라우스의 총길이와 허리선의 위치, 페플럼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각적 효과나 시각적 이미지의 와 이거나 시각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허리절개선의 위치와 페플럼의 형태 즉, 개더나 플리츠, 턱, 플레어 등과 같이 패턴디자인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블라우스의 형태를 사진자료나 판매자가 제시해주는 사이즈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페플럼블라우스의 중요 변인인 허리절개선 위치와 페플럼 형태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착장자의 선호이미지에 따른 패턴디자인 변화의 활용자료가 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구미란·이정순(2008),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복식 문화, 10(2), pp.79~89.

이정순(2005), 기본 스커트의 허리선 위치와 라운드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 (1), pp.1~7.

이정진(2005), “원피스 드레스의 허리밴드 위치와 밴드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패션전문자료사전Ⅱ(2012), 민중서관, p.1380.

PEPLUM PERIOD. 자료검색일 2014.3.25. 자료출처 http://navercast.naver.com

〔패션〕반전있는 여자, 매니시룩 VS 로맨틱룩. 자료검색일. 2014.4.1. 자료출처 http://weddinginfo.wef.co.kr

비상통신용 남성 아웃도어 솔라 투습방수 재킷의 제작 설계 및 디자인 개발

박 진 희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1. 연구목적

스마트 의류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발맞추어, 아웃도어 웨어 중 남성용 투습방수 재킷의 일상적 아웃도어 웨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이 많은 현대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비상 통신용 스마트폰의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 의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는 솔라셀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연구 및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하드 솔라셀을 사용함으로 무거움과 의류에 사용하기 딱딱한 질감,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쉽게 깨짐으로 성능 저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용량을 위하여 의류의 많은 부위에 다량의 솔라셀을 배치하여 의류의 미관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더불어 배터리 사이즈가 커짐으로 운동중의 의류에 휴대하기 불편한 점 등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레저. 스포츠 활동과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은 현대생활에서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남성용 아웃도어 방수 재킷에 비상통신용 솔라 시스템을 융합하는 디자인 및 구조 설계를 제시하고 상품화 가능한 스마트 아웃도어 솔라 재킷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아웃도어 방수 재킷 설계

임민정의 연구에서 12개의 브랜드 재킷을 분석한 내용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로 현재 유행되고 있는 스타일을 선정하여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2. 솔라 패널 적용 재킷 설계 및 디자인

사용한 솔라셀은 후판이 폴리머 소재로 모듈화 시에 가볍고 곡면 디자인에도 적용 가능한 장점과 모듈이 훼손되거나 크랙이 생긴 경우에도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

Corresponding author : PARK JIN HEE Tel. +82-10-8970-4677 Fax. +82-2-821-4677
E-mail : jinnyangel2000@hanmail.net

발전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fabric 등 다양한 소재에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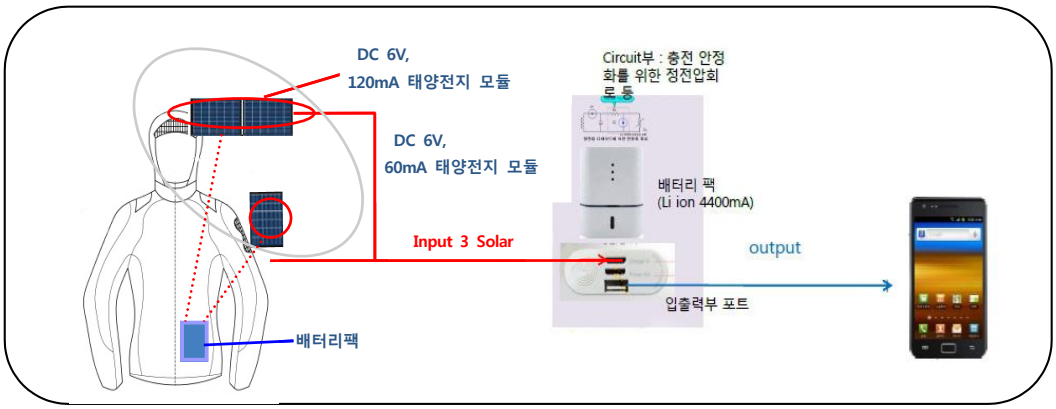


Fig. 1. 솔라 재킷 시스템

솔라셀 부착위치는 디자인의 어울림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 앞 후드챙 부위와 팔 윗부분을 선정하였다. 각 3장의 솔라셀 MDT6-75 을 적용하여 앞 후드에 2개, 좌측 어깨에 1개를 적용하였다. 재킷에 투명창을 고안하고 내부에 솔라셀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3장의 솔라셀을 이용하여 30분 충전 시에 약 20분가량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등산이나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 시에 비상 통신으로 통신두절을 방지하고 중요한 상황에 스마트폰의 원활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다. 또한 eco-friendly wireless charging system을 활용하여 자연 충전을 구현할 수 있다.

3. 적용 솔라셀의 디자인 개발 및 평가

솔라셀은 의류에 적용할 때, 각 의류의 디자인이나 컬러에 맞추어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솔라셀과 의류의 디자인 조화를 위하여 문제점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및 디자인을 모두 만족해야하는 시점에서,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솔라셀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솔라셀에 특수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아웃도어 웨어에서 셔츠나 재킷에 활용 가능한 선호하는 체크와 스타라이프의 무늬를 적용하였다. 각 프린트를 적용할 경우, 솔라셀의 충전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종류의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태양광 시뮬레이터 장비(Fig. 4 참조)를 사용하여 각 디자인별 태양광의 시뮬레이션을 측정하여 가장 적합한 프린트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테스트 조건(Standard Test Condition): Irradience 1000w/㎡, Spectrum 1.5 Air Mass, Temperature 25℃에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방수 쟈켓의 후드 안쪽과 소매 부위에 포켓을 만들어 플렉서블 솔라셀을 삽입하고 웰딩 처리한 투명 비닐 창으로 솔라셀의 태양열을 충전할 수 있게 하였다.

Fig.2. 방수재킷의 디자인 사양

Fig. 3. 팔 부분 솔라셀 설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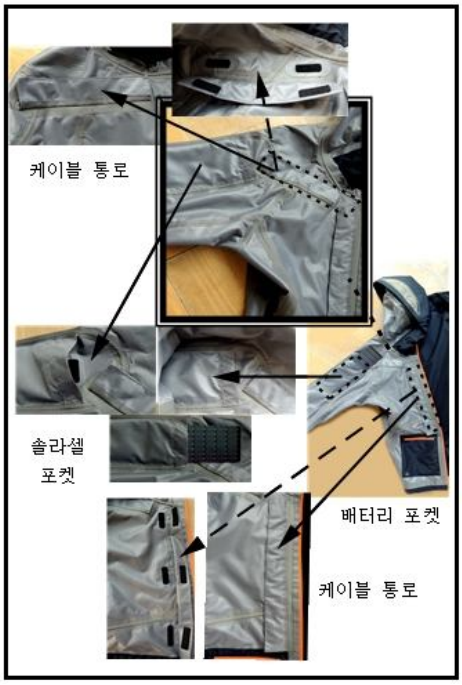


Fig. 4. 솔라셀 내장 SYSTEM- 포켓, 케이블통로

기능성 아웃도어 웨어의 등산용 재킷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방수재킷의 가장 선호되는 각 부분별 디테일을 적용하고 투습방수 원단 3L와 2L의 두가지 종류로 재킷을 제작하였다.

적용한 솔라셀은 플렉서블 솔라 필름을 이용하여 유연한 의류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였고 적용부위는 후드 챙 부분과 팔 부위로 총 3개의 솔라셀을 사용하였다. 30분 솔라셀 충전시 20분간 통화할 수 있는 용량의 사이즈를 선정하였다.

3L 겉감에는 케이블과 배터리 포켓을 내장하기 위한 덮개와 벨크로, 그리고 지퍼 입구의 포켓를 디자인하고, 2L 겉감을 사용한 재킷은 안감 사양에 덮개와 지퍼포켓을 봉재 하여 제작하였다. 솔라 필름을 내장하는 포켓은 겉쪽은 투명 필름을 웰딩하여 솔라 충전이 가능하게 하였고 안쪽에 내부 주머니를 만들어 솔라 필름을 삽입하게 하는 방식과 오픈 지퍼를 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겉에서 착탈이 가능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솔라셀과 아웃도어 재킷의 디자인 조화를 위하여 솔라셀에 디자인 적용을 개발 시도하였다. 솔라셀 패널의 흰색 부분은 태양광 충전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다양한 컬러로 프린트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체크무늬는 원 모듈에 비해 출력이 최대 1/5까지 낮게 나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였고 스트라이프 무늬는 전체의 80 %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적용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체크무늬는 태양광을 충전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적용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4. 결론

재킷 뿐 아니라 다른 액세서리 가방 등에도 솔라셀을 적용함에 있어서, 스마트 기능뿐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야외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위급한 시기에도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아웃도어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솔라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상용화를 위한 도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임민정, 서문정, 박주연, 김영인, (2011). “기능성 아웃도어웨어의 등산용 남성재킷 프로토타입 디자인“, 복식, 61(4), pp. 152-168,

배정민(2011),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 61(7), pp.101-109,

배지영(2008), 「친환경적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백경자, 이정란(2011), “30~50대 여성의 아웃도어 웨어 착용 실태조사”,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0), p 190,

디지털 클로딩을 활용한 가상의복의 소재별 비교분석

이정민* · 장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1. 연구목적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통한 의류상품기획과 전자상거래상의 상품정보제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착의상태 결과물이 보다 명확하고 실제착의에 근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의류소재 물성에 관련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통한 의복의 재현이 얼마나 실제의 소재의 물성과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가 디지털 클로딩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류상품 기획 시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소재물성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가상의복의 소재재현의 유사표현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의류소재 선정 및 인장특성(Tensile Properties) 분석

실험시료로서 광목, 면데님, 실크공단, 울개버딘, 편성물을 선정하고 인장시험기(Testometric, Model Micro 350, U.K)를 사용하여 일정한 인장변형 및 회복과정 중의 응력을 측정하였다. 시료크기는 5X25cm로 하였고 시료는 경사·위사방향에 따라 성질이 상이하므로 시료 방향별로 측정하였다. 실험조건은 Speed=10.00mm/min, Length =200.omm, Load@3mm gf/cm(3mm 신장 시 응력)으로 측정하였다.

2)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소재물성의 유사성을 비교 검증하여 가상의복의 소재 재현성에 대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소재별 비교분석을 위해 실시한 2회의 실험 검사자 집단은 소재와 의복구성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피험자는 속옥을 착용한 상태로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정해진 위치에서 정면, 측면, 후면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취하였다. 또한 디지털 클로딩 시뮬레이션을 통한 착의평가도 동일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착의평가를 위한 검사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방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min Tel.+82-2-3277-3077
E-mail : caffeic@naver.com

법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외관에 대한 관능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가항목은 정면 8항목, 측면 6항목, 후면 8항목으로 총 22항목이다. 본 연구의 착의평가자료는 SPSS/WIN 14.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5점 척도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test를 통해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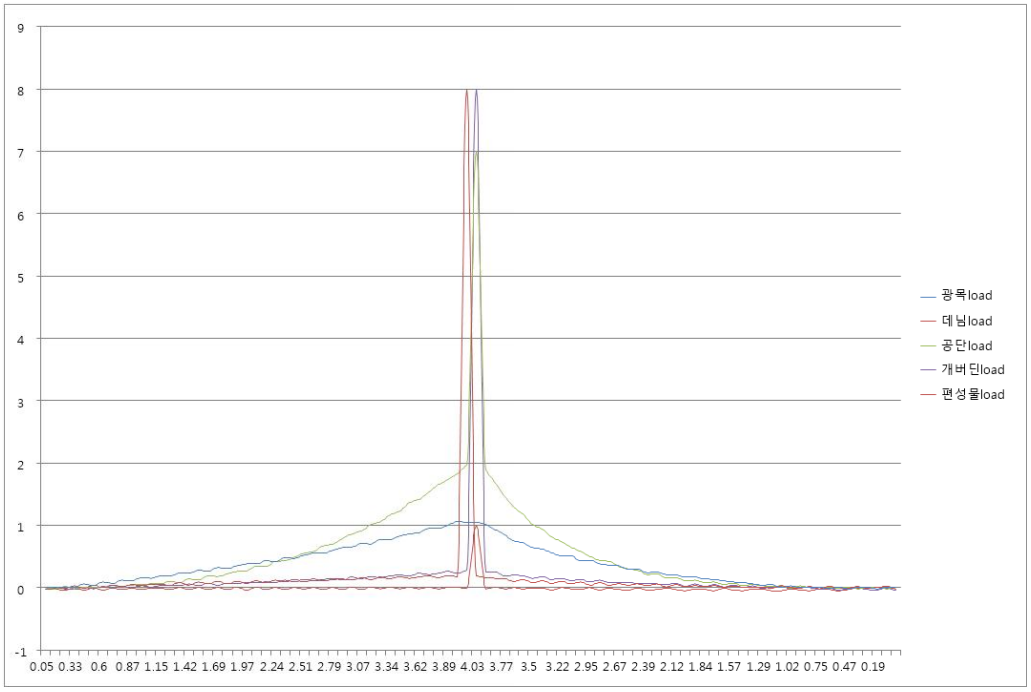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류상품 기획 시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소재물성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가상의복의 소재재현의 유사표현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장특성 값

인장특성을 측정한 경사의 값은 <Fig. 1>과 같다.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에서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착의평가를 통해 나타난 수정항목에 대해 직물 물성치(Material Properties)를 조절하여 직물의 속성에 따른 드레이핑 시뮬레이션(Draping Simulation)을 실행하였다. 완성된 가상의복에서 직물 물성치를 적용할 패널을 선택하여 오른쪽 창(Properties Input)의 직물 물성치(Material Properties)에서 수치를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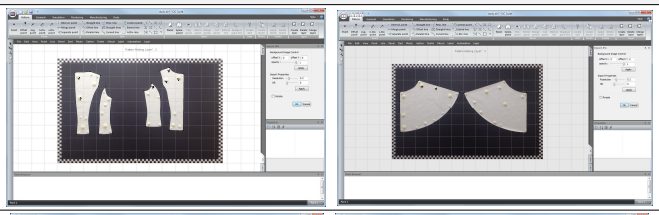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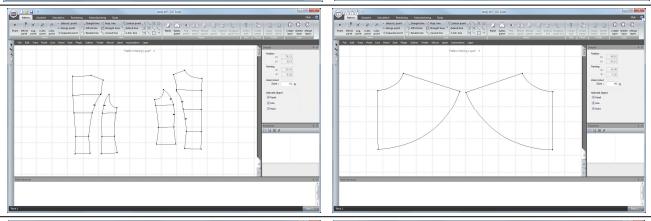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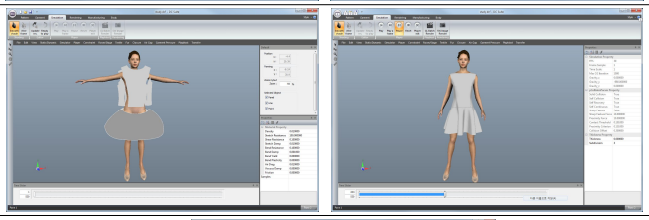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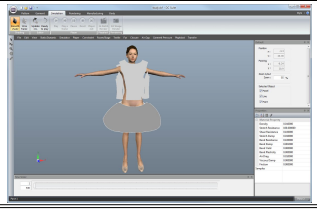


<Fig. 1> Load @ 3mm gf/cm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 Material Proper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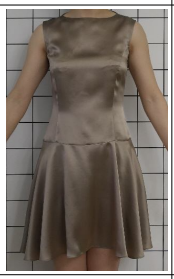
	Cotton Plain	Satin	Wool Gabardine	Knit	Cotton Denim
Density	0.0080	0.0150	0.0100	0.0100	0.0100
Stretch Resistance	80.0000	120.0000	120.0000	110.0000	120.0000
Shear Resistance	0.1000	0.0300	0.1000	0.1000	0.1000
Stretch Damp	0.0100	0.0100	0.0050	0.0010	0.0050
Bend Resistance	0.0300	0.0050	0.0500	0.0150	0.0500
Bend Damp	0.0010	0.0010	0.0010	0.0500	0.0010
Bend Yield	0.0000	0.0000	0.0050	0.1000	0.0050
Bend Plasticity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Air Drag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Viscous Damp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Friction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Table 2> Work process of the DC Suite

과정	구분
패턴의 입력	
패턴의 선정리	
시뮬레이션	
물성값 수정	

2) 소재별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비교분석

실험복 제작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 광목, 울개버딘, 저지, 실크공단, 데님 5가지의 소재를 선정하였다. 소재별 특징을 실루엣으로 비교분석하기에 용이한 프린세스라인의 플레어 원피스드레스 디자인을 선정하여 패턴을 완성하고 실물 제작한다.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 (DC Suite)을 활용하여 제작된 패턴을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렌더링 작업을 통해 가상의복을 완성한다. 이를 통해 같은 디자인의 패턴으로 5가지 소재를 제작하여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착의 외관평가를 통해 소재표현을 비교하였다.

	Cotton Plain	Satin	Wool Gabardine	Knit	Cotton Denim
Virtual Fabric					
Actual Fabric					

<Fig. 2> Comparison on 3D Drape Shap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인 DC Suite를 활용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한 의류 소재의 물성 재현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다섯가지 소재의 실질적 표현과 가상표현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고 소재의 물리적인 특성과 프로그램상의 물성치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복의 소재형태를 재현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실제와 가상 소재의복의 형태에는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었지만 가상소재의복의 경우 노드(Node)의 구부러진 형상을 실제와 같이 세밀하게 재현해 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랐다.

■ **참고문헌**

1) 김안나(2010), 디지털클로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의복의 소재 재현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전정일(2008), 캐주얼 니트 셔츠의 fit에 따른 패턴 개발-한국인 19-29세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3) 노경엽(2010), “패션 소재의 정적 특성 및 Dynamic Bending Force 특성 및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의 활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복소재의 특성분석 및 3차원 디지털클로딩기법을 활용한 가상 드레이프 형상의 비교 연구

한유정* · 박소현* · 김지민* · 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Ⅰ. 연구 목적

최근 의류산업에서 3차원 가상의복시스템의 도입이 패션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감성 산업과 IT분야가 긴밀하게 연계되며 패션산업에서도 가상의복 시스템이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3D가상의복시스템에서의 한복소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류 컨텐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패션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3차원 가상의복시스템에서의 한복소재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복 소재의 물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한복의 가상 재현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콘텐츠 개발 및 발전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소재의 물성과 드레이프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한복소재의 물성이 드레이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시료 선정

다양한 직물에 대한 물성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총 20 종류의 한복소재를 선정하였다. 여성복 및 남성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견직물 10종과 합성섬유 직물 10종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2 기본 물성 분석

소재의 기본 물성 분석항목으로서 인장특성, 강연도(L, Sd, Sf), 단위면적당 중량, 두께 등을 측정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jun Tel. +82-2-3277-3102, Fax. +82-2-3277-3079
E-mail : jjkim@ewha.ac.kr

<Table 1> Measurement data of physical properties used for the experi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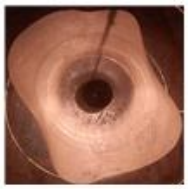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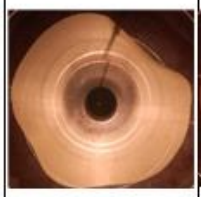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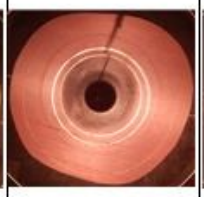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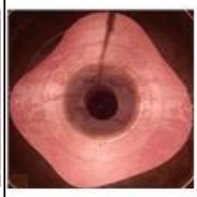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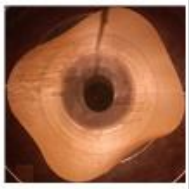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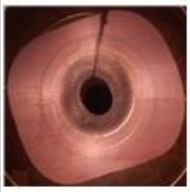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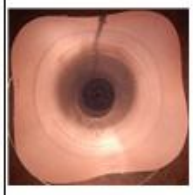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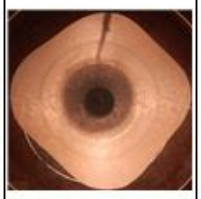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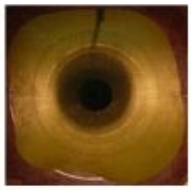
sample	3mm 신장응력 (kg/cm)	무게 (g/cm^2)	두께 (㎜)	Sf (gf·cm)	Sd (㎝)	실제 드레이프 계수	가상 드레이프 계수
S2	1.12	0.0030	0.12	0.1506	3.53	64.56	60.31
S5	1.07	0.0033	0.12	0.1773	3.65	73.99	66.27
S6	1.08	0.0037	0.12	0.4163	4.81	95.03	88.41
S8	1.05	0.0038	0.15	0.2085	3.73	80.75	75.32
S9	1.44	0.0035	0.12	0.1256	3.23	81.50	76.64
S10	1.39	0.0036	0.13	0.3363	4.18	80.93	77.33
S15	0.82	0.0038	0.11	0.1518	3.40	67.37	53.92
S16	1.30	0.0040	0.17	0.1260	3.16	78.16	75.77
S18	0.67	0.0046	0.18	0.1560	3.24	82.73	80.69
S20	1.57	0.0054	0.16	0.1023	2.58	45.24	36.07
P2	1.88	0.0041	0.14	0.2548	3.91	78.12	86.75
P5	0.98	0.0038	0.15	0.0897	2.84	53.82	66.04
P6	0.70	0.0040	0.15	0.0638	2.53	57.75	53.06
P7	0.67	0.0036	0.12	0.0644	2.59	53.02	48.21
P9	1.01	0.0040	0.13	0.0763	2.66	62.74	54.76
P10	0.94	0.0030	0.12	0.1024	3.14	63.73	57.56
P13	1.05	0.0069	0.16	0.1217	2.60	63.60	62.43
P14	1.47	0.0057	0.14	0.1115	2.68	61.89	55.93
P15	1.43	0.0058	0.14	0.1698	3.08	64.00	62.00
P16	1.01	0.0040	0.17	0.1263	3.11	72.90	7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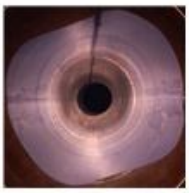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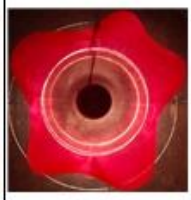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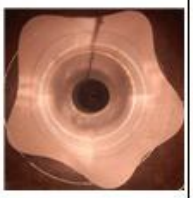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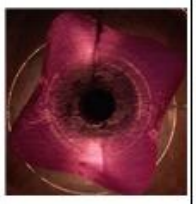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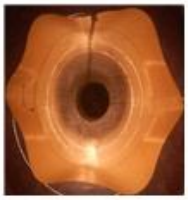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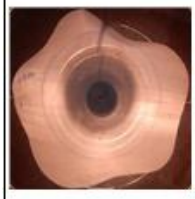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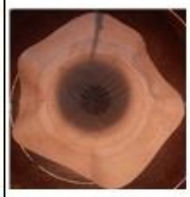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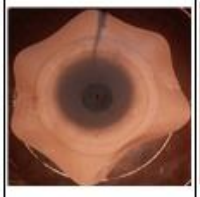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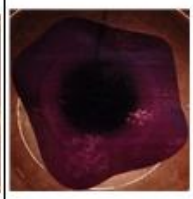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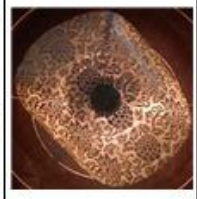
2.3 드레이프 분석

a. 드레이프성 측정

KS-0815법에 의거하여 25.4㎝ 지름의 시험편을 12.7㎝ 원형 시험대 위에 놓아 시료에서 68㎝ 떨어진 위치에서 시험편이 투영된 디지털 화상을 디지털카메라로 획득하였다. 그리고 획득한 실물 소재의 형태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Drape image of actual fabric

s2	s5	s6	s8	s9
				
s10	**s15**	**s16**	**s18**	**s20**
				

p2	p5	p6	p7	p9
				
p10	**p13**	**p14**	**p15**	**p16**
				

b. 드레이프 분석방법

1) 드레이프 계수 계산방법

시험편이 투영된 면적 산출을 위하여 ImageJ (NIH, U.S.A)를 활용하여 화상분석을

진행하고 시료의 드레이프 면적을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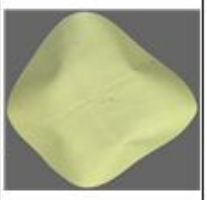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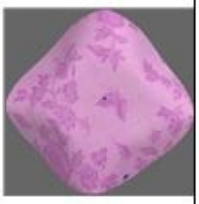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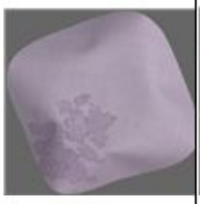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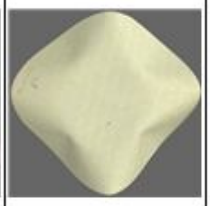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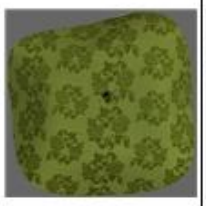
Drape coefficient(%) $= \frac{A2 - A0}{A1 - A0} \times 100(\%)$

A0 : Supporting plate의 면적
A1 : 드레이프 되기 전 시료의 면적
A2 : 드레이프된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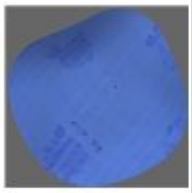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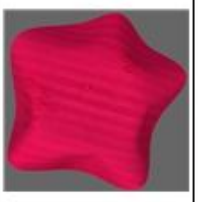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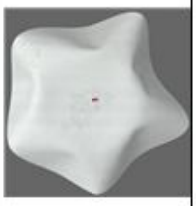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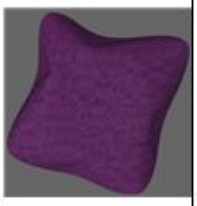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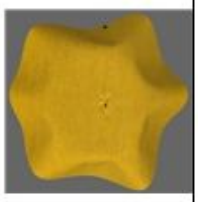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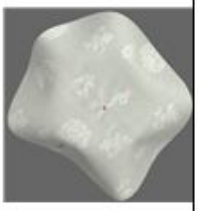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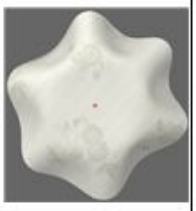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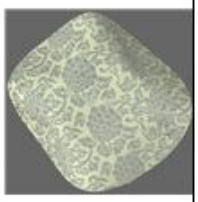
2.4 가상소재 제작 및 드레이프 형상 제작

3D 의상제작 소프트웨어 CLO 3D CAD ((주)클로 버추얼패션)를 사용하여 가상소재를 제작하였다. 가상소재의 물성 입력은 속성창의 '물성' 중 '세부 속성' 메뉴 '위사강도', '경사강도', '전단강도', '굽힘강도', '좌굴'값을 조절하여 소재 드레이프성에 영향을 주는 소재의 기본 물성을 반영하였다. 밀도는 중량의 실측 단위인 g/㎟의 단위를 가지므로 실측치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렇게 적용한 가상소재를 '기즈모'로 시료이미지 비율과 위치를 조정하여 실제 드레이프 측정방식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하였다. 정지상태의 소재 상태를 표현한 가상 소재의 형상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Drape image of virtual 3D fabric

s2	s5	s6	s8	s9
				
s10	**s15**	**s16**	**s18**	**s20**
				

<Table 3> 계속

p2	p5	p6	p7	p9
				
p10	**p13**	**p14**	**p15**	**p16**
				

3. 결과 및 고찰

3.1 실크와 합성섬유의 드레이프 계수차 비교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계수차	20	3.3358	5.95823	-12.22	13.45
섬유종류	20	1.50	.513	1	2

			계수차
Mann-Whitney U	Mann-Whitney의 U		28.000
	Wilcoxon의 W		83.000
	z		-1.663
	근사 유의확률(양측)		.096
	정확한 유의확률[2(단축 유의확률)		.105[b]
Kolmogorow-Smirnov	최대 극단차	절대값	.500
		양수	.000
		음수	-.500
	Kolmogorow-Smirnov의 Z		1.118
	근사 유의확률(양측)		.164

Mann-Whitney U의 검증결과는 실크와 합성섬유의 드레이프 계수 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한 결과 Mann-Whitney의 U값 28에 대한 p-value는 0.105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실크와 합성섬유의 드레이프 계수 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kolmogorow-Smirnov의 Z값 1.118에 대한 p-value 는 0.164 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실크와 합성섬유의 드레이프 계수 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2 실제 물성과 실제 드레이프 계수간의 설명력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817[a]	.667	.649	7.29765	2.012

a. 예측값: (상수), SD

b. 종속변수: 실제드레이프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922.246	1	1922.246	36.095	.000[b]
	잔차	958.602	18	53.256		
	합계	2880.849	19			

a. 종속변수: 실제드레이프

b. 예측값: (상수), SD

회귀분석의 stepwise법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SD만 투입된 것은 실제 드레이프 계수와의 상관관계가 다른 독립변수 중 SD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0.817). 변수의 진입 및 제거 기준은 p-value 0.05와 0.1임이 나타나 있다. R^2이 0.667이므로 이 경우 서술한 바와 같이 SD와 실제 드레이프 계수간의 상관관계가 0.817이기 때문이다. 회귀모형 F value는 36.095, p-value는 .000[b]이므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D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계수 값이 비유의적이기 때문으로 투입이 진행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3D가상의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가상소재와 실제소재의 물성에 관한 것이다.연구의 목적은 한복소재의 물성이 드레이프성에 미치는 영향이며, 분석방법으로써 비모수 통계(Mann-Whitney U, kolmogorow-Smirnov)와 회귀분석(stepwise)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실크와 합성섬유의 드레이프 계수 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한복 소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미 구축으로 인해서 실제 물성값과 3D 클로 프로그램에서의 물성 값의 관계 상관성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밀도 값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값을 적용하여 실제와 가상드레이프를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둘째, 드레이프 계수 차와 시료종류별 차이를 본 결과 가상의 드레이프 계수가 시료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 드레이프 계수의 값과 유사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3D CAD를 사용하여 가상의복을 제작할 때 실물과 매우 유사한 형상의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D 프로그램상의 가상 물성과 실제 물성 값과 상관성이 부족하지만, 3D 프로그램 상에서도 유사한 모양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한복의 정확한 물성 값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훗날 가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유의 한복 소재 물성 값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성련(2002) ,피복재료학, 교문사

2) 김은애·박명자·신혜원·오경화(1997) ,의류소재의 이해와 평가, 교문사

3) 이윤주(2011), “디지털 의상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위한 패션소재의 기본물성/드레이프 및 동적 변위특성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노경엽(2010), “패션 소재의 정적 특성 및 Dynamic Bending Force 특성 및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의 활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윤지해(2013), 직물소재의 특성에 따른 Quilting효과 및 외관변화와 3D 디지털 클로딩 시스템의 활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락 염색시 탄닌의 매염효과

배 상 경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락(Lac)은 안트라퀴논계 염재로 코치닐과 함께 대표적인 동물성 염료로 알려져 왔다. 락은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매염제에 의한 색상 및 염착성의 변화가 있는 다색성 염료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천연섬유직물들을 시험포로 실시되었다.1)2) 천연염료에 대한 매염을 할 때 일광견뢰도의 증가, 심색효과를 위해서 탄닌계 매염제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오배자, 율피, 탄닌산들을 사용하였다,3)4) 타라와 미로발란은 식물성 염료로쓰이지만 탄닌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염보조제로도 쓸 수 있다. 타라는 페루의 토착식물로 갈로탄닌이 함유되어 있으며5) 미로발란은 사군자과에 속하며 열매를 건조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중요한 염재이고6), 둘 다 가수분해형 탄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피(소가죽)을 시험포로 하고 타라와 미로발란을 매염제로 하여 매염조건을 달리하여 락염료의 염색성을 조사하여 적합한 매염조건을 조사보았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시료 및 염료

염색실험에 사용된 우피는 두께 1.0mm의 베지터블 통가죽을 썼으며, 타라, 미로발란, 락염료는 아츠앤크래프트사에서 구입한 분말제품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1) 염색

락의 최적 매염조건을 알아 보기 위해서 염료의 농도는 30%(owf. 이하 생략함)로, 염색온도는 40℃, 욕비는 30:1, 염색시간은 30분으로 정했다. 타라와 미로발란의 농도는 각각 20%, 40%, 60%, 80%, 100%로 하고, 매염시간은 10분에서 6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증가시켰고, 매염방법은 선매염과 후매염으로 실시하였다.

(2) 매염효과에 의한 염착성 측정

분광측색계(SP 62, X-rite, USA)를 이용하여 락으로 염색한 우피의 표면반사율을 측정

Corresponding author : Bai, Sangkyoung Tel.+82-2-536-9686 Fax. +82-31-220-2225
E-mail: skbai@suwon.ac.kr

하여 K/S값을 산출하여 염착성의 지표로 삼았다. 표면색의 변화는 Hunter-Lab 와 Munsell 표색계에 의한 H, V/C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매염제농도에 의한 염색성의 변화

타라와 미로발란의 농도를 증가시킨 결과 염착성은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타라보다는 미로발란에서의 증가율이 높았다. 둘 다 색상의 변화는 R로 거의 없었으나 명도와 채도의 변화가 유의적이었으며 a값과 b값이 변화해서 색이 진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매염제 농도 40%-60%가지의 증가율이 다른 농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매염방법에 의한 염색성의 변화

염착성은 타라, 미로밸럼 모두 선매염에서 더 컸다. 타라보다는 미로발란에서그 차이가 컸으며 선매염보다는 후매염에서 높게 나왔다. 매염제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후매염에서는 염착성이 많이 늘지는 않았으며 서서히 증가하였다.

3. 매염시간에 의한 염색성의 변화

매염시간의 증가에 따른 염착성은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증가곡선의 기울기는 40분 이후부터 거의 평형에 도달하였다. 타라에서는 색상변화가 없었고 미로발란에서는 명도와 채도의 변화로 적색기미가 증가하여 색이 진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락 염료로 우피를 염색할 때 타라와 미로발란을 이용한 탄닌매염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타라보다는 미로발란에서의 매염효과가 더 컸으며 매염제농도는 증가할수록, 매염방법에서는 후매염보다는 선매염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매염시간은 증가할수록 매염효과가 컸으며 선매염 후매염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 참고문헌

1) 박문영, 김호정, 이문철(2002), "동물성섬유에 대한 락추출물의 염색성“, 한국의류학회지 , 26(8), pp.1248-1253

2) 박문영, 김호정, 이문철(2003), "동물성섬유에 대한 락추출물의 염색성 (II)-매염방법과 매제 종류의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7(9/10), pp.1134-1143

3) 이영숙, 장정대(2010), “감초추출물에 의한 면직물의 염색성과 기능성(1)”,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4), pp.523-530

4) 이정진, 문정철, 김도훈, 엄성일, 김재필(2000), “탄닌 후처리에 의한 천연염색물의

일광견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33(1), pp.327-330
5) http://cafe.naver.com/puersom/328
6) 한미란,이정숙(2009), "미로발란을 이용한 직물염색",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7(4), pp.140-148

양모직물 방축가공과 축융에 따른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대한 연구

정아현* · 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배경 및 목적

양모섬유는 Polypeptide로 구성된 천연고분자화합물이다. 양모섬유는 cuticle층과 cortex로 되어있다. Cuticle은 스케일이라고도 하며, 이는 촉감, 흡습성, 축융 등의 성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양모섬유의 스케일의 변화로 인해 양모직물을 비눗물 등 알칼리 수용액 중에서 기계적 교반을 행할 경우 비가역적인 수축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세탁과 같은 물리적 변형과정 중에서 양모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스케일이 변화하고, 각 양모 섬유들은 다른 양모 섬유를 붙잡아 함께 엉켜 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완화수축과는 달리 펠트수축은 비가역적이다.

이러한 축융과정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된 양모의 방축가공 기술은 역사가 긴 편이다. 최종 제품의 형태나 스타일에 따라 방축처리 적용 공정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융과정은 직물의 수축 및 양모섬유의 랜덤한 재배치 혹은 뒤엉킴을 초래한다. 적절한 축융조건을 선정하는 경우 그 축융제품에 풍성한 부피감, 따뜻한 촉감, 표면에 부출되어 있는 양모섬유로 인한 독특한 질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치밀한 축융조건을 선정한 경우에는 약간 단단한 느낌을 주게 되며, 표면의 부출섬유를 감소시키도록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융조건의 변화에 의해 축융제품 표면의 텍스처와 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한편 방축가공은 이러한 축융을 억제함으로써 보다 널리 의류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양모직물의 태에 적합한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선정한 약제나 방법에 따라 뻣뻣함을 강하게 한다.

방축가공과 축융가공은 양모제품의 스케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축가공과 축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모직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패션소재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축융에 의해 초래되는 양모의 부피감 변화, 표면의 랜덤한 섬유의 이동, 수축 및 부피감 증가로 인한 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방축가공에 의해서는 수축률의 억제, 섬유의 배열상태 유지, 실 사이의 공극 유지 등의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jun Tel. +82-2-3277-3102, Fax. +82-2-3277-3079
E-mail : jjkim@ewha.ac.kr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는 방축 가공제를 선정하여 그 가공제의 적용양을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각 조건에서 양모직물을 처리하여 방축효과를 비교해 보고 양모직물의 태와 관련되는 물리적 성질을 비교하였다. 또한 방축가공한 양모직물과 미가공직물에 대해 축융처리를 함으로써 방축가공 직물과 미가공직물의 축융에 의한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들 기초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방축/축융 가공이 혼재한 양모직물의 입체적 대비효과나 물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시료 및 시약

1)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모 직물은 두 가지 시료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직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양모거즈와 양모평직물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양모전용 세제로 세정하고 자연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양모직물 시료규격

	양모직물A	양모직물B
번수	경사 2/80	경사 2/120
	위사 1/50	위사 1/60
조직	평직	평직
밀도	49×45/inch²	74×71/inch²
중량	85 g/m²	97 g/m²
두께	0.34 mm	0.28 mm

2) 시약

처리에 사용한 가공제는 현재 시판되는 Synthappret R-BAP(Bayer)을 선정하였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Synthappret R-BAP은 polyurethane고분자이며 음이온성 고분자이다. 흡진공정이나 padding process에 의하여 직물에 부착이 가능하다.

(2) 실험방법

30cm x 30cm 크기의 정련한 양모직물 A, B를 Synthappret BAP 가공제를 사용한 알맞은 조성의 패딩액에 20분 침지한 후 Wet pick up이 각기 110%, 130%, 150% 되도

록 압축 맹글로 여분의 액을 제거하였다. 시험포를 실온상태에서 건조한 후 curing oven으로 옮겨 90℃에서 15분 예비 건조 후 130℃에서 3분간 curing하였다. curing이 끝난 가공포는 축융을 진행하였다. 펠트전용 비누를 사용하여 pH 11을 유지하고 60℃에서 15분 동안 교반과 일정한 마찰을 부가하였다. 축융된 가공포는 다시 양모전용 세제로 수세를 하여 상온에서 건조시켰다.

3. 결과

방축처리 가공을 하고 축융을 한 시료와 방축처리 없이 정련만 시행하고 축융을 한 시료들의 수축률을 비교하였다. 경사방향으로 30cm, 위사방향으로 30cm인 정사각형의 시료를 점 간격이 경사방향으로 25 cm, 위사방향으로 25cm가 되도록 표시한 다음, 수축률을 비교하였다. Fig.1., Fig.2 는 양모직물 A, B에 대해 방축가공을 한 뒤 펠팅 후 수축률을 미처리 직물과 비교한 Felting에 의한 치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축가공제를 처리한 농도별로 비교한 결과 양모직물A와 B의 경우, 정련만 하고 축융된 포에 비해 방축가공제를 처리한 시험포들의 수축률이 낮게 나왔으나 방축가공제의 농도에 따른 수축률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방축처리 가공하고 축융된 양모직물 A,B는 미처리포에 비해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공기투과도 또한 정련하고 축융된 포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정련만 하고 축융된 시험포에 비해서 방축처리 가공한 뒤 축융된 직물은 굽힘강성이 증가하였다. 굽힘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방축가공 처리제로 직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직물의 Stiffness 를 보았다. 결과는 Fig.3., fig.4 와 같이 양모A ,B 모두 정련만 하고 축융된 포에 비해서 굽힘강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Fig.3.은 방축가공 처리제로 처리된 직물의 Stiffness이다. 정련하고 축융된 포와 방축가공제의 농도를 다르게 한 처리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방축가공제의 농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방축가공 처리를 하면, 직물의 inter-fiber bond가 형성되어 양모직물 특유의 유연한 촉감을 잃게 된다.

방축가공 처리제로 처리된 직물의 Stiffness는 미처리 직물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직물의 태가 강경해진 것을 보여준다. 직물을 만져보면 직물의 촉감이 강경해지고 매끈한 느낌이 난다. 이는 기존의 보고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방축가공한 직물은 약간 거친 느낌이 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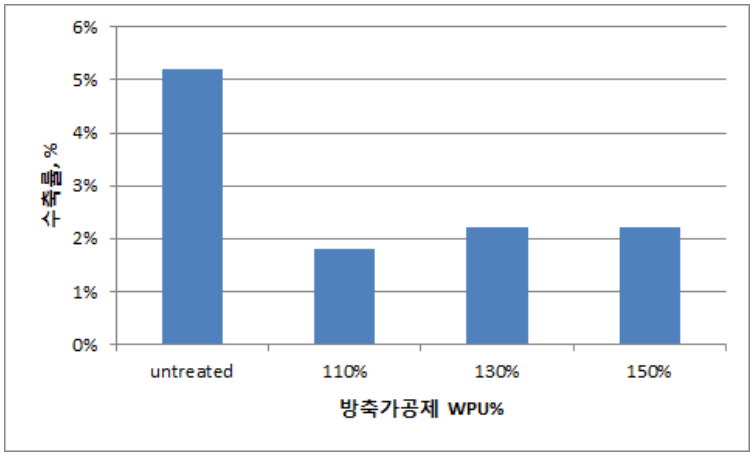


Fig.1. 양모A Felting에 의한 치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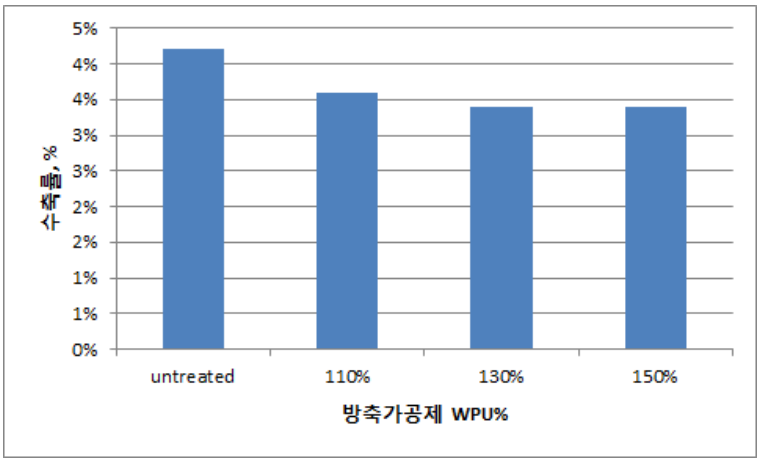


Fig.2. 양모B Felting에 의한 치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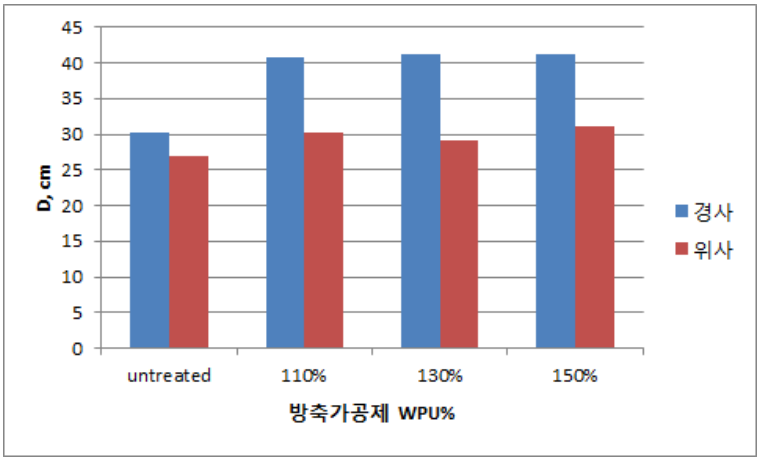


FIG.3. 양모A Felting에 의한 강연도 (D : 밀려나간 시험편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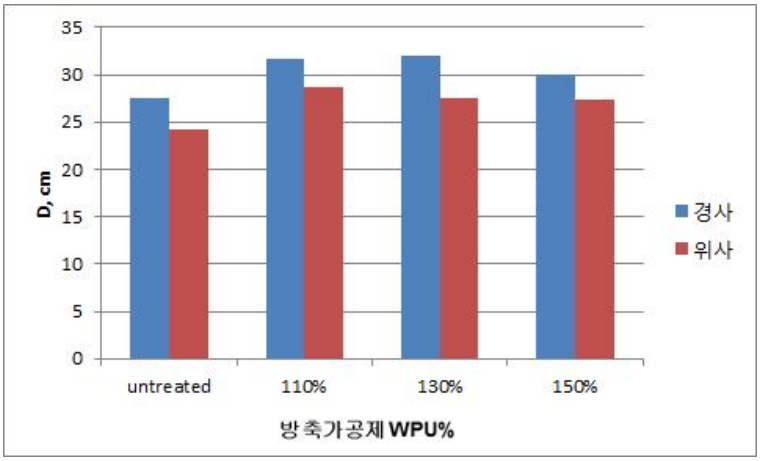


FIG.4. 양모B Felting에 의한 강연도(D : 밀려나간 시험편의 길이)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는 방축 가공제를 선정하여 그 가공제의 적용양을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방축가공과 축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모직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패션소재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축융에 의해 초래되는 양모의 부피감 변화, 표면의 랜덤한 섬유의 이동, 수축 및 부피감 증가로 인한 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방축가공에 의해서는 수축률의 억제, 섬유의 배열상태 유지, 실 사이의 공극 유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공을 양모직물에 수행함으로써 수축된 부분과 수축되지 않은 부분의 경위사 밀도 차이, 표면부출 섬유의 비율차이, 부위별 부피감의 차이 등에서 표현할 수 있는 직물의 비침효과 차이, 그리고 표면의 거칠기나 촉감의 차이, 온냉감의 차이 등 다양한 차별화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직물을 개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정지우(1994),“수지처리한 양모직물의 방축성, 염색성 및 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pp. 12-18.

2) http://www.dyenet.co.kr/GongBan4/chap5-2-1.htm

타닌가공 처리후의 나일론6와 견직물의 물성변화
- 태변화를 중심으로 -

여수진* · 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서론

타닌산(tannic acid)은 황백색의 무정형의 가루, 광택이 있는 비늘 모양 또는 해면상 물질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를 가지며 떫은 맛이 있다. 물, 아세톤, 에탄올 등에 녹고 벤젠, 클로로폼, 에테르 등에는 녹지 않는다. 특히 타닌산 1g은 따뜻한 글리세린 1ml에 녹는다. 타닌산은 화학적으로 산은 아니며, 관용명으로 타닌이라고 하는데, 농축된 타닌과 다른 타닌으로부터 상업적으로 구별된다. 1일 허용섭취량(ADI)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주로 청주 등에 청정제로 사용된다. 저장 시 빛을 차단하는 밀폐용기에 보존한다.

타닌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칠기를 만들 때에 칠(옻칠)을 바르기 전에 그 바탕에 칠하는 도료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방수 및 방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도료로 이용됐다. 『건축대사전』에는 『감 탄닌을 칠하여 마무리하는 것은 함유 타닌산에 의한 방부효과이다. 주로 목조 외벽에 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설 건축용어 사전』에는『생 타닌에는 수분이 80%, 휘발산과 타닌이 5%함유되어 도포하면 휘발산이나 수분은 증발 및 휘발하여 적갈색의 피막이 생겨 물이나 알콜을 막아준다』라 하여 방수 및 방부효과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 논문은 타닌가공이 나일론6와 견직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시료 및 시약:

실크는 견 100%의 하부다이 직물이고, 나일론6는 나일론 100%의 직물을 사용하였다. 타닌은 실험용 tannic acid ($C_{76}H_{52}O_{46}$)를 물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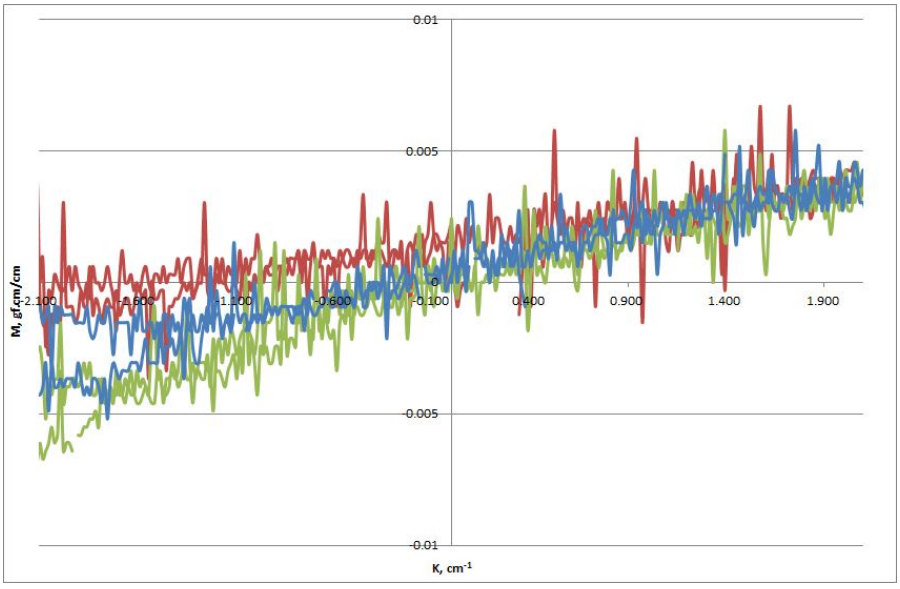
액비를 200:1로 물을 채운 후 OH를 이용하여 산도를 pH3~4로 맞췄다. 타닌산 농도는 o.m.f 60%, 80%, 100%로 하여 각각의 용기에 85℃로 맞춘 후 타닌산을 넣어 물에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jun Tel. +82-2-3277-3102, Fax. +82-2-3277-3079
E-mail : jjkim@ewh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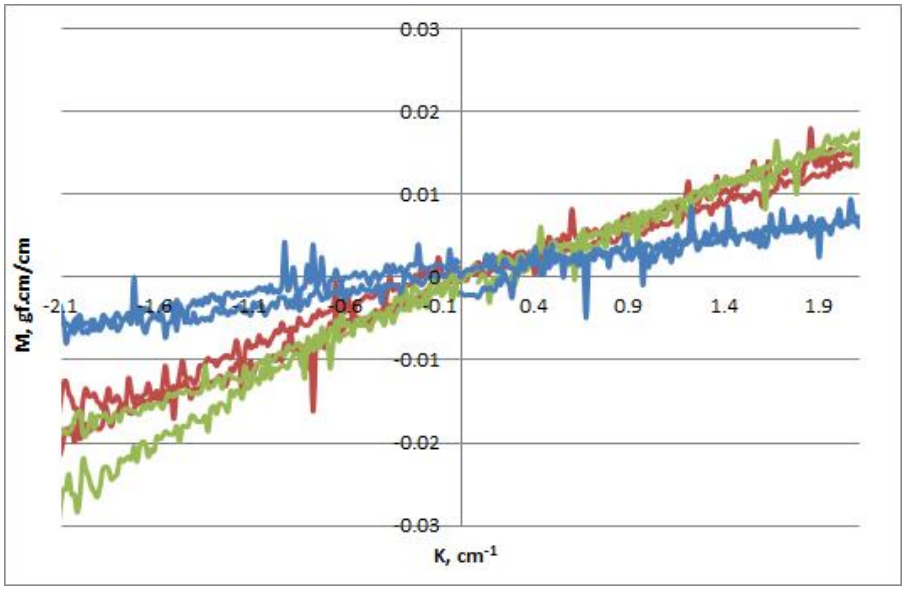
완전히 용해시킨 후 시료를 넣어 40분 동안 처리한다. 처리 후 물에 세척 후 건조시켜 다리미질로 마무리한다.

가공한 시료들은 중량, 수축률, 두께, 강경도, 굽힘시험기, 압축시험기, 드레이프성, 인장시험, sheet test, KES분석의뢰를 측정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Silk, bending test



<Fig. 2> Nylon6, bending test

4. 결론

타닌가공 처리 결과 타닌의 농도에 따른 일정한 방향성을 보였다. 타닌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직물의 굽힘정도, 강연도의 수치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빳빳한 촉감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타닌가공을 통해서 직물에 독특한 질감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S.M.Burkinshaw, B. Bahojb-Allafan(2003), The development of a metal-free, tannic acid-based aftertreatment for nylon6, 6 dyed with acid dyes/ part1: initial studies. Dyes and Pigments.

L.K.El-Gabry and M.M.El-Zawahry (2008), Effect of Tannic Acid on the Dyeing Process of Nylon 6 Fabric with Cationic Dye. R.JTA.

신나무, 오리나무 및 자초를 이용한 면직물의 천연염색

김 상 률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서론

컬러는 인체 오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컬러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컬러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 의복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감성을 자극한다. 또한 시대와 국가, 민족, 성별, 나이, 개인의 성격, 직업 등에 따라 컬러에 대한 연상과 개념은 차이가 있으며 선호하는 컬러도 다양하다.

그 어느 색 보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어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폭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는 블랙(Black) 패션소재직물은 천연염색분야에서는 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오배자, 빈랑, 숯 및 먹물 등을 사용하여 염색하여 왔으며 다양한 트렌드 속에서도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채로 계절과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사랑받는 가장 현대적인 색인 블랙 컬러(Black color)를 발현시킬수 있는 염재와 염색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나무 오리나무 및 자초 추출색소를 활용하여 면직물에 염색하여 이러한 염재들에 의하여 발현되는 색상을 고찰하여 블랙색상발현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시료 및 실험방법

시료 및 시약: 시중 시판 면직물을 정련하여 시료로 사용하여으며 , 신나무 및 오리나무 열매는 직접 채취하였으며 자초는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매염제인 Fe매염제($FeSO_4 \cdot 7H_2O$) 및 기타 시약 등은 1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염료의 제조: 신나무 잎 300g을 증류수 6L에 첨가한 다음 100℃에서 30분 동안 2번 추출하였으며, 오리나무 열매 200g을 증류수 5L에서 100℃에서 30분 동안 2번 추출하여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초 600g에 9L의 메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이를 염료로 사용하였다.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신나무 및 오리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염색은 추출액 2L에서

Corresponding author : Kim Sangyool Tel.+82-61-450-2533 Fax.+82-61-450-2539
E-mail: sykim@mokpo.ac.kr

염색온도 60℃, 염색시간 20분에서 염색하고, Fe 매염제 0.5, 1.0, 1.5g/2L로 하여 40℃에서 15분 후매염하였다. 자초염색은 자초 추출색소 500, 1000, 1500ml를 증류수 1500, 1000, 500ml에 첨가한 다음 염색온도 40℃, 염색시간 20분에서 염색하고, Fe 매염제 0.5, 1.0, 1.5g/L로 하여 40℃에서 15분 후매염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Color change of cotton fabrics dyed with gromwell extract and then post-mordanted with Fe

			L^*	a^*	b^*	△E	H	V/C
Untreated			95.21	-0.27	4.08		0.00	9.42/0.00
Gromwell concentration (㎖)	Mordant concenteation (g/2L)	Repition						
1500/500	2.0	D1	65.89	12.10	0.58	32.07	6.63R	6.42/2.19
		M1	63.03	2.25	0.52	34.38	3.11GY	5.97/0.42
		D2	43.18	2.07	-6.83	54.67	1.55PB	4.05/0.86
		M2	42.65	1.80	-5.99	55.79	0.25PB	3.95/0.72
		D3	33.56	2.26	-8.10	63.89	3.51PB	3.18/1.10
		M3	33.66	1.92	-7.61	63.34	2.54PB	3.28/1.02
		D4	29.74	2.73	-8.62	70.19	4.93PB	2.57/1.21
		M4	29.56	2.39	-7.80	69.22	4.23PB	2.67/1.06
	4.0	D1	65.89	12.10	0.58	32.07	6.63R	6.42/2.19
		M1	61.42	1.21	0.39	27.53	4.50GY	6.64/0.68
		D2	41.76	1.68	-7.05	53.52	1.09PB	4.19/0.94
		M2	40.75	1.35	-6.16	53.79	9.29B	4.14/0.73
		D3	32.61	2.03	-8.26	63.00	2.93PB	3.27/1.14
		M3	33.07	1.78	-7.83	62.82	2.22PB	3.18/1.08
		D4	26.33	2.58	-8.70	66.81	3.65PB	2.90/1.26
		M4	27.32	2.06	-8.21	66.83	3.28PB	2.88/1.18
	6.0	D1	65.89	12.10	0.58	32.07	6.63R	6.42/2.19
		M1	60.27	1.02	-1.30	35.23	4.55GY	5.86/0.73
		D2	39.48	1.49	-8.05	56.93	0.29PB	3.83/1.15
		M2	40.47	1.25	-6.93	55.48	7.82B	3.93/0.92
		D3	31.63	1.98	-8.37	64.88	2.97PB	3.08/1.17
		M3	33.01	1.69	-7.91	63.43	2.02PB	3.21/1.09
		D4	24.27	2.21	-8.85	72.23	4.71PB	2.37/1.33
		M4	27.23	1.93	-8.32	69.09	3.20PB	2.66/1.20

D: Dyeing, M: Mordanting

Table 1은 면직물에 자초추출액 1500ml를 증류수 500ml에 첨가한 다음 40℃에서 20분 염색하고 철매염제 Fe 2.0, 4.0, 6.0g을 증류수 2000ml에 첨가하여 40℃, 15분

후매염했을 때 염색과 매염 반복에 따른 표면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염색 및 매염이 반복될수록 명도(L)는 저하하며 색상이 어두워짐을 알 수 있었으며, 염색 및 매염이 반복될수록 일반적으로 녹색 및 청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색차는 매염제의 농도의 증가. 염색과 매염의 반복에 의해 증가하였으며 색상은 R, GY, PB 계열의 색상을 나타내었으며 PB 계열이 주된 색상이었다.

<Table 2> Color change of cotton fabrics dyed with Alnus japonica extract and then post-mordanted with Fe

			L*	a*	b*	△E	H	V/C
Untreated			95.21	-0.27	4.08		0.00	9.42/0.00
Alnus japonica concentration (㎖)	Mordant concenteation (g/2L)	Repition						
2000	2.0	D1	84.82	2.26	18.56	18.05	4.47Y	8.36/3.09
		M1	63.41	-0.06	0.77	32.05	6.39GY	6.17/0.84
		D2	58.70	0.41	2.98	36.61	2.38GY	5.70/0.99
		M2	49.85	0.04	-0.52	45.67	8.04GY	4.83/0.67
		D3	48.35	0.02	1.84	46.99	4.17GY	4.69/0.90
		M3	38.77	0.11	-0.55	56.70	7.79GY	3.77/0.56
		D4	46.00	0.36	2.65	49.31	1.83GY	4.46/0.86
		M4	37.23	0.02	-0.85	58.26	9.24GY	3.62/0.55
	4.0	D1	84.82	2.26	18.56	18.05	4.47Y	8.36/3.09
		M1	54.22	-0.18	-0.65	44.90	8.93GY	5.26/0.70
		D2	54.57	0.03	2.74	41.71	3.20GY	5.29/0.99
		M2	44.47	0.07	-1.15	52.91	0.41G	4.31/0.59
		D3	43.73	0.13	1.75	51.61	3.58GY	4.24/0.80
		M3	36.39	0.02	-1.21	59.13	0.67G	3.54/0.53
		D4	40.31	0.18	-1.39	55.08	0.87G	3.91/0.68
		M4	33.49	0.14	-1.31	62.03	0.86G	3.26/0.48
	6.0	D1	84.82	2.26	18.56	18.05	4.47Y	8.36/3.09
		M1	50.63	-0.27	-0.23	41.29	8.13GY	4.91/0.75
		D2	53.59	-0.04	1.97	40.77	4.63GY	5.20/0.92
		M2	42.64	0.11	-1.88	51.16	2.30G	4.14/0.59
		D3	43.59	0.21	-0.09	51.87	6.53GY	4.23/0.62
		M3	35.90	-0.12	-3.47	59.86	4.94BG	3.49/0.54
		D4	36.97	0.07	0.76	58.57	5.35GY	3.59/0.50
		M4	30.33	0.29	-2.83	65.32	3.43BG	2.96/0.45

D: Dyeing, M: Mordanting

Table 2는 오리나무추출액 2000ml를 이용하여 면직물에 40℃에서 20분 염색하고 철 매염제 Fe 2.0, 4.0, 6.0g을 증류수 2000ml에 첨가하여 40℃, 15분 후매염 했을 때 면직물의 염색과 매염 반복에 따른 표면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염색 및 매염이 반복될수록 명도(L)는 저하하며 색상이 어두워짐을 알 수 있었다. 매염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염색 및 매염이 반복될수록 적색 및 청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색차는 매염제 농도의 증가. 염색과 매염의 반복에 의해 증가하였다.

채도는 염색과 매염의 반복에 의해 저하하였으며 대부분 1 이하의 채도를 나타내었다.

색상은 Y, GY, G, BG 계열로 주로 GY 계열의 색상을 보였다.

4. 결론

신나무, 오리나무열매 및 자초 색소추출물을 이용하여 면직물에 염색하였을 때 추출색소의 농도 , 매염제 농도에 따른 표면색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염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염색 및 매염이 반복 될수록 명도(L)는 저하하며 색상이 어두워 졌으며 일반적으로 매염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욱 명도는 저하되었다. 또한 염색 및 매염이 반복될수록 신나무 및 오리나무 열매의 경우에는 적색 및 청색을 띄는 경향이, 자초의 경우에는 녹색 및 청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색차는 증가하여 염색성이 향상됨을 알았으며 채도는 추출색소농도 및 매염제 농도가 증가 할수록 1이하로서 블랙색상 발현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Mi Ran Han and Geong Sook Lee (2009). Fabric Dyeing with Myrobalan(Terminalia chebula Retz.), J. Kor. Soc. Ind., 11(6), 953-960.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2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No. C0023513) 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디지털클로딩을 활용한 조형성 입체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Iris van herpend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레아* · 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연구목적

패션은 세계적인 정보의 전달속도 변화와 함께 빠르게 바뀌고 있다. 매스컴, 인터넷 매체, 혹은 SNS를 통해 국내외의 최신 트렌드까지 단시간에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경제적 환경과 함께 새롭고 독창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작품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로써 조형성을 강조한 입체표현기법이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입체적 표현기법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희귀성을 가지며 기성제품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집약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공예적 과정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영감과 혁신을 찾는데 있어서 새로운 소재와 표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소재의 활용은 표현수단과 영역을 풍부하게 해줌으로써 디자인의 폭을 한층 더 넓혀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형성을 강조한 입체적 표현기법과 그 독특한 소재의 활용은 기존의 평면적 표현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새로운 감성적 패션을 창출한다.

현대패션산업은 디지털 기법을 폭넓게 채용해 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의상 제작과정에 비해 제작시간이 단축되고 좀 더 폭넓은 디자인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고부가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은 3D 어패럴 CAD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의 가상공간에서 가상의복을 재현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디지털 클로딩이라고 한다. 디지털 클로딩은 의상제작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상의복을 통해 전체 디자인을 미리 예측, 수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클로딩을 활용한 조형적 입체표현기법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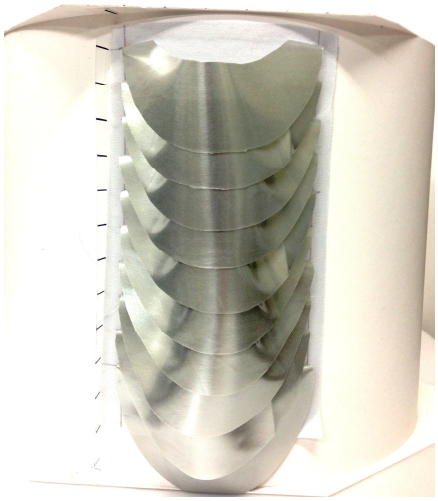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및 내용

1) Iris van herpen의 실물 입체표현기법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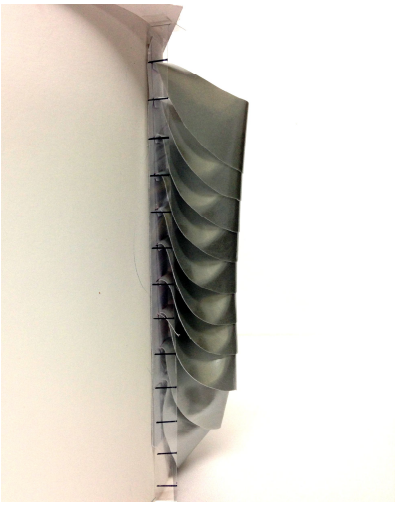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 디자이너인 Iris van herpen의 작품중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Jun Tel. +82-2-3277-3102, Fax. +82-2-3277-3079
E-mail : jjkim@ewha.ac.kr

한 가지를 선정하여 그 표현기법을 실제로 재현해보고자 하였다. 입체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개발한 패턴 10개를 2cm간격으로 연결하였고, 시료별로 완성된 패턴을 반지름 15cm의 원통형을 만들어 붙였다.<그림1>,<그림2>



<그림 1> 입체표현기법의 실물 정면



<그림 2> 입체표현기법의 실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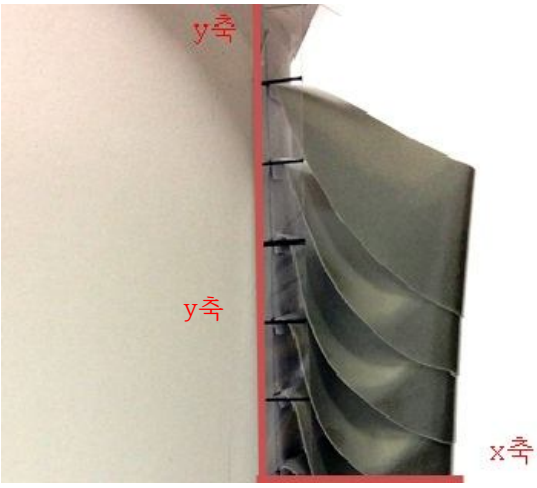
2) 시료의 선정

Iris van herpen의 작품에 나타난 소재와 가장 비슷한 필름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비교할 다양한 패션 소재로서 오갠저, 데님, 망사, 광목, 에나멜, 포일지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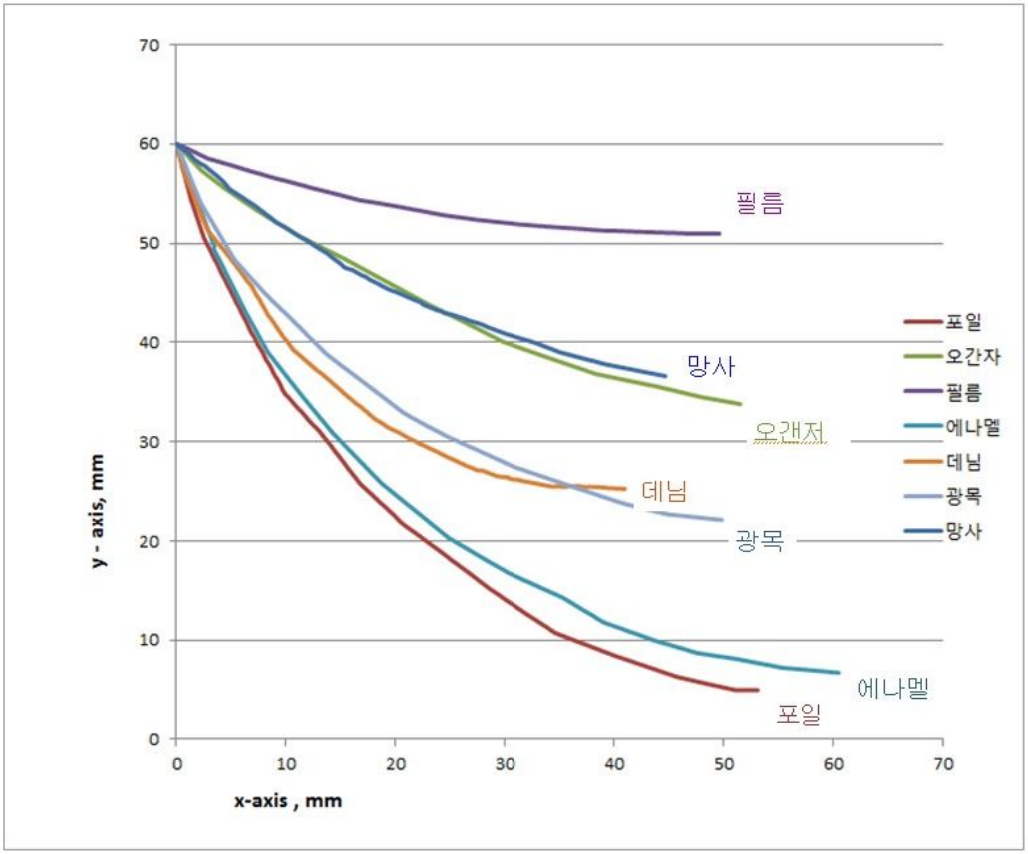
3) 실험방법

조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입체적 기법을 기반으로 패션소재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외관을 비교하였으며,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 3D 스캐닝 기법을 활용하여 소재의 표현형상을 분석하였다. 3차원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입체좌표로 된 파일(OBJ 포맷)을 Rhino3D로 좌표값을 산출하였다. 이 좌표로부터 외관의 형태를 정밀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3> x,y축에 대한 부가설명을 위한 입체표현기법을 위한 실물사진



<그림 4> 패션소재를 사용한 입체적 형상의 3차원 좌표 (x,y)

조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입체적 기법을 기반으로 패션소재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필름지, 오갠저, 데님, 망사, 광목, 에나멜, 포일지를 각 소재모두 입체적인 표현이 되도록 원기둥에 재단된 소재를 일정한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6개 소재 모두 같은 조건인, 반지름 15cm의 원통형을 만들어 그 위에 부착하여 외관을 비교하였으며,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 3D 스캐닝 기법을 활용하여 소재의 표현형상을 분석하였다. 3차원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입체좌표로 된 파일(OBJ 포맷)을 Rhino3D로 좌표값을 산출하였다. <그림3>은 x축과 y축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x축, y축의 스케일을 표시한 것하였다.

좌표값을 산출 한 결과 <그림4>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다. 필름소재가 수평에 가장 가까운 평평한 형태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소재의 단위면적 당 중량이 가볍고 빳빳한 오갠저와 망사가 입체적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중량이 크며 빳빳한 광목과 데님이 그 다음 순서로 형태를 유지하였다. 에나멜과 포일 소재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며 밑으로 처지는 형태를 보였다. 이로부터 원하는 입체적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적의 소재특성을 선정하기 위한 분석결과의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조형적인 형상을 구성하기 위해 필름, 오갠저, 데님, 광목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물리적 성질을 비교하고, 각 소재로 입체적 형상을 구성하였다. 이 형상을 3차원 스캐닝 기법에 의거하여 정밀한 입체좌표로 재구성하고 소재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본 물성데이터를 기초로 가상적인 디지털 클로딩을 제작하여 비교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김지영(2003), “표면장식에 의한 의상디자인 연구 -봉제기법에 의한 입체적 표면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영선(2012), “스타일 형성에 관한 연구 -Iris vab herpen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6(2), pp 124-137

김민지(2010), “구성주의의 조형성을 반영한 패션 디자인의 연구 - 기하학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영민(2013), “루프형 입체적 장식요소의 소재 물성 및 입체복원 효과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친환경 Lyocell 섬유를 이용한 침장제품에 대한 연구

안 영 무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1. 연구목적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생활 전반에 well-being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은 세계적으로 불황이지만 향후 경제가 호전된다면 의류용 보다는 점점 인테리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리어 제품 중 침장제품을 환경 친화적이고 고기능 섬유로 만든다면 커튼, 시트, 시트커버, 매트류로 그 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친환경적이고 고기능적인 침장용 섬유로 lyocell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lyocell이란 처음으로 Lyocell을 생산한 Courtaulds사에서 solvent spun cellulose에 대한 별개의 속명을 섬유 표준 용어를 제정하고 공인하는 기구인 BISFA에 정식 이름으로 요청하여 1989년에 공인된 명칭이다. lyocell 섬유 제조 공정은 기존의 비스코스 제조 공정에 비해 비교적 공정 단계 수가 적어 간단한 편이다. 셀룰로오스 섬유가 NMMO의 셀룰로오스 용액으로부터 직접 얻어지기 때문에, 종래의 레이온 섬유의 경우에서와 같이 알칼리반응과 잔테이션반응과 같은 유도체화 과정이 필요 없다. 공정 약품이 거의 필요치 않고, 아주 이론적인 경우 NMMO와 물이 100% 순환 · 재생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실제로 상업 생산 규모에서 NMMO 회수율은 99% 이상이다. lyocell 섬유는 샴푸의 구성물질인 인체에 해가 없는 아민 옥사이드라고 하는 용제에 녹여서 방사하고 동시에 용제를 회수함으로 유해한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이나 레이온 생산에 비교해 lyocell 공정은 환경오염을 거의 시키지 않으므로 “에콜로지 섬유”로 불린다.

lyocell 섬유는 레이온 섬유에 비하여 강도가 훨씬 강하여 거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정도다. 세탁 후의 수축률도 비스코스 레이온의 6%에 비하여 그 반도 안 되는 0~2%가 된다. 레이온 섬유제품이 젖었을 때 아주 약해지는 것이 결점이 되어 있으나 lyocell 섬유는 젖었을 때나 건조해 있을 때의 강도에 별 변화가 없다. 또한 흡습성과 치수 안정성도 면보다도 좋으며 드레이프성도 좋다. 그리고 lyocell은 실크의 정교함, 폴리에스테르의 내구성, 아크릴 섬유의 내세탁성, 린넨의 시원함과 쾌적함, 울의 따뜻함, 면보다 더 뛰어난 흡수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Lyocell은 새로운 패션 의류소재

Corresponding author : Ahn, Young Moo Tel. +82-2-760-4141 Fax. +82-2-760-4489
E-mail : ahnyoungmoo@hanmail.net

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신 천연섬유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새로운 소재이다.
연구에 따르면 민감한 피부인 실험자 중 85%가 다른 소재보다 lyocell로 만든 옷을 입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ECO상을 수상한 환경 친화적인 생산공정으로 섬유의 순수함과 결부되어 lyocell의 환경 친화성을 뒷받침해 준다. lyocell은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자연 셀룰로오스 섬유인 스포츠 웨어와 레저용 직물에 많이 쓰이고 있다.

lyocell을 침장류로 사용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면에 비해 130%의 수분을 흡수하고 우수한 수분 운반 능력을 가지며, 나노피브릴의 규칙적이고 조절된 구조는 최적의 피부지각 특성을 갖게 함으로 매우 편안하고 쾌적한 취침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Lyocell staple fiber는 Lenzing Lyocell사에서 구매하였고 방적은 금성방적에서 실시하였다.

항균가공 평가는 정량시험방법인 KS K 0693-2001 및 JIS L 1902-2002에 따랐다. 시험편의 크기는 지름이 4.8cm인 원형으로 하고 대조편도 시험편과 같은 크기로 만들었다.시험편과 대조편을 공시균으로 접종시키고 10일 동안 배양시킨 후 일정량의 액체 속에 진탕시켜 배양된 세균을 추출시켰다. 그리고 이 액체 속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측정되면 항균성이 있는 시험편에서의 세균 감소율이 개산하였다. 이것은 직물의 항균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준 것이다. 세균의 감소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개산하였다.

$$\text{감소율 \%} = \frac{\text{B 또는 C 또는 } \frac{B+C}{2}}{\text{B 또는 C 또는 } \frac{B+C}{2}} \times 100$$

여기에서 A: 접종 후 일정 접촉시간을 통하여 배양된 시험편으로부터 재생된 세균수
B: 접종 후 접촉시간 “0”(접촉 후 즉시)의 시험편으로부터 재생된 세균수
C: 접종 후 접촉시간 “0”의 대조편으로부터 재생된 세균수

순수 항균성 물질의 독성 시험은 GLP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내 안전성연구소에서 OECD Guideline에 따라 실행하였다.

CE-700A-XA 1725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reflectance type으로 광원은 D65이고 관찰각도는 10°에서 색가측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항균가공제의 항균력 시험결과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25922), 황색포도상구균(Staphilococcus aureus ATCC 6538P),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532)

및 살모넬라균(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에 대해서 30, 60, 120분 동안 배양한 결과, 모두 99.9%의 살균력을 나타내어 상기 시험균주에 대해 공히 본원의 SF기준(균감소율 90%이상)에 적합하였다.

lyocell 30/2, 40/2, 60/2 및 60/1에 대한 방적사의 신도 변화는 제직 시에는 신도가 떨어지나 염가공 후에는 신도가 방적사보다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는 lyocell이 갖고 있는 자연발생 신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공 후에 신도의 증가는 모우와 필링 발생의 원인이 됨으로 이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lyocell의 원사는 원사/제직사/염색사의 수축율 변화를 평가한 결과 원사에서는 약간의 수축율이 발생하나 제직 시에는 수축율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현상을 보임. 특히 60/1의 원사는 기존 30/2나 60/2 보다는 수축율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40/2의 원사는 거의 동일하게 수축율을 유지한다. 수축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이유는 방적사의 방적조건이 모우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과다한 꼬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축율이 축소되 것으로 생각된다.

lyocell 30/2, 40/2, 60/2, 60/1의 원사/제직사/염색사의 함수율은 거의 큰 변화 없이 물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사에서의 함수율이 제직사나 염색사의 함수율 보다 치수가 높기 때문에 수분함량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yocell에 대한 제직 후의 필링 현상은 직물 표면을 촬영한 결과 30/2와 40/2는 필링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60/2와 60/1은 필링 현상이 발생되었다. 필링 등급이 2~3급으로 현저히 나쁘게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최종 직물에 필링이 발생되는 것을 샤링을 해주었다.

lyocell에 대한 염색 후의 필링성을 확인하고자 직물 표면을 촬영한 결과 lyocell이 전반적으로 필링성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를 FITI 검사원에 의뢰한 결과 필링 등급수가 2~3급으로 저조하게 발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후 공정인 샤링을 해주었다.

lyocell 30/2에 대한 정련제 1g/l, 2g/l, 3g/l, 4g/l에 대한 필링성을 평가를 한 결과 정련제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필링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정련제를 3~4g/l 정도 처리할 때 직물표면에 필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정련제 농도가 1~2g/l으로 소량으로 투입하면 필링 발생이 없었다.

lyocell 40/2에 대해서 정련제 농도를 1g/l, 2g/l, 3g/l, 4g/l로 변화시켜 처리하였을 때 직물 표면에 필링발생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필링성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정련제 4g/l 이상이 되면 직물 표면에 미세한 모우 및 필링이 발생됨으로 정련제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인자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즉 정련제에 의한 원단의 필링발생 원인규명은 직물설계에 의한 직물밀도, 조직에 의한 결정도 상당히 중요하나 필링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기술은 정련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lyocell 60/2에 대한 정련제 1g/l, 2g/l, 3g/l, 4g/l에 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직물표

면에 필링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방적사가 세 방적사로 갈수록 필링현상이 증대되며 특히 lyocell에 강력 및 신도가 낮기 때문에 세 방적사로 방적하면 필링이 더 잘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련제에 대한 필링성 유무는 세 데니어에서는 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lyocell 60/1에 대한 정련제 1g/l, 2g/l, 3g/l, 4g/l에 대한 필링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모든 직물 표면에 모우 발생이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정련제에 대한 필링, 모우현상은 정련제 조건에 따른 차이에 별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lyocell 30/2에 대한 직물단면 사진을 분석한 결과이다. 방적사의 구조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포합력에서 약간의 집결현상이 부족하여 벌키성을 지니기 때문에 드레이프성은 미흡하였다. 전반적으로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의 단면 형성은 양호하게 발생되었으며, 직조 구조상 직물의 설계 및 조직에 대한 변화는 별 차이가 없었다. 단 촉감은 약간 미흡하고, 드레이프성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yocell 40/2에 대한 직물단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방적사의 구조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포합력에서 약간의 집결현상이 부족하여 벌키성을 지니기 때문에 드레이프성은 미흡하였다. 전반적으로 방적사로 제직한 직물의 단면 형성은 양호하게 발생되었으며, 직조 구조상 직물의 설계 및 조직에 대한 변화는 별 차이가 없었다. 단 촉감은 약간 미흡하고, 드레이프성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yocell 60/2에 대한 직물단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방적사의 구조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량하고, 포합력에서 약간의 집결현상이 부족하여 벌키성을 지니기 때문에 드레이프성은 미흡하였다. 세 방적사로 방적하면 촉감은 우수하게 발생되나 직물의 드레이프성은 불량함을 발견하였다. 방적사의 드레이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꼬임수를 약간 부여함으로써 드레이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꼬임수는 400TPM에서 2배를 증대한 800~900TPM을 부여하였다.

lyocell 60/1에 대한 직물단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방적사의 구조상태는 전반적으로 불량하고, 포합력에서 약간의 집결현상이 부족하여 벌키성을 지니기 때문에 드레이프성은 미흡하였다. 세 방적사로 방적하면 촉감은 우수하게 발생되나 직물의 드레이프성은 불량함을 발견하였다. 방적사의 드레이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꼬임수를 약간 부여함으로써 드레이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꼬임수는 400 TPM에서 2배를 증대한 800~900 TPM을 부여하였다.

lyocell 30/2의 사 단면은 균일도가 양호하였고 lyocell 40/2은 사 단면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불균일성을 나타내었다. lyocell 60/2은 사 단면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불균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lyocell 60/1은 사 단면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 단면이 균일할수록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력이 좋고 Fig. 7-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링의 발생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사 단면에 대한 나타낸 현상은 40/2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60/2이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60/1에 대한 직물단면 결과는 만족하였다. lyocell 40/2이 사 측면을 측정한 결과 가장 양호하였으며, 60/1, 60/2, 30/2 순으로 원사의 방적사의 가닥수가 사절되는 현상으로 나타내었다. 이로 인한 필링성과 제직성에서는 40/2과 60/1이 단연 우수한 제직성과 물성을 지니게 되었다. lyocell 직물의 색가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색가 측정은 염색을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하여 30/2, 40/2, 60/2, 60/1의 색가 측정을 하였다. lyocell 40/2의 L*치가 12.5로서 가장 우수한 색상을 발현하였고, lyocell 60/1는 12.8로서 우수한 색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lyocell 30/2과 lyocell 60/2은 13 및 14로 색상 발현이 좀 떨어졌다.

■ 참고문헌

김종열(2000),“Lyocell 섬유를 함유한 종이의 제조 및 적용에 관한 연구(1)”, 한국연초학회지, 22(1), p99-106

방윤혁(2000),“Lyocell 섬유의 피브릴화와 팽윤 거동”, 한국섬유공학회지, 37(5), 37(12), pp681-688

방윤혁(2000),“Lyocell 섬유의 피브릴 제어와 비세구조(1)”, 한국섬유공학회지, 37(12), pp673-680

정영진(2001),“팽윤도가 Lyocell 직물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1) -실과 직물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섬유공학회지, 38(5), pp244-249

정영진(2001),“팽윤도가 Lyocell 직물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2) -직물의 역학적 성질을 중심으로-”, 한국섬유공학회지, 38(6), pp296-301

오영세(2002),“Lyocell 섬유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섬유공학회지, 6(1), pp1-16

김인영(2001),“리오셀 직물의 심지접착에 따른 외관적 성능 및 역학적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5(7), pp1193-1202

21세기 보브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 여자 연예인 중심으로 -

박 애 란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Ⅰ. 연구의 목적

인간이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현대사회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외모를 이용해 자신을 표현 하는 시대로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초반에 나타난 루키즘(Lookism) 현상을 배경으로 나타난 보브 헤어스타일 조형성의 특성을 여자 연예인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첫째,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 및 사진 자료를 통한 실증 연구로 진행된다.

둘째, 뷰티 및 패션 트렌드, 문화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중심으로 21세기 사회적·문화적 배경으로 나타난 루키즘의 개념과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잡지와 헤어전문잡지를 근거로 헤어스타일 동향을 접목하여 여자 연예인 헤어스타일의 특성을 내용 분석하였다.

Ⅲ. 루키즘을 배경으로 한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 특성

1. 21세기의 루키즘의 개념과 영향

루키즘(Lookism)는 뉴욕 타임스의 칼럼리스트 윌리엄 사파이어(William Safire) 가 The New York Times 2000년 8월 27일자 에 인종, 성, 연령, 계급 등에 따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외모에 따른 차별, 외모주의를 일으키면서 그의 칼럼 '온 랭귀지(On Language)'에서 주장한 말이다.

1999년도 Oxford 20세기 단어사전(20th Century Words)에서 루키즘을 "외모"에 근거한 편견이나 차별로 정의하며, 1978년 Washington Post Magazine은 비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Lookism이라는 조어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 고대에서도 외모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개인적 아름다움(Personal Beauty)이 그 어떤 증명서보다 위대한 추천"(G. L. Patzer, 2008, 9)이라고 서술하였고,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도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신체적 외양을 우선적으로 중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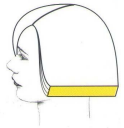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현상은 2차 세계대전이후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급성장한 경제의 소비문화,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의 요인으로 외모관리의

요구와 기대를 증대시켰으며 급속하게 발전한 여유로움이 표면적 미적가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다. 이를 같이하여 시각문화의 발전과 루키즘의 출현으로 의료기술 및 미용 산업의 많은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외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중요한 도구로서의 뿐만 아니라 패션의 일부로 시대적·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시대에 부합하는 스타일이 유행한다. 또한 유행의 선도자는 특정한 사회적 역할의 적절한 가치·태도·행동들이 기준이 되며 이들은 스타일이 패션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초반에 나타난 여자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을 형태별로 정리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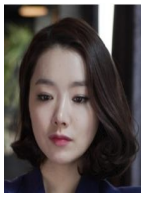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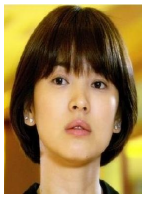
2. 21세기 나타난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의 특성

보브(Bob) 헤어스타일은 '자른다(Cut)'의 별칭으로서 지금의 단발과 쇼트(Short)를 총칭하는 의미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한국에서도 1930년경 모던 걸(Modern Girl)의 스타일로 등장하였다. 이후 영국의 헤어 드레서인 비달 사순(Vidal Sassoon, 영국, 1928.1. 17-2012. 5. 9)이 1960년대의 정확하고 조각적인 스타일인 A라인 형태의 층이 있는 보브 스타일 커트를 시작으로 여성들이 헤어를 가꾸는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개혁을 일으켰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단순함과 기능성을 중시한 단발의 의미인 보브 헤어스타일은 사회전반적인 기능적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과거 롱 헤어의 과대한 헤어스타일 장식에서 벗어나 짧게 자른 머리형이 단순하고 기능적인 아름다움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 표출 방식의 한 방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 것과 같이 하여 오늘날 21세기 루키즘 현상에 나타난 여성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은 패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단순한 맹목적인 외모 지상이 아닌 감성과 개성을 돋보이는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나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헤어스타일은 특히 여자 연예인에 있어서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에 중요한 역할과 모방 심리 및 동조 심리를 자극하여 유행으로 전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초반 보브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조형성을 여자 연예인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여자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의 형태

	수평 보브 (직선 형)	이사도라 보브 (후대각 형)	스파이엘 보브 (전대각 형)
유형			

<표 2> 21세기 초반 여자 연예인에 나타난 보브 헤어스타일 특성

형태	보브 헤어스타일 연출					
수평보브						
						
이사도라보브						
						
스파이엘보브						
						

이상과 같이 21세기 초반 보브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조형성을 연예인 중심으로 총 36점을 살펴본 결과 여자 연예인의 보브 헤어스타일은 크게 수평 보브, 이사도라 보브, 스파이엘 보브 형태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표 2>. 특히 이러한 여자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은 헤어 길이, 디자인 라인, 볼륨을 넣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 연출 및 응용 가능할 수 있는 스타일로 드라마·영화·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 보브 헤어스타일의 정형화된 형태를 탈피하여 직선으로 뭉툭하게 떨어지는 블런트(Blut) 커트 스타일의 무게감을 모발의 하나하나 움직임을 살린 원 랭스 형(One Length Form), 그래쥬에이드 형(Graduated Form), 레이어드 형(Layered Form)을 단독 또는 혼합한스타일로 나타났다. 또한 헤어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질감(Texture)처리를 가볍게 표현한 레이어드(Layered)와 모발의 안쪽과 바깥쪽을 교대로 다르게 커트해주는 디스커넥션(Disconnection) 및 헤어 컬러를 하이라이팅(High Lighting)하여 연출하는 콤비네이션 스타일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테크닉 가미는 보브 헤어스타일은 얼굴형의 장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 스타일링 기구를 이용해 릿지(Ridge)를 안으로 들어가는 C컬과 바깥쪽으로 뻗치는 C컬의 조합으로 전체적으로 보브 헤어스타일은 흐트러진 듯 덜 자연스럽게 정돈된 느낌으로 앞머리의 뱅(Bang) 장식, 옆머리의 프린지(Fringe)를 길게 잘라 주는 쉐기(Shaggy) 스타일, 양 옆머리 길이를 비대칭 되게 한 아시메트리(Asymmetry) 스타일, 지그재그(Zigzag) 스타일 등을 앞머리선이나 옆머리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유형이 많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헤어 길이 선은 뒷목덜미를 덮지 않는 숏(Shot), 어깨선을 넘지 않는 미디움(Medium), 어깨선을 넘어서는 롱(Long)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자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연령 분포대와 디자인 라인의 형태선과, 인위적인 웨이브 테크닉 및 컬러링 뉘앙스에 따라서 트렌드의 감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변신으로 수평 보브는 직선의 시각 효과로 차분하고 단정한 안정된 이미지, 이사도라 보브는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 스파이엘 보브의 이미지는 세련되고 성숙된 이미지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21세기 보브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특성을 여자 연예인 중심으로 총 36작품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1세기 초반에 나타난 여자 연예인의 보브 헤어스타일은 디자인 라인의 유형에 따라 여성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형태로 보브 스타일이 갖는 단순한 절제미와 더불어 다양한 콘셉트로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헤어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문화적 루키즘 현상과 더불어 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헤어스타일의 길이 모량(毛量) 조절로 간편하게 표현 되는 선과 면의 스타일에서 실루엣이 표현되게 질감 중심적인 것과 함께 감성적 표현으로 요구되는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브 헤어스타일 조형성을 여자 연예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양식적·특성적

인 면에서 볼 때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부분의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미지 변신에 맞추어진 헤어스타일이 유행의 트렌드가 되어 단순·기능적이며 스마트한 형태의 유형으로서 패션이나 미용 성형 같은 방법보다 신체적 이미지 변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점과 동시에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 것을 같이하여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외모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또한 토털 패션화 추세에 따라 여자 연예인 보브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이미지를 효과적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방법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개성적 스타일로서의 매력적인 장점이 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여자 연예인들에게 끝임 없이 꾸준한 인기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류은주(2001), HAIR CUT II, 청구문화사. pp.155-165.

전선정·안현경·이귀영·문윤경(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p.160-161.

쉴링(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역), 나남출판, pp,5-20.

엘리너하트리(2003), 포스트모더니즘, 이태호(역), 열화당, pp.55-80.

BEAUTY & HEALTH 연구회(2001), 비달사순 50년사, 현문사, pp.5-15.

김경인(2008), “현대 헤어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34-45.

김민지(2008), “외모가 현대 사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7.

김완석・김해진(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 지각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3), pp.28-35.

박지현(2001), “현대 한국사회의 ‘몸관리’ 유행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

박애란(2012), “한국의 신여성 최승희 패션 스타일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9-12.

신효정(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15.

안진국(2005), “몸과 루키즘(Lookism)의 사회학적 현상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6.

이윤경(2005),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0-20.

이미도(2013), “중국의 패션 리더에 관한 연구 : 1910년부터 2012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15.

엄묘섭(2008), 시각문화 발전과 루키즘, 한국문화와사회학회, (5), p.85.

레이디 경향, 2013년 12월.
레이디 경향, 2014년 2월.
여성동아, 2014년 1월.
그라피 GRAPHY, 2014년 1월.
The New York Times, 8. 27. 2000.
Pivot Point(2002). Sculpture LADIES & MEN , Chicago; Pivot Point. pp.20-65.
Pivot Point(2002), Hair Sculpture, Chicago; Pivot Point. pp.22-29.
The Effects of Customers´ Dress on Sales Person´s Service in Large-Sized Clothing Specialty Stores, Minjeong Kim and Sharron J. Lenn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005; 23; 78
news@tvdaily.co.kr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B0%94%EA%B0%80&acr=1&qdt=0&ie=utf8&query=%EB%B0%94%EA%B0%80%EC%A7%80%EB%A8%B8%EB%A6%AC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7&artid=9608&pt=nv

미용사의 건강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안 현 경
동남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1. 연구목적

미용사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유지, 급증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고객들의 높은 기술 수준 요구, 부절절한 근무환경, 업무량 과중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미용사들은 47.7%가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며, 49.8%가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춘득, 2005).

미용사들의 작업특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장애는 '경력미용사의 신체증후근'이라 특정 지을 만큼 미용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장애는 동질의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다(박소정, 2003).

미용사는 정신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서 팔을 들어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근골격계가 피로해 지기 쉽고, 퍼머약, 염색약 등의 화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피부 및 호흡기의 건강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손해경, 2005),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인해 소화기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만성퇴행성 질환은 의학적 치료만으로 잘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일단 질병이 발생했거나 혹은 절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용사의 건강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문은 2000년 초반부터 연구가 되어 왔으나, 미용사의 건강문제와 이의 해결방안을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은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미용사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건강문제와 이의 해결방안을 여러 문헌을 통해 요인별로 정리하고, 미용사가 건강하게 자신의 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은 미용사의 건강문제와 해결방안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미용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근골격계 문제, 호흡기계 문제, 피부문제, 소화기계 문제,

Corresponding author : An Hyeonkyeong Tel. +82-31-249-6571 Fax. +82-31-249-6570
E-mail : ac1419ts@hanmail.net

정신· 신경계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현재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제된 논문, 의학서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미용사의 건강문제

(1) 근골격계 문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RMDs : Work related muschloskeletal disorders)은 작업과 관련된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한 점진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손상을 받는 근골격계 질환을 통칭하는 것이다(Hales, 1994).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60년 공식적으로 WRMDs를 직업병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전체 직업병 빈도의 62.3%(OSHA, 1997)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6년에 처음으로 66명의 산재 승인 후 2010년 7,803명 등으로 계속해서 WRMDs의 발병이 증가되고 있다(박수경 외, 2000, 윤지성, 2013)

미용사는 근무 특성상 머리 손질 시 손가락 및 손목, 어깨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특히 샴푸 시에는 허리가 지나치게 숙여진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또한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게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오기 쉽다(박수경 등 2000). 윤지성(2013)의 연구에 의하면 미용사의 근골격계 질환 지각증상 호소율이 72.1%에 달한다고 하였고, 이민영(2011)은 58.8%라 하였다. 박소정(2003)의 연구에 의하면 근골격계 자각증상에서는 2점 만점 중 어깨통증(1.512), 다리통증(1.375), 팔의 통증(1.102)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2) 호흡기계 문제

이민영(2011)의 연구에 의하면 실내오염물질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용인들은 모든 업무수행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작업내용면에 있어 탈색, 염색, 퍼머넌트 등 다양한 업무수행에 따른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미용인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약 3,000여종으로 이중 30%는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환기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인들은 호흡기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3) 피부문제

직업성 피부질환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 혹은 악화되는 피부질환을 말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접촉피부염으로 자극성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나눌 수 있다. 피부질환이 전체 직업성 질환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다.

미용사는 특히 직업성 피부질환 중 화학약품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성피부염의 발생률이 높으며, 최근 각종 신물질이 개발되어 앞으로 직업성 피부질환의 빈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민영, 2011)

(4) 소화기계 문제

인간의 생활양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식생활이다. 그러나 미용업은 아직 예약제가 정착되지 않아 미용사가 휴식시간, 식사시간, 작업시간 퇴근시간 등을 본인의 의지대로 계획하는데 제약을 받게 소화기계의 건강문제를 갖게 되는데,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미용사가 58.8%로 나타났다(이민영, 2011).

양미경(2008)의 연구에 의하면 미용사들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8%,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20분 사이가 60.2%, 식후 휴식시간은 '없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았다.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편이다'라는 응답이 42.0%, 식사의 내용은 '대충 있는 음식만 먹는 편이다'가 63.5%, 식단에는 43.1%가 본인의 식단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박소정(2003)의 연구에 의하면 소화호흡기계 증상에서는 2점 만점 중 소화불량, 위산과다(1.032), 비염증상(1.132)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5) 정신·신경계 문제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환경요소와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오는 불일치로 발생하는 심리적, 생리적 불균형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Schuler, 1980).

미용사들은 복잡한 인간관계 유지, 급증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고객의 높은 기술 수준 요구, 부적절한 근무환경, 업무량 과중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른 직업인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정휘, 1988).

김춘득(2005)의 연구에서 미용사는 신기술에 대한 부담, 반복적인 작업,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에서 탈염색약 노출, 월 휴일 수, 직무만족도 및 스트레스관리 정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박소정(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신경계 증상에서는 2점 만점 중 두통(1.172), 권태감(1.127), 피로감(1.020)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2) 미용사의 건강문제의 해결방안

이민영(2011)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보건을 위한 직업성 질환예방 교육프로그램이 필요성과 응용에 대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며 가끔 응용할 생각기 있다'가 43.4%로 가장 많았고, 노희송(2004)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미용사의 36.2%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향후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미용사는 전체의 83.1%였다. 즉 미용사는 본인들의 직업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건강한 직업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근골격계 문제

미용사는 업무특성상 근골격계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완하고

자,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적으로 긴장되는 근육으로 이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겨 테니스 엘보우, 무균성 관절염 등이 호발한다. 그러므로 평소 쓰지 않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근무시간 중에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나 점심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체 근무 직원들의 단체 스트레칭 운동을 권장할 수 있다.

(2) 호흡기계 문제

미용실은 독한 화학물질의 냄새가 많이 발생하며, 미용사들은 이것을 호흡하면서 호흡기계에 문제가 생긴다. 새로운 자연성분의 미용재료가 획기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현재 화학제품의 사용은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용실의 환기가 필수적이다. 미용실 개업 시 환기시설을 필수 조건으로 하여 개업허가를 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과 문의 면적당 넓이, 환풍기 등의 시설은 개업의 필수 조건으로 되어야만 한다.

(3) 피부문제

미용사가 처음 취업을 해서 부딪치는 문제는 손의 접촉성 피부염이다. 손의 피부가 헤어지고, 갈라지며 소양증과 통증이 동반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고무장갑을 끼고 샴푸, 염색, 퍼머 등을 해야 하며, 자주 핸드크림을 발라주어야 한다. 그러나 바쁜 미용실에서 고무장갑을 뺏다 꼈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과거부터 있어왔던 경향이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다 그런 것'이라는 개념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도록 해야한다.

(4) 소화기계 문제

미용업은 아직 예약제가 정착되지 않아 식사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 또한 대부분 오후 8-9시까지 일을 하나, 점심만 제공되는 미용실이 대부분이어서, 귀가 후 저녁을 먹을 시 저녁식사시간이 너무 늦어져 건강에 위해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미용계에도 예약제를 정착하고, 식사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동료와 협업을 하도록 해야겠다. 또한 미용사들의 건강을 위해 식사 및 휴식공간의 환경정비와 식사 시간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5) 정신·신경계 문제

미용사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작업을 하고 있다. 미용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작업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미용사들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업장 내·외의 미용사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규칙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장을 만들고, 부족한 기술의 습득을 위한 정보의 장으로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일에서 한 발 떨어져 휴식할 수 있도록 운동, 레져,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결론

미용사들은 근골격계 문제, 호흡기계 문제, 피부문제, 소화기계 문제, 정신·신경계 문제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문제는 '경력미용사의 신체증후근'이라 불릴정도로 고정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이 물론 가장 중요하나, 이것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미용실 자체의 체계의 개혁, 미용사 건강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정부의 미용사 건강보호 관련 개몽활동 및 시행규칙의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영숙, 이현주(2001). "미용사들의 건강자각 증상의 실태 및 원인분석", 한국미용학회지, 7(1).

근로복지공단, 경견완장애 업무상 직업병 인정현황(국회노동환경위 제출자료), 1997.

김상은(2002). 일부지역 미용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득(2005) 미용사들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한국미용학회지, 11(3).

노희송(2004). 미용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행위 예측,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정(2003), 광주지역 경력미용사들의 건강장애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1).

박수경 외(2000). 미용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장애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2(3).

박종, 김혜향, 김신월(2004). "일부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2).

성소영(2001). 미용업무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해경(2005). "미용사의 건강장애 요인분석",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6(3).

송준옥(2012). 미용사의 건강증진 행위와 스트레스 관련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미경(2008). 미용사들의 식사 패턴과 식사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도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9(2).

윤지성(2013).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작업자세 위험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호소율,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민영(2011). 일부 미용종사자의 직업관련성 질환발생 현황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 동덕여대 비만향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화(2013). 피부미용사의 자겁특성과 근골격계 증상의 상관성, 고신대학교 보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Hales TR, Sauter SL, Peterson MR, Fine LJ, Anderson VP, Schlhifer LR, Ochs TT, Bernard BP.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visual display terminal users in a telecomunications company. Ergonomics 1994;37(10):1603-21.
Hurrell, Jr, JJ and Murphy LR, Psychological Job Stress. In: Rom WM, editors.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Medicine. 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Raven Publisher;1998. 905-914, 937-96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Nonfatal occupational illnesses by category of illness. private industry(92-95).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March 1997.

한국 전통 청색의 고유성

이 경 희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1. 연구목적

민족마다 고유한 민족문화가 있듯이 색채문화에서도 민족별로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색채감정을 갖고 있다. 한국 전통색에는 한국인의 색채감정의 고유성이 응축되어 있다. 한국 전통색이란 오랜 세월동안 한국의 역사 속에 전해져 온 색채로, 한반도의 독특한 자연풍토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색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 전통색은 한국인의 색채 역사 속에서 널리 애용되어져 왔고, 현재도 그 색명과 색조, 그리고 색채감정이 계승되고 있는 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전통색이란 시대를 초월하여 민족의 색채감각 속에 살아있는 색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색의 연구는 지나간 색채역사의 연구임과 동시에 금일적인 연구이기도 하다. 현대는 서구중심의 다량의 색채정보가 발신되어 자칫하면 외래의 색명과 색조의 유행 속에 전통색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 색명에서는 이미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 현행 관용색명에는 전통색명에 유래한 청색계 색명이 감색, 군청, 남색, 옥색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통색에 응축되어 있는 한국인의 색채감정을 이해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색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통색의 현대적인 이해와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색 중, 청색의 색명과 색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문헌고찰을 통한 청색계 색명의 조사

조선왕조실록, 규합총서, 한양가, 임원경제지와 같은 고문헌에 기록된 청색계 색명을 추출하였다.

2.2 유물측색을 통한 청색계 색조의 조사

궁중유물전시관 및 박물관 등에 보존된 조선 왕조의 유물과 조선 말기의 염직품의 색조를 시감비색 및 색채색차계(Minolta CR-300)를 통한 측색조사를 실시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Lee Kyung-Hee Tel.+82-54-478-7713 Fax.+82-54-478-7710
E-mail : k.lee@kumoh.ac.kr

3. 결과 및 고찰

3.1 문헌에 나타난 청색계 색명

한국의 전통색명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분화되어 조선시대에는 150색 이상의 가장 다수의 색명을 나타낸다. 이 색명에는 중복되는 색도 있지만, 전 시대인 고려시대에 비하여 크게 색명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색의 분화가 다양했음을 의미하고, 염색 시 색과 색의 혼색인 교염(交染)에 의해 중간색이 많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조선인이 미묘한 색의 차이를 구분해 쓸 수 있는 세련된 색채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매염제 사용 등의 염색기술이 발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색명 중 청색은 분화가 컸던 색중 하나인데, 이것은 조선인의 청에 대한 기호도와 활용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도 쪽(藍)을 심어 쪽물을 들일 정도로 백성에게 가장 친근한 색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청색계의 출현색명은 벽(碧), 남(藍), 청(靑), 심청(深靑), 표(縹), 복청(福靑), 북청색(北靑色), 청벽(靑碧), 아청(鴉靑), 유청(柳靑), 천청(天靑), 단청색(蜑靑色), 청조색(靑早色), 황유청(黃柳靑), 청유청(靑柳靑), 포두청(包頭靑), 담청(淡靑), 회청(灰靑), 천청(淺靑), 옥색(玉色), 심옥색(深玉色), 천남(天藍), 감색(紺色), 남송(南松), 청옥색(靑玉色), 포도청(葡萄靑), 심람(深藍), 남간(藍間), 취람(翠藍), 연남(軟藍), 암람(黯藍), 일람(日藍), 이람(二藍), 양람(洋藍0, 품남(品藍), 남양(藍兩), 표람(縹藍) 등의 37색이다. 이러한 청색계 색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기본색명, 기존 색명이 조합된 색명, 수식어와 기본색명이 조합된 색명,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본색명

청색계의 기본색명은 벽(碧), 남(藍), 청(靑), 표(縹) 등이다. 기본색명은 청색계의 기본이 되는 색들을 가리키는 색명으로, 저마다 고유의 색조를 가지고 있다.

2) 색명의 조합

기본색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색명은 기본색명 두 가지가 합하여져 이루어진 색명이다. 즉, 청벽(靑碧), 청옥색(靑玉色), 포도청(葡萄靑), 표람(縹藍) 등이다. 이러한 색명은 색조가 두 기본색의 중간 색조를 나타내는 색명이라고 생각된다.

3)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

전통색의 색명에는 기본색명 위에 수식어가 붙어 농색, 담색, 명색, 암색 등의 색조를 나타내었다. 농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종류를 보면, 청색계 색명의 수식어가 다양하다. 청색계의 농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심(深)과 암(黯)이, 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담(淡), 천(淺), 연(軟)이 나타났다.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색명은 심청(深靑), 담청(淡靑), 천청(淺靑), 옥색(玉色), 심옥색(深玉色), 연남(軟藍), 심람(深藍), 암람(黯藍) 등으로 농담색을 나타낸다. 한국전통색에서 농담색은 주로 3단계로 표현하였다. 심, 천의 수식어를 붙여 심청, 청, 천청과 같은 3단계의 농담색을 표현하였다. 이때 심은 명도가 다소 낮고, 채도가 비교적 높은 색채이다. 천은 명도가 높고, 채

도가 낮은 색채이다.

4) 기타 청색계 색명

청색의 색명에는 색명 앞에 사물의 색조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인 아청(鴉靑), 포도청(葡萄靑), 유청(柳靑) 등의 색명도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청색계의 다양한 분화색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청색계에 대한 기호가 컸던 것과 색채활용도가 컸던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1처럼 청색계 색명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농담색과 변화색조를 나타내었다.

<표 1> 청색계 색명의 구조

구조	청색명	구조	청색명
천(淺)	淺靑	암(黯)	黯藍
담(淡)	淡靑	천(天)	天靑, 天藍
연(軟)	軟藍	색조	黃柳靑, 靑柳靑, 灰靑 翠藍, 鴉靑
심(深)	深靑, 深玉色, 深藍	두가지 색명	靑碧, 靑玉色, 葡萄靑, 縹濫

3.2 유물 측색을 통해 본 청색의 색조

조선시대의 청색계 유물은 관복(官服), 전복(戰服), 구군복(具軍服), 철릭(天翁)과 같은 남성복에 많이 나타나고, 여성복에는 당의(唐衣) 등이 있다. 이러한 유물을 시감비색과 색채색차계(Minolta CR-300)로 측색한 결과를 통해 본 주요 청색의 색조는 표2와 같다.

<표 2> 주요 청색의 색조

청색계 색명	HV/C	청색계 색명	HV/C
靑玉	3.5G6.1/2.8	群靑	6.4B2.4/1.5
玉色	6.5G7.7/1.9	鴉靑(靑玄)	0.9PB2.3/2.0
靑綠	8.1BG4.2/3.8	藍	6.7PB1.9/6.0
淺靑	5.1B3.8/3.3	靑	6.2P2.5/5.2

■ **참고문헌**

1) 金東旭(1979), “增補韓國服飾史硏究”, 亞細亞文化社, pp.3-448.
2) 朝鮮總督府中樞院編(1987), “風俗關係資料撮要”, 國書刊行會, pp.1-851.
3) 憊虛閣李氏(1992), “閨閤叢書”, 寶晋齋, pp.143-154.

4) 李相恩(1992), “朝鮮王朝服飾史論”, 東方圖書, pp.11-449.
5)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4), “조선왕조실록 주석색인”, 천풍전산인쇄사, pp.9-783.
6) 서유구 지음, 정명현 외 옮김(2012), “林園經濟志”, 임원경제연구소, p.678.

미용 서비스 품질이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세희 · 류은정*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첫째, 미용서비스의 주 이용고객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용 서비스품질의 요인을 파악하고, 둘째, 각 서비스품질이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서비스 가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헤어미용 산업은 미용시장의 양적 증가와 함께 유명 프랜차이즈점의 확대, 매장 규모의 대규모화, 미용업 종사자들의 학력수준 향상 등의 많은 질적 변화를 보이며 날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용 서비스품질 개발이 필요로 한다. 미용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미용 서비스품질과 고객 만족간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미용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거나 일부 요인만 포함시키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 세분화된 미용 서비스품질의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 서비스품질 고유의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고객 지향적인 미용 서비스품질 요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서비스품질의 역할에 비추어 강조되는 것이 기존고객의 유지 및 고객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고객 충성도의 구축이다. 새로운 고객의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의 재방문과 구전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미용 서비스품질 지각에 따른 고객관계의 형성 과정에는 서비스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은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미용실을 이용한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8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응답 내용이 미흡한 65부를 제외한 61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보면 20세~29세와 40세~49세가 각각 156명

Corresponding author : Ryou Eunjeong Tel. +82-55-213-3495 Fax. +82-55-213-3490
E-mail : ejryou@changwon.ac.kr

(25.4%)이었으며, 50세~59세가 153명(24.9%)이며, 30세~39세가 150명(24.4%)으로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 여부는 기혼자가 345명(56.1%)이었고, 미혼자는 255명(41.5%)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 중이 321명(52.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직업에서는 직장인이 311명(50.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전업주부가 159명(25.9%)으로 많았다. 월 평균 소득에서는 100~200만원 미만이 209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155명(25.2%)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거주지는 경상남도가 332명(54%)으로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283명(46%)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에는 미용 서비스품질, 서비스 가치, 행동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Cronbach's a, 중다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고객의 미용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미용실 이용 빈도는 2달에 한번이 21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달에 한번 이상이 167명(27.2%)으로 많았다.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술은 퍼머가 217명(35.5%), 커트가 215명(35%)으로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미용실에서의 지출비용은 5만원~10만원 미만이 242명(39.3%)으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만원~5만원 미만이 159명(25.9%) 순이었다. 이용하는 미용실 유형에서는 개인 미용실이 385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 브랜드 미용실이 117명(19%),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113명(18.4%)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전환행동은 한 미용실만 주로 이용한다는 경우가 399명(64.9%)으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미용실 선택 기준은 미용 기술이 282명(45.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주위사람의 추천이 109명(17.7%), 합리적인 가격이 101명(16.4%), 미용사와의 친분이 68명(11.1%)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미용실 선택의 정보원은 휴대폰(MMS,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정보 획득이 282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109명(17.7%), 가족이 101명(16.4%)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미용실의 가장 선호하는 판촉상품으로는 할인쿠폰이 21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적립금 제도가 162명(26.31%), 시즌별 특별 이벤트가 142명(23.1%)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 서비스품질의 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전문성, 평판성 등의 7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변량은 66.54%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83 사이에 분포하였다.

셋째, 미용 서비스품질이 서비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8.9%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24.249). 미용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 신뢰성(β =.426)이 가장 크게 서비스 가치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전문성(β =.284), 평판성(β =.102) 요인의 순으로 서비스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기적 관계구축을 위한 고객 행동의도 중에서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미용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 전문성(β =.183) 만이 유일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구전의도에 대해서는 미용서비스의 전문성(β =.100), 유형성(β =.094) 품질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비스가치(β =.066)이 직접 영향을 미쳤다.

4. 결론

첫째, 미용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미용실 이용 빈도는 2달에 한번과 1달에 한번 순으로 많았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술은 퍼머와 커트이었고, 미용실 지출비용은 5만원~1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용하는 미용실 유형에서는 개인 미용실, 지역 브랜드 미용실, 프랜차이즈 미용실 순으로 나타났고, 미용실 전환행동은 한 미용실만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용업체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성도를 형성하기 위한 고객관계 구축 서비스품질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용실을 이용할 때 선택하는 기준은 미용기술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주위 사람의 추천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서비스에서 전문성 품질의 개발과 재방문과 추천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미용실 선택의 정보원은 휴대폰을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많았고, 친구가 그 다음 순이었으며, 선호하는 촉진상품으로는 직·간접의 할인혜택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변인의 하위 요인을 분류 분석한 결과, 미용 서비스품질의 요인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전문성, 평판성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SERVQUAL 모형(Parasuraman et al., 1985)과 SERVPERF 모형(Cronin & Taylor, 1992)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성과 평판성이라는 새로운 미용 서비스품질 요인을 개발한 결과이다. 미용 산업의 핵심적 요소인 인적 서비스 요인과 미용 산업의 현황에서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미용기업의 브랜드가치와 명성에 대한 평판성 요인은 서비스품질은 미용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미용 서비스품질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용 서비스품질이 서비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용 서비스품질 요인 중 신뢰성, 전문성, 평판성 요인이 서비스 가치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지불한 비용이나 시간, 타 미용실에 비해 적절한 가격, 종업원에 대한 신뢰, 이용 고객에게 가격 할인 등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신뢰성 품질, 헤어시술에 관한 전문기술 능력, 브랜드 가치와 긍정적 평판 등에 대한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째, 미용 서비스품질과 서비스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재방문 의도에는 미용서비스의 전문성 품질이 영향을 미쳤고, 추천 의도에는 유형성과 전문

성의 미용 서비스품질 요인과 서비스 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용서비스업체의 경영 전략으로 미용기술의 전문성과 유형성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의 재방문과 추천 의도를 높여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고 신규고객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용서비스는 무형적 특성이 더 크게 강조될 수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일대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인적 서비스는 더 강력한 관계품질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 고객관계로 이어지게 한다.

■ 참고문헌

Cronin, J. J. & Taylor, S. A.(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3), pp.55-68

Parasuraman, A., Zeithaml, A. & Berry L. L.(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Fall), pp. 41-50.

준비위원장 : 배수정

준 비 위 원 : 김혜정, 염혜정, 신상무

사 무 국 장 : 이정민

간　　사 : 한유정

주　　최 : 사단법인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후 원

(주) 패션그룹형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15 형지빌딩
Tel: 02) 3498-7200

교문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6
Tel: 031) 955-6111~4

경춘사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17-25호 경춘빌딩 101호
Tel: 02) 716-2502